

# 軍

Military History

# 史



2016. 12. 제101호

##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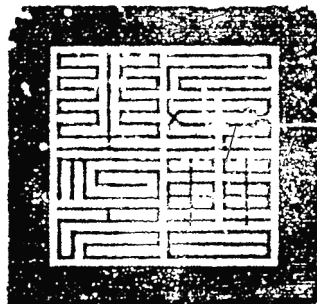
- 『(嘉慶)章安王氏宗譜』에 수록된 宣祖, 李德馨, 李舜臣 간찰 고찰
- 냉전 후기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INF) 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6.25전쟁 시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연구
- 한국전쟁기 미국의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
- 조선후기 拳法의 군사무예 정착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 壬辰倭亂 직후 軍需物資 확보와 軍需交易의 영향
-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고찰
- 조선후기 訓練都監 軍法の 특징과 梟示刑의 집행 양상
- 17세기~18세기 전반 어영청 재정의 운영과 변화
- 高麗中期의 軍職 '指諭'와 '行首'
- 고려 태조 왕건의 鎭邊 鎭營 운영에 대한 검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軍史

第101號  
2016. 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 Contents | 2016. 12. 제101호

### 기획특집

- |     |   |     |
|-----|---|-----|
| 1   | ▶ 『(嘉慶)章安王氏宗譜』에 수록된 宣祖, 李德馨, 李舜臣 간찰 고찰    | 박현규 |
| 41  | ▶ 냉전 후기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INF) 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 김재엽 |
| 79  | ▶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 양철호 |
| 127 | ▶ 6.25전쟁 시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연구              | 변혜석 |
| 177 | ▶ 한국전쟁기 미국의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                 | 이상호 |
| 203 | ▶ 조선후기 拳法の 군사무예 정착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 최형국 |
| 235 | ▶ 壬辰倭亂 직후 軍需物資 확보와 軍需交易의 영향               | 윤여석 |



# 軍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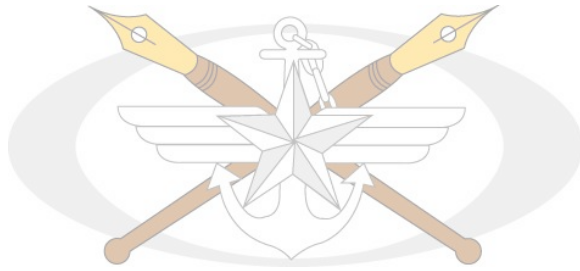


## Contents | 2016. 12. 제101호

273	▶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고찰	석영달
303	▶ 조선후기 訓練都監 軍法の 특징과 梟示刑의 집행 양상	심재우
333	▶ 17세기~18세기 전반 어영청 재정의 운영과 변화	송기중
365	▶ 高麗中期의 軍職 ‘指諭’와 ‘行首’	김낙진
397	▶ 고려 태조 왕건의 기병 운영에 대한 검토	김명진

### 부 록


1. 연구소 동정 .....	429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	431
3. 『軍史』誌 投稿案内 .....	433
4. 연구윤리예규 .....	436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嘉慶)章安王氏宗譜』에 수록된 宣祖, 李德馨, 李舜臣 간찰 고찰\*

박현규\*\*

- 
1. 서론
  2. 王士琦 생애와 집안
  3. 『(嘉慶)章安王氏宗譜』 중 朝鮮君臣 간찰의 종류
  4. 『(嘉慶)章安王氏宗譜』 중 朝鮮君臣 간찰의 분석
  5. 결론
- 부록. 宣祖, 李德馨, 李舜臣 간찰 전문과 해석

### 1. 서론

최근 국내외 학술계와 관계기관에서는 해외 한국학 자료의 조사와

---

\* 順天郷大學校 學術研究支援論文,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와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와 공동주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것임.

\*\* 順天郷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자료 공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해외 한국학 자료는 한국학의 풍부성과 세계화를 지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 우리들은 해외 한국학 자료를 통해 국내에 산실되었거나 잔결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해외 학자나 연구 기관들도 자국에 소장된 한국학 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더욱 깊게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예로부터 한국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중국 대륙을 돌아다보면 도처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많은 문헌과 유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임진왜란은 16세기말에 발생한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었다.<sup>1)</sup> 일본이 대규모 군사를 보내어 조선을 침략하면서 전쟁이 발단되었고, 곧이어 명나라가 자국 바깥에서 방어한다는 목적 아래 대규모 군사를 조선에 파견하면서 전쟁의 당사국이 동아시아 삼국으로 확대되었다. 결과론이지만 전쟁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모두 막대한 인적과 물적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조대 교체 내지 정권이 바뀌게 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대로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접촉을 통해 상대국과의 문화 소통을 가져다주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했다. 그 한 예가 명군 인사들이 한반도에서 수집했던 각종 문헌들을 본국으로 가지고 가서 중국 대륙에 알리는 통로 역할을 해주었다.<sup>2)</sup>

명 王士琦는 임진왜란 때 참정의 신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와서 순천 倭橋, 노량해전 등 각종 전투에 나서는 西路軍 劉綎과 水路軍 陳璘을 감군하는 임무를 맡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한반도에서 취득한 각종 문헌들을 본국으로 가지고 갔다. 『(嘉慶)章安王氏宗譜』는 1816년(청가경 21)에 절강 台州와 그 일대에 거주하는 章安(현 台州 椒江 북부)

1)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사는 金暉綠의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군사』, 10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9, 67~118쪽) 참조.

2) 朴現圭, 「임진란 시기 明軍 인사의 문헌 수집과 편찬」, 『國文學研究』, 23집, 國文學會, 2011.5, 63~91쪽.

왕씨의 집안에서 편찬된 족보이다. 이 책자 속에 임진왜란 때 왕사기가 宣祖, 李德馨, 李舜臣 등 조선군신으로부터 받았던 간찰 8통이 수록되어 있다.

2013년 6월에 필자는 臨海市博物館 丁伋으로부터 『(가경)장안왕씨종보』에 수록된 조선군신의 간찰 8통을 옮겨놓은 전록본을 입수했고, 2014년 9월에 절강 우인들을 통해 『(가경)장안왕씨종보』 원본을 입수하고 대조작업을 펼쳤다.<sup>3)</sup> 결론부터 도출하지만 조선군신 간찰 8통 가운데 7통이 각종 국내 문헌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자료이고, 또한 순천 왜교전투와 노량해전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전쟁의 흐름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어 사료 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가경)장안왕씨종보』에 수록된 조선군신 간찰을 자세히 분석 고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경)장안왕씨종보』 원본에 수록된 조선군신 간찰의 내용, 배경, 작성일, 가치 등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2. 王士琦 생애와 집안

章安 王氏의 선대는 太原에서 살았다가 훗날 山陰(현 紹興)으로 이주했다. 남송 紹熙 연간에 王燠이 仙居縣尉에 임명되어 선거로 이주했다. 아들 王貴가 선거에서 임해 黃沙로 이주했고, 왕귀의 6대손 王伯澄이

3) 丁伋, 『(嘉慶)章安王氏宗譜』所見王士琦抗倭援朝史料, 臨海市博物館 유인본, 2000.10. 정급의 말에 의하면 그는 梁光軍의 도움을 받아 仙居 왕씨 집안에 소장된 『(가경)장안왕씨종보』를 보고 조선군신 간찰을 전록했다고 했다. 아쉽게도 정급의 전록본에는 잘못 전록된 현상이 일부 보인다. 예를 들면 선조 제1통과 제2통의 순서를 서로 바꾸어 놓았고, 이순신 간찰의 작성일인 10월 28일을 10월 18일로 오기했다. 2014년 9월에 필자는 溫嶺市地方志辦公室 전주임 王英礎, 台州市圖書館 부관장 林君榮을 통해 현 黃岩 院橋 岫里街 王守河가 소장한 『(가경)장안왕씨종보』 원본 자료를 접했다. 본 논문에서는 『(가경)장안왕씨종보』 원본을 저본으로 삼는다.



다시 임해 성내로 이주했다. 왕백징은 왕사기의 11대조이다. 임해 巾山 龍興寺 앞쪽에 소재한 十傘巷이 왕씨 집안의 세거지이고, 오늘날에도 일부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거리명 십산향은 관직에 나선 왕씨 사람들이 청백리로 이름이 나서 백성들이 萬民傘 10자루를 주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근자에 왕사기 증조부와 조부의 묘지명이 잇달아 출토되었다. 왕사기의 증조부 王景의 「明故東野王翁墓誌銘」은 大田劉村 小溪 서쪽에서 출토되어 한동안 빨래판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임해 鄭廣文紀念館에 소장되어 있다. 조부 王訓의 「明故勅封刑部主事聯峰府君墓誌銘」은 임해 汎橋鎮 延豐山에서 출토되어 현재 임해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부친 王宗沐은 1544년(가정 23)에 진사에 급제했고, 그 후 廣東參議,



절강 임해 왕사기묘소

山西右布政使, 副都御史, 刑部左侍郎 등을 역임했다. 왕중목과 아들 왕사기, 王士昌이 모두 어사 겸 순무를 지냈다고 하여 三巡撫라고 불렀다.

왕사기의 자는 圭叔이고, 호는 豐興이며, 왕중목의 차자이다.

1583년(만력 11)에 진사에 올라 南京工部主事に 올랐다. 1595년(만력 23)에 重慶太守로 있을 때 播州 楊應龍의 난을 진압하여 四川按察副使에 올랐다. 1598년(만력 26)에 山東參政에 올랐고, 경략 刑玠를 따라 한반도에 파견되어 일본군을 몰아냈다. 귀국 후 河南左布政司, 山西左布政 등을 역임했고, 1616년(만력 44)에 山西右都御使에 올랐다. 1618년(만력 46)에 巡撫江

南에 임명되었으나 부임 직전에 즐했다. 임해 張家渡鎮 王藏山麓에 묻혔다. 1956년에 농업 시설물 건축을 위해 왕사기 묘소 앞 석판을 옮기다가 그곳에서 金冠, 金簪, 玉器 등 많은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각종 부장품은 모두 절강성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오늘날 묘소 지역에 왕사기와 부인 鄧氏가 합장한 봉분과 옹종, 화표, 비정 등 여러 유물들이 남아 있다.

아래에 왕사기가 한반도에서 행했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본다. 1598년(만력 26; 선조 31) 6월에 欽差禦倭西路監軍 山東布政使司右參政의 신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sup>4)</sup> 8월 17일에 선조가 왕사기의 처소로 가서 만나 풍신수실 사망과 군량 보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9일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9월 6일에 다시 한양으로 올라와 군문 刑階와 만났다. 26일에 南原 龍頭山에 머물며 군대를 독려하며 군량 운송에 박차를 가했다. 10월 27일에 군량 수송이 심각하다며 조선 조정에게 품첩을 올렸다. 11월에 小西行長이 주둔한 순천 왜교로 내려가서 서로군 유정과 수로군 진린이 적극적으로 일본군 공략에 나서도록 감독했다. 노량해전 이후에 남원으로 되돌아왔다. 12월에 星州로 갔다. 이듬해 1월에 한양으로 돌아왔다가, 4월에 명 본진과 함께 중국 대륙으로 돌아갔다.<sup>5)</sup>

### 3. 『(嘉慶)章安王氏宗譜』 중 朝鮮君臣 간찰의 종류

장안 왕씨 족보인 『장안왕씨종보』는 1816년(가경 21)판, 1877년(광서

4) 감군 王士琦의 역할은 金暲綠의 「임진왜란시 명군의 監軍과 조명연합군의 작전」, 『정유재란 시기 여수반도 해전과 조명연합군』 국제학술대회 발표회, 2016.9.30, 21~38쪽) 참조.

5) 申鉉, 『象村集』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중 王士琦 조항.

3)판, 1946년(민국 35)판 등 여러 종이 전해오고 있다. 이들 가운데 편찬연도가 가장 빠른 1816년(가경 21)판 『(가경)장안왕씨종보』의 서지사항을 적어본다. 좌우쌍란, 11행 19자, 화구, 상흑어미이다. 판심제 하단에 “嘉慶丙子重修”라고 새겨져 있다. 『(가경)장안왕씨종보』 권3에 수록된 조선군신 간찰 8통을 정리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보낸 자	받는 자	통수	부 록
宣祖	王士琦	3	
李德馨	王士琦	4	
李舜臣	李德馨	1	밀찰: 이덕형 제2통 부록

또 이것들을 작성일자과 사건 배경에 대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	통수	일 자	배 경
宣祖	제1통	1599년 초	왕사가 공로 치하
	제2통	1598년 11월 19일 직후	노량대첩 치하
	제3통	1598년 11월 25일	노량대첩 치하
李德馨	제1통	1598년 10월초	순천 왜교전투
	제2통	1598년 11월 3일	남해 선공작전 검토
	제3통	1598년 11월 20일	노량해전 발발 소식
	제4통	1598년 12월	왕사기거사비
李舜臣		1598년 10월 28일	남해 선공작전 검토

이들 간찰은 주로 1598년(선조 31) 10월과 11월에 일어난 순천 왜교전투와 노량해전을 배경으로 삼았다. 선조 간찰 중 제2통은 노량대첩을 거둔 보고를 듣고 난 직후에 작성되었다. 제1통은 비록 노량해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나, 작년 가을에 군사가 나선 이후(自去秋行師之後)라는 말이 들어간 점으로 보아 1599년(선조 32)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사기는 1598년(선조 31) 6월에 한반도에 들어왔고, 8월에 전라도로 내려가 독전에 나섰다. 제3통은 1598년(선조 31) 11월 25일에 작성되었다. 제3통의 문구를 살펴보면, 『선조실록』 31년 11월 25일에 진린에게 회첩한 내용과 상당 부분 중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6) 『(가경)장안왕씨종보』 선조 제3통 간찰: “備聞大人督樓船之師, 扼賊露梁, 碎其餘鯨, 俘斬無算, 妖氛廓清, 威靈遠揚. 蓋小邦被兵七載, 始見斯捷, --- 時下嚴寒, 伏惟珍衛萬倍, 以慰瞻依, 不宣.”  
『선조실록』 31년 11월 25일조: “節下以樓船之師, 扼賊于露梁, 身先諸將, 奮勇直前,

이것은 아마도 명군 지휘 체계와 관련이 있다. 당시 조선 조정이 진린에게 보낸 회첩은 먼저 감군을 맡고 있는 왕사기에게 전달되어야만 했다.

이덕형 간찰 제1통은 순천 왜교전투를 배경으로 유정이 인질을 보냈다는 것으로 보아 1598년(선조 31) 10월초에 작성되었다. 제2통은 동년 11월 3일에 작성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제3통은 노량해전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난 다음날에 작성되었다. 제4통은 정확한 시기를 정하기가 다소 모호하지만, 왕사기가 전주에서 성주로 옮긴 1598년(선조 31) 12월경으로 추정된다. 이순신 밀찰은 1598년(선조 31) 10월 28일에 작성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 4. 『(嘉慶)章安王氏宗譜』 중 朝鮮君臣 간찰의 분석

##### 가. 순천 왜교전투

본격적으로 간찰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정유재란의 발발부터 순천 왜교전투까지 벌어진 전황부터 살펴본다. 1597년(선조 30) 1월에 일본군이 다시 대규모 군사를 한반도로 보내어 정유재란을 일으킨다. 이에 조선은 李元翼을 체찰사, 權慄을 도원수로 삼고, 또한 이덕형 등이 興復軍을 모집하며 방어에 나섰다. 명나라도 다시 대규모 원군을 한반도로 증파시켰다.

일본군이 한때 총 14만의 병력으로 경상도, 전라도의 상당 지역을 석권하고, 여세를 몰아 충청도로 밀고 들어와 한양을 향해 북상했다. 그러다가 9월에 직산전투에서 패전을 당하여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sup>7)</sup>

碎其餘鯨，俘斬無算，妖氛廓清，威靈遠暢。蓋小邦被兵七載，始見斯捷，--- 海上暴露，又值寒嚴，惟珍衛倍萬，不宣。”

7) 『再造藩邦志』 권2 (1597년 9월) 7일조. 직산전투에서 승전을 거둔 명 장수는 解生, 牛伯英, 楊登山, 頗貴 등이다.

다시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 지역으로 남하하여 울산으로부터 순천에 이르기까지 8개의 왜성을 쌓고 장기전을 대비했다.<sup>8)</sup> 직산전투 이후에 조명 연합군은 그동안 수세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고 남쪽까지 밀고 내려가서 여러 성에 나누어 주둔한 일본군과 대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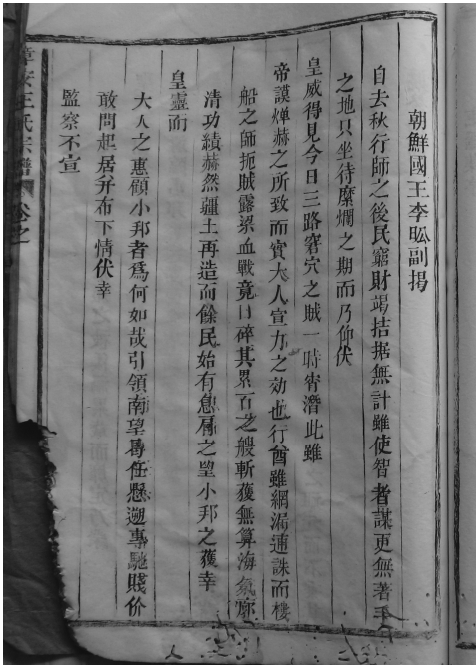
한편 해상에서도 육지와 비슷한 전쟁 양상이 벌어졌다. 1597년(선조 30) 2월에 그동안 남해 제해권을 장악한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체포 투옥되었고,<sup>9)</sup> 곧이어 그 자리에 원균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7월에 원균이 일본군의 간계에 빠져 삼도 수군이 거의 궤멸당하는 대패를 맞이했다. 원균이 대규모 삼도 수군의 전선을 거느리고 부산 앞바다로 진격했다가 성과 없이 돌아올 때 칠천량에서 매복해있던 일본 수군의 협공에 빠져 많은 선박이 격침되고 수군들이 거의 몰살당했다. 그때 백의종군으로 나선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어 삼도 수군의 재건에 나섰다. 9월에 명량해전에서 조선 전함 13척대 일본 전함 133척이라는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한 임전무퇴의 정신과 탁월한 작전으로 전함 31척을 격파시키는 대첩을 거두었다. 이로부터 일본군의 서해 진출을 막아내며 정유재란의 해상 전환점을 마련했다.

1597년(선조 30) 말부터 명 군부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楊鎬의 제의를 받아들여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한반도 지형이 험난하고 일본군의 주둔지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모든 군사력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공략하는 것보다 각 제장이 권역별로 나누어 담당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명 군부가 이 전략을 처음 입안했을 때 삼로로 나누어 육군 중심으로 편성했으나, 1598년(선조 31) 초에 여러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이 해상으로 상호 연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로군이 필요하다고 일부 수정하여 四路竝進전략으로 최종 수립했다.<sup>10)</sup>

8) 나동욱, 「韓國의 倭城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2013, 123~161쪽.

9) 『선조실록』 30년 2월 6일조.

10) 『선조실록』 31년 3월 29일조 楊鎬 자문.



『(嘉慶)章安王氏宗譜』 중 선조 간찰

사로병진전략은 육상의 삼로군과 바다의 수로군으로 나누어 각 해당 지역을 맡도록 했다. 동로는 麻貴, 중로는 李如梅, 서로는 劉綎, 수로는 陳璘이 각각 맡았다. 나중에 중로 이어매가 형 李如松의 전사로 요동총병으로 옮겨져, 그 자리에 董一元이 맡았다. 7월에 경략 刑玠가 한양에 당도하면서 명군은 조선군과 합동하며 사로병진전략을 수행했다. 동로군은 加藤清正이 주둔한 울산왜성(일명 도산왜성), 중로군은 島津

義弘이 주둔한 사천왜성, 서로군과 수로군은 연합하여 소서행장이 이끄는 순천 왜교성을 각각 공략하였다.

순천 왜교는 일명 曳橋이다. 1597년(선조 30) 9월에 소서행장이 왜성을 쌓기 시작하여 12월에 완성되었다. 순천 왜교성의 일본군은 경상도와 전라도 바닷가에 새로 쌓은 7개소 왜성, 1593년에 축성된 기존의 왜성들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특히 거리가 가까운 남해왜성과 매우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sup>11)</sup> 남해왜성에 주둔한 平義智(宗義智)는 소서행장의 사위였다. 소서행장이 1598년(선조 31) 11월 20일에 철수할 때까지 조명연합군의 공격을 굳건히 지켜낼

11) 「순천왜성의 구조와 축조기법」, 『順天 劍丹山城과 倭城』, 順天大學校博物館, 順天市, 1997, 쪽110~111; 趙溪來, 「정유재란과 順天倭城論 재검토」, 『文化史學』 27호, 2007, 827~852쪽.

정도로 왜교성은 아주 견고했다. 성곽 동남쪽은 최근 여수 울촌 제1산업단지로 조성되어 바다가 매립되었지만, 예전에 배가 드나드는 해상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다. 밀물 때 큰 배가 드나들 수 있어 바다로의 탈출이 가능했고, 썰물 때 커다란 벌이 펼쳐져 성곽 방어가 용이했다. 성곽 안 가장 높은 곳에 5층으로 된 천수각이 세워져 있었는데, 오늘날 천수각 터에 올라가 보면 사방을 훤히 조망할 수 있다. 내륙 안쪽으로는 성곽을 3겹으로 쌓아두었고, 성곽 아래로 땅을 파내고 바닷물을 흘려 보내어 해자 역할을 하였다. 양쪽 문지 사이를 다리로 연결해놓았다. 먼 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예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일명 예교라고 불렀다.

정유왜란 때 명나라 종군화가가 그린 『征倭紀功圖卷』과 19세기에 다시 그린 『征倭紀功圖屏』이 있다. 후자 『정왜기공도명』은 원래 12폭이나, 나중에 2점으로 나뉘어져 1900년대초 주일 네덜란드 공사가 일본에서 구입해 유럽으로 가져갔다. 한 점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런던에서 구매했고, 다른 한 점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극동아시아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2)</sup> 여기에 조명연합군과 일본군 양측 진영이 순천 왜교성, 노량해전 등에서 전투를 펼치고 있는 장면이 자세히 담겨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征倭紀功圖屏」

12)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 그린 병풍그림 한국에 왔다」, 『한국일보』, 2012년 2월 1일자. 「노량해전-왜성전투-남해도 소탕작전 '생생」, 『동아일보』, 2012년 2월 1일자.

159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로군과 수로군은 왕사기의 감군 아래 대규모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소서행장이 주둔한 순천 왜교성 공략에 나섰다. 육지에서는 유정이 이끄는 명군과 도원수 權慄, 전라병사 李光岳 등이 이끄는 조선군이 합동한 서로군이 성곽 공격에 나섰다, 바다에서는 진린이 이끄는 명 수군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합동한 수로군이 해상 공격과 퇴로 차단에 나섰다. 당시 전황의 흐름으로 보아 조명 연합군이 순천 왜교성을 공략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였다. 순천 왜교성을 지키고 있는 소서행장의 입장에서는 豊臣秀吉의 사망으로 전황의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다고 여기고 조명 연합군과의 결전보다는 퇴로를 확보하여 본국 일본열도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계락을 취하고 있었다.

우익정 이덕형은 왕사기에게 보낸 간찰 제1통에서 지금이 순천 왜교성의 소서행장을 섬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의 전황 판세와 지리적 형상으로 보아 소서행장이 주둔한 순천 왜교성이 한쪽에 치우쳐져 고립되어있으니, 수륙 연합군이 합동하여 왜교성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반드시 승전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군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군은 왜교성 공략에 대해 한마디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수장 유정은 처음부터 결전이라는 강렬한 의지보다는 잔피와 화의에만 관심을 쏟았다.<sup>13)</sup> 겉으로는 왜교성을 공략하는 척을 하나 전의가 없는 전투 준비만 했고, 안으로는 소서행장과의 화의를 통해 퇴로를 열어줄 작정이었다. 남원에 도착한 직후에 소서행장으로부터 강화를 바란다는 서찰을 받고 자신의 계책이 이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유정의 계책은 강화를 핑계로 소서행장을 만날 때 기회를 틈타 사로잡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덕형은 유정이 소서행장을 유인한다며 차관이 적의 진영을 오가며 인질들을 보낸다는 정보를 듣고선 이 계책이 장차 실패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선조에게 올린 치계에서 유정의 계책이 위태로운

13) 『선조실록』 31년 10월 12일조 이덕형 치계.



방법이며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우려했다.<sup>14)</sup> 또 왕사기에게 간찰을 보내어 유정의 계략에 대해 기회주의적 작태라며 은근히 불만을 토로하고, 소서행장이 인질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장전술이라며 아군이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 요청했다.

趙慶男의 『亂中雜錄』에 유정이 부총병 吳廣에게 명하여 인질 40명을 데리고 왜성으로 들어가 소서행장에게 보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sup>15)</sup> 결과론이지만 유정이 회담을 가장하여 소서행장을 생포하는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표면적인 이유야 유정의 부하가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지만, 소서행장은 애당초 유정의 계략을 역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인질을 받아들이고 강화 장소에 나섰다. 인질사건 이후에도 소서행장은 계속 순천 왜교성을 탈출할 기회를 잡기 위해 속임과 뇌물을 통해 유정의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와 반대로 이덕형은 수로군 진린에게 거는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다. 왕사기에게 서찰을 보내어 진린의 수로군이 해상에서 좋지 않는 환경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진격을 하여 적극 공략에 나서기를 강력 요청했다. 즉, 수로군이 바다를 통해 羅老島까지 진격을 했으나 물때가 맞지 않아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재빨리 왜교성 앞쪽 突山島로 진격하여 해구를 차단해야 한다. 소서행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열도로 되돌아가는 해상 퇴로가 막히는 것이다. 이번이야 소서행장을 섬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수로군에게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순천 왜교성에서 펼쳐진 전황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유정의 수로군이 처음에 소서행장을 유인책을 실시하다가 실패했고, 곧이어 군사 총동원령을 내려 진격하여 성채 몇 개를 파괴하는 등 약간의 전과를 거두었으나, 끝내 소서행장의 완강한 방어로 막혀 더 이상 전과를 거두지

14) 『선조실록』 31년 9월 7일조 이덕형 치계.

15) 『亂中雜錄』 무술년 10월 16일조: “劉綎以吳副摠具四十人, 入送倭橋, 行長大設宴享, 接副總于城外, 吳廣付其人面議和事而退.”

못했다. 이후 유정은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우고 뒤로 물러나 시간만 끌고 있었다.

당시 昭義將 참모로 순천 왜교성 전투에 나선 陳景文이 날짜별로 기술한 「曳橋進兵日錄」이 있다. 여기에 서로군의 유정이 몇 차례 성곽 공세에 나섰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싸움에 뜻을 두지 않고 자기 군사를 이끌고 후방으로 퇴각한 과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때 도원수 권율이 결사대 5백 명을 조직하여 선공에 나서겠다고 결정을 촉구하자, 유정은 전투에 실패하면 황제의 위엄만 손상을 입는다며 조선군의 진격을 막았다.<sup>16)</sup>

한편 진린의 수로군은 이순신이 거느린 조선 수군과 함께 나로도 해역까지 진출했으나, 이덕형의 지적처럼 때마침 물때가 맞지 않고 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더 이상 진격을 멈추고 잠시 그곳에서 머물렀다. 이후 수로군이 다시 광양만으로 진격하여 왜교성 앞바다에 소재한 獐島를 점거하면서 소서행장이 바다를 통해 퇴각하려는 길목을 차단했다. 수로군이 한때 서로군과의 합동 작전에 따라 순천 왜교성 아래 바다 입구까지 진격한 적이 있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심지어 명나라 전함 여러 척이 이곳 바다의 물때를 알지 못해 벌에 걸리어 오도자기 못하자, 오히려 일본군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후 수로군이 단독으로 몇 차례 해상 공격을 시도했으나, 물때가 자주 바뀌는 자연 환경과 서로군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사실 서로군 유정과 수로군 진린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 내지 경쟁 심리가 아군 연합군의 지휘체계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서로군 유정과 수로군 진린이 모두 남에게 지지 않는 성품을 가져 서로 통솔권을 잡겠다고 마찰을 일으켜 일관된 합동 작전을 치르기가 어려웠다. 진린과 이순신이 이끄는 연합 수군이 바다로 왜성을 공략하여

16) 陳景文『剡湖詩集』卷下之下「曳橋進兵日錄」.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으나, 유정의 서로군이 약조대로 진격해오지 않아 오히려 일본군의 역습을 받아 한때 커다란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이덕형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선조에게 올린 치계에서 순천 왜교에서 일어난 양 진영 합동군의 문제점과 서로군 유정의 작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17)</sup>

한편 중로군과 동로군의 전황은 난관에 봉착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로군 董一元은 島津義弘이 지키는 사천왜성 공략에 나서 성문 한쪽과 성가퀴 몇 곳을 깨뜨렸으나, 동일원의 조급한 작전과 명군 진영의 우발적인 사고로 끝내 실패하였다. 유격 彭言古 진영에 보관된 화약이 잘못 다루어 폭발하자 군사들이 일시에 놀라 큰 혼란에 빠졌다. 일본군이 이 틈을 타서 성문을 열고 역공을 가하자, 명군이 일시에 무너져 병사 수천 명을 잃고 후방으로 물러났다. 지난 경리 양호가 이끈 울산왜성 공략에 뒤이어 동로군 麻貴가 수만 명을 거느리고 다시 한 번 공략에 나섰지만, 加藤清正이 지키는 울산왜성이 험준하고 해자를 만들어 바닷물을 끌어와 지키는 지형과 성곽을 완강하게 지키는 방어전술로 인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중로군의 패전 소식이 전해오자 전의를 상실하고 후방으로 물러났다.

이덕형은 왕사기에게 보낸 간찰 제1통의 기록처럼 당시 전황의 고착 상태를 풀 수 있는 계책을 내놓았다. 지금 전황에서 승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귀결은 서로군에 있다. 동로군, 중로군의 정병 각 1만 병을 차출하여 서로군 지원에 나섰기를 바랐다. 명 군부가 이덕형의 계책에 대해 동의했지만, 즉각 병력 이동을 실행시키지 않았다. 이덕형은 자꾸 시일만 끌면 순천 왜교성의 소서행장을 붙잡을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노심초사했다. 그래서 왕사기에게 순천 왜교성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게 하는 것만이 필승의 대책이라며 다시 한 번 주지시켰다.

이때 이덕형은 독전의 명을 촉구하는 의사 표명 외에 은근히 상대방의

17) 『선조실록』 31년 10월 12일조.

체면을 살려주는 뛰어난 언어구사 능력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접촉했던 譚宗仁, 沈惟敬, 李文彥의 말을 빌려 일본 장수들이 유정과 진린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소서행장도 유정의 용맹함을 알고 있어 두려워한다고 했다. 달리 말하자면 유정과 진린이 용맹한 장수였다는 점을 내비쳐 왕사기의 체면을 살려주고 유정과 진린이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왕사기가 이덕형의 간찰을 받아서 인지를 모르겠으나, 한때 유정에게 참전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象村集』의 기록에 따르면 11월 6일에 왕사기가 순천 왜교성 공략에 나선 유정의 부하 王之翰과 司懋官이 퇴각했다는 말을 듣고, 기패관을 보내 이들을 참수하려고 했다. 유정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군사들을 다시 왜교성으로 진격하도록 했다.<sup>18)</sup> 그러나 유정은 계속 雲車를 비롯한 성곽 공략 무기를 만든다는 핑계를 대면서 공격에는 차일피하며 소극적이었다.

이덕형은 왕사기에 보낸 간찰 제2통에서 순천 왜교성의 소서행장을 섬멸할 수 있는 책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금 전황의 흐름으로 보아 소서행장이 주둔한 순천 왜교성은 이덕형의 지적처럼 고립된 형상이었다. 순천 왜교성이 남해안에 세운 왜성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사천, 남해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우군과의 상호 연락이나 지원군 요청이 상당히 곤란했다.

여기에 대해 이덕형이 내놓은 책략은 명료했다. 해상에서 수로군이 입구에 진을 쳐서 적의 퇴로를 가로 막고, 또한 서로군의 정병이 육지 험한 곳에 진을 쳐서 적을 계속 괴롭힌다. 소서행장이 비록 교활하다고 하나 끝내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왜교성을 버리고 몰래 바다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때 조명연합 수군이 바다에서 소서행장을 섬멸하면 커다란 승전을 거둘 수 있다. 결과론이지만 이덕형이 내놓은 순천

18) 신희 『象村集』 권39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王士琦, 字圭叔, 號豐嶼, --- 八月十九日南下, 劉縱·陳璘皆轄焉. --- 十一月初六日, 劉縱左次王之翰·司懋官等先退, 參政聞之, 遣旗牌官將斬而梟示. 縱知之, 上衆軍于順天故城.”

왜교성 공략책은 서로군의 소극적 대응, 서로군과 수로군 간의 비협조로 인하여 끝내 실패에 돌아갔다.

반면에 소서행장은 순천 왜교성에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면 작전을 구사했다. 한편으로 유정에게 뇌물을 보내 철병하는데 협조를 구했고, 다른 한편으로 기회를 틈타 일본 우군에게 통보하여 구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독자적인 작전이 불가능한지라 명 군부에게 독전을 촉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덕형, 권을 등이 유정에게 독전할 것을 계속 청하여도 유정은 사태만 관망하며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명 군부에서도 내부 마찰이 있었다. 수륙합동으로 나선 진린의 수로군은 유정의 서로군이 육지로 순천 왜교성을 공략하겠다는 약조를 믿고, 선박과 군사들을 성곽 아래의 水寨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서로군 유정이 빈번히 약조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실패를 거듭했고, 오히려 일본군의 역습으로 한때 곤경에 빠져 적지 않는 피해를 입혔다. 한 번은 진린이 유정의 진중에 직접 찾아가 유정의 帥字旗를 찢어버리고 분노를 표시하고 군문 형개에게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위협을 가했지만, 유정은 소서행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지라 관망 자세로 임하며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sup>19)</sup>

#### 나. 남해 선공작전

당시 순천 왜교전투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하자, 명 군부가 일부 군사를 빼내어 남해를 먼저 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로군은 계속 순천 왜교성을 포위하고, 수로군은 적의 후원 세력을 끊어버리기 위해 남해를 먼저 공격하는 작전이었다. 나중에 이덕형도 왕사기로부터 수로군의 남해 선공방안을 듣고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19) 『李忠武公全書』 권13 「紀實」 중 「宣廟中興志」 참조.

이덕형은 선조에게 올린 치계에서 왕사기가 수군이 남해를 먼저 치는 요청에 대해李文彧(孫文彧)과 남해에서 온 사람들을 진린에게 보냈다고 했다.<sup>20)</sup> 사실 이때 이덕형이 취한 방식은 이문옥과 남해 사람들을 이순신에게 먼저 보내고, 이순신이 다시 진린과 상의하는 것이었다.

이순신이 이덕형에게 보낸 밀계에서 어제, 즉 10월 27일에李文彧이 와서 긴밀히 논하고 갔다고 했다. 이문옥은 일본군에 나포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글을 잘하고 용맹하여 풍신수실의 양자가 되어 국성을 받았다.<sup>21)</sup> 이때 국성을 받은 관계로 문헌에 따라 孫文彧이라 불렀다. 그 후 일본군 진영에서 나와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갔다. 각종 문헌에서 적힌 이문옥의 인물평은 크게 엇갈린다. 예를 들면 『선조실록』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순직할 때 이문옥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 보이는데, 평가가 서로 정반대였다. 한 군데는 이문옥이 임기응변하여 사후 처리를 잘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sup>22)</sup> 다른 한 군데는 이문옥이 우연히 한 배에 탔다가 공을 가로채어 이순신 군사들이 모두 분격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sup>23)</sup>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이문옥은 여러 차례 왕명을 받아 대일 교섭에 나섰다.<sup>24)</sup> 이와 반대로 일부에서는 이문옥이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했던 이중첩자라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sup>25)</sup>

이순신과 이문옥이 긴밀하게 논한 내용은 남해 선공작전에 관한 것이다. 일전에 전라도방어사 元愼이 이문옥이 전한 일본군 정보를 치계한 적이 있었다. 남해의 적에 붙어있던 이문옥이 나와서 순천 왜교와

20) 『선조실록』 31년 11월 2일조 이덕형 치계: “王按察令臣與水兵, 速圖南海, 故臣遣孫文彧及南海出來人於陳都督, 使之密謀處置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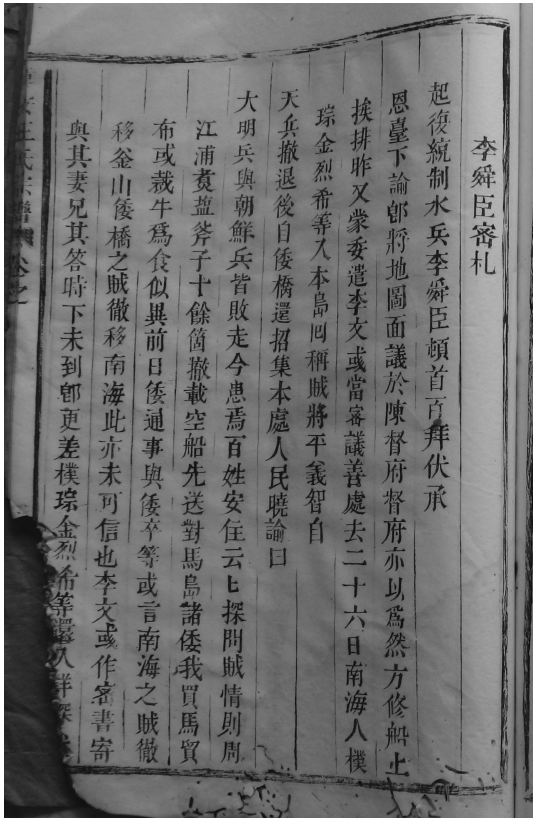
21) 『선조실록』 30년 4월 25일조의 경상도관찰사 李用淳 장계.

22) 『선조실록』 31년 11월 27일조 사평(李文彧), 31년 12월 18일조 도원수 權慄의 장계(孫文彧).

23) 『선조실록』 32년 2월 8일조 형조좌랑 尹暘의 계(孫文彧).

24) 『선조실록』 35년 1월 17일, 36년 1월 2일, 3월 24일조 등 참조.

25) 「이순신 대장선의 미스터리-손문옥」, KBS 역사 스페셜 38회, 2010년 7월 3일 방영.



『(嘉慶)章安王氏宗譜』 중 이순신 밀찰

남해, 거제에 주둔한 일본군의 정세를 말해주었다. 순천 왜교에 주둔한 군사가 1만 5천 명이다. 성곽의 3면이 바다이고, 1면만 공격이 가능한데 땅이 질어서 진격하기 어렵다. 이와 반면에 남해에 주둔한 군사는 겨우 8백~9백 명이다. 적장은 탐욕스럽고 사나우며, 군사 또한 잔약하다. 거제의 군사도 겨우 수백 명이다. 따라서 수군이 남해, 거제를 공격하는 것이 썩은 나뭇가지를 꺾은 것처럼 쉽다.<sup>26)</sup>

이문옥이 일본군으로

부터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가 말한 내용이 일본군의 간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순천 왜교의 소서행장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다. 조명 연합수군이 광양만 입구를 막고 있어 대규모 군사들이 한꺼번에 해상으로 퇴각할 방도가 없었다. 만약 조명 연합수군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소서행장이 이 기회를 틈타 해상으로 퇴각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군은 남해, 거제에 주둔한 군사들의 숫자가 적고 방어 시설이 취약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26) 『선조실록』 31년 9월 23일조 전라도방어사 元愼 장계(李文戩).

또 이덕형이 이문옥과 함께 보낸 남해 사람은 이순신 밀계에 등장하는 朴琮, 金烈希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군은 피로인을 이용하여 조명 연합군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며 기만전술을 펼쳤다. 남해에 주둔한 平義智(宗義智)가 순천 왜교에서 명군과 조선군이 패주했다며 지역민들을 불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흘렸다. 박중, 김열희가 宗義智가 흘린 말을 듣고서 적의 진영에서 나와 조선 진영에 알렸다. 이덕형은 다시 박중, 김열희를 이순신에게 보내어 남해 선공작전을 검토하게 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남해 사람들이 말한 정보가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순신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첩보를 입수하고 사태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周江浦에 사용하던 소금 짚는 술 10여 개를 먼저 대마도로 보냈고, 물자 교역과 소를 잡아먹는 행위가 예전과 다르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또 왜통사와 일본군으로부터 남해에 주둔한 군사가 부산으로 철수하고, 왜교에 주둔한 군사가 남해로 철수한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첩보가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일본군의 전면 철수에 관한 첩보는 정확했다. 풍신수길 사후에 일본 조정은 한반도에 주둔한 각 군부에게 일본열도로 철수하라는 명을 내렸다. 소서행장은 남해에 주둔한 사위 平義智(宗義智)에게 연락하여 순천 왜교에서 빠져나와 남해로 철수한 뒤에 다시 이들과 함께 일본열도로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중에 이순신은 남해로부터 소서행장을 구출한 대규모 지원 수군이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린과 함께 전선을 노랑 앞바다로 이동해 매복하고 기습 공격하는 작전을 마련했다.

이덕형의 명에 따라 이문옥과 남해 사람들을 만나본 이순신은 즉시 지도도를 가지고 진린의 처소를 찾아가 남해 선공작전에 대해 토의했다. 당시 순천 왜교에 주둔한 소서행장은 육지와 바다의 퇴로가 모두



막혀 커다란 곤경에 빠져있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순신은 남해 선공작전이 소서행장을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진린 또한 남해 선공작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진린은 이덕형에게 남해보다 순천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순천 왜교성을 공격하는데 유정이 약속을 어기고 싸우지 않는다면 유정의 머리를 벤 다음에 소서행장을 죽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비쳤다.<sup>27)</sup>

이덕형은 이순신의 밀계를 받고 진린의 견해를 듣고 난 뒤에 남해 선공작전을 접고 계속해서 순천 왜교성을 공략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왕사기에게 간찰을 보낼 때 자신의 결정을 피력하기 위해 이순신의 밀계를 동봉해서 보냈다. 한편 왕사기도 남해 선공작전을 가지고 유정과 상의했으나, 유정은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답변했다.<sup>28)</sup> 따라서 왕사기는 이순신, 진린, 유정의 견해를 쫓아 남해 선공작전을 접었다.

여기에서 잠시 이순신 밀계의 사료 가치를 적어본다. 밀계는 이순신이 돌아가기 20일 전인 1598년(선조 31) 10월 28일에 작성되었다. 현존하는 초고본 『亂中日記』과 후대 전사본 『난중일기초』에는 동년 10월 28일자 부분이 빠져 있다.<sup>29)</sup> 이번에 나온 밀계를 통해 『난중일기』의 빠뜨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또 밀계 서두에 적은 ‘起復’ 지칭에서 이순신의 충효 자세를 엿볼 수 있다. 1597년(선조 30) 초에 이순신이 투옥을 당하자, 모친 卞氏가 근심으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곧이어 이순신이 출옥하여 남하하는 도중에 아신에 들렸다. 모친을 만나기 직전인 4월 13일에

27) 『선조실록』 선조 31년 11월 2일조 이덕형 치계: “臣以南海事, 密諭於陳都督, 都督以臣言爲然, 而猶以順天爲先, 招臣軍官, 從容語以再舉之意, 而我則再進攻城, 劉某違約不戰, 則我乘一小船, 先斬劉某頭, 而必殺行長云.”

28) 신흘 『象村集』 권39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王士琦, --- 時軍門欲圍行長於曳橋, 先以舟師往擊南海之賊, 覆其巢穴, 斷賊歸路, 令參政相機進止. 參政與劉綰議, 綰不可, 參政乃止.”

29) 초고본 『난중일기』에는 무술년(1598) 10월 8일 이후 부분이 빠져 있음. 숙종 연간 이후 전사본 『忠武公遺事』에서 보충한 『난중일기초』에는 무술년(1598) 10월 13일~11월 7일 부분이 빠져 있음.

갑자기 모친이 별세했다. 그러나 백의종군의 명을 받은지라 모친의 상을 치르지 못하고 이내 전쟁터로 향해 떠나가야만 했다. 그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밀계 서두에서 자신을 기복자임을 밝혔다. 최근 이순신이 1597년(선조 30) 7월 8일에 某人(韓孝純으로 추정됨)에게 보낸 간찰이 나왔다.<sup>30)</sup> 이 간찰의 말미에 자신을 ‘孤哀子’라고 칭했다. 이 또한 모친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 지칭이었다.

#### 다. 노량해전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다. 순천 왜교에 주둔한 소서행장은 조명 연합군이 봉쇄하고 있는 포위망을 뚫고 퇴로를 확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해에 주둔한 일본군과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유정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전투를 피하고, 또한 진린의 묵인 하에 몰래 소선을 남해로 보내는데 성공하였다.<sup>31)</sup> 남해안에 주둔한 일본군들은 순천 왜교에 고립된 소서행장을 구출하기 위해 상호 연합하여 대규모 지원군을 편성했다. 이때 편성된 지원군은 남해의 宗義智, 사천의 島津義弘, 고성의 立花統虎, 부산의 寺澤正成 등이 연합한 전선 5백여 척이었다.<sup>32)</sup>

30) 「임진왜란 때 쓴 이순신 친필 편지, 내용에」, 『중앙일보』 2012년 5월 10일자.

31) 『李忠武公全書』 권13 「紀實」 중 「宣廟中興志」 참조.

32) 노량해전에 참전한 일본 전선의 숫자에 관해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3백여 척설과 5백여 척설로 나뉜다. 여기에 관한 문헌 기록을 추적해보니 3백여 척설은 이덕형이 올린 치계(『선조실록』 31년 11월 27일조)에서 나왔다. 치계에서 固城의 적 3백여 척이 합세하여 노량에 나타났다고 했고, 또 해전 후 분멸된 적선이 2백여 척, 남해로 도망친 적선이 1백여 척이라고 했다. 반면 5백여 척설은 李芬의 「(이순신)行錄」(『李忠武公全書』 권9) 행록에서 이순신과 진린이 함께 노량에서 적선 5백여 척을 만나 큰 전투를 치렀다고 했다.

이덕형의 치계는 비록 노량해전이 끝난 직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立花統虎가 거느린 고성 선박의 숫자만 언급했고, 뒤따라온 일본 구원의 선박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분의 「행록」은 이덕형 치계보다 늦게 작성되었지만, 그가 이순신의 조카인 자라 집안에서 전해오는 노량해전의 내막을 정확히 알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

소서행장이 보낸 소신이 빠져나갔다던 보고를 들은 이순신은 진린에게 일본 지원함대가 올 것을 예측하고, 미리 나가서 맞받아 싸울 것을 요청했다. 진린은 처음에 동의하지 않다가, 이순신이 거듭 간청하고 결전의 의지에 감동하여 참전에 나섰다.<sup>33)</sup> 조명 연합군은 순천 왜교성 앞바다의 포위망을 풀고 일본 지원함대가 들어올 노랑해협으로 이동했다. 이로부터 임진왜란 해전사에 있어 길이 남을 노랑대첩이 발발되었다.

18일 밤에 이순신의 조선 전함은 해협 우측 觀音浦에, 진린의 명 전함은 좌측 竹島에 각각 이동 매복하였다. 19일 새벽에 일본 함대와 조우하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펼쳐졌다. 조명 연합함대가 계절풍에 편승한 화공 전술로 일본 함대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혔다. 전세가 불리한 일본 함대가 도망치다 막힌 관음포 포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더 이상 퇴로가 없는 것을 알고 역공을 취하며 탈출을 시도했다. 이로부터 양측 함대가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치열한 혼전을 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명 연합함대의 승전 쪽으로 기울어졌다. 정오가 지났을 때 일본의 일부 전선이 혼전을 틈타 남해 섬 남쪽으로 달아났고, 또 일부는 전선을 버리고 상륙하여 육지를 통해 남해왜성으로 도망쳤다. 조선 함대도 이미 큰 전과를 누렸고 오랜 전투를 한 지라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에서는 이분의 「행록」 기록을 따랐다.

『선조실록』 31년 11월 27일조 이덕형 치계: “本月十九日, 泗川、南海、固城之賊三百餘隻, 合勢來到露梁島, 統制使李舜臣領舟師, 直進逆戰, 天兵亦合勢進戰. 倭賊大敗, 溺水致死, 不可勝計, 倭船二百餘隻敗沒, 死傷者累千餘名. 倭屍及敗船木版、兵器、衣服, 蔽海而浮, 水爲之不流, 海水盡赤. 統制使李舜臣及加里浦僉使李英男、樂安郡守方德龍、興陽縣監高得蔣等十人, 中丸致死. 餘賊百餘隻, 退遁南海, 留窟之賊, 見賊船大敗, 棄窟遁歸倭橋, 糧米移積於南海江岸者, 竝棄而遁去. 行長亦望見倭船大敗, 自外洋遁去事.”

『李忠武公全書』 권9 李芬 「(이순신)行錄」: “(7월)十八日, 酉時, 賊船自南海無數出來, 依泊於嚴木浦, 又來泊於露梁者, 不知其數. 公約于都督, 是夜二更同發, 四更到露梁, 遇賊五百餘艘, 大戰至朝.”

- 33) 『선조실록』 선조 31년 11월 27일조 사평: “一夕倭賊四名, 乘船出去, 舜臣告於陳璘曰: 此必請援之倭也. 出去今已四日, 明日間大兵必至. 我兵先往逆戰, 庶得成功. 陳璘初則不許, 舜臣涕泣固請, 璘乃許之.”

않으면서 전투가 막을 내렸다.

이덕형은 왕사기에게 보낸 간찰 제3통에서 노량해전이 격렬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기술했다. 어제 哨探 군역으로부터 바다에서 수군이 싸우는 소리가 종일 진동하였고, 이어 별장 洪大邦 등으로부터 바다에서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들었다고 했다.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혈전은 바로 노량해전을 지칭한다. 따라서 간찰 제3통의 작성 일자는 노량해전이 일어난 다음 날인 11월 20일로 추정된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해전사상 가장 격렬하게 치렀던 혈전이였다. 양측 함대가 서로 뒤섞여 근접전을 펼치며 사생결단의 전투를 치렀다. 이번 해전에서 조명 연합수군이 일본 전함 1백여 척 포획, 2백여 척 분멸, 익사자 부지기수 등을 거두는 대첩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장수급만 하더라도 조선 측에서는 이순신, 李英男, 方德龍, 高得蔣 등 10여 명, 명나라 측에서는 鄧子龍, 陶明宰 등이 전사했다.

그동안 7년을 끌어온 임진왜란이 노량해전으로 사실상의 막을 내렸다. 노량해전의 결과가 비록 순천 왜교의 소서행장을 섬멸시키지는 못했지만, 소서행장을 구원하러 온 일본 함대를 크게 분멸시킨 대첩이었다. 노량해전이 펼쳐졌던 보고를 들은 이덕형은 그동안 학수고대 하던 일본군의 섬멸을 목전에 두었다며 감격해마지 않았다. 이에 수로군을 감독하던 왕사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와 동시에 군문 형개와 선조에게 사정을 아뢰었다.

선조가 왕사기에게 보낸 간찰은 모두 3통이다. 제2통과 제3통은 노량해전 직후에 대첩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것이다. 제1통은 다음 해인 1599년(선조 32) 초에 작성되었지만, 이 또한 노량해전을 다룬 것이다. 이들 간찰을 통해 선조가 노량해전에서 대첩을 거둔 것에 대해 얼마나 통쾌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제2통에서 승전보를 들으니

바다의 기운이 맑아지고 공적이 빛났으며 강토가 다시 세워져 남은 백성들이 비로소 숨 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며 기쁨 마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제3통에서 조선이 병화를 입은 지 7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대첩을 거두어 그동안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조선 군신들이 노량해전에 대한 평가가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일본군을 섬멸하여 한반도에서 쫓아낸 것에 대해 무척 기뻐하였다.

물론 이들에게도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노량해전이 펼쳐진 다음날에 순천 왜교성에 고립된 소서행장이 그동안 해구를 막아오던 조명 연합수군이 사라지고, 또한 조명 연합수군이 노량해서 격렬히 펼친 전투 끝에 잠시 전열을 추스르는 틈을 타서 선박 6백여 척에 나누어 타고 남해 섬 남쪽으로 우회해서 도망쳤다. 나중에 선조가 노량해전에서 대첩을 거두었지만, 소서행장이 포위망에서 벗어나 주살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선조가 매 간찰마다 왕사기가 노량대첩을 거두는데 커다란 공적을 세웠다고 했다. 특히 간찰 제3통에서 금석에 새기고 단청을 드리는 데에 있어 왕사기의 이름이 으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덕무가 보낸 간찰 제4통에서 왕사기가 세운 공적이 불후라며 영원히 기리고자 군신이 서쪽 교외 길 옆에 거사비를 세우고자 한다는 말을 귀띔해주었다.

조선 조정이 한때 왕사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거사비를 세울 방침이었으나, 왕사기의 반대로 건립 계획이 끝내 무산되었다. 『題東征圖始終全錄』에 의하면 전주에 왕사기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는데, 왕사기가 지나친 공적을 사양하는 바람에 없애버렸다고 전한다.<sup>34)</sup> 임진왜란 때 세운 현존 명군 비석 가운데 왕사기 비석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 서소문동에 정유재란 때 도움을

34) 『題東征圖始終全錄』「勒碑遺愛」: “全羅之民, 感先生(왕사기)輯寧綏靖之恩, 在所勒石頌德. 先生過全州, 見之嘆曰: 吾以奉命拯外藩, 豈市私恩而博名高哉? 命左右昇而置之.”

준 군문 형개와 경리 양호의 위패를 모신 宣武祠가 세워져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철거되었다. 선무사에 왕사기의 위패가 안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기록 부족으로 알 길이 없다.

어쨌든 간에 조선 조정은 앞서 조선군신의 간찰 내용과 달리 왕사기의 인물됨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실록 사관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명나라 인물에 대해 논평을 가한 바가 있다. 즉, 徐觀瀾은 충직하게 사실에 따라 명 조정에 보고했으나, 趙志皐와 姚文蔚 등은 안에서 막고 萬世德과 왕사기는 밖에서 막아 천자를 고립시키고 기만했다고 평했다.<sup>35)</sup>

## 5. 결론

본 논문에서 언급한 王士琦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 감군이었다. 1598년(선조 31) 8월에 참정의 신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곧이어 전라도로 내려가 西路軍 劉綎과 水路軍 陳璘의 군사를 감군하는 임무에 맡았다. 전쟁 수행 기간에 조선 인사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순천 왜교성, 노량해전 등 각종 전투에 나서는 조명 연합군을 독려하거나 대책 작전을 강구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1599년(선조 32) 4월에 명 본진과 함께 귀국했다. 이때 조선 인사들로부터 받았던 간찰들을 함께 가지고 갔다.

『(가경)장안왕씨종보』는 청 가경 연간에 장안 왕씨 집안의 인물들을 기술한 족보이다. 이 책자 가운데 임진왜란 때 왕사기가 조선 宣祖, 李德馨, 李舜臣으로부터 받았던 간찰 8통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군신 간찰 8통의 내용은 주로 1598년(선조 31) 10월과 11월에 일어난

35) 『선조실록』 32년 3월 16일조.

순천 왜교전투와 노량해전을 배경으로 삼았다.

선조, 이덕형, 이순신 간찰 8통은 사료 가치가 높다. 첫째, 선조 간찰 제3통의 문구가 『선조실록』과 상당히 중복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7통은 『선조실록』, 이덕형의 『漢陰先生文集』, 이순신의 『亂中日記』, 『李忠武公全書』 등 각종 국내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선조와 이덕형의 간찰을 통해 순천 왜교성과 노량해전을 바라보는 조선 측의 시각이 어떤지가 보다 명확해졌다. 셋째, 명 군부가 추진하고자 한 남해 선공작전에 대해 이순신이 반대했던 입장이 자세히 밝혀졌다.

이덕형은 감군 왕사기에게 보낸 간찰에서 순천 왜교전투의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 소서행장이 주둔한 순천 왜교성이 고립된 상황이라도 서로군 유정과 수로군 진린이 수륙 양공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섬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유정이 화의를 통해 소서행장을 유인하는 작전은 오히려 수륙 양공작전에 차질을 가져다 준다. 그러다가 조명 연합군이 수륙 양진영의 불화협과 소서행장의 완강한 방어로 인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왕사기는 조명 연합수군이 잠시 왜교성 공략을 접어두고, 먼저 남해에 주둔한 일본군을 치는 작전을 내놓았다. 여기에 대해 이순신과 이덕형은 남해 선공작전이 좋은 방도가 아니라고 답했다.

곧이어 임진왜란의 마지막 대규모 전투인 노량해전이 벌어졌다. 이덕형은 노량해전이 벌어지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학수고대하던 일본군 섬멸 작전이 시작되었다며 크게 고무되어 왕사기에게 간찰을 보내어 기쁨의 마음을 전했다. 나중에 선조도 노량해전에서 대첩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서 연이어 왕사기에게 간찰을 보내어 공적을 치하했다. 다만 순천 왜성의 소서행장이 도망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듬해에 선조는 다시 한 번 왕사기에게 간찰을 보내어 그간 이룩한 공적을 치하했다. 이덕형도 왕사기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울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조선 조정은 전주에 왕사기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왕사기가 지나친 공적을 사양하는 바람에 끝내 무산되었다.

요사이에 국내외 사람들이 임진왜란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무척이나 뜨겁다. 국내외 관련 학계나 연구소에서도 임진왜란을 재조명하는 노력과 작업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불어오는 강렬한 열풍을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임진왜란을 새롭고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관련 사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임진왜란 때 우방국이었던 중국에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 사료, 유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료 발굴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논문을 마친다. [弓洞自然; 甲午七夕 草稿; 丙申陽九月卅日 『정유재란 시기 여수만도 해전과 조명연합군』 발표]





## 부록. 宣祖, 李德馨, 李舜臣 간찰 전문과 해석

### 「朝鮮國王李昞副揭」 제1통

自去秋行師之後, 民窮財竭, 拮据無計, 雖使智者謀, 更無著手之地, 只坐待糜爛之期: 而乃仰伏仗皇威, 得見今日三路窳穴之賊, 一時宵潛, 此雖帝謨輝赫之所致, 而實大人宣力之效也. 行營雖網漏連誅, 而樓船之師扼賊露梁, 血戰竟日, 碎其累百之艘, 斬獲無算, 海氛廓清, 功績赫然, 疆土再造, 而餘民始有息肩之望, 小邦之獲幸皇靈, 而大人之惠顧小邦者爲何如哉! 引領南望, 曷任懸溯, 專馳賤介, 敢問起居, 并布下情, 伏幸監(鑒의 오류)察, 不宣.

작년 가을에 군사가 출동한 이래 백성이 궁하고 재물이 다하여 무진애를 쓰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비록 지혜로운 자가 피하여도 다시 착수할 여지가 없고, 그저 앉아서 석어 문드러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황제의 위엄을 입고서 오늘날三路에 숨어있는 적들이 일시에 소멸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천자의 책략이 빛난 것에서 이루어졌지만, 실로 대인이 힘을 펼친 효력이옵니다. 적小西行長이 비록 포위망에 벗어나 주살되지 않았지만, 누선의 군사들이 노랑에서 적을 막아 종일 혈전을 펼쳐 수백 척을 깨부수고 셀 수 없이 참획하여 바다의 기운이 맑아지고 공적이 빛나 강도가 다시 세워져 남은 백성들이 비로소 숨 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방이 다행히도 황제의 명령을 입고, 대인이 소방을 보살펴 주는 것이 어떤 것이옵니까? 옷깃을 잡아당기고 남쪽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을 어찌 견딜 수 있으리오. 아래 사람을 보내어 감히 기거함을 묻고 아울러 내 마음을 표하오니 삼가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 제2통

聳聽走音, 曷勝忻忭, 小邦之被委禍, 累歲而靡定, 乃蒙聖天子簡命大人,

奉明旨，遠臨小邦威名國，已驚破賊膽而壯我聲勢矣！比監督橫海之師，激厲諸將，扼之露梁，賈勇先登，送死遊魂，殲滅殆甚。此役之後，醜賊襲(龔자의 오류)伏天威，必將相戒不敢再犯矣。殆天意哀憐小邦之祖先而不棄其孤，殆不穀荷大人之拯濟而得以再造於今日也。瀝腸隳肝，豈足爲謝！專馳賤价，仍問起居，伏幸鑒察，不宣。”

승전보를 들으니 기쁜 마음을 어찌 이기리오. 소방이 왜구의 화를 입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평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聖天子가 대인에게 명하여 황지를 받들고 멀리 소방에 와서 위엄과 명성을 나라에 떨치니, 이미 적의 간담을 놀라게 하고 우리의 성세를 드높였습니다. 이때 바다를 가로지르는 군사들을 감독하고 못 장수들을 격려하여 露梁을 움켜지고 용기를 내어 먼저 올라가 (적을) 죽여 떠돌아다니는 혼으로 만들어 보내버려 거의 섬멸하였습니다. 이번 역사 이후 추악한 적들이 천자의 위협에 복종하고 필경 장차 경계하며 다시는 범하지 못할 것이 옵니다. 하늘의 뜻이 소방의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 나를 버리지 않았고, 불곡이 대인의 보살핌에 입어 오늘날 다시 세우게 되었도다. 속을 다 드러내어도 어찌 족히 감사하오리오. 아래 사람을 보내어 여전히 기거함을 묻노니, 삼가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 제3통

續得陪臣之報，備聞大人督樓船之師，扼賊露梁，碎其餘艘，俘斬無算，妖氛廓清，威靈遠暢。蓋小邦被兵七載，始見斯捷，淪亡之憂，變爲愉快，銜皇上之湛恩，佩大人之功德，寧有窮哉！勒金石而垂丹青者，想大人爲首哉！時下嚴寒，伏惟珍衛萬倍，以慰瞻係，不宣。

계속 배신의 보고를 받으니 대인께서 누선의 군사들을 독려하여 노랑에서 적을 움켜지고 선박들을 깨부수서 포로와 참수한 자가 셀 수 없고, 요기가 깨끗이 사라지고 위령이 멀리 떨친 것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대개 소방이 병화를 입은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대첩을 보게

되었으니 망하여 없어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 황상의 깊은 은혜를 받들고 대인의 공덕을 지니니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금석에 새겨 단청을 드리는데 있어 대인이 으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절이 엄동이오니 삼가 더욱 몸을保重하시고, 의지하고 사모한 것을 위로하옵니다. 이만 줄입니다.

### 「朝鮮國議政府左議政李德馨謹稟 제1통」

南海之舉，職長費苦心，節續差人往探。昨季(李자의 오류)文彘有報，已差倭通事金雲鶴等前去密圖。此不可草率可爲也，須得真的情形，萬分可成，方好歸報。俟金雲鶴探來，星夜登岸面告其說，亦是矣。

近聞劉大將軍欲哄行長離其巢穴，差委往來，至於遣質爲約。職料此賊慮孤城爲我水陸協攻，欲退據形險，則諒出實情。但今因我之哄他，而試我之淺深，既得質官，乃留假酋瞞我與講，先機率精兵而跳，或據南海，或入他處，并力則水兵失形勝。是使賊離危地而就萬全之所也。

我之經營捉風終不兌，縱賊而貽悔，豈非大可虞乎？況賊連日駕小船探看水兵遠近，而水兵方在興陽羅老島，雖欲急進，必待二潮汐方到倭橋海口，賊如快去，其勢何及矣！倭橋海口外有突山島，道里頗近，乞老爺飛馬行會陳大將軍星夜進陣，作速堵截海口，無致失機悞事。

唐李靖有言：用眾在乎心一，心一在乎去疑。職看今日之舉，各兵以不得擒行長·馘正成爲大慨恨，而有時間將領之緒論，則使人心如死灰，所謂兵有戰心，將無鬪志者，其無乃不幸而近之乎？其何故也？行計之心或勝，死戰之心漸解；此心被他牽引旁走，則觸事有害，而三軍之氣已索然矣。自壬·癸年來，東事之差失，多坐於此，誠不可不深慮也。

昔年劉大將軍駐大邱(丘자의 피휘)，仰成李提府委官譚宗仁在釜山，行會慣聽大將軍威名，沈遊擊對行長必盛稱劉·陳二大將軍勇略。□李文彘初自賊巢來，亦說倭奴匏(匏자의 오류)聞劉·陳二老爺天朝名將。今日之事不可不慎重，小有差失，所損非細。目今行會深怕水兵來攻，朝暮欲退

去者, 亦恐海路見截耳. 倘此着差了, 則賊益生心姑退, 目前非喜而茲大憂矣! 爲今之計, 急令水兵來守海口, 則(制자의 오류?)賊死命而操縱之, 方無後虞. 願老爺商量, 速賜吩咐.

且東路之□(賊), 非但形險難攻, 水陸俱有應援, 雖有累萬兵, 一手多碍; 中路則我兵挫敗, 此時雖添兵, 兵氣難遽振作, 兼又水陸無協攻之勢; 兩路之不可再舉也如此. 且賊之不敢發, 則職必保矣, 然則多留大兵亦奚以爲? 今之結局只在西路, 水兵之使用事亦無若倭橋, 行曾久在此城, 則天送死也. 曩者職請調東·中兩路精兵各一萬來會於此, 攻破倭橋, 水路直向中路等情, 具稟於副府, 得蒙准許議處, 至今未聞有上司處置. 時日漸晚, 機會易失, 每晨夜彷徨, 不知所措云.

남해의 일에 대해 직장이 고심하여 계속 사람을 보내어 탐방하였습니다. 어제李文彥의 보고에 이미 倭通事 金雲鶴 등을 보내어 비밀리 도모한다고 하옵니다. 이것은 적당히 처리할 것이 아니오니, 반드시 올바른 정황을 파악하여 만분을 다한 다음 보고 드리는 것이 좋사옵니다. 金雲鶴이 탐방해서 돌아오면 밤에라도 올라가 면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근자에 들으니 劉綎 대장군이 소서행장을 유인하여 적의 소굴에서 이탈시키고자 차관이 오가며 인질을 보내기로 약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옵니다. 직이 예측컨대 이것은 적이 우리가 수륙으로 협공하여 성이 고립될까 염려한 것이오니, 물러나 험악한 것을 지키고 있으면 진실로 실정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떠들어 되며 나의 얕고 깊음을 시도하고자 하옵니다. 인질을 이미 받아들인 것은 가짜 추장을 남겨두고 우리와 강화한다고 속이고, 먼저 기선을 잡아 정병을 거느리고 가서 혹 남해를 거점으로 삼고, 혹 다른 곳에 들어가 힘을 합치게 되면 (우리) 수군이 형승을 잃어버리게 되옵니다. 이것은 적으로 하여금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영이 바람만 잡고 끝내 실현시키지 못하고 적을 놓아두어

후회하게 만든다면 어찌 크게 우려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적이 연일 소선을 몰고 수군의 원근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수군이 興陽 羅老島에 머물면서 급히 전진하고자 하나, 필히 두 번 조석 때를 기다려야만 이 倭橋 해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적이 만약에 급히 도망치면, 그 세를 어찌 하오리오? 왜교 해구 바깥에 突山島가 있는데, 거리가 자못 가깝습니다. 노야께서 비마를 보내어 陳璘 대장군과 회동하여 속히 진격하여 해구를 차단하게 하여 실기로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 李靖이 “군중을 사용하는 것은 한 마음에 있고, 한 마음이란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적이 금일의 거세를 보니 각 병사가 소서행장을 붙잡아 寺澤正成을 베지 않으면 큰 한이 될 것입니다. 하나 때로 장수들의 논의를 들어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타 버린 재와 같사옵니다. 이른바 병사는 싸울 마음이 있으나, 장수가 투지가 없는 것은 불행에 가깝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계획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혹은 있으나, 죽도록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점차 없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이 다른 것에 끌려 옆으로 가게 만들면, 일을 하는데 해를 끼쳐 심군의 사기가 흩어져 없어지게 만듭니다. 임진·계유년(1592~93) 이래 동쪽의 일에 실기한 것이 많아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진실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예전에 유정 대장군이 대구에 주둔하며 이제독의 위관 譚宗仁이 부산에서 성공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서행장이 대장군의 명성을 익히 들었다고 하옵니다. 遊擊 沈惟敬이 소서행장에게 유정, 진린 등 두 대장군이 용맹과 지략이 있다고 칭송했사옵니다. 李文彥이 처음 적의 소굴에서 나와서는 또한 왜노들이 유정, 진린 노야가 천조의 명장이라는 것을 익히 들었다고 말했사옵니다. 금일의 일이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으면 손실이 적지 않사옵니다. 지금 소서행장이 수군이 협공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로 퇴각하려고 하고, 또한 해로가 차단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사

옵니다. 만약 이번에 차질이 생기면 적은 더욱더 퇴각하려고 생각할 것이오니, 목전에 기쁨이 아니고 커다란 우한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계획으로는 급히 수군으로 하여금 해구를 지켜 적을 제압하여 죽이고 마음대로 다루게 한다면 후환이 없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노야께서 상의하여 속히 명을 내립시오.

또한 東路의 적이 험한 지형에 있어 공격하기 힘들고 수륙에서 함께 호응해야만 하는데, 비록 수만 병이 있으나 일거에 어려움이 많사옵니다. 中路는 우리 병사가 좌절하여 이때 비록 병력을 보충해도 병사의 사기가 다시 진작하기 어렵고, 더불어 수륙으로 협공할 세력이 없사옵니다. 양로에서 다시 거론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이와 같사옵니다. 또한 적이 감히 공격해오지 못할 것을 직이 담보하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병사를 두는 것이 또한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의 귀결은 西路에만 있사옵고, 수군을 잘 활용하는 일은 또한 倭橋만한 곳이 없사옵니다. 소서 행장이 오래 이 성에서 머문 것은 하늘이 죽음을 보내는 것이옵니다. 예전에 직이 東·中 양로의 정병 각 1만을 보내어 이곳에 집결하여 왜교를 점거한 뒤에 수로로 곧장 中路로 향하는 일을 청하여 副 군부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상사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듣지 못했사옵니다. 시일이 점차 늦어지면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사오니, 매일 아침저녁으로 방황하며 어찌 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 제2통

荷蒙老爺密帖, 不勝感悚. 但南原人自日本來者, 未知爲何許人? 雖久在日本, 如非心眼伶俐, 爲倭將所親者, 其狡計難以知矣. 職自秋來, 招出各處被擄人無算, 所供各異, 問倭之實情, 則都不曉矣. 蓋倭奸甚, 去則示留駐之狀, 留則爲徹(撤의 통용자)退之語, 虛而爲實, 實而爲虛, 以愚我民耳目; 職執此而求之, 多不差矣.

今三路有大兵, 此正賊欲試我深淺之時. 緩我數月, 厚集其兵力, 亦不可

不戒也。但倭橋之舉，地形孤絕，我水路堵截，則賊路斷勢窘，不須進逼城下，方可言圍困也。水兵割車海口，輪班乘潮進攻；陸兵割陣形險，頻挑精兵出奇而撓亂，則倭奴雖狡而素輕急，自中騷動，我必有可乘之會矣。若哄他離穴，截殺海中，最是奇計，行營必見其萬保而後肯出，此豈易成哉！南海之事，晨夜在心，李舜臣密札同封呈覽。第水陸大將軍具有先倭橋而後南海之意，職之妄意恐不然也。兵無定期，唯老爺吩咐，爲此密稟。

萬曆二十六年十一月初三日

노야의 밀첩을 받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다만 일본에서 왔다는 南原 사람이 어떤 이인지를 모르겠사옵니다. 비록 일본에 오래있었다고 하오나 눈이 날카롭고 왜장이 친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면 그 교활함을 알기 어렵사옵니다. 직이 가을 이래 각처에서 피로인을 셀 수 없이 불러보니, 말하는 바가 각각 다르고 왜의 실정을 물어도 모두 알지 못했사옵니다. 대개 왜의 간활함이 심하니 철수하려고 하면 머물려는 형상을 표하고, 머물려고 하면 철수하겠다는 말을 하옵니다. 허가 실이 되고, 실이 허가 되어 우리 백성들의 이목을 어리석게 하옵니다. 직이 이것으로 잡아 구한다면 거의 틀리지 않사옵니다.

지금 삼로에 대군이 있사옵니다. 이는 바로 적이 우리의 깊고 얇음 시기를 시도해보고 우리들로 하여금 몇 달을 늦추고자 하옵니다. 병력을 집결하는 것이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왜교의 일은 지형적으로 외롭고 단절된 형세이고, 우리가 수로를 가로막아 적의 길이 단절되어 세력이 궁핍해져 성곽 아래로 밀고가지 않아도 가히 포위되었다고 말할 수 있사옵니다. 수군이 해구에 진을 쳐 순번을 짜서 조수에 따라 진격하고, 육군이 험한 곳에 진을 쳐 자주 정병을 뽑아 기습하고 소란하게 하면, 왜노가 비록 교활하다고 하나 평소 경급한지라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승기를 잡을 기회가 있사옵니다.

만약 그들을 몰아 소굴에서 벗어나면 바다 가운데에서 막아 살해하면 가장 기묘한 책략이 되옵니다. 소서행장이 반드시 만 가지가 보장된

것을 보고 나올 것이니, 이것을 어찌 쉽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남해의 일은 새벽과 밤으로 마음에 두고 있사옵니다. 이순신의 밀계를 함께 보내어 드리웁니다. 수륙 대장군이 함께 먼저 倭橋를 치고 나중에 南海를 도모하자는 뜻이옵니다. 직의 헛된 뜻이 그렇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군사는 일정한 기약이 없으니 오로지 노야의 분부를 바라오니, 이것을 조용히 아됩니다.

만력 26년(1598) 11월 3일

### 제3통

職據哨探軍役走報：水兵船上破響終日震海，想因血戰等因，得此，續別將洪大邦等面稱洋中血戰事狀，職聞來不勝感位(泣자의 오류). 備將事情具稟軍門·啟知寡君外，隨當進謁面謝老爺。爲此理合具稟。

직이 어제 哨探 군역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수군 선박이 파괴되는 소리가 하루 종일 바다를 진동시키니 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듣고 다시 별장 洪大邦 등이 바다에서 혈전을 벌린 사정을 들었사옵니다. 직이 듣고 나서 감격함을 이기기 못하겠습니다. 사정을 갖추어 군문에게 아뢰고, 과군에게 아뢰는 것 외에 마땅히 진알하여 노야에게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아됩니다.

### 제4통

職曾在西路，蒙老爺恩眷，且念水陸之功，非他路比，發縱指示，都在老爺，職欲圖報不朽，豈有限哉！第以各衙門俱會城中，恐妨體面，只得三緘隱默。俟各起程時，小國君臣謀豎去思碑於西郊周道傍，以表一時之盛，永百世之思。爲此理合預稟。

직이 西路에 있을 때 노야의 보살핌을 입었고, 또한 수륙의 공적이 다른 路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을 보니 지시를 내린 모두 노야에게 있사옵니다. 직이 不朽를 보고하려고 하는데 어찌 제한이 있으리오. 각



아문이 모두 성안에서 만났는데, 체면에 방해될까 두려워 다만 세 번이나 입을 다물고 있으며 각자 起程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소국 군신이 서쪽 교외 길 옆에 去思碑를 세워서 한때의 성의를 표하여 영원히 백세 동안 흠모하도록 하려고 하옵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李舜臣密札(이덕형 간찰 제2통의 부록)

起復統制水兵李舜臣頓首百拜：伏承恩臺下諭，卽將地圖面議於陳督府，督府亦以爲然。方修船上挨排，昨又蒙委遣李文彧，當密議善處去。二十六日，南海人樸(朴의 통용자)琮·金烈希等入本島回。稱敵將平義智自天兵撤退後，自倭橋還，招集本處人民曉諭曰：大明兵與朝鮮兵皆敗走，今患焉百姓安住云云。

探聞賊情，則周江浦賁鹽斧(釜자의 오류)子十餘箇撤載空船，先送對馬島：諸倭(혹 向자 누락)我買馬買布，或裁牛爲食，似異前日。倭通事與倭卒等或言南海之賊徹(撤의 통용자)移釜山，倭橋之賊徹(撤의 통용자)移南海，此亦未可信也。李文彧作密書寄與妻兄，其答時下未到，卽更差樸(朴의 통용자)琮·金烈希等還入詳探。伏乞台鑒。

萬曆戊戌十月二十八日。

기록자 통제 수군 이순신이 삼가 백배하옵니다. 은대의 명을 엮드려 받잡고 즉시 지도를 가지고 진 도독부와 토의하니, 도독부도 또한 그렇다고 하옵니다. 바야흐로 선박을 수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또 보내준李文彧이 긴밀히 의논하고 갔고, 26일에 남해 사람 朴琮, 金烈希 등이 본 섬으로 돌아와서 “적장 平義智가 명나라 군사가 철수한 이래 왜교에서 돌아와 현지 사람들을 불러 유시하기를 대명 병사와 조선 병사가 모두 패주했으니 이제 근심은 백성들을 안주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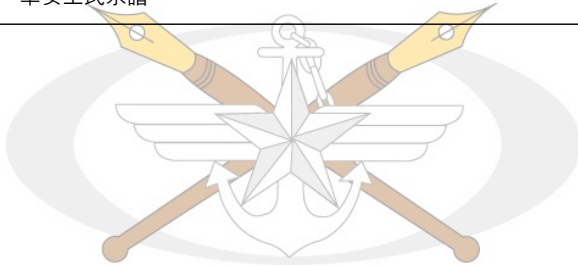
적의 동정을 살펴보니 周江浦의 소금 찌는 술 10여 개를 거두어 빈 배에 실어 먼저 대마도로 보냈고, 왜구들이 우리들에게 말과 포를 교역

하거나 소를 잡아먹는 것이 전날과 다릅니다. 왜통사와 왜졸들이 흑 남해의 적이 부산으로 철수하고, 왜교의 적들이 남해로 철수한다고 말하나, 이 또한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이문옥이 작성한 밀서를 妻兄에게 보내는데, 답신이 도착하지 않아 즉시 朴琮, 金烈希 등을 돌려보내 자세히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삼가 살펴보소서.

만력 무술년(1598) 10월 28일.

[원고투고일: 2016.10.9, 심사수정일: 2016.11.18,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王士琦, 宣祖, 李德馨, 李舜臣, 壬辰倭亂, 順天 倭橋, 露梁海戰, 章安王氏宗譜



<ABSTRACT>

A Study on the letters by Seonjo(宣祖),  
Lee Deokhyeong(李德馨), and Lee Sunsin(李舜臣)  
contained in [*Jiaqing*(嘉慶)]  
*Zhang'an Wangshi zongpu*(章安王氏宗譜)

Park, Hyun-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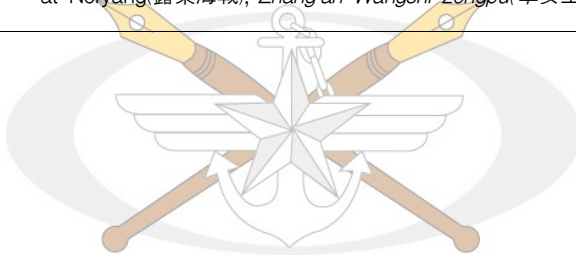
I have studied the contents of 8 letters that Wang Shiqi(王士琦) received from Seonjo, Lee Deokhyeong, and Lee Sunsin in this paper. The letters are included in [*Jiaqing*] *Zhang'an Wangshi zongpu* which was compiled again during the period of *Jiaqing*'s reign in the Qing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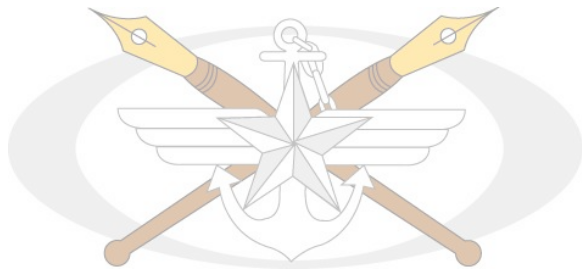
Wang Shiqi was assigned Korea in August in 1598(the 31<sup>st</sup> year of Seonjo's reign) as a Ming government official of participation in government and soon after went to Jeonra Province to manage the troops of Liu Ting(劉綎) and Chen Lin(陳璘) through supervising Waegyo(倭橋) battle in Suncheon(順天) and the naval battle at Noryang(露梁海戰). He returned his country with Ming main troops in April next year. By this time, he took the letters received from Joseon figures. [*Jiaqing*] *Zhang'an Wangshi zongpu* was a genealogy of Wangs of Zhang'an(the north of Jiaojiang, Taizhou台州). The 7 letters out of 8 letters contained in the book have high value of historical records in that the letters can not be found in domestic documents.

The contents of 8 letters which were received from the king and officials of Joseon demonstrated mainly Waegyo battle in Suncheon and the naval battle at Noryang which were occurred respectively in October and November 1598(the 31<sup>st</sup> year of Seonjo's reign) as the backgrounds, Lee Deokhyeong in his letter earnestly requested Wang Shiqi to let Ming troops come forward actively in the Waegyo battle in Suncheon. Wang Shiqi devised a method that the allied naval forces of Joseon and Ming attack first Namhae as the troops made little progress in the Waegyo battle in Suncheon. By this time, Lee Sunsin and Lee Deokhyeong replied with their opinions that the plan of attacking first Namhae(南海) was not good method. Soon after

Lee Deokhyeong sent a letter to Wang Shiqi to convey his satisfaction as he was greatly inspired by the news that Japanese troops began to be exterminated in the naval battle at Noryang. Seonjo also sent a letter to Wang Shiqi to appreciate his service in the victory of the naval battle at Noryang.

Key words : Wang Shiqi(王士琦), Seonjo(宣祖), Lee Deokhyeong(李德馨), and Lee Sunsin(李舜臣),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1598(壬辰倭亂), Waegyo(倭橋) battle in Suncheon(順天), The naval battle at Noryang(露梁海戰), *Zhang'an Wangshi zongpu*(章安王氏宗譜).





# 냉전 후기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INF) 경쟁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 ‘미군 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

김재엽\*



1. 서론
2. 냉전 후기 유럽의 INF 경쟁
3. 한국의 핵무장 논쟁에 대한 시사점
4. 정책 제언
5. 결론

## 1. 서론

한반도는 1948년 남북한의 정치적 분단 확정, 1950년의 6.25전쟁 이래 지난 60년이 넘도록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는 지역으로 남아왔다. 1990년대 이후의 전세계적인 냉전(冷戰) 체제 종식조차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

\*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그 군사적인 심각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을 계기로, 핵무장 능력의 강화 및 공고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집착은 전례 없이 높아진 상태다.<sup>1)</sup>

이러한 점들은 김정은의 집권 5년째를 맞이한 2016년 전반에 걸쳐 그 정도가 명백히 확인, 심화되고 있다. 그 시작으로 북한은 1월 6일에 기습적으로 4번째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된 첫 수소탄(수소폭탄)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1개월 후인 2월 7일에는 3년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급의 장거리 로켓을 다시 발사하여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개발 잠재력을 과시했다. 한미 연례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 3~4월에는 핵탄두용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구형(球型) 물체, ICBM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로켓 엔진과 재돌입체의 성능 시험 모습들을 공개하며 핵무장 능력의 기술적 고도화를 부각시키려 했다.<sup>2)</sup> 이후에도 북한은 ① 한반도를 겨냥한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② 일본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 1,300km의 ‘로동’, ③ 괌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권에 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④ 2015년에 처음으로 존재가 확인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북극성’ 등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차례로 시험 발사했다.<sup>3)</sup> 심지어 9월 9일

1)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실패했거나 중단한 후 미국 등의 공격으로 붕괴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사례를 내세워 핵무기가 미국의 군사적 침략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변(強辯)하고 있다. 국방부 군비통제과, 『2013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국방부, 2013, 224~225쪽.

2) Nick Hansen et al, “Leaps and Bound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me Advances”, *Jane’s Intelligence Review*, Vol. 28, No. 5, (2016), pp.7~13.

3) 특히 6월의 무수단, 8월의 북극성 SLBM은 500km 이상을 비행하여 탄도미사일로서의 성공적인 비행 능력을 처음 입증해냈다. IISS, *Strategic Survey 2016*(Abingdon, UK: Routledge, 2016), p.94.

에는 5번째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외교·군사적인 긴장,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 6월 23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군(全軍)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휴전 이후 지금까지 전략적 수준에서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 적은 없었으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도전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것은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도전의 심각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이들 일련의 사건은 북한이 그동안 한국과 국제사회가 거듭 촉구해 온 비핵화, 개방, 평화의 염원을 정면으로 역행(逆行)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핵무장 능력과 결합된 북한의 대량살상 위협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실재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한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개성공단의 가동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2월 10일에 중단하고, 7월 8일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악화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미국의 ‘종말단계 고(高)고도 지역방공 체계’(이하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북한에 의한 핵무장 위협의 지속, 악화는 한국 내부에서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해 온 ‘외교를 통한 북한의 자발적·평화적인 비핵화’에 관한 기대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대로 북한이 핵무장 능력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만 해야 하느냐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지난 1991년 말에 철수되었던 미군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보다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sup>4)</sup>

4) 송홍근, 「“무장 검토” 선언만으로도 ‘외교적 폭탄’: 같은 색, 다른 결 핵무장론」,



이 시점에서 한국이 눈여겨볼만한 역사상의 사례가 존재한다. 바로 냉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지난 1970~1980년대 유럽에서 벌어졌던 중거리 핵전력(이하 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의 배치 경쟁이다.<sup>5)</sup> 여기에는 서유럽 전체를 공격권으로 포함하는 구(舊) 소련의 신형 핵 탄도미사일 배치와 이에 맞서기 위해 미국, 서유럽 국가들이 추구했던 군사적 대응,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외교적인 논쟁, 대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독자적인 핵무장 능력 없이 적대 세력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한 국가가, ‘동맹국에 의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맹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직접 배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외교·군사적인 효과, 비용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이 점에서 1970~1980년대 유럽의 INF 경쟁 사례는 북한 핵무장 위협의 고도화 추세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내부의 ‘대응적 핵무장론’, 그 가운데서도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적합성과 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 후기의 유럽에서 INF 경쟁이 발생한 군사적인 배경을 고찰하고, 이에 관한 미국과 서유럽, 소련의 정치·외교·군사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의 과정, 결과를 살펴

『신동아』, 2016년 3월, 156~159쪽.

5)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ICBM 등의 장거리 발사 수단을 통해 적의 영토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 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s), 군사 분쟁지역에 진전 배치되어 전방에서의 전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로 각각 구분된다. 그러나 핵무기가 발휘하는 대규모의 파괴, 살상 능력과, 이를 사용할 경우에 야기될 정치·외교적인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전략무기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핵무기를 탑재, 발사 수단의 투사(投射) 거리를 기준으로 ① 야전 배치 무기(예: 야포, 중·소형 항공기)로 탑재, 운용되는 사거리 수십~수백, 1,000km 이하의 ‘단거리 핵무기’, ② 특정 지역(예: 아시아, 유럽) 이내를 공격권으로 하는 사거리 2,000~5,000km 내외의 ‘중거리 핵무기’, 그리고 ③ ICBM급인 사거리 5,000~1만km 이상의 ‘장거리 핵무기’로 분류함을 밝혀둔다.

볼 것이다. 둘째, 1980년대의 유럽과 북한 핵무장 위협의 고도화, 실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 한반도의 전략적 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자 비교,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비교 및 평가를 통하여 한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응적 핵무장론, 특히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 주장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냉전 후기 유럽의 INF 경쟁

### 가. 배경: 미소(美蘇) 핵전력의 평형

냉전 체제의 성립으로 인한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사이의 정치·군사·이념적인 대립이 10여년째로 접어들고 있던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핵무기에 의한 전략 차원의 군사력 우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비록 소련이 1949년의 첫 원자폭탄 개발 성공으로 미국의 핵무기 독점을 끝내고,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를 통해 ICBM을 이용한 미국 영토의 직접적인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소련보다 양적, 구조적으로 우월한 핵무기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보기로 미소 양국이 한때 핵전쟁 직전까지 대치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한 1962년 당시, 미국은 지상 배치 ICBM 294기를 보유하여 75기의 소련보다 약 3.9배 앞서고 있었다. 여기에 수중 배치 SLBM은 144기로 22기의 소련보다 약 6.5배,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는 1,650대로 200대의 소련보다 8배 이상의 우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핵전력 삼각체제(nuclear triad)로 불리는 이틀 육·

해·공 탑재, 발사 수단을 이용하여 총 7,400개의 핵탄두를 소련 영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소련이 미국 공격용으로 보유 중이었던 핵탄두 400개보다 18배 이상 앞섰다.<sup>6)</sup> 그 결과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선제 핵공격을 받더라도, 여전히 소련의 핵전력과 경제·사회적인 기반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 충분한 핵 보복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하는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를 달성할 수 있었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핵전력 우위는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핵전력의 열세를 통감(痛感)한 소련이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핵무기와 ICBM급의 장거리 탑재, 발사 수단을 적극적으로 증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196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전쟁에 막대한 재정, 병력을 소모하는 가운데, 소련은 미국과의 핵전력 격차를 좁히는 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미소 양국간의 장거리 핵무기는 양적, 구조적으로 모두 평형(parity)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예컨대 소련은 1969년 1,050기의 ICBM을 보유하여 미국의 1,054기와 대등해졌고, 이듬해부터는 미국을 앞질렀다. SLBM에서도 소련의 보유량은 1973년 628기까지 증가하여 미국의 656기에 필적할 정도가 되었다.<sup>8)</sup>

미소 두 초강대국의 장거리 핵무기가 양적, 구조적으로 대등해졌다는 것은 양측 모두 선제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을 파멸시킬

6) Robert Ehrlich, *Waging Nuclear Peace: the Technology and Politics of Nuclear Weapons*(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5), p.58.

7) 확증파괴의 개념은 1964년에 처음 제시되었다.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비롯한 당시 미 국방당국은 소련에 대한 확증파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전력의 수준을 ‘소련의 인구 20~33%, 산업능력 50~75%에 달하는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정도’로 설정했다. 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2003), p.233.

8) Coit D. Blacker and Gloria Duffy eds, *International Arms Control*(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p.220.

정도의 대규모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음을 뜻했다. 이러한 장거리 핵전력의 평형은 미소 양국에게 “핵전쟁은 곧 공멸로 귀결될 것”임을 확신시키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쟁 억지가 이루어지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상태, 즉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를 현실화하였다. 이에 미소 양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장거리 핵무기를 증강하려는 더 이상의 경쟁이 무의미해졌음을 깨달았으며, 마침내 이를 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화, 협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sup>9)</sup> 1969년부터 시작된 ‘전략무기 제한 협상’(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이 그 결과물이었다.

먼저 미소 양국은 1972년 5월 상대방을 겨냥하는 ICBM과 SLBM, 장거리 폭격기의 숫자를 기존의 보유량에서 5년 동안 동결하는 ‘양적 통제’ 중심의 제1차 SALT 협정에 합의, 조인했다. 그 뒤를 이어 1979년 6월에 조인된 제2차 SALT 협정에서는 제한 대상을 순항미사일 등으로 확대하고, 다(多)탄두(MIRV: 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의 수와 이를 장착하는 탄도미사일의 수량에도 제한을 가하여 ‘질적 통제’의 성격을 강화했다.<sup>10)</sup> 이처럼 미소 두 초강대국 사이에 장거리 핵전력의 평형이 형성되면서 핵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군사적인 도전이 등장하는 단초가 되었다.

냉전 이래 미국이 보유해 온 대규모의 핵전력은 단순히 자국 방어의 목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자유 반공(反共) 진영의 주도 세력으로서, 소련을 위시한 공산 진영의 군사적 침략 위협과 맞서는 세계 각 지역의 우방, 동맹 국가들에 대한 방위 공약의 이행 능력을

9) 최영, 「미·소 군축협상」, 『국제정세』 제3권, 국제학술원, 1989, 63쪽.

10) 비록 제2차 SALT 협정은 조인 6개월 후인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비준이 무산되었지만, 이후 1986년 말까지 미소 양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준수되었다. 최영(1989), 66~67쪽.

뒷받침하기 위해,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파괴, 살상 능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반영한 결과였다.<sup>11)</sup> 하지만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소련도 미국에 대한 확증파괴를 강요하는 데 충분한 대규모의 장거리 핵전력을 확보하면서, 이제 미국은 우방, 동맹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핵무기의 동원이 자칫 소련의 전면 핵 보복과 그에 따른 치명적인 파괴,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다시 말해 “파리와 도쿄를 지키기 위해, 미국 인구 대다수의 안전과 국가 생존을 위협에 빠뜨려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현실화된 것이었다. 이 문제는 1970년대의 유럽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나. 소련의 SS-20 배치와 파장

냉전 시대를 통틀어, 미국의 대외 방위 공약에서 최우선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지역은 단연 서유럽이었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파괴, 살상을 경험했지만, 서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군사 부문에서 여전히 국제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되어 소련의 정치·군사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면서, 서유럽은 지정학적으로 소련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미국은 1947년부터 ‘마셜 플랜’(Marshall Plan)으로 알려진 대규모의 경제 원조를 통해 서유럽의 재건을 적극 지원했고, 1949년 4월에는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에 맞서기 위한 집단방위 기구로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이하 NATO:

11) 냉전 시대 미국이 우방, 동맹 국가들에게 제공한 핵전력 기반의 확장역지, 방위 공약에 관해서는 Steven Pifer et al, *U.S. Nuclear and Extended Deterrence: Considerations and Challenges*(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10), pp.4~7을 참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창설하여 서유럽의 다수 국가들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었다.<sup>12)</sup>

NATO의 결성 이후, 미국은 서독, 영국 등 서유럽에서 대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배치해 왔다. 1980년 기준으로 미국의 서유럽 배치 병력은 ① 2개 군단 예하 4개(기갑, 기계화보병 각 2개) 사단, 4개(보병, 기갑, 기계화보병, 항공 각 1개) 여단을 포함하는 육군 20만 6,400명, ② 공군 31개(전투 27개, 정찰 2개, 수송 2개) 비행대대 소속의 전투 임무기 644대를 포함했다.<sup>13)</sup> 그러나 냉전 시대 미국의 서유럽 방위 공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핵무기였다. 이는 소련을 위시한 공산 진영이 차지하고 있던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에서 전쟁 역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무기에 의한 압도적인 파괴, 살상 능력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인식을 반영했다.<sup>14)</sup>

미국이 서유럽에 배치한 최초의 핵무기는 1953년 10월에 도입된, 구경 280mm 야포에서 장착, 발사할 수 있는 15KT(킬로톤)급의 핵포탄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은 미사일, 항공기, 지뢰 등의 다양한 무기로 탑재, 운용할 수 있는 수천개의 단거리 핵무기를 서유럽에 배치했다.<sup>15)</sup> 만약 NATO의 재래식 군사력이 유사시 소련 등 공산 진영의

12) 이주영·김성형, 『현대 유럽의 역사』, 서울: 삼지원, 2002, 32~34쪽.

13)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0-1981*(London, UK: IISS, 1980), pp.6~9.

14) 1979년을 기준으로 소련은 서독과 인접한 중부 유럽 전선에 14개 기갑사단, 1만 3,500대의 탱크, 2,480대의 항공기를 배치했다. 여기에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병력까지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의 총병력은 47개 사단, 탱크 2만 500대, 항공기 4,200대에 달했다. 이는 NATO보다 사단 수에서 1.7배, 탱크는 2.9배, 항공기는 1.8배 많은 규모였다. 정영주, 「歐州의 軍事力均衡과 NATO의 新戰略」, 『국방연구』 제23권 제1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0, 49쪽.

15) 서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단거리 핵무기는 1950년대에 2,500개, 1963년에는 3,500개로 증가했고, 3년 후인 1966년부터는 7,000개를 넘어섰다. J. Michael Legge, *Theater Nuclear Weapons and the NATO Strategy of Flexible Response*(Santa Monica, CA: RAND, 1983), pp.84~86.

침략을 격퇴, 방어하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은 이들 단거리 핵무기를 일종의 전술 무기로 사용하여 공산 진영의 재래식 군사력을 제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핵무기 중심의 억지, 방어는 1950년대의 ‘대량 보복’(massive retaliation), 1960년대 이후의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을 비롯한 냉전 시대 미국의 서유럽 방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sup>16)</sup> 동시에 미국이 장거리 핵전력의 양적, 구조적인 우위를 통해 소련에 대한 일방적인 확증파괴 강요가 가능했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 소련의 장거리 핵전력 증강으로 미소 양국간에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할 정도의 장거리 핵전력 평형이 실현되면서, 그 동안 미국이 견지해 왔던 핵무기 기반의 서유럽 방위 전략은 그 유효성을 위협받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나 국력 기반 대부분이 소련의 전면 핵 보복 능력에 의한 괴멸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미국이 본토에 배치된 ICBM 등의 장거리 핵전력을 통해 서유럽을 비롯한 우방, 동맹 국가에게 확장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핵우산’(nuclear umbrella)의 신뢰성이 불가피하게 약화, 위축된 것이다. 이는 서유럽에서 소련 등 공산진영의 군사 위협을 억지, 격퇴하기 위한 방위력을 기본적으로 서유럽에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 혹은 핵무기에 의존해야 함을 뜻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서유럽에서 군사적 균형, 특히 핵전력 부문의 균형에 관한 위기감을 높이는 상황이 등장했다.

소련은 1977년부터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SS-20 ‘파이오니어’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SS-20은 대당 3개의 150KT 핵탄두를 장착하였고, 최대 사거리는 5,000km로 우랄산맥 서쪽에 배치될 경우, 서유럽 전체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아랍 지역까지 공격권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는 핵전력의 투사(投射) 거리를 기준으로, 당시 미국이

16) David S. McDonough, “Nuclear Superiority or Mutually Assured Deterrence: The Development of the US Nuclear Deterrent”, *International Journal*, Vol. 60, No. 3, (2005), pp.813~816.

서유럽에 배치하고 있던 단거리 핵무기의 탑재, 발사 수단들을 월등하게 압도하는 수준이었다.<sup>17)</sup> 또한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신속히 발사 가능하며,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탑재, 운용되어 종전에 소련이 배치했던 동급의 SS-4 ‘샌달’, SS-5 ‘스킨’ 탄도미사일보다 기동성과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켰다.<sup>18)</sup>

당시 소련의 SS-20 배치는 단순히 노후화된 탄도미사일을 신형으로 교체, 개량하는 것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소련이 미국과의 장거리 핵전력 평형 상태를 기반으로 유사시 미국의 전면 핵보복 가능성을 차단, 견제하는 가운데, 서유럽에서 재래식 군사력뿐만 아니라, 핵전력 부문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군사적 수단이 등장한 것이었다.<sup>19)</sup> 이는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의한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SS-20의 배치로 인한 소련의 일방적인 핵전력 우위에 노출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련의 정치·군사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될 위협성을 높였다.<sup>20)</sup> 게다가 SS-20은 미국 영토를 공격 대상으로 하지 않아서 SALT를 비롯한 미소 양국간의 군비통제 협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소련은 제약 없이 SS-20의 전력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17) 한 보기로 1970년대에 미국이 서유럽에 배치한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랜스’가 125km, ‘피싱-1’이 740km였다. 이는 동·서독 국경지대, 동유럽의 후방 지역에 배치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공산군을 공격할 수 있었을 뿐, 소련 영토에 직접 핵 보복을 가하기에는 불충분했다. 따라서 이들만으로는 소련의 서유럽 침략 의지를 억지, 분쇄하기 어려웠다. David Miller, *The Cold War: a Military History*(London, UK: John Murray, 1998), pp.438~439.

18) SS-4와 SS-5 탄도미사일은 각각 사거리가 1,900km, 4,100km였고, 모두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지하 격납고에서 탑재, 운용되어 신속한 발사 능력과 생존성이 부족했다. 이들은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소련이 배치를 시도했던 미사일이었다. Sven F. Kraemer, *Inside the Cold War from Marx to Reagan*(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15), pp.240~241.

19) Raymond L. Garthoff, *Dé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5), p.872.

20) Julian Lindley-French,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the Enduring Alliance*(Abingdon, UK: Routledge, 2015), pp.55~56.



이처럼 소련의 SS-20 배치를 계기로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적인 위협 인식은 고조되었다. 특히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서독이었다.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동서(東西) 분단으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과 직접 국경을 맞대어 서유럽의 정치·군사적인 최전선이 되었다. 또한 서독은 1980년 기준으로 육군 3개 군단 이하의 12개(기갑 6개, 기계화보병 4개, 공수 1개, 산악 1개) 사단, 해군의 수상전투함 23척(초계함 6척, 호위함 6척, 구축함 11척)과 잠수함 24척, 공군의 전투 임무기 483대 등을 포함하는 총 49만 5,000명의 대규모 병력을 보유했으며,<sup>21)</sup> 미국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NATO군 병력도 서독에 주둔했다. 이러한 점들은 만약 소련 등 공산 진영이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 서독이 1차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전력을 갖춘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서독은 미국의 핵우산, 혹은 미국이 배치한 단거리 핵무기에 의존하여 소련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야만 했다. 때문에 소련의 SS-20 배치는 서유럽의 어떠한 국가들보다도, 서독에게 특히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1977년 10월 28일 헬무트 슈미트 서독 수상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의 초청 강연을 통해 당시 서독의 군사적 위협 인식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슈미트는 “미소 양국에만 국한된 전략무기 제한은 유럽에서 소련의 군사적 우위를 고착화시키고, 불가피하게 서유럽 동맹 국가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소 양국간에 형성된 장거리 핵전력의 평형, 미소 핵 군비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련 SS-20의 배치로 인해, 서유럽이 미국의 핵우산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련의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에 노출되는 ‘회색지대’(gray area)로 전략할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sup>22)</sup>

21) IISS(1980), pp.26~27.

## 다. ‘이중결정’ 노선에서 퍼싱-2의 배치까지

SS-20의 배치로 서유럽에서는 소련이 재래식 군사력뿐만 아니라, 핵전력에서도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높아졌고, 이에 대응하여 유럽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 보장하기 위한 NATO 차원의 대응을 미국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SALT를 비롯한 소련과의 장거리 핵무기 통제 협상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고,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SS-20에 대한 별도의 군사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1977년 슈미트의 영국 연설을 계기로, 미국도 더 이상 서유럽으로부터의 우려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NATO는 당초 재래식 군사력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장기 방위계획’(LTDP: Long-Term Defense Program)에 기존의 서유럽 배치 핵무기의 개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계획을 추가했다. 1977년 10월에는 NATO 회원국의 국방장관들이 참가하는 ‘핵 기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 산하에 차관보 및 국장급 관료들로 구성된 ‘고위그룹’(HLG: High Level Group)을 설치하여 NATO의 독자적인 INF 배치의 타당성, 그로 인한 정치·군사·기술적인 영향 등의 검토에 착수했다.<sup>22)</sup> 그리하여 2년 후인 1979년 12월 12일, NATO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소위 ‘이중결정’(Dual-Track Decision)이 채택되었다.

이중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2개로 요약된다. 첫째,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핵 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한다. 그리고 둘째, 만약 소련과의 핵 군비통제 협상이 1983년까지 성과를

22) Maynard W. Glitman, *Last Battle of the Cold War: An Inside Account of Negotiating the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2006), p.21.

23) Garthoff(1985), p.854.

거두지 못한다면, NATO는 서유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소련의 신형 INF 배치, 증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급의 핵무기 탑재, 발사 수단을 서유럽에 배치한다.<sup>24)</sup> SS-20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동맹 차원의 군사적 수단을 마련하면서, 이를 앞세워 소련에게 핵 군비통제의 대상을 중거리 핵전력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서유럽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NATO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미국은 소련의 SS-20에 맞설 군사적 대안으로서 서유럽에 두 종류의 INF 탑재, 발사 수단을 제시했다. 이들은 ① BGM-109 ‘그리폰’ 지상배치 순항미사일(GLCM: Ground-Based Cruise Missile), ② MGM-31B ‘퍼싱-2’ 탄도미사일이었다. 그리폰은 각 발사대에 4발씩을 탑재, 운용하였으며, 대당 200KT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었다. 최대사거리는 2,500km에 달했다. 또한 퍼싱-2는 대당 50KT의 핵탄두를 장착했으며, 최대사거리는 1,800km였다. 이들 두 미사일은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우랄산맥 서부의 소련 주요 도시들을 공격권 내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sup>25)</sup> 서유럽 밖에 배치되는 ICBM, SLBM 등을 통해 제공되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와 대등한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NATO의 INF 배치 계획은 곧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었다. 해당 무기들이 배치될 서유럽 국가들 내부에서 반핵(反核)·평화주의 단체, 좌파 성향의 정당들이 주도하는 배치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그로 인해 정치·사회적인 논란, 대립이 가중된 것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 강화가 소련의 군사 위협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라는 서유럽의 전통적인 안보관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에 의한 새로운 INF의 배치가 핵전쟁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4) Glitman(2006), pp.41~46.

25) 특히 퍼싱-2는 그리폰보다 사거리는 짧았지만, 순항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의 기술적인 특징 덕분에 발사 7~8분만에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었다. Kraemer(2015), p.241.

1981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에 대한 군비 증강 강화를 천명하면서, 서유럽 내부의 INF 배치 반대 운동은 더욱 격화되었다.<sup>26)</sup> 본래 서유럽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INF의 배치가, 도리어 ‘미국에 의한 군비경쟁의 촉발’, ‘핵전쟁 위기의 고조’로 비춰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 NATO는 이중결정의 발표 당시에 시한으로 제시되었던 1983년 12월부터 INF의 서유럽 배치를 시작했다. 그리폰 순항미사일은 서독,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 5개국에 총 464개(발사대 116대에서 탑재) 규모로 배치되었다. 퍼싱-2 탄도미사일도 서독에 총 108개가 배치되었다.<sup>27)</sup> 당시 소련은 300개가 넘는 SS-20을 배치한 상태였다.

#### 라. 미소 INF의 폐기

NATO가 1979년 이중결정의 발표를 통해 SS-20을 포함한 유럽에서의 INF를 대상으로 하는 군비통제 의사를 처음 표명했을 당시, 소련은 다분히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아직 미국의 INF가 서유럽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SS-20의 배치를 통해 유럽에서 조성되기 시작한 핵전력의 우위를 굳이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할 동기가 희박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련은 SS-20에 대응하려는 NATO의 INF 배치가 유럽의 평화, 군비통제 노력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선전, 위장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쳤다.<sup>28)</sup> 서유럽 내부의 반핵(反核)·평화주의

26) Stanley Hoffmann, “NATO and Nuclear Weapons: Reasons and Unreason”, *Foreign Affairs*, Vol. 60, No. 2, (1981-1982), pp.330~331.

27) Kraemer(2015), p.241.

28) 구체적으로 소련은 “미국의 INF 배치는 소련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며, 유럽을 핵전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속셈.”, “소련은 군비경쟁의 종단을 원하지만, 미국은 INF 배치를 통해 유럽에서의 핵전력 우위를 노리고 있다.” “미국이 INF를 배치하면 소련은 추가적 군비 증강으로 대응할 것.” 등의 논리를 내세

단체, 정당들을 부추겨 정치·사회적인 논란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서유럽 국가들이 INF의 배치를 포기하게끔 획책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후 1981년에야 INF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미소 양국간의 핵군비통제 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11월 18일 “소련이 SS-20을 비롯한 INF를 모두 폐기하면, 미국도 그리폰 순항미사일과 퍼싱-2 탄도미사일의 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이는 ‘제로 옵션’(Zero-Option)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당시 레이건의 선언은 2년 전 NATO의 이중결정에서 소련의 SS-20에 대응하기 위한 INF의 배치와 함께, INF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과의 핵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결과였다. 아울러 INF 배치가 도리어 유럽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을 높인다는 서유럽 국가들 내부의 반대, 정치·사회적인 우려 및 동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해당 전력을 대상으로 하는 소련과의 군비통제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sup>29)</sup>

미국과 소련은 레이건이 제로 옵션을 선언한 지 12일 후인 11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INF를 대상으로 하는 군비통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은 충돌했다. 미국은 유럽에서의 핵전력 균형이 SS-20을 비롯한 소련 INF의 배치로 훼손된 상태라는 전제 아래, 미소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 배치 INF 전체를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소련은 영국, 프랑스 핵전력의 존재로 유럽에서의 핵전력이 균형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S-20의 유럽 내 배치 수량을 영국,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의 중·장거리 탑재, 발사

위 NATO의 INF 배치에 대한 흑색선전을 전개했다. Jacquelyn K. Davis et al, *The INF Controversy: Lessons for NATO Modernization and Transatlantic Relations*(Washington D.C: Pergamon-Brassey's International Defense Publishers, 1989), pp.33~34.

29) 이수형, 「유럽안보와 미-소의 군비통제 협상: 중거리핵무기(INF) 협상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9권 제1호, 21세기정치학회, 1999, 445쪽.

수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감축 및 동결하고, 미소 양국이 더 이상의 신형 INF를 배치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sup>30)</sup>

이러한 소련의 입장은 자신들의 INF 전력 대다수를 유럽 이외의 지역(예: 우랄산맥 동부)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NATO가 SS-20에 대응하기 위한 INF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반영했다. 소련에게 미국과의 협상은 미국의 INF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고, 서유럽 내부의 반핵(反核)·평화주의 여론, 감정에 편승하여 서유럽에서의 INF 배치에 관한 NATO 국가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려는 수단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후 그리폰 순항미사일, 퍼싱-2 탄도미사일의 배치 시작이 결정된 직후인 1983년 11월 23일, 소련이 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미소 양국의 INF 협상은 2년만에 중단되었다.

INF에 대한 미소 양국의 협상은 2년 후인 1985년에 들어서 활기를 되찾았다. 당시 소련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Перестройка, 개혁), 글라스노스트(Гласность, 개방)’의 기치를 내세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새로운 최고 권력자로 등장했는데, 그는 소련의 고질적인 군사비 지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등 서양 진영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sup>31)</sup> 이에 따라 소련은 INF 협상을 비롯한 미국과의 핵 군비통제 협상에 대해서도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었다. 그 증거로 소련은 1986년 ‘INF 전체의 폐기’라는 제로 옵션 원칙에 동의하였고, 영국과 프랑스의 핵전력을 INF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도 철회했다.

마침내 1987년 12월 8일, 미소 양국의 정상은 역사적인 『INF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미소 두 초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던 사거리 500~5,000km

30) 이수형(1999), 449~451쪽.

31) 김달용, 「군축협상의 이론적 접근: 미국의 군축협상 패턴 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 『安保學術論集』 제9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92, 424쪽.

의 지상 배치 중·단거리 미사일을 모두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대 등의 지원장치를 1년 6개월 이내에, 사거리 1,000~5,500km의 중거리 미사일은 3년 이내에 모두 폐기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약이 공식 발효된 1988년 6월부터 미국이 총 436개(퍼싱-1 탄도미사일 72개, 퍼싱-2 탄도미사일 108개, 그리폰 순항미사일 256개 포함), 소련은 총 703개(SS-20 441개 포함)의 미사일과 이들에 장착된 핵탄두를 폐기하였다.<sup>32)</sup>

이로써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미소 두 초강대국 사이의 핵전력 경쟁은 소련이 SS-20을 배치하기 시작한 지 10여년,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INF가 서유럽에 배치된 지 4년이 지나서야 끝났다. 1979년의 이 중결정에 따른 NATO의 그리폰 순항미사일, 퍼싱-2 탄도미사일 배치는 미소 두 초강대국 사이의 장거리 핵전력 평형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관한 신뢰성이 약화, 위축된 상황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SS-20 배치에 맞서 유럽에서의 핵전력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소련이 INF를 대상으로 하는 핵 군비통제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폐기함으로써 유럽에서의 핵 위협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외교·군사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는 수단의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sup>33)</sup>

32) 이강석, 「美·蘇 軍縮協商의 展望」, 『통일문제연구』 제1권 제2호, 국토통일원, 1989, 242쪽.

33) Lynn E. Davis, “Lessons of the INF Treaty”, *Foreign Affairs*, Vol. 66, No. 4, (1988), p.724.

### 3. 한국의 핵무장 논쟁에 대한 시사점

#### 가. ‘미군 핵무기 재배치’ 주장의 논리들

오늘날 한국의 정치권과 학계 일각, 대중 여론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대응적 핵무장론은 기본적으로 2가지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무장 능력의 양적, 질적 강화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에 따른 좌절감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불참하고 있으며, 이후 4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에도 본격 착수하여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추세다.<sup>34)</sup> 그 결과 외교를 통한 북한의 자발적·평화적인 비핵화에 관한 기대,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북한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핵무장 노선을 고수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의 고도화를 지속할 것임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한국도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 전쟁 역지를 유지 및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안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不信)이다.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영토, 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 등에서 배치되어, 유사시 수시간이 넘어서야 투입될 수 있는 미군의 핵무기와 육·해·공 탑재, 발사 수단들이 과연 북한의 핵무장 위협을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sup>35)</sup> 여기에 북한이 휴전선 너머의 한국 영토뿐만 아니라, 아시아·

34)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핵무기 10~16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그 수량이 최소 20개, 최대 50~100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David Albright,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p.19; p.30.

35) 미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4일 후인 금년 9월 13일, 괌에 배치 중인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 더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핵우산의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2010년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하여 북한이 핵무장의 지속 과정에서 대남(對南) 군사도발의 빈도, 강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도 핵우산의 실패,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한국 내부의 인식을 뒷받침한다.<sup>36)</sup> 그리고 이는 핵 보복 능력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가시(可視)화하고, 유사시 핵무기의 신속한 동원을 보장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 영토 내부에서 직접 핵무기를 배치, 운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한국이 이러한 대응적 핵무장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생산, 배치,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확보에 필수적인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 시설의 부재(不在)로 단기간 내에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와 그에 따르는 외교·경제·사회적인 손실의 심각성,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sup>37)</sup>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자 핵무장의 대안으로 미군의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반입, 재배치

---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긴급 출격시킨 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당시 미군 폭격기의 출격이 ‘일회성 무력시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마저도 기상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게 실시되면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불신을 확인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용원, 「바람 분다고 못 뜯 美 폭격기…한계 고스란히 드러난 핵우산」, 『조선일보』, 2016년 9월 13일.

36) Mun Suk Ahn and Young Chul Cho, “A Nuclear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Vol. 69, No. 1, (2014), pp.28~29.

37)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비판은 Mark Fitzpatrick, *Asia’s Latent Nuclear Power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Abingdon, UK: Routledge, 2016), pp.50~53을 참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38)</sup>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논리들은 다음의 5개로 나뉜다.<sup>39)</sup> 첫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전력화하는 것보다 빠른 기간 이내에, 적은 경제적 비용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의 핵우산과는 달리, 한국 영토에 재배치된 미군 핵무기는 북한에 대해 신속히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대응 수단으로서,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군사도발에 대한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셋째,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하려는 동기를 약화, 해소시켜 한미 양국이 동맹의 외교·군사적인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넷째, 독자 핵무장의 추진에 따르는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질서로부터의 이탈, 특히 『핵확산 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 제재의 위협부담을 회피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대한 군사적 억지,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째, 한반도에서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핵전력의 일방적 우위를 종식시키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시 ‘외교 협상을 통한 평화적 비핵화’로 유도, 복귀시키는 데 필요한 외교·군사적인 주도권을 제공한다.

특히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38) 과거 미국은 6.25 전쟁의 휴전 5년 후인 1958년부터 다수의 단거리 핵무기를 주한미군 소속으로 배치한 바 있었다. 이들은 1960년대에 900개를 초과하여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1970년대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1991년에는 남아있던 100여개의 단거리 핵무기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모두 철수되었다. 정경두, 「미국의 동북아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의 역할 변화」, 『軍史』 제8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113~115쪽.

39) Seongwhun Cheon, “A Tactical Step That Makes Sense for South Korea”, *Global Asia*, Vol. 7, No. 2, (2012), pp.75~76.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바로 본 논문에서 살펴본, 1970~1980년대 유럽 INF 배치 경쟁의 역사상 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40)</sup> 이들은 과거 NATO가 이중결정에 따라 그리폰 순항미사일, 퍼싱-2 탄도 미사일을 서유럽에 배치하여 SS-20을 통해 유럽에서 일방적인 핵전력 우위를 차지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거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 군비통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여 양측 모두의 INF 폐기를 이끌어 냈듯이, 한국도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한국은 핵무기 없이 핵무장한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왔지만, 미군 핵무기가 한국 영토에 재배치된 후에는 북한과 동등한 조건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성격을 ‘남북한 모두의 동시 핵폐기’로 전환시켜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sup>41)</sup>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중국에게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환기시켜 북한에 대한 비핵화 노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나. 비판: 유럽 INF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러나 이처럼 북한 핵무장 위협에 관한 대응책으로서 미군 핵무기의

40)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금년 7월에 출간된 정책건의서에서 “소련의 SS-20 핵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퍼싱-2 미사일을 배치하여 미·소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한국 영토에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 첨단 전략자산 상주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10월 14일,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외교안보위,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통일·공공외교 추진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건의과,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6년 2차』,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6, 9~10쪽.

41)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제16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10, 76~81쪽.

재배치를 주장하는 논리들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냉전 후기 유럽에서의 INF 배치 경쟁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더욱 비판의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소련의 SS-20 배치에 대응하기 위한 NATO의 이중결정이 계획, 실행되었던 1970~1980년대 유럽의 정치·군사적인 배경과 그에 따른 파급력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전력의 평형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지난 1970년대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SS-20 배치를 경계했던 주요 배경은 소련이 미국에 대한 확증파괴를 가하기에 충분한 대규모의 핵무기와 육·해·공의 다양한 장거리 탑재, 발사 수단들을 다수 확보하면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이 약화, 위축되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에게 확증파괴를 강요할 정도의 수준과 거리가 멀다. 북한은 발사대 100~200대 규모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미국 영토를 겨냥할 수 있는 ICBM의 비중은 매우 적다.<sup>42)</sup> 아울러 ICBM의 전력화를 위한 북한의 기술적 역량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한 사거리의 연장 및 다(多)단계 분리, 지상에서의 엔진 성능시험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입증되었을 뿐이며, 탄두의 재진입과 유도장치의 정교화를 비롯한 여러 기술적인 장애가 남아있는 실정이다.<sup>43)</sup>

이에 따라 북한의 핵전력에 의한 군사적인 위협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로 한정될 가능

42) 미 국방성은 북한이 최소 6대의 ICBM급 탄도미사일(통칭 KN-08) 발사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들은 2012년과 2013년, 2015년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5*(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6), p.19.

43) 장영근, 「美 타격 능력 과시는 김정은의 허세: 北 미사일 능력 검증 & 사거리 시뮬레이션」, 『신동아』, 2016년 5월, 186~189쪽.

성이 매우 높다.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소수의 미국 도시들을 파괴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과거 소련이 1970년대 이래 미국 인구의 대부분, 경제·사회적 기반을 괴멸시킬 정도의 대규모 장거리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왜소한, 단순히 “핵무기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상징적·심리적인 효과만을 발휘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우방, 동맹 국가들에 대한 핵우산의 제공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따라서 한국 영토에 대한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를 주장하려는 근거가 되기에 미흡하다.<sup>44)</sup>

둘째, “한국 영토에 재배치하기에 적합한 유형의 미군 핵무기가 있는가?”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핵전력은 그 수량, 종류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 냉전 시대와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탄도·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항공기, 야포, 심지어는 지뢰 등으로도 탑재, 운용할 정도로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최대 3만개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이 배치 중인 핵무기 총 2,070개의 탑재, 발사 수단은 본토에 배치된 ICBM과 SLBM, 장거리 폭격기만으로 한정되어 있다.<sup>45)</sup> 해외의 분쟁 지역에서 직접 배치, 운용하기 위한 단거리 핵무기는 항공기 투하용 폭탄 500개만이 남아있다. 이들은 NATO 소속으로 서유럽에 배치된 180개, 미국에서 예비용으로 저장 중인 320개로 각각 구분된다.

만약 한국 영토에 미군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면, 그 종류는 항공

44) 천영우 전(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9월 19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초보적 핵무기가 두려워서 동맹국인 한국과의 공약을 못 지킨다면, 미국이 현재 맺고 있는 모든 동맹이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배영경, 「천영우 前 외교안보수석 “핵무장으로 北억제될지 의문”」, 『연합뉴스』, 2016년 9월 19일.

45)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United States Nuclear Forces 2016”,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2, No. 2, (2016), p.64.

기로 탑재, 투하하는 폭탄으로 선택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핵무기는 유사시 탑재, 운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휴전선 이남의 한국 영토 전체를 공격권 내에 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혹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거리포 공격에 따른 취약성을 높일 것이다.<sup>46)</sup> 1980년대에 NATO가 서유럽에 배치한 INF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탑재, 운용되어 생존성이 높고, 신속하게 소련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탄도·순항미사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 시점에서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1970~1980년대의 서독, 현재의 한국은 독자적인 억지 능력의 확보 수준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독은 냉전 시대를 통틀어 줄곧 NATO의 일원으로서, 유럽 중부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방위 임무를 수행할 재래식 군사력만을 보유해 왔으며, 전쟁 억지는 전적으로 미국이 자국 영토에 배치한 핵무기, 혹은 핵우산에 의존했다.<sup>47)</sup> 독자적으로 소련 영토를 공격, 반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수단도 없었다. 때문에 서독은 미국의 신형 INF 배치를 통해 소련 영토에 대한 공격, 보복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보하여 소련 SS-20의 위협을 견제, 상쇄시켜야 했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사거리 300km 이상의 ‘현무’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를 개발, 배치하여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 영토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및 발전시키고 있다.<sup>48)</sup> 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하지는 못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46) Kim Jae-Yeop, “Neither Realistic nor Effective: The Fallacy of U.S. Nuke Redeploymen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4, (2015), p.515.

47) 서독은 정규군의 재창설 직전인 1954년 ‘자국 내에서의 핵무기 제조 배제’ 원칙에 동의한 바 있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戰犯) 국가로서, 재무장 과정에서 유럽 주변 국가들의 경계,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였다. Freedman(2003), p.310.

48) James Hardy, “Korea Progression: Seoul Adapts to Threats from the North”, *Jane’s Defence Weekly*, Vol. 51, No. 18, (2014. 4. 30), pp.25~27.

운용하기 위한 능력의 양적, 질적 수준을 대폭 약화시키는 임무의 수행은 가능하다. 굳이 미군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고서도, 독자적인 대북(對北) 보복, 타격을 통해 평시에 전쟁 역지를 달성하고, 전쟁 초기에는 북한 핵무기의 운용 능력을 약화, 감소시켜 북한이 의도하는 정치·군사적인 위협의 강요를 거부, 분쇄할 수 있는 전략무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1970~1980년대 유럽의 INF 배치 경쟁 사례를 근거로,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기여하는 수단일 것이라는 주장도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미소가 1970~1980년대 유럽에 배치했던 INF, 현재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에 대해 각각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1970~1980년대의 유럽 국가들에게 SS-20과 그리폰 순항미사일, 퍼싱-2 탄도미사일은 치명적인 전략무기였지만, 이들을 보유, 배치했던 미소 두 초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수만개가 넘는 자신들의 대규모 핵전력에서 불과 일부분만을 차지할 뿐이었다. 설령 이들 무기를 폐기한다고 해도, 미소 양국은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장거리 핵전력을 통해, 상호확증파괴에 입각한 전쟁 역지 태세의 유지가 가능했다. 때문에 미소 양국은 전쟁 역지 능력의 근본적인 약화를 걱정하지 않고서도, 정치적 의지 여하에 따라 충분히 유럽에 배치된 INF의 폐기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49)</sup>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생존의 보장 수단, 최우선적인 전략무기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이런 북한이 단순히 미군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재배치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장 능력 전체를 단순히 한국, 국제사회와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비핵화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북한은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를 자신들의 핵무장을

49) Kim(2015), p.516.

정당화, 공고화하는 데 적극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그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며, 특히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인 영향력이 큰 중국, 러시아의 협력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 과정에서 야기될 한국 내부의 반미(反美), 반핵(反核) 운동과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갈등, 분열은 THAAD 배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이처럼 1970~1980년대 유럽에서의 INF 배치 경쟁과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외견상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NATO의 INF 배치와는 달리,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대응적 핵무장, 특히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는 결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기대하는 외교·군사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반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파탄, 종식시키고, 북한이 요구하는 ‘항구적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는 데 악용될 뿐이다.

#### 4. 정책 제언

오늘날 한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미국 핵우산의 실패(失敗)·무용(無用)론’은 상당 부분 핵우산의 군사적인 역할,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핵우산은 결코 북한에 의한 모든 유형의 군사적 위협을 예방, 억지할 수 있는 만능의 수단이 아니다. 이는 과거 주한미군이 수백개의 단거리 핵무기를 보유, 배치하고 있던 1960~1980년대에도 북한이 1.21 청와대 기습 미수, 푸에블로호 납치, 판문점 도끼만행, 아웅산 테러 등의 수많은 군사도발을 자행한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 핵우산의 역할은 북한이 ①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전면전쟁을 도발하거나, ② 핵무장 능력을 앞세워 군사도발의 강도를 확대,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저지, 분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미국의 핵우산은 지난 수십년 동안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우산을 비롯한 기존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강화 및 발전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를 위한 핵우산의 역할에 회의(懷疑)적인 한국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이 핵무장 능력의 고도화가 제공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인 효과를 과신(過信)하여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전보다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더욱 빈번히 일으킬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조치들이 요구되는가?

첫째, 미국에 의한 핵우산 공약의 제도적인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1978년의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공동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공표(公表)했으며, 이후에도 매년 SCM 공동성명에서 이를 재확인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한미 양국간의 조약이 아닌, 미국의 자발적인 선언에 의거한 것이므로 법적, 제도적인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갖는다.<sup>50)</sup>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 정부가 핵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에 따른 정치·외교적인 부담, 미국 내부의 반전(反戰) 여론 등을 이유로 핵우산의 제공을 실행하지 않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국방부의 정책실장, 미 국방성의 부(副)차관보 수준의 자문 및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억제전략 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금년 10월 19일 한미

50) 박원곤, 「미국의 대한민국 핵우산 정책 분석 및 평가」, 『국방정책연구』 제77호, 한국 국방연구원, 2007, 51~53쪽.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회의(일명 2+2 회의)의 결정에 따라 신설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도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를 보완,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sup>51)</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핵우산 제공이 미국의 일방적 의지, 선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군사안보적인 필요, 의사를 반영하여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NATO가 채택하고 있는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를 한미동맹에도 적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sup>52)</sup> 여기서는 한미 양국이 NATO의 NPG처럼 국방장관 차원에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군 핵무기를 동원하는 조건, 수단, 방식 등을 비롯하여 핵우산의 기획과 실행에 함께 참여하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sup>53)</sup> 이

51) 현재의 한미 억제전략 위원회는 지난 2011년에 설치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모체로 한 것이며, 2015년 4월부터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CMCC: 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와 통합되어 운영 중이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한미 외교, 국방 분야의 차관급 당국자가 참여하여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전력의 종류, 동원 시기 등을 논의하고,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할 방침이다. 조준형,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나토 모델과 닮았지만 위상엔 차이」, 『연합뉴스』, 2016년 10월 20일.

52) 일반적으로 핵공유의 유형은 ① 자국의 핵무기를 우방, 동맹 국가들의 영토에 직접 배치하는 ‘주둔’(basing), ② 유사시 우방, 동맹 국가들에게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대여’(loaning), 그리고 ③ 우방, 동맹 국가들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공’(giving)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NATO식 핵공유는 대여에 해당한다. Julian Schofield, *Strategic Nuclear Sharing*(London, UK: Palgrave Macmillan, 2014), pp.16~18.

53) James Mazol, “The Pivot and Extended Deterrence: Options to Reassure South Korea”, in Project on Nuclear Issues ed., *A Collection of Papers from the 2012 Nuclear Scholars Initiative*(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2), pp.233~235; Evan B. Montgomery, *Extended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Geopolitics, Proliferation, and the Future of U.S. Security Commitments*(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경우,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등 차관급 이하의 기존 협의체는 NATO NPG 산하의 HLG처럼 핵우산의 기획, 실행에 관한 한미 양국 국방 장관의 의사결정체를 보다 전문적으로 자문,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의 핵공유 체제 정립은 굳이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평·전시에 한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이 동원될 수 있게끔 보장하여 전쟁 억지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독자적인 대안으로서 ① 북한 핵무기의 지휘통제, 관리 시설과 탑재, 발사 수단들을 감시, 추적하는 광역 정보수집 자산, ②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파괴, 제거하는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그리고 ③ 북한의 핵 공격을 요격하는 고도화된 방공 전력 등으로 구성되는 비핵(非核) 전략무기의 확보, 발전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어떠한 재래식 무기도 핵무기의 압도적인 파괴, 살상 능력에 동등하게 맞설 수는 없다.”는 논리로 비핵 전략무기의 군사적 가치를 평가절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킬 체인’(Kill Chain)으로 불리는 한국의 비핵 전략무기 확보, 운용이 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핵우산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sup>54)</sup> 오히려 비핵 전략무기는 핵우산에 의한 대북(對北) 핵 보복을 실시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약화시켜 ‘결정적인 최후 보복’을 위한 확전우위(escalation dominance) 수단으로서 핵우산의 전략적 가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를 갖는다.<sup>55)</sup>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6), pp.33~35.

54) 권혁철,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전략연구』 제64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106~108쪽.

55) 본 논문에서 논의되었던 1980년대 서유럽에서도 NATO는 소련 SS-20에 대응하기 위한 INF의 배치뿐만 아니라,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에 따른 ‘후속전력 공격’(FOFA: Follow-On-Forces Attack) 전략의 구현에 필요한 장거리 정밀 화력, 광역 정보수집 자산의 전력화를 적극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NATO는

셋째,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전략무기의 전개, 동원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주요 표적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 가능한 순항미사일 탑재 이지스 구축함과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북한의 방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등이 포함된다.<sup>56)</sup> 이는 미군 핵무기 재배치의 대안으로서, 미국의 강화된 방위 공약 이행 능력, 의지를 가시화하여 한국 내부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북한이 핵무장 위협 능력의 과시, 강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인 현상타파를 획책하려는 의도를 거부,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년 10월 20일의 제48차 한미 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방안이 검토된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였다.<sup>57)</sup> 만약 이들 전략무기의 상시적인 배치가 곤란하다면, 적어도 북한의 군사 도발이 예상되는 시점보다 앞서, 혹은 그 직후의 상당 기간 동안 한반도로의 전개, 한시적인 배치를 통해 북한에 의한 무력분쟁의 발생 및 확산 시도를 억지, 거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THAAD 요격 미사일의 주한미군 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해 최소 2차례 이상의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다층 방어(multi-layered defense) 능력을 구축하고, 미국을 겨냥한 북한 ICBM의 핵 공격을 조기에 요격하기 위해 SM-3 고(高)고도 함대공

---

과거보다 전쟁 억지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상호, 「한국의 대북 전쟁억제력 강화방안 연구」, 『세종정책연구』 제6권 제2호, 세종연구소, 2010, 168~171쪽.

56) 이정진, 「어떤 美전략무기 한반도 순환배치 검토되나」, 『연합뉴스』, 2016년 10월 21일.

57) 당초 한미 양국의 국방당국이 SCM에서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에 명시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의 검토”라는 내용만 포함되었다. 김철환, 「위기관리협의체 신설…확장억제 강화 시동」, 『국방일보』, 2016년 10월 24일.

미사일을 탑재, 운용하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원활하게 투입,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군사상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사실상의 후견 세력인 중국에게 ‘북한의 핵무장 지속으로 인한 전략적 불(不)이익’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보다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수단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sup>58)</sup> 요컨대 미국과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는 한국이 지난 1980년대 서유럽에서 NATO가 신형 INF의 배치를 통해 달성했던 정치·군사적 효과를 한반도에서 재현할 수 있는,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보다 현실적·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양국은 핵우산의 실행 조건을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만 한정시키는, 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NFU: No-First-Use) 원칙이 연합 핵전략의 근간(根幹)임을 공식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핵우산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대한 억지, 대응 수단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북한과의 군사 분쟁이 재래식 군사력만의 대결로 한정되는 이상,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핵우산의 대북(對北) 선제 불(不)사용 원칙은 핵우산 공약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방어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확인시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북한이 ‘미국에 의한 핵전쟁 위협’을 핑계로 핵무장을 고수하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sup>59)</sup>

58)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가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 Missile Defense)’ 편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THAAD를 영구적으로 배치할 의도는 없으며,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가시적으로 해소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체계(예: L-SAM)가 확보된 이후에는 언제든 철수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59) 오늘날 핵무장국들 가운데 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가 대표적이다. 김재엽,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9권 제2호,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 2016, 47쪽.

그리고 여섯째, 한국은 ‘조건부 비핵화’(conditional denuclearization) 원칙을 채택, 선언해야 한다. 이는 “핵무기를 제조, 보유, 비축,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 수정하는 대신, “미국이 핵우산 제공 공약을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물리적인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견상으로는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유지, 재확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남겨둘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에 맞서기 위한 능력을 전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국의 정책적 의지를 국내외에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핵우산 공약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유도하며, 북한의 거듭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함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sup>60)</sup>

## 5. 결론

냉전 후기인 지난 1970~1980년대 유럽에서 벌어졌던 INF 배치 경쟁은 미소 두 초강대국이 상호확증파괴를 가할 수 있는 장거리 핵전력의 평형을 배경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 위축된 상태에서 SS-20이 배치되면서 유럽의 군사력 균형이 소련의 일방적 우위로 훼손되고 있다는 서유럽 국가들의 위기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NATO는 소련의 SS-20 배치에 상응하여 서유럽에서도 소련에 대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동급의 INF를 배치하는 것으로 대응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유럽에서의 핵전력 균형의 회복을 바탕으로,

60) 김재엽(2016), 49쪽.

마침내 소련과의 핵 군비통제 협상으로 INF 폐기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군사적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국 내부에서는 핵무기의 독자적인 개발, 혹은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를 통한 대응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주장이 과거보다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이를 주장하는 측은 1970~1980년대 유럽의 INF 배치 경쟁을 사례로 제시하여 미군 핵무기의 재배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70~1980년대의 유럽, 현재의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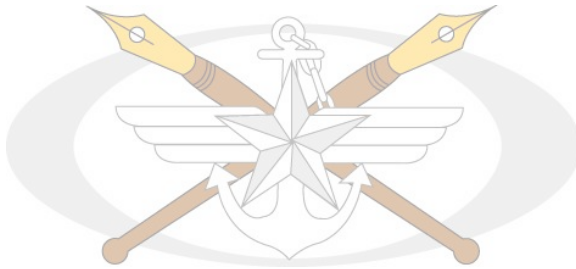
한국의 핵무장은 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정책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거나, ②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 정치·외교적 의지를 상실하는 상황에서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sup>61)</sup> 설령 한국이 핵무장을 실현한다고 해도, 한반도의 영구적인 분단,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인도, 파키스탄과 유사한 적대적인 병존(並存) 관계, 분쟁이 고착화되는 값비싼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정치·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열세를 강요당하는 ‘최악’(最惡)을 막기 위한 ‘차악’(次惡), 혹은 ‘차선’(次善)일 뿐, 결코 북한의 핵무장에 의한 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최선’(最善)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건재한 이상,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외교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에게 핵무장의 무용성(無用性)을 확신

61)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집권 시절인 지난 1970년대의 핵무기 개발 시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다. 이에 관해서는 조철호, 「1970년대 초반 박정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과 한미관계」, 『평화연구』 제9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0, 192~207쪽을 참고.

시키고, 평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6.9.30, 심사수정일: 2016.11.15,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중거리 핵전력(INF), 이종결정, 핵우산, 한국의 핵무장 논쟁





<ABSTRACT>

A Study on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Deployment Race at Europe during the last  
period of Cold War(1970s-1980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Security  
- Focu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U.S Nuclear Weapons Re-deployment Arguments -

Kim, Jae-Y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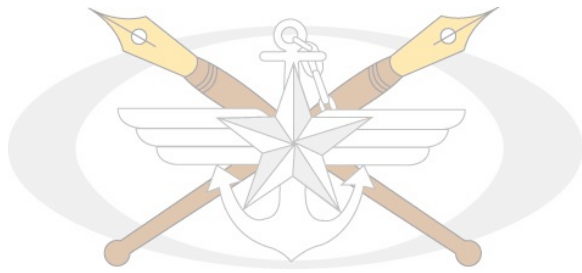
During the 1970s-1980s, the late period of the Cold War, Europe had witnessed a deployment race o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represented by SS-20 ballistic missile of Soviet Union and Gryphon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Pershing-II ballistic missile of the United States (U,S), while politico-military tension was heightening in the region. The conflict was set out as the situation of Western Europe weakened credibility of U,S nuclear umbrella for the region due to the nuclear parity between U,S and Soviet Union, followed by the deployment of SS-20 which could put Western Europe vulnerable to Soviet Union's unilateral military superiority. Dual-Track Decision of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to deploy U,S INF at Western Europe contributed to not only restore regional nuclear force balance against Soviet Union, but also offered a leverage, in terms of both diplomatic and military aspects, at nuclear arms control negotiation with Soviet Union, which had ultimately concluded in the dismantlement of INF from both U,S and Soviet Union.

As concerns on the growing nuclear armament capabilities of North Korea are disputable agenda among public opinion in Republic of Korea (ROK), the voice of demanding ROK's nuclear armament by indigenous nuclear program and re-deployment of U,S short-range nuclear weapons

has been gaining a widespread support. It is noteworthy that supporters of ROK's nuclear armament, especially the idea of U.S short-range nuclear weapons re-deployment, is putting up the case of INF deployment race at Europe during the 1970s-1980s to justify their claims. Despite a superficial resemblance, however, the case of INF deployment race at Europe during the 1970s-1980s shows many differences from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r. As a result, it will be a huge fallacy to justify ROK's nuclear armament, including U.S short-range nuclear weapons re-deployment, by putting up the case of INF deployment race at Europe during the 1970s-1980s. As long as U.S maintains both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for keeping nuclear umbrella commitment, ROK should not give up effor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supported by enhanced defense capabilities and diplomatic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ey words :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Dual-Track Decision, Nuclear Umbrella, Korea's Nuclear Armament Controversy



#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METT+TC 분석 틀에 성공요인 분석지표를 적용하여 -

양철호\*\*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METT+TC 분석 틀과 성공요인 분석지표
4. 레바논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 분석
5. 결론

## 1. 서론

냉전종식과 더불어 평화가 정착되리라는 국제사회의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국지적 분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냉전시대에 국제질서를 유지해 온 지역적 강대국의 이해가

\* 본 논문은 본인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청주대학교 군사학과장/ 교수

상충되고 이념적 구속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분쟁의 원인도 민족, 종교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특히 최근의 분쟁은 기아와 빈곤, 질병은 물론 인권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때로는 대규모 비인도적 참사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냉전시대에 국력과의 핵심적인 수단이었던 군사력은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분쟁억제 및 평화유지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아울러 빈발하는 분쟁의 효율적 관리가 국제사회의 책무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은 문제해결의 중요한 도구이자 대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일차적 책임으로 하는 유엔은 현상상의 여러 가지 제약과 모순을 극복하고 평화유지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1988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UN예루살렘 정전감시단을 창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제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이후 전 세계 120여개 국가로부터 최근까지 100만여 명이 활동하는 등 전 세계 분쟁에 대처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1993년 7월 파견하였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2015년 9월 30일 기준 총 13개국에서 1,092명이 활동하고 있다.<sup>1)</sup> 한국군은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의 평화유지군 및 현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라크 자이툰 부대는 ‘신이 내린 선물’, 아이티 단비 부대는 ‘레오간의 천사’라는 칭송을 받는 등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

1) [http://ebook.mnd.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151124\\_133540](http://ebook.mnd.go.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151124_133540)(검색일: 2016.5.24.)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2)</sup>

특히,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목표의 하나로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를 선정하고, “오늘날에는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평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기대도 커졌다”고 언명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밝히고 있다.<sup>3)</sup> 따라서 향후에도 한국 정부는 국제평화 및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해외파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해외파병 성과를 극대화하기 노력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군이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하여 국가 전략 및 군사 전술적 수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음에 따라,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미진한 편이다.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분석 틀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한국군은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공요인을 분석·평가하여 미래에 전개될 유사한 활동에 구체적인 정책적 준비를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병 준비단계에서부터 파병활동을 종료하고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한 단위의 국제평화유지활동 기간 동안 매번 동일한 시행착오와 유사한 행정낭비를 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집행도 기대하기

2) 대표적인 사례로서, 청해 부대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양철호,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책평가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3쪽.

3) 청와대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2014. 7), 16쪽.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군이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들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획득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향후에 이루어질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기존의 파병사례들에서 분석한 성공요인들을 적용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METT+TC 분석 틀과 지표를 개발하여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 가.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 연구경향

해외파병의 성과는 파병규모, 임무, 지역, 시기, 임무수행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동안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던 만큼 그 성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분쟁예방, 평화유지, 평화조성, 평화구축, 평화강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 상에서 평화구축활동 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 역시 민사작전 분야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와 관련된 연구경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성한(2004), 김열수(2005), 이근수 외(2007), 유재익(2012)

은 파병 사례별 분석을 통해 개념적이고 정성적 수준의 성과 평가 결과를 국가이익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4)</sup> 둘째,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를 국가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동일하지만 전제국(2011), 부형욱(2012)을 중심으로 일정한 분석 틀을 구성하여 양적 분석을 통해 성과평가를 시도한 연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sup>5)</sup> 특히, 부형욱은 해외파병 성과평가를 위한 간접적인 하나의 지표로서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대체적으로 국제평화유지와 국가이익 측면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성적인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규범적인 수준의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들은 그동안 전개되었던 한국군의 사례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성과를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고 차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피드백 효과, 즉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가 왜(why), 어떻게(how) 나타났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즉, 일정한 개념적 분석 틀을 사용하여 파병활동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지표화하여 분석·평가를 시도하는 연구는 없었다.

4) 김성한,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동아시아연구원 외교 안보센터, NSP Report, 2004. 8; 김열수,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활동 참여전략」, 합동참모대학 PKO센터 주최 제1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자료(2005. 11. 29); 이근수 외, 『이라크파병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2007; 유재익,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 20년의 성과와 향후과제」, 국방대학교 PKO센터 주최 제8회 PKO 발전 세미나 발표자료(2012. 11. 9)

5) 전제국, 『소프트 파워 강국을 지향한 글로벌 평화활동』, 국방연구원, 2011; 부형욱, 『한국군 해외파병활동 성과평가』, 국방연구원, 2012.



## 나. 해외 연구경향: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실패 요인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국가별, 사안별 상황에 따라 병력과 장비, 혹은 병참 및 물자,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방법론에 따라 포괄적이고 개념적 측면의 분석과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계량화된 양적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해당지역의 분쟁관리 상황과 관련 내용을 기초로 국제사회의 심정적 인증에 의해 성과를 인지할 수도 있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횟수나 규모, 투입예산, 특정지역에서의 갈등의 발생빈도 변화, 임무단의 세부활동 종료 건수 등과 같이 계량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동원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성과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해외의 연구경향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연구경향은 유엔 차원의 단위별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이다.

둘째, 다양한 분석 틀로 통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개념적 분석틀을 적용하고 사례들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성공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임무단 단위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실패사례를 분석 및 원인을 규명하는 등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주도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공 및 실패에 관한 해외 연구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결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딜(Paul F. Diehl, 1988)은 국제평화유

지활동 중 레바논(UNIFIL), 사이프러스(UNFICYP) 등 사례들을 분석하여 임무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및 외적변수 요인을 도출하였다.<sup>6)</sup> 이를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요인)

내적 요인(internal factor)	① 충분한 재정지원 ② 작전지역의 지리적 환경 ③ 명백한 위임명령(clarity of mandate) ④ 체계적/효율적 지휘통제 ⑤ 중립성(neutrality)
외적 요인(relevant factor)	① 일차적 분쟁당사자의 협조 ② 제3국(third party state)의 개입/협조 ③ 무장단체(subnational group)의 협조 ④ 강대국(super power)의 개입

출처 : Paul F. Diehl,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he Quest for Peace Author(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3, No. 3 (Autumn, 1988), 485~507쪽.

초기 저작 이후, 딜(1993)은 성공적인 PKO 활동은 최우선적으로 분쟁당사국에서 무력분쟁을 중단시키고 분쟁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어서 평화유지활동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sup>7)</sup> 첫 번째 기준은 PKO 작전의 최종적인 결과로 분쟁당사국 내에서 분쟁이 종식되었는지 아니면 임무단이 철수한 이후 또다시 분쟁이 재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6) 양철호, 앞의 논문, 43쪽.

7) Paul F. Diehl, *International Peacekeeping: Perspectives on Security*(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3), 3, 34쪽.

것이며, 두 번째 기준은 평화유지활동이 궁극적으로 분쟁당사국의 갈등해결을 증진시켰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그는 1993년 이전에 시행된 대표적인 PKO 작전사례들을 통해 나미비아 임무단(UNTAG)의 활동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레바논 임무단(UNIFIL)의 활동은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8)</sup>

딜의 논의를 종합하면, 평화유지활동은 대체로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 되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은 첫째, 분쟁당사국 및 제3국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동의, 둘째, 임무단의 경무장 및 자위권 이외의 무력행사 금지, 셋째, 분쟁에 연루된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 유지, 넷째, 무장세력을 분리하고 폭력을 방지하기 용이한 지형적 조건의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sup>9)</sup>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과 평가와 관련, 딜의 연구 이후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브랫(Duan Bratt, 1996)은 PKO 작전 성공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임명령(mandate)의 완수, 분쟁 지역의 갈등해결·갈등통제 등 1945년부터 1996년까지 수행된 39개의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 사례를 분석하였으며,<sup>10)</sup> 그 결과로 PKO 작전 결과를 다음의 <표 2>와 같이 3단계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8) Paul F. Diehl, 앞의 책, 167쪽.

9) Johansen, RC., "UN Peacekeeping: How should We Measure Succes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38 (1994), 307~308쪽.

10) Bratt, D., "Assessing the Success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International Peacekeeping*, 4/4, Winter 1996, 64~81쪽.

〈표 2〉 국제평화유지활동 작전수행 결과

수준(level)	작전수행 결과(operational success)
성공(successful)	분쟁지역내 갈등해결 완료
보통(moderately successful)	갈등해결의 3개 지표 중 1개 이상 성공
실패(failure)	4개 지표 전부 실패

출처 : Bratt, D., “Explaining Peacekeeping Performance: The UN in Internal Conflicts,” *International Peacekeeping*, 4/3, Autumn 1997, p.46.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유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둘러싼 최근의 이슈와 일본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1997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발표한 공식자료이다. 이 발표자료는 일본이 인도주의적 작전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면서 얻은 교훈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 향후 평화유지활동 및 인도적주의적 작전을 위한 파병을 대비하여 요구되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세계 무대에서 국제적 역할 확대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이웃나라인 한국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 정부의 발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인도주의적 작전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면서 얻은 교훈으로 첫째, 분쟁당사국내 피난민들의 상황과 그들의 미래 전망에 대해 파병부대 자체적으로는 현지에서 실제적인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일본 정부가 종합적인 시각으로 분쟁당사국에 상존하는 물리적, 정치적 위협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파병 이전에 분쟁당사국 정부와 파병부대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11) “Current Issues Surrounding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Japanese Perspectiv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January 1997).

적절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병부대가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당사국 내에서 전개할 지역의 지방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향후 평화유지활동 및 인도적주의적 작전을 위한 파병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정책적인 과제들은 파병부대가 파병 이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절차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파병부대가 전개할 작전지역, 예상 작전기간, 작전범위 등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미 파병되어 있는 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현행 작전지역의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피드백)를 통한 작전 효과성 제고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파병 예정부대를 대상으로 훈련 및 신속전개능력 개선, 병력의 안전 및 의료지원체계 강화, 지휘 통제체계의 단일화 등 군사전술적 차원의 대비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어서 국제적 협력체계의 구축인바, ARF 및 아태안보협의체 등 지역안보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증진, 유엔 산하기구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등을 강조함과 동시에 파병부대에 신속하고 적시 적절한 장비조달 및 수송 등을 보장하기 위해 'PKO 예비비' 도입이 필요함도 역설하고 있다.

1990년대에 딜에 의해 수행한 평화유지활동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 관한 최초의 사례연구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이정표의 역할을 제공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다양한 연구로 이어졌다. 도일(M. W. Doyle, 2000)과 삼바니스(Nicholas Sambanis, 2000)는 2차 대전 이후 1997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국가 간, 국내적 분쟁에 유엔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평화유지활동 124개 사례를 분석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성공 및 실패사례들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유엔이 분쟁지역에 개입하여 분쟁이 종식되고 난 2년 동안의 평화유지활동 성공 여부를

독립변수, 해당 분쟁지역의 분쟁종식이 이루어진 5년과 10년 이후의 평화유지활동의 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전자가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에는 후자도 실패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124개 사례 중 81개 사례(65%)는 실패하였으며 43개 사례(35%)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sup>12)</sup>

이어진 후속연구(2006)에서,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더욱 정교화 시킨다. 분쟁당사국에서 평화유지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분쟁당사국에서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가 성공적인 평화구축활동 여부를 측정하는 종속변수 역할을 하며, 분쟁당사국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은 분쟁종식 이후 평화가 지속되는 환경을 결정하는 다음의 3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은 첫째, 분쟁당사국내 적대세력의 정도(적대세력 및 파벌의 수, 적대행위의 형태, 사상자 수 등), 둘째, 분쟁지역에서 분쟁종식 이후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지방정부 능력의 정도(GDP, 에너지 소비량 등), 셋째, 국제적인 지원(원조)의 양(경제적 지원 정도,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병력 수, 평화유지활동의 작전유형 등)으로 요약된다.<sup>13)</sup>

푸쉬키나(Darya Pushkina, 2006)도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녀는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을 판단하는 4가지 범주를 제시한다.<sup>14)</sup> 이 4가지 범주들은 전술한 연구

12) Michael W. Doyle and Nicholas Sambanis,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4(Dec, 2000), 779~801쪽. 평화유지활동이 실패했다는 의미는 정전상태가 깨져 분쟁이 재발하였다거나 인도적 지원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 Michael W. Doyle and Nicholas Sambanis, *Making War and Building Peace*(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2006), 4쪽.

결과들과 유사하게 분쟁당사국에서의 폭력적 갈등의 제한, 분쟁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감소, 분쟁당사국 국경 주변으로의 분쟁의 확산 방지, 갈등해결의 증진 등이다. 물론 이 4가지 범주 중에서 분쟁당사국에서의 폭력적 갈등의 제한과 분쟁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감소는 평화유지활동의 일차적인 목적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범주들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1998년 사이에 시행된 17개의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사례들을 분석하여 성공, 부분적 성공, 실패의 세 부류로 분류하고 나미비아, 모잠비크, 동슬라보니아, 아이티(2), 마케도니아(2) 등 7개의 지역에서 시행된 평화유지활동은 성공, 사이프러스, 캄보디아, 콩고 등 3개 지역에서의 활동은 부분적 성공, 앙골라, 레바논, 소말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르완다 등 7개 지역에서의 활동은 실패로 규정한다. 그리고 상기 4가지 범주와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화유지활동이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조건들을 다음의 <표 3>과 같이 5개의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가설로 제시하고 있다.

<표 3>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의 필요조건(독립변수)

번호	필요조건(가설)
①	갈등해결에 대한 평화유지 요원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책무 이행
②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행
③	유엔 평화유지임무에 대한 분쟁당사자(세력)들의 합의
④	비폭력적 수단에 의한 갈등해결 원칙에 대한 분쟁당사자(세력)들의 신뢰
⑤	분쟁당사자(세력)에 대한 국외로부터의 정치적/군사적 지원 차단

출처 : Pushkina, D. "A Recipe for Success? Ingredients of a Successful Peacekeeping Missi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13/2, June 2006, 145~147쪽.

14) Pushkina, D. "A Recipe for Success? Ingredients of a Successful Peacekeeping Missi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13/2, June 2006, 135~147쪽.

하워드(Lise Morje Howard, 2008)는 평화유지활동의 성패요인을 국내외적 상황, 참여국들의 이해관계, 분쟁해결을 위한 의지 여부, 평화유지활동의 3원칙(동의, 공정성, 무력사용의 제한) 등에 대해 분석하여 <표 4>와 같이 소말리아, 보스니아, 르완다, 앙골라 지역에서 시행된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실패의 원인을 도출하였다.<sup>15)</sup>

<표 4> 평화유지활동 실패 원인

구분	실패 원인		
	상황요인	안전보장이사회 이해관계 불일치	3원칙 미준수
소말리아	○	○	○
보스니아	○	○	○
르완다	○	○	
앙골라	○		

출처 : Lise Morje Howard, *UN Peacekeeping in Civil Wars*(Cambridge: Cambridge Press, 2008), 9쪽에서 재구성

리즌(Jaïr van der Lijn, 2006)은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PKO 작전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9개의 요인들을 제시한다.<sup>16)</sup> 또한 이러한 9개 요인들은 유엔 PKO 작전이 분쟁지역의 ‘항구적 평화(Durable Peace)’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의 <표 5>는 9개 요인들을 정리한 것인데, 리즌은 이 9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①~③번까지의 요인들이 PKO 작전의 성공 및 실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5) Lise Morje Howard, *UN Peacekeeping in Civil Wars*(Cambridge: Cambridge Press, 2008), 9쪽.

16) Jaïr van der Lijn, “Success and Failure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UNMIS in Sudan,” *Journal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14, Issue 1-2, 2010. 27~59쪽.



〈표 5〉 PKO 작전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번호	영 향 요 인
①	분쟁당사국내 정치/무장세력들로부터의 협조
②	분쟁당사국내 정치/무장 세력에 대한 충분한 안전 제공
③	분쟁의 규모 및 정도에 대한 충분한 주의/관심 집중
④	분쟁당사국내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협조
⑤	적시적절한 PKO 작전 전개 및 시행
⑥	리더십, 명백한 지휘구조, 충분한 교육훈련
⑦	향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장기적 평화활동 전략
⑧	평화유지를 위한 정책적 기제와 작전의 조화(협조)
⑨	분쟁당사국 주민들에게 주인의식 주입

출처 : Jair van der Lijn, "Success and Failure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UNMIS in Sudan," *Journal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14, Issue 1-2, 2010. 27~59쪽에서 재구성.

### 3. METT+TC 분석 틀과 성공요인 분석지표

#### 가. METT+TC 분석 틀

군사력 운용의 측면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군이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며, 군사작전간 의사결정과 평가 모델인 METT+TC 요소를 활용하여 전장 분석과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전술적 운용요소인 METT+TC 요소는 임무(Mission), 적 또는 임무지역의 상황(Enemy Situation), 지형 및 기상(Terrain & Weather), 가용부대 및 능력(Troops Available),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요소(Civil Affairs)를 의미한다.<sup>17)</sup>

METT+TC 요소는 미군에서 전장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정보를 분류하여 분석을 하기 위한 체계적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METT+TC 요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군에서도 1996년부터 ‘작전요무령’에, 1999년부터는 ‘지상작전’ 교리에 METT+TC 요소를 적용, 발전시키게 되었다.

분석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METT+TC 포함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M)는 부대의 과업으로서 상급부대에서 부여된 과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립된다. 임무에 포함되는 요소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요소를 포함한 주요과업을 의미한다.

둘째, 적 상황(E)은 적의 실체를 분석, 판단하고, 적 지휘관이 어떠한 의도 및 방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셋째, 지형 및 기상(T)은 전투 시 극복해야 할 마찰의 요인이면서, 지형 및 기상의 이점을 활용시 전투력 증강의 요인이므로 파병부대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넷째, 가용부대(T)는 임무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인 부대 즉, 편제상의 부대와 배속 부대 등 모든 전투력을 포함한다.

다섯째, 가용시간(T)은 급변하는 미래전의 양상에서와 같이 전투속도가 빨라지는 상황 하에서 가용시간은 중요하다. 적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파병부대에서는 분쟁지역에 전개하기 위한 준비시간, 이동 시간, 조치해야 하는 작전 시간 등을 포함한다.

여섯째, 민간요소(C)는 작전지역 내 민간인 등에 관련된 요소이다.

17) Headquarters of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FM 6-0 Mission Command*, Appendix B-10

〈표 6〉 METT+TC 요소의 개념과 주요과업 및 내용

분석요소	개 념	주요과업 및 내용
임무(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에 부여된 과업</li> <li>• 유엔 또는 국제기구, 분쟁 당사국의 요구</li> <li>• 부여된 임무와 추가 임무를 연출하여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감시, 무장해제, 무기회수 등 치안활동</li> <li>• 재건지원활동 및 안정화 지원</li> <li>• 인도주의 활동</li> <li>• 경제사회개발지원, 주민친화, 군사교류</li> </ul>
적/임무지역 상황(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대세력</li> <li>•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간접 공격이 가능한 적대세력</li> <li>• 현지 치안불안 조성 세력</li> <li>• 현지 강력범죄자</li> <li>• 파병부대에 적대적인 주민</li> </ul>
지형/기상(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및 기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의 기동/활동에 제한을 주는 지형 및 기상</li> </ul>
가용부대 및 능력(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수행에 사용 가능한 부대 및 자원 등 유무형 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형태별 부대 편성</li> <li>• 임무형태별 가용 장비</li> </ul>
가용시간(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수행에 가용한 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파병과정 및 충분한 준비 시간</li> <li>• 현지 지형/기상을 고려한 부대 운용</li> </ul>
민간요소(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민간요소(국회, 언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병전: 국회, 여론, 언론 등</li> <li>• 파병후: 주둔국 정부/주민 여론</li> </ul>

이상으로 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복잡한 전장 환경을 분석하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로 METT+TC 요소를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는바, 결국 METT+TC 요소는 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유용한 분석 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국제평화유지활동도 완전한 군사작전의 형태이므로 군이 국제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 활용하게 되는 분석 틀이 되는 METT+TC 요소의 개념과 주요과업 및 내용을 정리하면 위의 〈표 6〉과 같다.

### 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 분석지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적 분석 틀로 METT+TC 분석 틀을 제시하고 성공요인 분석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논의한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공 및 실패 요인에 관한 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METT+TC 요소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METT+TC 요소별 성공지표

분석틀의 요소	성 공 지 표
M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백한 위임명령(clarity of mandate)/완수</li> <li>• 분쟁지역 갈등해결, 갈등통제</li> <li>• 작전 시행 간 사상자 최소화</li> <li>• PKO 요원들의 헌신적 임무수행</li> <li>• 분쟁당사국내 정치/무장 세력으로부터 안전 제공</li> <li>• 분쟁당사국내 민간인 보호</li> <li>• 분쟁당사국 주민 대상 주인의식 주입</li> <li>• PKO 활동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신뢰 확보</li> <li>• PKO 3원칙(동의, 공정성, 무력사용 제한)/중립성 준수</li> </ul>
E (적/임무지역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분석/정보제공</li> <li>• PKO 활동에 대한 일차적 분쟁당사자(국)의 협조/합의</li> <li>• 제3국(third party state)의 개입/협조</li> <li>• 강대국(super power)의 개입</li> <li>• 분쟁당사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확보</li> <li>• 분쟁당사국내 적대세력의 정도(능력, 수, 적대행위 형태)</li> <li>• 분쟁당사국 지방정부의 능력</li> <li>• PKO 활동 참여 병력 수</li> </ul>
T (지형/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전수행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li> <li>• 현행작전지역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li> </ul>

T (가용부대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효율적 지휘통제</li> <li>• 파병 예정부대의 훈련 및 신속전개능력</li> <li>• 지휘통제체계의 단일화</li> <li>• 현지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분석/정보제공</li> <li>• 분쟁당사국의 고유한 상황요인에 대한 연구 및 대비</li> <li>• 파병부대의 효율적 리더십</li> <li>• PKO 요원들의 각종 일탈행위(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등)</li> </ul>
T (가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시적절한 PKO 작전 전개 및 시행</li> <li>• 파병 예정부대의 훈련</li> </ul>
C (민간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재정지원(PKO 예비비 등)</li> <li>• 파병부대의 법적 지위/권한에 대한 협정 체결</li> <li>•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li> <li>• 국제적 지원(원조)의 정도</li> <li>• 분쟁당사국 및 이해당사국의 효과적 외교정책</li> <li>• 분쟁당사자에 대한 국외 정치적/군사적 지원 차단</li> <li>• UN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해관계(강대국의 국가이익)</li> <li>• 파병 전후 파병국 및 주둔국 여론(국회, 언론, 주민반응 등)</li> </ul>

그러나 이렇게 정리된 METT+TC 요소별 총 36개의 성공지표들은 한국군이 참여한 모든 형태의 모든 형태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표 7>에서 제시된 METT+TC 요소별 성공지표들은 해외에서 연구된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공(실패) 요인들을 METT+TC 각 요소별 개념과 주요과업 및 내용에 적합하게 단순 재배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군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파병될 국가별, 그리고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병력과 장비, 혹은 병참 및 물자,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시된 성공지표들을 모두 적용하여 파병활동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곤란하다. 끝으로 <표 7>에서 제시된 성공지표들은 경험적 차원에서 볼 때 개별국가별로 파병된 부대 단위의 성과평가보다는 유엔 차원의 단위별 국제평화유지활동 중심의 성과평

가를 위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모든 지표들을 개별 국가 단위인 한국군의 파병활동을 성과평가하는데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표 7>에서 제시된 METT+TC 분석 틀과 요소별 성공지표들은 한국군이 지난 20여 년간 참여한 각각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도하기 위한 하나의 이상형(ideal type) 또는 원형(proto type)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파병활동의 성과평가에 나열된 성공지표들을 모두 대입하여 검토하기보다는 METT+TC 분석 틀에 의해 각 요소별로 가장 설명력이 큰 핵심지표들을 선별하여 성과평가에 적용해야 한다.

#### 다. METT+TC 분석 틀 적용의 이론적 근거(rationale)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해외파병은 국가안보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기 위한 주요 국방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해외파병 활동은 정책평가를 통한 환류과정을 거쳐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책평가에는 본질적인 속성과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sup>18)</sup>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의 집행, 성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retrospective and systematic assessment)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정책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

18) Rist, Ray C., "Managing of Evaluations or Managing by Evaluations: Choices and Consequences", in R. Rist (es.), *Program Evaluation and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Patterns and Prospectives across Eight Nations*(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9), 3~17쪽.

19) 이윤식, 『우리나라 정책평가방법의 현안과 평가설계접근법의 논리』(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개혁과제평가 보고서, 2004). 76~106쪽.

대상이 되는 정책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정책의 목표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 후 계속 시행, 중단, 확대 또는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책평가를 위한 방법에는 대체로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형평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20)</sup>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 정도를 의미하며, 또한 결과(outcom)는 정책의 최종달성 정도를 말하며 이를 효과성(effectiveness)이라고 한다.<sup>21)</sup>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정책의 평가기준과 착안사항을 다음의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평가는 일반적으로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로 분류한다. 정책의 과정평가는 정책형성과 집행단계로 구분하며, 정책형성단계는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충실성, 정책집행단계는 시행과정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기준으로 구분한다.

국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을 객관적·체계적·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2)</sup>

20) 이윤식, 위의 글

21) Mohr, Lawrence B., *Impact Analysis for Program Evaluation*(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95), 101~118쪽.

22) 조영갑, 『국가안보학』, 선학사, 2011, 161쪽.

〈표 8〉 정부정책 평가기준과 착안사항

구 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과 정 평 가	정 책 형 성 단 계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계획수립시 관련절차는 이행되었는가 - 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정 책 집 행 단 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 등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성 과 평 가	정 책 성 과 단 계	⑤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⑥ 정책영향	-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출처 : 손희준, 「재정분권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5, p.168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해외파병은 주요 국방정책의 하나이며 국제평화유지활동의 1차적인 행위 주체는 파병부대이므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군이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며, 군은 METT+TC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복잡한 전장환경 하에서 부여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 전개를 확장하면, 주요 국방정책의 하나인 해외파병 활동을 평가할 때 앞의 〈표 8〉과 같은 정부정책 평가기준과 착안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적용하는 고유한 의사결정과 평가 모델인 METT+TC 분석체계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부각된다. 그런데 〈표 8〉의 일반적인 정부정책평가체계는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적용하는 고유한 의사결정 및 평가 모델인 METT+TC 분석체계와 평가단계



및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 착안사항 면에서 공통점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단계로 구분하여 정책형성단계 → 정책집행단계 → 정책성과단계를 순환하는 정부정책평가체계는 군사작전 계획 및 준비단계 → 작전실시단계 → 작전결과단계를 순환하는 METT+TC 분석체계와 동일한 평가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 평가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책형성단계의 평가기준인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계획내용의 충실성은 작전계획 및 준비단계의 평가기준인 작전목표(임무)의 적합성과 작전계획의 충실성과 유사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정책집행단계의 정책시행과정 효율성 및 적절성은 작전실시단계의 작전과정 효율성 및 적절성과 동일한 평가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단계의 정책목표 달성도 및 정책영향은 역시 작전결과단계의 작전목표(임무) 달성도 및 작전결과의 영향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의 <표 9>는 정부정책 평가체계와 METT+TC 분석체계의 평가단계와 평가기준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9> 평가체계 비교(평가기준)

정부정책 평가체계			METT+TC 분석체계		
구 분	평가기준		구 분	평가기준	
과정 평가	정책 형성 단계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과정 평가	작전 계획 준비 단계	① 작전목표(임무)의 적합성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 작전계획의 충실성
	정책 집행 단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작전 실시 단계	③ 작전과정의 효율성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 작전과정의 적절성
성과 평가	정책 성과 단계	⑤ 목표의 달성도	성과 평가	작전 결과 단계	⑤ 작전목표(임무)의 달성도
		⑥ 정책영향			⑥ 작전결과의 영향

셋째, 두 체계의 평가 착안사항도 유사하다. 정부정책 평가체계에서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는 것과 명확히 제시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군사작전 시 M(임무) 요소인 상급부대 지휘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과 명백한 임무가 부여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유사한 평가내용으로 판단된다. 정책목표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군사작전 시 E(적/임무지역 상황) 및 C(민간고려요소)를 요소를 평가하는 것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충실히 구비되었는지, 계획수립 시 여론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는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T(가용부대 및 능력) 및 C(민간고려요소) 요소를 평가하는 것과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정계획에 맞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T(가용시간) 요소 및 T(가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T(지형 및 기상) 요소와, 투입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C(민간고려요소)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시행 과정에서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는 것과 관련기관과 연계 및 협조체제의 구축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군사작전 시 E(적/임무지역 상황) 및 C(민간고려요소)와 유사하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정책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군사작전 결과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작전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M(임무) 요소와 평가내용이 같다고 보겠다. 다음의 <표 10>은 두 체계의 평가 착안사항과 평가요소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0) 평가체계 비교(평가 착안사항 및 METT+TC 평가요소)

정부정책 평가체계		METT+TC 분석체계	
구 분	평가 착안사항	구 분	METT+TC 평가요소
과정 평가	정책 형성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li> <li>-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li> </ul>	과정 평가	작전 계획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 (임무)</li> <li>- E (적/임무지역 상황)</li> <li>- C (민간고려요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li> <li>- 계획수립 시 여론수렴, 사전조사 등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li> <li>-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 협조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li> </ul>		- T (가용부대 및 능력)                     - C (민간고려요소)
과정 평가	정책 집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li> <li>-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li> </ul>	과정 평가	작전 실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 (가용시간)</li> <li>- T (가용부대 및 능력)</li> <li>- T (지형/기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과정에서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li> <li>-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li> <li>- 시행과정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li> </ul>		- E (적/임무지역 상황)                     - C (민간고려요소)
성과 평가	정책 성과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li> </ul>	성과 평가	작전 결과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 (임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 인가</li> </ul>		- M (임무)

그러나 METT+TC 분석체계에서 각 단계별 평가요소는 단지 <표 10>에서 표시된 요소들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 단계별로 METT+TC 평가요소 모두 해당 단계별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것이지만 해당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평가요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 평가체계 역시 각 단계별로 <표 10>에서 표시된 평가 착안사항만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매 단계마다 모든 평가 착안사항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특징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평가사항들만 부각하여 설명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정책평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평가 (assessment)를 통해 환류정보(feedback information)를 제공, 정책에 대한 비법적 책임(non-legal responsibility)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sup>23)</sup> 즉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사후적 평가(post facto assessment) 및 회고지향적인(retrospective)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 틀인 METT+TC 분석체계도 기존의 파병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바, 사후적 사정 및 회고지향적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정부정책 평가체계와 METT+TC 분석체계의 공통점과 유사점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적용하는 고유한 의사결정 및 평가 모델인 METT+TC 분석체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rationale)를 밝혔다.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군사전술적 차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가능한 METT+TC 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METT+TC 분석 틀을 선택하는 것은 연구문제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합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다.

23) Rist, Ray C., "Managing of Evaluations or Managing by Evaluations: Choices and Consequences", 앞의 책.

#### 4. 레바논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하나의 이상형(ideal type) 또는 원형(proto type)으로 제시한 METT+TC 분석 틀을 사용하여 개별 해외파병 부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METT+TC 요소별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핵심지표들을 선정하고 해당 핵심지표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해당 사례들이 핵심지표와 연관된 의미를 인과관계에 근거해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레바논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총 36개의 성공지표들 중에서 동명부대가 파병된 현지 상황과 부대에 부여된 임무 및 부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핵심지표들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하여 핵심지표의 충족 여부를 ‘성공’, 그리고 ‘실패’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sup>24)</sup>

핵심지표의 충족 여부를 성공과 실패로 판정하는 것은 핵심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결과에 근거한다. 정량적 평가는 해당 파병부대의 전반적인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각종 데이터를 통해 핵심지표의 충족 여부를 투입-산출의 인과관계로 분석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자료의 예로는 작전활동 건수, 주민진료 건수, 도로포장 총연장, 공공시설 건설 규모 및 건수, 인도적 지원사업 투입 예산액과 예산사용결과 등을 들 수 있다. 정성적 평가는 전반적인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례가 핵심지표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주관적으로

24) 동명부대의 PKO 활동과 관련된 세부자료는 국방대학교 PKO센터, 『동명부대 1진~13진 파병성과 교훈집 및 귀국보고서』, 2014; 레바논 평화유지단, 『중동의 작은 거인 레바논』, 2011; 국방대학교 PKO센터, 『레바논 핸드북』, 2016을 참고하였음.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성공적인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투입된 노력, 작전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 인접 및 상급부대로부터의 평판, 파병부대에 대한 선호도, 해당 파병부대로 인한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 등을 인과관계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 가. 레바논 동명부대 개관

1975년 레바논에서 기독교와 무슬림 세력 간의 내전이 발발하자 내전 수습을 명분으로 시리아군과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에 진주하였으나 내전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엔은 1978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레바논에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을 전개하여 레바논 내전과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중재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2006년에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로 민간인 1,000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2006년 8월 11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01호를 채택하여 UNIFIL의 병력을 기존 3,000명에서 15,000명으로 증강하고 회원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6년 11월 국무회의 의결 및 같은 해 12월 22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07년 6월 21일 350명 규모의 동명부대를 창설하였다. 동명부대의 파병은 한국군의 역사상 다섯 번째 PKO 임무이자, 상륙수 부대에 이은 두 번째 전투부대 파병이다. 부대명 ‘동명’은 레바논의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뜻으로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 멀리 동쪽에서 온 부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최초 1진은 특전사부대를 모체로 이를 지원하는 공병, 통신, 의무, 수송, 정비 등 다양한 전투근무지원부대를 선발하여 편성되었다. 2007년 3월 19일 파병 창설단이 편성된 이후 이들은 약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PKO 기본과목 이수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다. 특히 개인, 팀, 주특기별 훈련과 민사과제 숙달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07년 7월 19일 현 주둔지인 남부 레바논에 성공적으로 전개하였고, 2007년 8월 13일 이태리 1연대로부터 책임지역에 대한 작전권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임무수행 중에 있다.

동명부대는 특전사 1개 대대를 모체로 의무, 헌병, 경호, 정비, 보수, 통신, 공병, 수송, 감시, EOD 등 지원부대가 편성되어 359명 규모로 단독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UNIFIL 파병국 37개국 중 파병규모 면에서 12번째 파병국으로 남부 레바논의 티르 지역에 위치하여 임무수행 중에 있다.

동명부대의 임무는 개인 및 부대방호를 유지한 가운데 책임지역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 유입에 대한 감시정찰과 우호적인 작전환경 조성을 위한 민군작전, 레바논군 지원 및 협조체계 유지이다. 부가적으로 연합 도보정찰, 연합 임시검문소 작전, EOD 작전 등 지금까지 모든 작전임무를 단 한 건의 사고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피스웨이브(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군작전을 통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지원, 도로포장, 학교 및 관공서 시설물 개선사업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태권도·컴퓨터·한글·재봉 교실 등을 열어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있다.

동명부대의 책임지역은 UNIFIL 최북단 지역으로 남부 레바논 티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작전책임지역 면적은 대략 가로 10km, 세로 7km로 서울 서초구 면적과 비슷하다. 책임지역 내에는 5개 마을이 위치해 있으며 약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 나. METT+TC 분석 틀에 의한 성공요인 분석

### 1) M(Misson) : 임무

동명부대의 주요 작전임무는 고정감시, 레바논군 연합도보정찰, 연합임시검문소 운용, EOD 정찰 등이다. 부대는 상급부대의 지침과 작전환경 등을 고려, 감시정찰체계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감시정찰작전의 질적 개선과 작전팀의 안전을 위해 작전부대운용변경,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기동정찰로 조정, 불규칙 작전투입, 유형별 작전수행방법 보완,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한 동반작전 시행, 참모순찰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작전팀은 UNIFIL 최고의 부대라는 찬사를 들을 만큼 감시정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피스웨이브(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군작전을 통해 현지인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화화를 달성하여 부대안전과 작전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작전지역 내 마을들은 2006년 7월 이스라엘과의 전쟁 시 피해를 받았던 곳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학교시설이 노후화된 곳으로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한국군 특유의 존중과 태도를 바탕으로 Korea Effect의 지속성, 지역주민의 필요를 기반으로 한 공공성, 경제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친화활동, 레바논군 지원의 3개 사업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소요에서부터 평가까지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여 현재까지 UNIFIL 파견 국가 중 유일하게 책임지역 내 지역주민으로부터 단 한 건의 적대행위도 없는 가운데 최고의 찬사를 받는 모범



부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레바논과 UNIFIL 내 한국의 국가 브랜드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민군작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2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77.7억 원, 2011년도에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13.8억 원, 친화활동과 레바논군 지원사업에 6.2억 원 등 총 20억 원에 달한다.

인도적 지원사업은 동명부대 민군작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낙후된 책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능력범위 내에서 각종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책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료지원 활동과 주민 숙원사업,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인도적 지원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최적화함으로써 UNIFIL 파병부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의료팀은 지역 내 5개 마을을 주 1회씩 순회 진료하여 현재까지 진료실적은 환자 80,000명 이상에 가축 6,258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의진료의 경우 현지 농장시설이 대부분 열악하고 사육기술과 위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며 현지 수의사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교적 단순한 진료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높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 관청 및 주민들의 요청을 기초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동명부대는 도로포장, 하수로 공사, 교통시설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청소차량, 발전기, 쓰레기통 등의 물자공여와 복지시설 지원 등 공공성과 효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다. 1진 전개 후 약 112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 추진된 한국 기념 프로젝트, 맑은 수돗물 공급 프로젝트,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 등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제 삶의 질 행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기념 프로젝트는 한국군의 주둔을 상징하고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는 사업으로 주요 실시내용으로는 작전지역 내 기존 도로 3km 구간에 도로포장, 차선도색, 주차공간 확보 등 한국형 도로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열악한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지역 학교에 LG와 연계하여 PC 30대, 홈씨어터 2대 규모를 갖춘 교실을 개설하여 한국식 e-learning 교육과 한국형 인터넷 기반을 갖춘 첨단 IT정보 체험장을 갖추으로써 IT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맑은 수돗물 공급 프로젝트는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지역 내 수돗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마을에 수돗물 정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공사로 일일 약 5톤의 정수량으로 석회석 및 박테리아 제거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위생증진 및 치아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및 수입증대 효과를 목적으로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자기계발과 경제활동 여건을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재봉교실(24개기 312명 수료)을 개설하였고, 부르즈라할 지역에는 밀과 자임 등을 가공하는 공장을 신설하여 지역 내 극빈자 가정 여성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가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기념 프로젝트, 맑은 수돗물 공급 프로젝트,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 등 현재까지 전개된 주민숙원사업 지원 현황은 토목구조물 6건, 하수시설 8건(4km), 학교시설 21건, 도로포장 20건(14km), 공공시설 45건, 물자공여 25건 등 총 125건으로 약 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자되었다.

친화활동은 주민초청 및 주요인사 대상 친한화 활동, 한글 및 컴퓨터

교실, 태권도 교실, 방한연수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글 및 컴퓨터 교실은 현재까지 76개기 678명이 수료하였고,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소개와 한국군 교관과 학생들의 교감 형성으로 친한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방한연수는 2008년 17대 대통령 취임식에 티르 연합시장과 압바시아 시장을 초청하였고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는 레바논 남부사령관과 티르 보안부대장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동명부대 전 교대기간을 이용, 연 2회 실시하여 현재까지 11차에 걸쳐 레바논 주요인사 및 현지주민 222명이 방한하였으며 한국의 발전과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상으로 동명부대의 파병활동을 임무수행 면에서 살펴보았다. METT+TC 분석 틀에서 제시한 임무 면에서의 일반적인 지표 9가지 중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동명부대의 핵심지표는 5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임무면 성공요인 분석

범례 : ○ 성공 × 실패

성공요인(핵심지표)	주요활동 / 성과	평가
• 명백한 위임명령 및 완수	• 고정감시작전 30,000여회, 연합도보정찰 2,000여회, 연합임시검문소 작전 4,200여회, EOD작전 2,700여회를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완수	○
• 작전 시행 간 사상자 최소화	• 동명부대 소속 장병 사상자 없음	○
• 분쟁지역 갈등해결 및 통제	• 지역 안정화 조기 달성	○
• 분쟁 당사국내 정치/무장 세력으로 부터 안전제공	• UNIFIL 파견 국가 중 유일하게 책임지역 내 지역주민 으로부터 단 한 건의 적대행위도 없음	○
• 분쟁 당사국 내 민간인 보호	• 책임지역내 지역주민 80,000명 대상 의료지원활동	○
• 분쟁당사국 주민대상 주인의식 주입	• 112건의 주민숙원사업 시행	○

## 2) E(Enemy situation) : 적 및 임무지역 상황

동명부대 책임지역은 5개의 마을이 위치해 있으며, 약 5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책임지역 내 부르글리아(수니파 부슬림 마을)를 제외하고 모두 시아파 무슬림 마을이다. 정치적으로는 절대다수가 헤즈볼라와 아말당을 지지하고 있어 지난 2009년 국회의원 선거결과에서도 티르지역 국회의원 4명 모두 아말·헤즈볼라 당 소속의원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 지역은 과거 2006년 전쟁 당시 헤즈볼라 무장세력의 주활동 근거지로 이스라엘 로켓 발사 및 무기은닉, 이스라엘의 불발탄이 다수 발견된 지역이며, 책임지역 내 3개소에 팔레스타인 정찰군이 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이스라엘 점령상황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투쟁의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리아 난민의 유입으로 불안 및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난민을 가장한 불법 무장단체의 유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명부대는 2007년 3월 19일 파병창설단이 편성된 이후 파병 전까지 현지 협조단을 운영하여 책임지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부대가 현지 전개후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레바논의 정치적 불안요인에 의한 각종 테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정기 민군작전간 인질테러 발생 등 8개 상황을 가정하여 ‘테러 및 비우호적 행위 발생시 Matrix’를 자체제작하여 월 1회 CPX 및 FTX를 정례화하여 지휘관 및 참모 상황조치 능력과 행동절차를 숙달하고 각 제대 및 기능별 통합훈련으로 상시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임무지역의 적시적 정보활동은 다양한 출처를 통한 적극적인 첩보수집 활동을 통해 부대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소들

을 식별·분석하여 완벽한 부대방호태세 유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라마단 기간과 rhkxdms 현지 일정과 각종 행사에 주목하여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특히 현지 일정과 행사들은 현지 통역인인 자파르를 적극 활용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였다. 주민정보망 점검활동은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내실있게 시행하였고 결과는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친화활동 및 민군작전간 주면 협조자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여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고정 감시작전간, 민군작전간, 상급부대 교류회의간, 친화활동 및 현지 통역인과 대화 간 모든 활동에서 첩보수집·분석하였다.

위에 언급한 임무지역내 상황 파악을 위한 각종 노력과 함께 동명부대는 현지 상급부대인 UNIFIL과 서부여단, 지역에 주둔한 레바논군, 유관기관인 대사관등과 긴밀한 첩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근실시간 부대위협 첩보를 획득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동명부대의 파병활동을 임무수행 면에서 살펴보았다. METT+TC 분석 틀에서 제시한상황 면에서의 일반적인 지표 8가지 중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동명부대의 핵심지표는 3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상황 면 성공요인 분석

범례 : ○ 성공 × 실패

성공요인(핵심지표)	주요활동 / 성과	평가
• 현지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분석 및 정보제공	• 파병 전 현지 협조단 운영, 테러 가능성 대비 Matrix 작성 및 활용	○
• PKO활동에 대한 일차적 분쟁 당사국의 협조/합의	• 파병 후 레바논 정부와 협조 및 지역 주둔 레바논군 지원, UNIFIL 및 서부여단 협조체계 구축	○
• 분쟁 당사국 지방정부와의 협력력 관계 확보	• 티르시 등 현지 관공서와 긴밀한 유대	○

### 3) T(Terrain & Weather) : 지형 및 기상

동명부대가 위치한 티르지역은 책임지역 북쪽에 레바논의 3대 주요 하천 중 하나인 리타니 강이 위치하고 있다. 리타니 강 주변에는 불법 무기와 무장세력 유입이 가능한 11번 도로가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도로상에는 카시미아 교량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명부대는 리타니 강의 카시미아 교량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리타니 강의 도섭지점을 중심으로 정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책임지역에 대한 기동정찰도 병행하고 있으며, 대로켓 탐지, 임시 검문소 운용, 급조폭발물 정찰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무지역의 기상은 강풍과 우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강풍은 심할 경우 10m/s 이상으로 24시간 불기도 하고, 우천은 국지적 폭우형태로 시간당 20mm 정도로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첩보제공은 작전활동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마셋(위성)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주둔지에 국지기상 분석장비도 설치하여 활용하였으며, 군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실시간에 전파하는 체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부대의 모든 영외활동간 식별되는 모든 지형변화 사항에 대해 실시간대 보고체계를 구축하였는바, 사소한 지형변화 사항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휘통제실에 즉각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시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여 향후 작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전파하였다. 우기(11~2월)에는 상습 침수구역 및 급경사소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및 갈수기에는 급수와 식수를 탄력적으로 통제하였으며 물 사용량이 많은 6~8월까지의 정수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였다.

주둔지에는 1개의 주 심정과 1개의 예비 심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갈수기를 대비하여 예비 심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조 및 사용허가 획득을 완료하였다. 동계 및 우기에는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강풍 대비 제반대책을 강구하였다.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는 하계의 평균 25℃에 달하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 대비하여 유엔 부식과 일일단위 구매 급식하는 식자재에 대해 철저한 검수 및 식자재 보급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식중독 발생요인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동명부대의 파병활동을 임무수행 면에서 살펴보았다. METT+TC 분석 틀에서 제시한지형 및 기상 면에서의 일반적인 지표 2가지 중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동명부대의 핵심 지표 역시 2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지형 및 기상 면 성공요인 분석

범례 : ○ 성공 × 실패

성공요인(핵심지표)	주요활동 /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전수행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무기와 무장세력 유입 가능한 리타니 강 도섭지점 및 교량 24시간 감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작전지역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마셋(위성) 장비 및 국지기상 분석장비 설치, 활용</li> <li>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상정보 탑재 실시간 전파</li> <li>강풍/우천 대비 각종 대책 강구</li> </ul>	○

#### 4) T(Troops Available) : 가용부대 및 능력

2007년 3월 19일 파병 창설단이 편성된 이후 부대는 약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PKO 기본과목 이수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다. 특히 개인, 팀, 주특기별 훈련과 민사과제 숙달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지로 전개되었다. 부대는 특전사 1개 대대를 모체로 의무, 헌병, 경호, 정비, 보수, 통신, 공병, 수송, 감시, EOD 등 지원부대가 편성되어 359명

규모로 단독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부대의 임무는 개인 및 부대방호를 유지한 가운데 책임지역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 유입에 대한 감시정찰과 우호적인 작전환경 조성을 위한 민군작전, 레바논군 지원 및 협조체계 유지이다. 특히 부대 규모는 대대급이지만 임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령급 지휘관을 보직하였고, 작전지역대, 직전지원대, 직할대 등 3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작전지역대는 특전사 모체부대(1개 대대)로 편성되어 고정감시정찰, 임시검문소, 연합도보정찰, EOD정찰간 경호, 신속대응부대(QRT), 출동대기부대(BMR), 민군작전 등 파병임무 수행을 위한 동명부대의 핵심 전투력이다. 직전지원대는 작전활동을 지원하고 부대를 일반지원하는 정비, 보수 및 공병중대, 통신 및 위성을 지원하는 통신중대, K-6 기관총을 탑재한 장갑차 바라쿠다를 운용하는 장갑소대, 주둔지 방호를 위한 감시장비를 운용하는 감시반, 폭발물 해체를 위한 EOD반으로 편성되어 부대의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직할대는 부대 장병들의 의료지원과 민군작전간 현지 주민 및 가족에 대한 의료활동을 지원하는 의무대와 부대내 규율과 경호를 담당하는 헌병대, 대테러작전 및 경호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707 대테러팀, 취사병 및 통역병을 관리하는 본부중대로 편성되어 있다.

부대는 UNIFIL 사령부 예하 서부여단에 이태리, 가나, 핀란드/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대대 등과 같이 편성되어 지상작전(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UNIFIL 단독작전 및 레바논군과의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레바논 군과의 연합작전은 UNIFIL 작전의 약 9%를 차지하며, 서부여단 및 UNIFIL 사령부 참모요원 10명이 배속되어 레바논군 연합 도보정찰과 UNIFIL 헌병과 합동검문소 운용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동명부대는 UNIFIL 작전명령에 의한 작전활동 개념에 부합되게



부대운영을 통제하고 있다. UNIFIL은 현재 2단계(안정화) 작전을 추진중이며 동명부대가 소속되어 있는 서부여단은 작전구상 LEONTE X V(Opreational Design)에 의거 2단계(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3가지의 작전선을 지시하였다. 이에 동명부대는 UNIFIL 작전명령 및 서부여단 작전구상에서 추구하는 작전개념에 부합된 부대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UNIFIL 및 서부여단과 연계된 작전태세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상급부대의 작전개념 및 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급부대 SOP 및 표준상황조치과제를 숙지하고, 하달되는 다년명령 및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하였다. 또한 UNIFIL 개인파병자 및 서부여단 파견인원들과의 수시 의사소통을 통하여 현재 상급부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지휘관에게 적시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상급부대와 연계된 부대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부대는 상급부대에서 하달된 현지정세 관련 단편명령 및 테러위협 첩보에 따라 위협의 근원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둔지 진전정찰을 실시하고, 작전시간 및 기동로를 불규칙하게 편성하며, 군중 운집지역 및 테러 의심지역으로의 기동을 통제하는 등의 탄력적 작전운영으로 생존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레바논 국내외 정세 및 이슬람 문화에 대한 내실있고 체계적인 간부교육이 작전수행능력을 배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작전지역내 특이동향 및 레바논 군사 및 정치 변화사항, 각종 테러 관련 사항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식별된 정보는 즉각 공유하고 전파하여 작전간 충분히 인지된 상태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였다.

레바논의 정치적 불안요인에 의한 각종 테러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책임지역 내 EOD반을 편성하고 IED 탐지활동을 강화하여 테러를 예방하고 있다. 테러에 대비하여 위성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발상황 발생시 작전지역과 동일한 상황 공유체계를 유지하고, 개인 기동영상 전송시스템인 카키샷을 활용하고 있다. 고정감시초소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작전팀에 대한 방호력을 상승시켰다.

〈표 14〉 가용부대 및 능력 면 성공요인 분석

범례 : ○ 성공, × 실패

성공요인(핵심지표)	주요활동 /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계적/효율적 지휘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대급 규모이나 대령급을 지휘관으로 보직</li> <li>특전사 1개 대대를 모체부대로 편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병예정부대의 훈련 및 신속전개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병 창설단 편성 후 6개월간 훈련 (개인, 팀, 주특기 등)</li> <li>작전지역대에 신속대응부대(QRT) 편성 /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휘통제체계의 단일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IFIL 작전명령 및 서부여단 작전구상에서 추구하는 작전개념에 부합된 부대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분석 및 정보제공</li> <li>분쟁당사국의 고유한 상황요인에 대한 연구 및 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급부대 첩보에 따라 위협의 근원을 미연에 차단</li> <li>작전지역내 특이동향 및 레바논 군사 및 정치 변화사항, 각종 테러 관련 사항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교육 / 전파</li> <li>테러 대비 위생장비 활용 실시간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li> <li>개인 기동영상 전송시스템인 카키샷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병부대의 효율적 리더십</li> <li>PKO요원들의 각종 일탈행위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체적인 신상관리와 다중 확인 시스템 구축 / 운영</li> <li>주기적인 부대안정성 평가 시행</li> <li>부대자체 스트레스 해소대책 강구, 사고 전무</li> </ul>	○

동명부대는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파병장병 특성 및 임무와 시기를 고려한 군기강 확립계획을 수립하고 입체적인 신상관리와 다중 확인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부대관리로 지휘여건을 보장하였으며, 개인 신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완전작전 임무수행과 전투력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부대교대 전후에 부대안정을 위한 종합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부대안정성 평가를 통해 병영부조리 식별 및 부대흐름을 파악

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휴가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파병부대의 특성상 장병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스트레스를 적시적절하게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임무수행의 제한은 물론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다각적인 장병 사기 및 복지여건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부대단결 및 장병 복무의욕 고취, 가족과 고국에 대한 연락체계 유지, 의사소통 대책 마련 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상으로 동명부대의 파병활동을 가용부대 및 능력 면에서 살펴보았다. METT+TC 분석 틀에서 제시한 가용부대 및 능력 면에서의 일반적인 지표 7가지 중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동명부대의 핵심지표 역시 7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위의 <표 14>와 같다.

##### 5) T(Time Available) : 가용시간

유엔은 2006년 8월 11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01호를 채택하여 UNIFIL의 병력을 기존 3,000명에서 15,000명으로 증강하고 한국에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6년 11월 국무회의 의결 및 같은 해 12월 22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07년 3월 19일 파병 준비단이 창설되었고 2007년 6월 21일에는 동명부대를 창설하여 2007년 7월 19일 현 주둔지인 남부 레바논에 전개하였다.

그러나 동명부대의 파병은 유엔의 요청으로부터 실제 파병까지 11개월이 소요되었는바, 한국군이 파병한 UN PKO 중에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동명부대의 경우는 유엔의 요청 후 정부의 파병 결정도 지연되었고, 국회동의 후 실제 파병도 지연되었다. 파병의 지연은 전투병 파병에 대한 극심한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파병의 지연은 국내의 반대여론뿐만 아니라 파병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파병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명부대의 파병 지연 상황은 신속성과 기동성을 강조하는 탈냉전시대의 평화유지활동 개념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PKO 부대의 투입이 요청되는 각종 분쟁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신속성·기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파병 지연은 PKO 참여의 효과성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파병 지연과는 별개로, 2007년 3월 19일 파병 준비단이 창설되어 2007년 7월 19일 현 주둔지인 남부 레바논에 전개하여 2007년 8월 13일 이태리 1연대로부터 책임지역에 대한 작전권을 인수받아 임무수행을 시작하기까지 약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임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였다. 동명부대 장병들은 PKO 기본과목 이수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기본자질과 소양을 갖추었고, 개인, 팀, 주특기별 훈련과 민사과제 숙달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임무지역으로 전개하였다. 따라서 동명부대는 파병은 지연되었지만 현지 도착 후 조기에 적응하여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UNIFIL 사령관으로부터 36개국의 동맹군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최고 수준의 부대로 평가받았다.

이상으로 동명부대의 파병활동을 가용시간 면에서 살펴보았다. METT+TC 분석 틀에서 제시한 가용시간 면에서의 일반적인 지표 2가지 중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동명부대의 핵심 지표 역시 2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가용시간 면 성공요인 분석

범례 : ○ 성공 × 실패

성공요인 (핵심지표)	주요활동 / 성과	평가
• 적시적절한 PKO 작전 전개 및 시행	• 유엔 요청 후 실제 파병까지 11개월의 장기간 소요로 초기 파병효과 감소	○
• 파병 예정부대의 훈련	• 파병전 6개월간의 충분한 준비 후 파병으로 도착 즉시 적응 및 조기임무 수행	×

## 6) C(Civil Affairs) : 민간요소

동명부대의 임무는 개인 및 부대방호를 유지한 가운데 책임지역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 유입에 대한 감시정찰과 우호적인 작전환경 조성을 위한 민군작전, 레바논군 지원 및 협조체계 유지이다. 동명부대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은 헤즈볼라의 활동이 우려되고, 시리아 난민과 난민을 가장한 불법무장 단체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극단주의 세력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적대세력과 지역의 주민들이 협력하여 불법무기를 은닉하거나 무장세력과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동명부대는 주민을 정보원으로 운용하고 그들에 의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피스웨이브(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군작전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친화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지원, 친화활동, 레바논군 지원의 3개 사업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무 면 성공요인 분석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명부대의 다기능 민군작전은 인도적 지원, 친화활동, 레바논군 지원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바, 지역주과 지역 주둔 레바논군의요구에 최적화함으로써 UNIFIL 파병부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민군작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77.7억 원, 2011년도에는 인도적 지원사업에 13.8억 원, 친화활동과 레바논군 지원사업에 6.2억 원

등 총 2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약 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자되었다.

동명부대의 민군작전 활동은 유엔이 부여한 명백한 위임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부, 주민들로부터 반드시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상으로 동명부대의 파병활동을 민간요소 면에서 살펴보았다. METT+TC 분석 틀에서 제시한 민간요소 면에서의 일반적인 지표 8가지 중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동명부대의 핵심 지표는 2가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민간요소 면 성공요인 분석

범례 : ○ 성공 × 실패

성공요인(핵심지표)	주요활동 / 성과	평가
• 국제적 지원(원조의) 정도	•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약 500만 달러 투자	○
• 파병전후 파병국 및 주변국 여론	• 성공적인 다기능 민군작전으로 지역주민들과 인접/상급 부대로부터 신뢰확보(‘신이 내린 선물’)	○

#### 다. 종합평가


이상으로 METT+TC 분석 틀에 의해 레바논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성과평가를 시도해보았다. METT+TC 분석 틀에 의한 각 요소별 성공지표는 총 36개이지만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활동을 평가할 때에는 21개의 핵심지표만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총 36개의 성공지표 중 동명부대의 파병활동 성과평가에 21개의 지표만을 추출하여 적용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ETT+TC 분석 틀에 의해 적용 가능한 총 36개의 성공지표들은

METT+TC 각 요소별 개념과 주요과업 및 내용에 적합하게 단순 재배열해 놓은 것이며, 이 중 동명부대의 파병활동을 성과 평가할 때에는 21개의 지표들이 동명부대의 성격과 파병 현지의 제반 상황을 연계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핵심지표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1개의 핵심지표들의 충족 여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공’, 그리고 ‘실패’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명부대의 파병활동은 총 21개 지표 중 성공 20, 실패 1로서 매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5. 결론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성적인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규범적인 수준의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정한 개념적 분석 틀을 사용하여 파병활동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지표화하여 분석·평가를 시도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 틀(conceptual framework)로 METT+TC 분석 틀을 제시하고 성공요인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해외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검토하여 파병부대 활동의 성공 및 실패 요인들을 분류하였고,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성공지표를 METT+TC 요소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METT+TC 분석 틀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복잡한 전장환경 하에서 군사작전 시 부여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 도구는 METT+TC 분석체계이며 둘째,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행위 주체는 한국군 파병부대이고 셋째, 군사력 운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세부 활동영역은 군이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므로 기존에 수행된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사례들을 METT+TC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METT+TC 분석 틀을 적용하는 이론적 근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해외파병은 국가안보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기 위한 주요 국방정책이므로 정책평가를 통한 환류과정을 거쳐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부정책 평가체계는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적용하는 고유한 의사결정 및 평가 모델인 METT+TC 분석체계와 평가단계 및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 착안사항 면에서 공통점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정부정책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군사전술적 차원의 고유한 특성이 발견되는 것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METT+TC 분석 틀을 활용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METT+TC 분석 틀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군의 파병활동의 성과를 평가할 때 더욱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합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METT+TC 분석 틀에 적용될 요소별 성공지표들은 한국군이 지난 20여 년간 참여한 각각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도하기 위한 하나의 이상형(ideal type) 또는 원형(proto type)이므로 개별 파병활동의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METT+TC



분석 틀에 의해 각 요소별로 가장 설명력이 큰 핵심지표들을 선별하여 성과평가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레바논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총 36개의 성공지표들 중에서 동명부대가 파병된 현지 상황과 부대에 부여된 임무 및 부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21개의 핵심지표들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 사례들을 적시하여 핵심지표의 충족 여부를 ‘성공’, 그리고 ‘실패’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인(Tenative) 차원에서 METT+TC 분석 틀을 적용하여 핵심지표를 적용한 첫 시도이다. 따라서 핵심 지표의 충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들을 동원하였지만 핵심 지표의 성공 및 실패를 판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색출적(heuristic) 차원에서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원고투고일: 2016.8.5, 심사수정일: 2016.11.18,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국제평화유지활동, METT+TC, 성공지표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on the successful  
Peace-keeping Operations of The Korea UN Peace  
Keeping Units in Lebanon, Dong-Myung Unit  
- Focused on the success factor index by METT + TC  
framewor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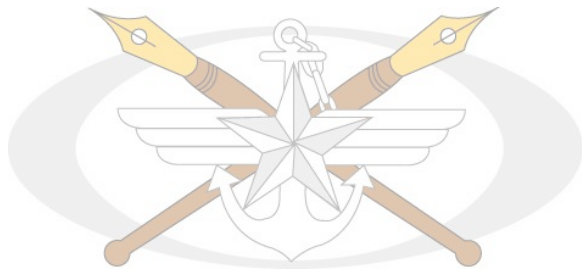
Yang, Cheol-Ho

Most domestic researches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ROK Forces' Peace-Keeping operations are used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 and have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in normative level, and there are no researches by conceptual framework for success factors in Peace-Keeping operations. Therefore, The study analyze the successful factors on Peace-Keeping operations of the Dong-Myung Unit in lebanon by METT+TC framework.

The success factor indexes suggested by METT+TC framework in this study is ideal type or prototype. Thus each performance evalua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should select main factors in METT+TC success factors and apply performance evalua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In this context, analysis and evaluation for Peace-Keeping operations of the Dong-Myung Unit in lebanon also select 21 main indexes among 36 indexes, and discuss 'success' or 'failure' for main success factors on the basis of detailed fact sheets.

This study is the first and tentative attempt for the evaluation performance of Peace-Keeping operations of ROK Forces by METT+TC framework. Detailed fact sheet is suggested to analyze whether success or failure of main success factors, it is not settled the criteria for judging success or failure. It can not be denied to be included subjective view in a heuristic dimension.

Key words : Key Words : ROK Forces' Peacekeeping Operations,  
Dong-Myung Unit in lebanon, METT+TC framework



## 6.25전쟁 시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연구\*

변혜석\*\*

1. 머리말
2. 6.25전쟁 이전 개성철도경찰대의 임무
3.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 분석
4. 맺음말

### 1. 머리말

개성역 전투는 6.25전쟁 개전 당일,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개성 주둔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예하 3개 중대 병력이 분산되어 철수할 당시, 국립경찰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원 50명이 북한군을 저지하여, 경의선 개성역을 사수하기 위한 지연 및 방어전이였다.

\* 연구를 위해 문서 공개를 허락해 주신 경찰청과 경찰대학, 국가기록원에 감사드리며, 논문의 틀을 갖추게 도움을 주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조성훈 부장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대학원 외래교수

개성철도경찰대는 전쟁 발발 당시, 내무부 치안국 직속, 철도경찰 본대의 산하 조직인 13개 지방철도경찰대 가운데 1개 지방 철도경찰 대로서, 38선 서북단 개성지구의 철도역과 철도시설(교량과 연선 및 터널 등)에 대한 경계임무를 전담한 경찰조직이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철도시설 보호와 철도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미군정기인 1946년 1월 25일 주둔군 최고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에 의해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경찰이었고, 정전 이후 1953년 10월 15일 조직의 해체 시까지, 약 7년간 1개 지방 경찰청과 동일하게 독립 관청으로 운영된 특수경찰조직이었다.<sup>1)</sup>

이처럼 개성철도경찰대는 비정규군인 특수경찰조직이었으나, 개성을 침공한 북한 정규군과 막강한 화력에 맞서 빈약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교전을 감행했으며, 최후의 순간까지 후퇴하지 않고, 북한군을 향해 전진 공격함으로써, 국립경찰의 명예와 호국의 의지, 그리고 희생정신을 고취시켰다. 더욱이 이들이 감행한 개성역 전투는 개전 이후, 국립경찰 최초의 전투이었으며, 개전 초기, 경찰 단독전투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치열한 전투이었다.

그러나 6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개성역 전투에 대한 선례연구가 전무하여, 실증적인 연구나 평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전투의 결과로 전사한 대원들의 명단 또한 대장 감봉룡 경감<sup>2)</sup>을 제외하고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개성역 전투 이후, 개성함락 경위에 대해서 일부 초기 전사(戰史)자료에는 검증되지 않은 증언으로 인해, 와전되어진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이 기술되어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일설이 현재까지도 인용되고 있는 점은

- 
- 1) 韓典教, 「鐵道警察의 回顧와 展望」, 『鐵警』 창간호, 鐵道警察本隊 公報係, 1951년, 25쪽, 개인소장;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6, 218쪽.; 경찰청, 『경찰50년사』, 1996, 204~205쪽.
  - 2) 감봉룡(甘鳳龍, 1907. 5. 6.~1950. 6. 25); 1961년 4월 15일 전사사실 증명서가 발급되었고, 2014년 8월 27일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전쟁기념관 소장;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공로 기억합니다.」, 『국방일보』, 2014. 7. 27.

개성철도경찰대의 용기와 희생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에 관하여, 사실에 근거한 기록과 연관 자료 및 증언들을 발굴하여, 개성역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전사자들의 명단을 찾아, 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선양할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개성철도경찰대의 명예회복을 위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관련 자료와 비교 검증하고, 보충하여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을 재규명하고자 한다.<sup>3)</sup>

## 2. 6.25전쟁 이전 개성철도경찰대의 임무

### 가. 개성지구의 현황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개성시<sup>4)</sup>는 북위 38도선 남쪽에 위치하여, 분단 이후 1950년 6월 현재, 대한민국 행정구역이었다. 서북 교통의 중심지이었던 개성(開城)은 분단 이후, 북한지역인 신의주로 가는 1번 국도와 남북 종단으로 건설된 경의선 철도시설로 인하여 군사적 측면에서는 지리적 요충지(평양 196km ← 개성 → 73.4km 서울)로써, 수도

3) 연구의 방법과 활용된 사료들은 다음과 같다. 『特殊戰例事例輯』 제1집(內務部 治安局 非常警備總司令部 作戰參謀部, 1951.), 『韓國警察史』 II(內務部 治安局, 1973.),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7.), 『韓國戰爭戰鬪史』 9(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韓國交通動亂紀』(交通部, 1953.) 등이다. 이외 당시 신문기사(1946년~1950년)와 참전자 회고록 및 증언 자료를 관련 문헌과 비교, 검증하여 보충했다. 인명에 관련된 자료는 정부보존문서인 내무부 치안국 철도경찰본대의 인명관련 문서와 전사자 명부를 교차 검증하고, 통계프로그램(Excel)을 활용하여 분석, 집계했다.

4) 1949년 시제(市制)의 실시에 따라, 경기도 개성부가 경기도 개성시가 되었다. 경기도 지방경찰청, 『京畿警察-그 역사와 지리』, 1994, 11쪽.

서울 방어에 결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특히 개성-해주선(협궤도 단선 철도)과 여러 도로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및 철로 상에 가설된 교량 중 예성강 철교와 임진강 철교(경의선 철도)는 군 작전상 중요한 지물이었다.<sup>5)</sup>

또한 개성 서쪽 예성강과 송악산(松嶽山)은 남저북고의 지형으로 형성되어, 분단 이전에는 개성 이북지역과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었지만, 남북을 직선으로 분단한 38경계선은 송악산 능선(稜線)을 통과하게 되어, 송악산 능선이 곧 38경계선이 되었다. 따라서 개성시와 38경계선인 송악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불과 3~4km로 북한군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소련군과 북한 38보안대원들은 분단 초기부터 야음을 틈타, 38경계선을 불법 월경(越境)하여 약탈 및 방화, 납치, 살해, 보복 등을 일삼았다.<sup>6)</sup>

이처럼 분단 이후, 38경계선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가 충돌하는 국경선이었고, 38경계선을 경계하는 국립경찰과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그 인적, 물적 피해가 적지 않았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소수의 미군을 주둔시켰을 뿐, 국군은 치안군 규모로 유지하려 했으며, 광범위한 38경계선의 경계임무는 국립경찰에게 전담하게 했다.<sup>8)</sup>

三八사선 저편은 독일제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이북보안대와 인민군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늘고 길게 뻗은 경계선을 짚다는 듯이 대군을 배치하고, 틈만 있으면 내습할 기세를 엿보인다. ……三八선 경관들의 매운 눈초리는 그 긴장을 표시하며,

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戰鬪史』 9, 1985, 148쪽.

6) 「保安隊에 拉致 延安支署員四名」, 『경향신문』 1947. 7. 11.; 「鐵의 帳幕 三八線踏査」 (4) 『동아일보』 1947. 9. 26.; 「以北保安隊員 越境 長谷(延白)支署襲擊 殺害. 防火. 掠奪 後 逃走」, 『동아일보』 1948. 1. 7.

7) 「또 巡警被殺 三八線에서」, 『民衆日報』 1948. 4. 1, 국립중앙도서관DB; 內務部 治安局, 『韓國警察史』 II, 1973, 161~168쪽; 「내무. 국방 양 장관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 동의안」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2회(21차), 1949. 2. 3.

8) 「鐵의 帳幕 三八線踏査」 (8) 『동아일보』 1947. 10. 4.; 「開城來襲事件 綜合真相發表」 『경향신문』 1949. 5. 7.

경의선 사수의 굳은 결의는 전선에서 쓰러진 순국동지들의 숭고한 정열을 살려  
 …… 순간의 것을 용서치 않는다. …… 지난 3개월간 대규모 침입사건만 해도  
 십여 차례 …… 1월 4일 인민군 부대가 내습, 38선을 경계하던 5명의 경관이  
 50배의 대군을 맞아 전원 옥쇄의 비극을 낸 長谷사건, 240여명의 인민군들이  
 내습하여 2시간 동안 격전한 12월 12일 葛山사건, 800여명의 부대가 대거 월경,  
 내습하여 장시간에 걸쳐 격전이 벌어졌던 1월 24일의 八鶴사건, 1월 8일의 晚松사  
 건, 서장 암살대 체포사건 등등 소수의 우군으로 20배 내지 50배의 우세한 적군들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싸워 이를 격퇴하는 경관대(警官隊)의 노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 우리 국립경찰은 국토를 완전히 수호하고, 치안을 확보하여  
 건국에 이바지할 것이다.<sup>9)</sup>

그러나 당시 국립경찰 또한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후방 치안유지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우익청년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을 경계임무에 동원하기도 했다.<sup>10)</sup> 이후, 국군이 전면 배치되고, 남북의 체제경쟁과 북한의 남침 기도가 표면화됨에 따라 38선 접경지역인 개성은 점차 남북의 화약고가 되어 갔다.<sup>11)</sup>

한편 개성의 관문인 개성역은 1906년 4월 3일 개통한 경의선 철도역이며, 해방 이후, 분단으로 양분되어, 1945년 9월 11일 경의선 최북단 종착역이 되었다.<sup>12)</sup> 1946년 3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의 우편물이 교환된 역사적 장소가 되었고,<sup>13)</sup> 분단 초기에는 서북

9) 「눈물겨운 三八線踏查記」(1), (2) 『民衆日報』 1948. 3. 31, 4. 1.

10) 김종근(당시, 철도경찰, 38선 경계근무) 증언,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잊지 말자」, 『인제신문』 2011. 6. 22.;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6.25전쟁 참전수기』 III, 2011, 18쪽.

11) 양영조, 『韓國戰爭 以前 38度線 衝突』, 國防軍史研究所, 1999, 173~192쪽.; 「松嶽山에 또 共匪侵攻 國軍大舉出動!」 『경향신문』 1949. 7. 26.

12)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1999. 8, 363쪽.; 경의본선(용산-신의주)은 해방 이후, 토해선과 연결하여 용산-토성 구간을 운행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경의본선인 문산-개성구간은 폐지되었다.; 「撤毀했던 鐵路九支線復舊」, 『동아일보』 1945. 12. 26.; 「列車運行一部復舊」, 『경향신문』 1950. 6. 27.

13) 「八朔만에 三八線넘는 郵便物」, 『동아일보』 1946. 3. 16.; 남한 전 지역에서 취합된 북한행 우편물(38이북)들을 실은 우편물수송열차는 도난방지를 위해, 무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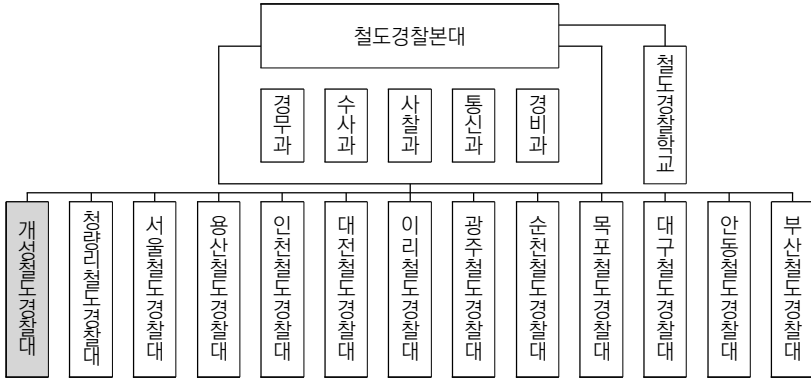
38선 접경지역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빈번한 왕래로 남북민들의 발착지가 되기도 했다.<sup>14)</sup> 반면, 남한의 치안교란과 요인암살 등을 목적으로 북한 정보원(편의대, 빨치산 등)들과 좌익세력들은 개성지구의 38 경계선을 넘나들며 각 철로연선과 기차역으로 잠입, 침투했다.<sup>15)</sup> 이처럼 분단 이후, 개성지구의 지리적,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철도경찰은 1946년 창설초기부터 개성지구의 ‘38선 전선(全線)의 경비’와 각 철도시설(교량과 연선, 터널 등) 및 철도역에 배치되어 경계임무를 수행했다.<sup>16)</sup>

#### 나. 개성철도경찰대의 편성과 임무<sup>17)</sup>

개성철도경찰대는 서울에 위치한 철도경찰본대의 지휘 하에 운용

철도경찰들이 호송했다.; 「防犯萬全에 鐵警서 主要驛에 武警六十名配置」, 『동아일보』 1946. 4. 6.

- 14) 분단 초기에는 만주와 화북지역 등에서 북한지역으로 귀국한 전재(戰災)민들과 상인, 이산가족 등으로 인해, 남북한의 이동이 빈번했다. 38선 접경지구인 개성지구는 매일 수천 명의 탈북 전재민들을 위해, 개성시와 의정부에 전재민 구호소(38이북인 수용소)를 설치했었고, 1949년 8월 15일(기준) 과거 1년 간, 개성지구와 춘천등지의 국영 임시수용소 등에 수용된 전재민 수는 2,246,420명에 달했다. 철도경찰은 이들 전재민들의 수용과 각 지역으로 분산, 이송하는 임무를 담당했고, 개성지구에서 발생한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의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三八線交通路는?」, 「안으로 統一 밖으로 發展」, 『동아일보』 1945. 12. 16, 1949. 8. 15.; 「魔病腦炎去益蔓延」, 『경향신문』 1949. 9. 7.
- 15) 「開城, 延白地方騷擾詳報」, 『경향신문』 1946. 10. 25.; 「要人暗殺團을 打盡」, 『동아일보』 1946. 11. 19.; 「南朝鮮遊擊工作隊起訴」, 『경향신문』 1946. 12. 10.; 「鐵의 帳幕 三八線 踏査」, 『동아일보』 1947. 10. 11.
- 16) 「鐵道警察廳官內 總犯罪約三千件」., 『朝鮮中央日報社』 1947. 10. 15, 국립중앙도서관DB.; 白磷基, 「鐵道와 鐵道警察」, 『月刊法政』 7월호, 法政社, 1949, 20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7) 개성철도경찰대의 편성 및 임무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大統領令 第75號」 제1조(1949. 4. 26.), 「內務部職制 第7條 第4項」, 「內務部訓令 第12號」 (1949. 4. 26.), 「內務部令 第2號」 제1조 및 제2조(1949. 6. 15.), 「內務部訓令 第18號」 (1949. 8. 11.); 내무부 기획관리실, 『內務部令 1949~1961』, 1949, 13~16쪽, 64~67쪽, 160쪽, 국가기록원 소장문서(DA0443840); 내무부, 『직원명부 1949. 7 작성 치안본부 철경(청량리. 개성)』 (내무부, 1949.), 국가기록원 소장문서(CA0300190)

〈표 1〉 1950년 6월(기준) 내무부 치안국 철도경찰대의 편성 및 조직<sup>18)</sup>

되었던 1개 지방 철도경찰조직이었다. 개성역 광장에 위치한 본부에는 경무계, 경비계, 수사계가 있었고, 개성지구의 관할구역 내에 철도범죄 및 일반 경찰사무를 관장했다.<sup>19)</sup> 대장(隊長)과 각 지대, 파출소의 장(주임 또는 소장), 총원, 각 지대(支隊) 및 파출소 설치 등은 ‘내무부령’에 의하여 규정에 의거, 임명, 설치되었고, 관내 상황에 따라 출장소 설치 및 파견대(派遣隊)를 편성하여 배치하기도 했다.

1950년 6월 24일 기준, 개성철도경찰대의 총원은 220명이었으며, 계급별로 구분하면, 대장인<sup>20)</sup> 경감 1명과 경위 14명, 경사 22명, 순경 184명(형사 13명, 여경 3명)이었다. 각 지대와 출장소 등 관할구역에

18) 「大統領令 第75號」 제1조(1949. 4. 26.)

19) 당시 경무계는 직인관리, 문서수발 편집보관, 경찰인사 등의 사무를 분장(分掌), 수사계는 범죄수사 및 사찰(査察), 경제경찰, 유치장 등에 관한 사무분장, 경비계는 철도시설경비, 이동경찰, 파견대, 위생 및 소방, 공문서발송, 총기 및 무기, 통신, 여경, 외근 근무 배치 및 기획 등의 사무를 분장했다.; 「內務部訓令 第12號」(1949. 4. 26.); 9.28수복 후, 경비계는 적정(敵情), 작전, 총기 및 무기, 이동, 운전반(班)으로 개편되었고, 각 지대(支隊)는 제1중대, 2중대, 3중대로 구분하는 군편제로 개편되었다.

20) 「警務部 訓令 制26號」(1948. 5. 5.)에 의거, 경찰서 등급제도는 1급지(총경), 2급지(경감)로 구분했다.; 國立警察專門學校, 『韓國警察制度史』, 1955, 193쪽.;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장 계급은 경감이었으므로 2급지로 구분된다.

분산, 배치된 인원수는 경위 급을 제외하고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표 2〉 개성철도경찰대의 지대의 명칭, 위치, 관리구역<sup>21)</sup>

명칭	위치	배치현황 및 관할구역
본대	경기도 개성시 개성역 구내	관할지역 총괄
직할	경기도 개성시 개성역 구내	경의본선 중 개성역(開城驛)-봉동역(鳳東驛) 구간
문산지대 (장, 任德彥 경위)	경기도 파주군 문산역 구내	경의본선 중 금촌역(金村驛)-장단역(長湍驛) 구간
토성지대 (장, 宋在奭 경위)	경기도 개풍군 토성역 구내	경의본선 중 토성역 토해선 중 토성역(土城驛)-성호역(星湖驛) 구간
예성강지대 (장, 金君延 경위)	경기도 개풍군 예성강역 구내	토해선 중 예성강역(禮成江驛)-연안온천역(延安溫泉驛) 구간
연안지대 (장, 경위)	경기도 연백군 연안역 구내	토해선 중 연안역(延安驛)-풍천역(楓川驛) 구간
청단지대 (장, 全國柱 경위)	경기도 연안군 청단역 구내	토해선 중 천태역(天臺驛)-청단역(靑丹驛) 구간

관할 구역은 경의본선 중 경기도 파주군 금촌역에서 경기도 개풍군 토성역 구간(區間)과 토해선 중 경기도 개풍군 토성역에서 경기도 연백군 청단역 구간의 철도시설(철도연선, 교량, 터널 등)과 철도역이었다.〈표 2〉

이외 장단출장소(경기도 장단군 장단역 구내), 금촌출장소(경기도 파주군 금촌역), 배천출장소(경기도 연백군 배천경찰서 구내)가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예성강지대는 해주(황해도 연백군 운산면)와 토성(경기도 개풍군 서면)을 연결하는 예성강철교(623.4m, 개풍군 연강리)의 중요성으로 파견대가 배치되어 있었다.<sup>22)</sup>

1947년 5월 27일 전신전화 특별경비대를 조직했었고, 1949년 7월 31일 밤 개성역 구내로 공비들이 포탄을 발사한 사건을 계기로 개성

21) 「內務部令 第2號」 제1조 및 제2조(1949. 6. 15.)

22) 「內務部告示 第5號」 제1조 및 제2조(1949. 8. 27.); 《官保》(第167號), 1949. 9. 1.; 6.25전쟁기인 1951년~1952년에는 한포리(汗浦里: 황해도 평산군 예성강 지역)와 입진강에 파견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역에는 철도경비부를 설치하기도 했다.<sup>23)</sup> 1949년 북한의 도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군이 전면 배치된 후에는 후방 철도시설에 대한 경계에 집중하여, 관내 문산역에 지서를 신설하였고, 장단역, 금촌역에는 출장소를 설치하고 경계를 강화했다.<sup>24)</sup> 1950년 3월 20일 03시경 관하 동두천지대는 지대를 중심으로 내습한 북한군 30여 명과 응전하여 대장을 포함, 격퇴시키는 전과를 올렸고, 동년 3월 21일 22시05분 관하 청단지대는 청단역에 도착한 마지막 열차를 탈취, 월북을 기도한 좌익철도원과 북한요원 2명을 약 1km지점까지 추격하여, 기관차 월북사건을 미연에 방지했다.<sup>25)</sup>

한편 개성주둔 육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와 긴밀한 협조 하에 북한군의 불법내습에 견제, 경비태세로 대비하고 있었다.<sup>26)</sup> 동년 6월 10일,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경찰비상사령부’가 판단한 북한의 대거남침 징후 포착에 따라, 38경계선 접경지역인 경기, 강원 2개도의 경찰에 대하여 ‘갑호 비상근무령(비상경계태세 강화명령)’에 내려졌고, 북한군의 군사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하도록 했다.<sup>27)</sup>

23) 「土城地點서 蘇專用電話線을 切斷」, 『경향신문』 1947. 5. 29.; 「開城驛構內에 投彈」, 『동아일보』 1949. 8. 2.

24) 1949년 1월 5일 경기도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보병사단 제11연대를 개성지구에 배치했다.; 보병 제1사단, 『진전역사』, 1966, 6쪽.; 「鐵警支署設置, 長短과 金村엔 出張所」, 『경향신문』 1949. 1. 30.

25) 「傀儡軍을 擊退한 鐵警兩巡警進級」, 『동아일보』 1950. 3. 29., 「機關車 越北制止」, 『동아일보』 1950. 4. 6.

26) 『韓國戰爭戰鬥史』 9, 12쪽; 하지만 1949년 5월 12일 당시 경기도 도지사가 정부에 대하여, 개성 송악산 산정에 국군의 상시주둔을 요청하고, “개성시민들은 자기들이 군의 식량과 수도, 전기까지 시설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 개성에는 국군의 상시주둔이 경비상 극히 필요할 줄로 안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는 상시주둔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開成에 駐軍必要」 『동아일보』 1949. 5. 13.

27) 『韓國警察史』 II, 1973, 239쪽.

### 3.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 분석

#### 가. 전투경과

##### 1) 북한의 개성공격

국방부와 내무부 치안국 경찰비상사령부의 판단과 같이, 북한군은 1950년 6월 23일까지 남침공격준비를 완료하고, 남침계획을 위장하기 위해 동년 6월 중순부터 긴급명령으로 북한 38선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북방으로 4km~6km 소개(疏開)했다.<sup>28)</sup> 북한 38선 경비대는 북한 정규군과 교체되어 후방 제2선 지구를 담당하게 했고, 동년 6월 12일, 기동훈련을 가장한 남침공격부대들은 각 사단의 주둔지를 출발하여, 동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38경계선의 계획된 공격대기지점의 점령을 완료했다.<sup>29)</sup>

개성을 침공한 북한군 제1군단 제6보병사단(사령부, 경기도 개풍군 계정리)은 주둔지인 사리원(개성 서북방 12km)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동년 6월 18일, 750고지(제석산, 금천 동남방 6km), 국사동(제석산 동방 7km), 와룡대(개성 동북방 18km, 현, 장풍)지역에 투입되었고, 사단예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대는 서해연안에서 예성강까지를 경비하고 있던 제2경비여단의 보강에 투입되었다. 제203전차연대(본부, 황해도 금천군, 개성 북방 22km)는 각 사단별로 1개 대대를 배속했고, 제206기계화연대(공병여단)는 임진강 도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사단 지역에서 집결, 대기하고 있었다. 예비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기습공격」, 『군사참고』 1, 1984, 63~65쪽.; 김 혁(전, 인민군 대좌) 증언, 「6.25南侵의 眞相은 이렇다」, 『경향신문』 1962. 6. 25.

29) 정규환(당시, 제17연대 제12중대 대위) 증언, 「1950년 6월 25일 새벽 4時...當時一線指揮官들의 證言」, 『경향신문』 1973. 6.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 1, 1987, 4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134~135쪽.

사단인 제13보병사단은 남천(황해도, 평산군)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sup>30)</sup>

개성침공 준비를 완료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은 1개 제대 전투대형을 구축하고, 사단예하 제15연대는 고령리(개성 서북방 6km)와 488고지(송악산, 개성 동북방 4km)의 남쪽 사면(斜面) 구역에서 국군을 섬멸하고, 풍덕리(개성 서남방 13km) 방면으로 공격을 확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북한군 제13연대(3개 대대 제외)는 송악산 488고지 동쪽 사면과 산직동(송악산 서방 14km) 지역에서 개성-덕산리(개성 동남방 16km)방면으로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sup>31)</sup> 이러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예하 2개 연대의 전투 정면은 25km로 개성주둔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의 방어지역이었다.<sup>32)</sup>

그러나 개성주둔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는 6월 24일 총 병력의 1/3인 754명의 휴가 및 정기외박이 실시되어, 잔류 병력은 1,461명이었고,<sup>33)</sup> 연대의 미 고문관은 1명만이 남아 있었다.<sup>34)</sup> 따라서 개전당일, 국군 제12연대에 일선 진지 제2, 제3대대의 경계 병력은 불과 800명이었고, 전투정면은 84km의 광정면이었다. 때문에 52km 전투정면인 연백지구는 제3대대를, 32km 전투정면인 개성지구는 제2대대를 전술적인 요지에만 중점 배치했다.<sup>35)</sup>

30)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1), 134쪽.; 『韓國戰爭戰鬪史』 9, 149~150쪽.

31)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1), 147쪽.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2005, 25쪽.

33) 보병 제1사단, 『진진역사』, 1966, 47쪽.; 당시, 잔류 병력에는 취사병과 당번, 시설 감시병, 환자 등이 포함된 인원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2003, 72쪽.

34)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의 고문단장은 정년퇴임으로 1950년 6월 15일 미국으로 돌아갔고, 후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미 군사고문단의 참모장과 차장도 출장과 휴가로 서울을 떠나 일본에 있었다.”; 문학동, 『산 넘어 바다 건너』, 서당, 1992, 125쪽.;

35) 『진진역사』, 47쪽.; 개성주둔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제2대대(본부, 개성103고지)는 개성 북쪽 38분계선(개성에서 송악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3km)에서 예성강-청학동, 송악산 남사면 무명고지-소반고개 간 20km에 이르는 방어지대에 좌

즉 개성을 침공하는 북한군 제6보병사단 예하 2개 연대의 전투정면은 25km이었고, 개성을 방어하는 국군 제12연대 제2대대의 전투정면은 32km이었다는 것이다.<sup>36)</sup> 더욱이 당시 북한군은 남침작전의 후방지원을 위해 아군 군복으로 위장한 일부 병력을 개성시내로 잠입, 침투시켰고, 이들은 작전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 중이었다.

개성에서 남하한 전투경찰 대원들은 '6월 24일 23시경, 개성경찰서로부터 불과 40m 떨어져 있는 만월초등학교 교정에 **국군 복장을 한 1개 대대 병력의 부대**가 야영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들은 시내를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우의 인사들을 색출했으나, 군인들은 거의 모두가 외출 중이었고, 경찰서에도 20명 정도가 야근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sup>37)</sup>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 지역에 7개 사단의 배치를 완료한 후, 대기 중인 전군(全軍)에 대하여 선제타격 공격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개성지구에 잠입, 송악산을 침거하고 있던,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연대와 제15연대는 개성공격을 개시했다. 북한군 제13연대는 개성 일원을 감제하는 송악산 정상을 발판으로 개성 북방에 배치된 국군 제12연대 제6중대와 제7중대의 방어지역에 일부병력을 침투시켜, 우측 제일선인 제7중대(소대병력), 292고지(일명, 비둘기고지, 송악산 38선상에서 약 200m 지점)를 점령하고, 제7중대 관측소에 적기(북한)를 쫓았다. 이어 아군의 488고지로 진격 포탄을 집중함과 동시에 아군이 배치되지 않은 지점을 우회하여, 후방에서 공격을 가함으로써 순식간에 아군 진지를 무력화시켰다. 북한군 제15연대

로부터 제5중대(여현 남쪽 1km 지점), 제6중대(사직동, 개성 북서쪽 2km 지점), 제7중대(영진동, 개성 북동쪽 2.6km) 순으로 3개 중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韓國戰爭戰鬪史』 9, 153, 157쪽.

36) 1950년 6월 24일(현재), 개성, 문산 축선에 투입된 북한군 2개 보병사단의 병력은 약 25,000명(1개 전차연대와 기타 지원부대 포함)이었고, 화력은 전차 약 40대, 야포 약 190문이었다.; 『韓國戰爭戰鬪史』 9, 15쪽.

37) 김익순(당시, 부평경찰서 서장) 증언, 「1950년 6월 25일 새벽 4時...當時 一線指揮官들의 證言」, 『경향신문』 1973. 6. 22.

또한 공격준비사격과 동시에 1번 도로를 따라 개성시가지로 돌진하기 시작했다.<sup>38)</sup>

이 무렵, 북한군을 목격한 최응표(당시, 개성 송도중학교 학생)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이 개성 송악산을 넘어, 개성시내에 진입한 시간은 대충 04시 30분에서 04시 40분경으로 기억한다. 송악산 기슭에 있던 기숙사 주변에 국군으로 위장한 인민군이 짝 깔렸다는 소식에 …… 본교 지하실로 대피했고, 잠시 후 지하실 창문으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비친 물체는 포복자세로 교정을 뒤덮은 인민군들이었다. 이때가 04시 40분경이 아닌가 싶다.<sup>39)</sup>

그러나 그 시각, 개성역 광장에 위치한 개성철도경찰대 본부 건물에는 대원 2명만이 당직근무 중이었다. 당시 당직근무대원이었던 통신병 현효진 순경은 개전 당일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송악산 아래, 약 700m~800m쯤 되는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본부에서는 한 2km 이상 될 겁니다. 새벽 3시인가, 4시쯤 본부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산에 군인들이 짝 깔렸어요. 군인들이 서로들 손을 잡고, 8줄로 서서, 그 산을 돌아가면서 주~욱 휘감고 있었어. 근데 그게 괴뢰군들이야. …… 그날, 개성엔 국군이 없었어요.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서 ……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지, …… 그때 용산(본대)에 보고를 했어요. …… 아침에도 퇴근 준비를 하려고, 세수를 하다 산을 올라다보니까, 그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 …… 한 6시쯤 되니까 ‘슈슈슈슈’ 하더니, ‘퐁’ 하고 포탄이 터져요. …… 개성역 바로 뒤가 과수원인데, 그 주인집이 ‘폭썩’ 했다고, …… 우리 개성철도경찰대에서 보면, 길 건너 아래쪽(서남쪽)이지, 그러니까 그게 개들 신호탄이야, 개들 신호탄을 거기다 대고 쏜 거야. …… 그런데, 그 산에 있던 그 괴뢰군들이 싸악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 전투터 그 신호탄을 보고, 듣고, 작전개시, 내려 온 거지, …… 그땐 괴뢰군들이 내려오니까, 상황이

38) 『韓國戰爭戰鬥史』 9, 158쪽.

39) 최응표(한미자유수호 운동본부 상임대표) 증언, 「6.25남침의 선봉부대는 모택동의 팔로군이였다.」, 『조갑제 닷컴』, 2011. 6. 11.



급박하니까 본대에는 유선으로 보고했지요. …… 그땐 전투가 없었어요. 개성엔 국군이 없었으니까, 전투가 있겠어요? 개들이 그냥 밀고 올라 온 거지, …… 송악산에서 포탄이 터지면, 본부에서 다 들리죠. 개들 신호탄이 터지기 전까지 포탄소리는 못 들었어요. …… **그때 그 괴뢰군들은 국방색, 국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 개네들은 산에서, 송악산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 내가 개성역을 출발할 때까지 개성역으로는 안 들어 왔어요.**<sup>40)</sup>

이와 같은 개전 당일 북한군을 목격한 두 증언을 정리하면, 개성시를 공격한 북한군은 ① 03~04시경 송악산을 점거하고 대기 중이었다. ② 당시 아군 군복으로 위장한 상태였다. ③ 개성시 공격신호탄을 민간인 거주가옥을 표적으로 발사하여, 민간인 가옥을 파괴되고, 민간인이 살상되었다. ④ 개성시 공격 신호탄 발사와 동시에 송악산에서 내려와 개성시를 공격했다.

한편, 현 순경의 통신보고를 받은 철도경찰본대(서울) 통신과는 개전 당일 새벽, 총 4명(유·무선 통신)의 대원이 당직근무 중이었다. 당시, 현 순경과 교신한 무선통신 담당 조태중 경사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03시가 넘어 개성철도경찰대 통신병 현 순경으로부터 긴급 구조신호인 ‘개성SOS’가 계속 들어왔다. 04시경, ‘개성SOS’의 내용은 “조 경사님, 나 저기, 나 마지막입니다. 인민군에 포위됐기 때문에 후퇴합니다. 다시 연락 안 됩니다.” 그제 마지막이었다. …… 현 순경과의 통신내용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이는 내무부 치안국을

40) 현효진(당시, 개성철도경찰대 통신병) 증언, 전화 인터뷰, 서울, 2016. 7. 4, 5, 15, 28.; 당시 4개월 차, 신입 순경이었던 현 순경은 개성이 함락된 이후, 일반경찰과 합류하여, 지리산 공비도벌대에 배치되었다. 현 순경의 기억에 의하면, 당시 ‘개성철도경찰대의 본부는 50평 규모의 단층구조 건물이었으며, 본부 상주직원은 약 30~40명이었다. 통신실은 경무계 내에 있었고, 무기고는 건물 내 경비계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보유 무기는 켈빈M1, 99식 소총과 수류탄이며, 기관총 등 중화기는 없었다. 하지만 개성철도경찰대에서 개성 시내방향으로 약 80m 거리에 위치한 개성경찰서에 무기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전 당일 개성경찰서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각 지방철도경찰대에서는 기관총 등 중화기를 완비하고 있었고, 보안 및 본부 건물의 협소 등으로 무기고는 별도의 장소를 사용했었다.; 김정웅(철도경찰학교 31기), 인터뷰, 서울, 2014. 10. 31.

통해, 6.25전쟁 발발을 경무대에 최초로 전달된 것이다.<sup>41)</sup>

하지만 현 순경은 조 경사가 증언한 ‘개성SOS’의 마지막 통신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된 이후, 유선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조 경사의 증언은 현 순경이 북한군을 최초로 목격한 03~04시경 제1보(무선통신)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된 직후인 06시경 송신한 제2보(유선통신)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 2) 작전명령 및 경과

개성철도경찰대의 전투를 최초로 기록한 문서는 1951년 6월 25일 ‘6.25전쟁 발발 1주년을 기해, 숭고한 조국애로 산화(散華)한 수많은 선배, 동료(僚友)들을 상기하며’, 내무부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 작전참모부에서 작성한 『特殊戰例集』 제1집이다.<sup>42)</sup> 이후 『特殊戰例集』의 기록을 기술하고 있는 문헌 및 자료들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의 변형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초의 문서인 『特殊戰例集』의 기록을 토대로 추가된 증언들과 연관 기록을 보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特殊戰例集』은 개전 이후, 약 1년간의 경찰전투 중 특수하게 이례적인(特殊異例) 전투에 해당되는 사례를 모아 편집한 경찰전투교본이다. 수록 내용은 제1부 공격(총 19예), 제2부 방어(총 12예)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성역 전투는 제2부 방어 편, 제1예(例)에 수록되어 있는 ‘개성철도경찰대의 옥쇄(玉碎)’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① 일시 : 1950년 6월 25일 05시 30분 ② 교전장소 : 경기도 개성철도경찰대 본부

41) 조태중(당시, 철도경찰본대 통신과 경사) 증언, 「6.25세대와의 대화」, 『1950..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 2010, 160~161쪽.

42) 內務部 治安局 非常警備總司令部 作戰參謀部, 『特殊戰例集』, 1951, 46~48쪽, 경찰대학 소장.

③ 교전병력 : 개성철도경찰대 대원 50명과 북한군 1개 사단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①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 북한 괴뢰집단은 남침의 야망을 실천에 옮겨 38선 일대에 걸쳐 대병으로 월남, 침공을 감행함. ② 아군의 송악산 292고지를 확보한 적은 아군이 확보한 488고지에 진격포탄을 집중하면서, 일부 병력을 개성시내로 돌입함. ③ 국군은 일요일 외출로 잔여 소수 병력이 경무장으로 단시간 응전하였으나, 적의 압박으로 후퇴를 부득이 함. ④ 적의 첩병대는 복장이 국군과 흡사하여, 이로 인하여 헌병대는 완전포위 점령당하였음.'<sup>43)</sup>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개성철도경찰대의 조치인 방어전투를 이 연구에서 '개성역 전투'라고 명명하고, 시간대별로 기록된 『特殊戰例集』의 작전경과 및 전투요도를 바탕으로 전투의 전개과정을 재구성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개성역 전투 작전명령<sup>44)</sup>

命令 4283. 6. 25. 5. 30 於 開城鐵道警察隊本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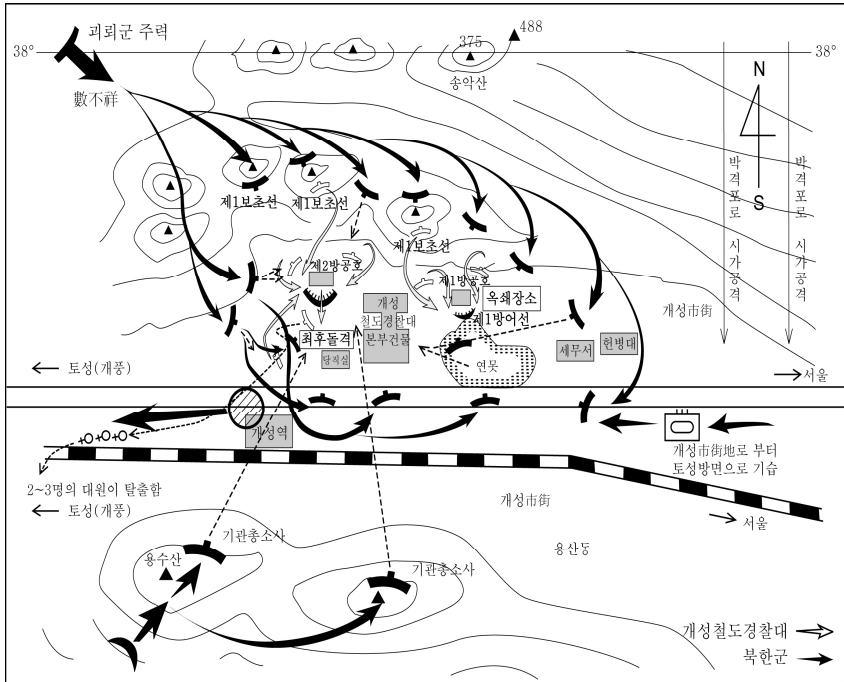
1. 敵은 大兵을 動員하여, 三八線 全域에 巨한 大舉南侵을 企圖하고 있다.
2. 本官은 軍作戰에 呼應하여, 職場을 死守하는 同時에 該敵을 殘滅코저 한다.
3. ㄱ. 副官 警衛 洪利和(警備主任)는 于先 集合된 兵力을 本部 後山과 本部 및 鐵道建物 等 警備에 當게하고 來襲하는 敵을 殘滅하라.
- ㄴ. 警衛 朴俊鎭(查察主任)는 私服員 2名을 合同情報部에 派遣하여 隨時로 變動되는 敵情을 本官에 電話連絡하라.
- ㄷ. 各 支隊, 出張所, 派出所 主任은 現地 一般 署와 緊密한 連絡 下 職場을 死守하는 一方, 來襲하는 敵을 殘滅할지머, 電話杜絶 時는 一般 署와 合流 行動하라.
- ㄹ. 各 單位 指揮官은 戰鬪狀況을 其時其時 本官에게 電話報告하라.
4. 省 略
5. 本官은 定位置에 在한다.

開城鐵道警察隊長 警監 甘 鳳 龍

43) '국군복장으로 위장한 북한군 제105전차여단 예하 제203전차연대의 1개 대대의 첩병대(尖兵隊)는 소련제 탱크(T-34) 3대를 금천(金川)으로 부터 1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여, 명륜동 삼거리(개성시내 서쪽 4km지점)의 아군 헌병검문소의 초소 입초 헌병을 속이고, 검문소로 돌진하여 아군헌병들을 압사시켰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1977, 411쪽.

44) 『特殊戰例集』, 46쪽.

〈요도 1〉 개성철도경찰대의 전투경과 요도(원본과 동일하게 제작함.)<sup>45)</sup>



05시 30분, 대장은 비상 소집된 대원 50명 전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각 요소(방어지점)에 대원들을 배치, 전투태세를 완비했다. 전투요도인 〈요도 1〉을 보면, 대원들의 전투배치에 적용된 제한요소는 북한군의 공격방향, 방어병력, 주전장의 지형 및 위치, 민간인 대피구역인 방공호이며,<sup>46)</sup> 소집된 50명의 병력을 최소 분대병력(4~5명)으로 '본부 뒷산과 본부 및 철도건물 등' 10개 지점으로 분산,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원들의 전투배치는 첫째, 북한군 주력의 공격방향인 서북방을 기준으로 전면방어를 위해 제일선 3개 지점에 제1보초선을 두고, 개성역 전방까지

45) 『特殊戰例集』, 48쪽.

46) 交通史 編纂委員會, 『韓國交通動亂記』, 交通部, 1953. 55쪽.

중심 배치했다. 둘째, 민간인 대피구역인 제1방공호는 제1방어선으로 본부 건물과 지형(연못)을 엄폐물로 이용,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제2방공호는 사주경계로 제2방공호 입구에 전진 배치했다.<sup>47)</sup>

06시, 북한군이 개성시로 돌입, 시가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요도 1>을 살펴보면, 제일선인 3개 지점의 제1보초선 가운데 서북방 좌 제일선 제1보초선에서는 철수병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전투 개시 후, 병력과 화력으로 차이로 순식간에 배치병력이 전멸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이유로 추정되는 2개 지점의 제1보초선이 제1, 제2방어선으로 철수, 합류한 것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형과 위치상 주전장 또한 사방이 개방된 개성역 광장이었으므로 대원들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북한군의 사격권에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공격에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반면, 북한군의 주공은 <요도 1>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목표를 향해 진출하면서 적을 포위, 격멸하는 분진합격(分進合擊)의 전법으로 개성시 서북방(송악산)에서부터 대원들을 압박하며 포위했고, 동시에 조공은 개성역 남방 용수산 고지에서 기관총과 개성 동북방의 박격포 지원공격으로 아군의 지원과 대원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병진(竝進)전술을 전개했다.<sup>48)</sup>

07시 30분, 통신이 두절되고, 개성역 전방도로에 배치된 대원들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자, 사면이 포위되어 전장에 고립되는 상황이 되었다. 대장 이하, 전 대원들은 최후를 각오하고, 북한군을 향해 탄환(캘빈 M1, 99식 소총)을 집중하여 공방전을 펼친 결과, 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되었다.

08시경, 전투경과 30분 후, 개성 시내 동쪽 방향에서 북한군 기갑

47) 대장의 작명에는 개성역 건물에 대원들이 배치된 것이 확인되나, 전투요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성역이 06시경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개성역에 배치된 대원들은 주전장인 개성역 광장으로 철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개성역 전투의 전투경과 요도는 06시 이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8) 『韓國戰爭戰鬪史』 9, 5쪽, 참고.

부대의 T-34 탱크 5대가 개성시내로 돌입, 개성역 방향으로 진격하여 대원들의 후면을 통과하며, 엄폐물인 본부건물을 파괴했다.<sup>49)</sup> 본부 건물이 파괴되자, 동시에 북한군의 박격포와 기관총 공격이 대원 전원을 향해 집중되었다. 결국 대장이 지휘하던 제1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었고, 대원들은 부득이 제1, 제2 방공호로 분산, 산개하게 되었다. 대원들을 제1, 제2 방공호에 고립시킨 북한군은 포위망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방공호 내로 수류탄을 투척하고, 집중사격을 가했다. 죽음을 각오한 대원들은 최후의 일각까지 혈투할 것을 결의하고, 방공호를 뛰어 나와 방어전을 이어갔다. 이때 대원들 반수 이상이 전사했다.

08시 30분, 고립된 대원들은 적진을 향한 최후의 돌격으로 옥쇄(玉碎)를 감행하여, 대장을 포함한 제1방공호의 대원들은 북한군의 집중사격을 받고 전원이 전사했다. 옥쇄 직전, 제2방공호의 대원 3명은 사선을 뚫고 탈출했다.

이상, 『特殊戰例集』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본 개성역 전투의 전개 과정을 연관 기록과 증언들을 통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과 대원들은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 국군 제12연대 중대원들의 철수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장의 작전명령에서 ‘군 작전에 호응하여’라는 내용은 개성역은 경의선 노선이 서울까지 이어진 군사적 요충지이었음으로 당시 개성 교외에 위치한 국군 제12연대 본부(경기도 개풍군 강릉, 개성 남쪽 3.6km 지점)<sup>50)</sup>의 지원공격을 예견한 방어 및 지연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전 당일은 북한군의 동시다발적인 새벽 기습공격으로 국군의 전방경계가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군은 기동로를 따라 T-34 전차를 앞세우고 전진하여 순식간에 개성시로 진입했다. 이처럼 가속된 진격속도로 북한군은 개성시내의 각 도로를 봉쇄, 차단함으로써, 국군 제12연대 본부의 지원을 조기에 봉쇄했고, 개성철도경찰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고립

49)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759쪽.

50) 홍리화(당시, 개성철도경찰대 경비주인) 증언, 『6.25전쟁사』 (제2권), 133쪽.

시켰다. 더구나 당시 개성에는 포병지원이 없었기 때문에<sup>51)</sup> 북한군을 저지할 대항무기가 없었던 국군 제12연대 본부 또한 큰 타격을 받고, 연대가 거의 와해되어 철수하게 되었다.<sup>52)</sup> 따라서 당시 대장은 개전 당일 북한군의 진격속도와 개성시 공격이 전면전이었던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빈약한 무기와 소수의 병력으로 전투를 감행한 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일면 무모한 판단이라는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전 당시 38선 접경지역의 국립경찰에게는 ‘갑호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개전 당일, 북한군의 전면남침이 개시되자, 전방의 경찰국장들에게 “즉각 전투태세로 전환하고, 각 지서는 전투경찰대대를 편성하여 대처하되, 경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라고 명령하고, 각 경찰대대는 해당지역의 군부대와 협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sup>53)</sup> 따라서 대장의 결정에는 이러한 비상경계령에 의한 자구적인 조치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주목되는 점은 대장의 작전명령에서 ‘직장을 사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韓國交通動亂記』의 기록에서도 개전 당일, 북한군의 침공에 당면한 38선 접경지역의 각 역장들에게, 상부에서 내린 지시는 모두 ‘직장사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이다.<sup>54)</sup> 더구나 당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개성역을 침공하여, 아침통근열차의 기관차를 빼앗겼다.’는 급보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개성역장에게 ‘빼앗긴 기관차를 도로 찾고, 직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서울운전사령이었던 이종림은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부하 역장에게 직장을 사수하도록 명령을 하면서 ... 불안감을 지워 버릴 수가 없었다.’고 술회했다.<sup>55)</sup> 따라서 기록으로 확인되지

51) 노재현(당시, 제6포병대대 대장), 장경석(당시, 제6포병대대 부대장) 증언,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2012, 141~142쪽, 343쪽.

52) 歩兵 第11師團, 『花郎部隊戰史』, 1986, 95쪽.; 『韓國戰爭戰鬪史』 9, 223쪽.

53) 『6.25전쟁사』 (제2권), 60쪽.

54) 『韓國交通動亂記』, 48~59쪽.

는 않지만, 대장이 전투를 감행한 배경에는 개전 당일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철도경찰본대 또는 작전명령에 언급된 ‘합동정보부’의 지휘부에서 정확한 전황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직장사수’라는 명령에 따라, 전투를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다.<sup>56)</sup>

셋째,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것은 당시 국군의 통신망이 차단된 점으로 미루어 북한군에 의해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통신망은 군과 별도로 운용되었고, 설비 및 장비 면에서 도 우수했다.<sup>57)</sup> 또한 당시 북한군의 통신기술과 장비를 고려해 볼 때, 경찰의 유·무선 통신망을 조기에 모두 차단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sup>58)</sup> 따라서 이와 연관된 증언들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① 김억순(전, 개성경찰서 사찰주임)은 ‘04시경, 개성, 용진을 관할하는 이하영(당시, 경기도 경찰국장)으로부터 “38선이 뚫리고, 개성, 용진이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sup>59)</sup> 이는 경찰보고 체계상,

55) 「이 한장의 사진 그때 이런 일들이(12); 달리는 景武臺, 『경향신문』 1983. 10. 22.; 이종립은 개전 당일, 북한군의 개성공격에 관한 급보는 당시 교통부 장관을 통해 경무대에 최초로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6) 국군 제1보병사단은 1950년 5월초 사단 책임지역인 38도선 경비와 북한군의 침공에 대비, ‘개성주둔 제1보병사단 제12연대는 대원리-청단 간의 38도선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적 침공 시 의명(依命), 지역 내에서 적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예성강 동쪽(개성지역)부대는 임진강(교)으로 철수하고, 상황이 긴급할 시 영정포(領井浦)를 경유 해군 주정(舟艇)으로 문산 부근에 철수하라. 예성강 서쪽(연백-청단지역)부대는 석포(石浦: 白石里)를 경유, 해군 주정(舟艇)으로 문산 부근에 철수하라. 연대가 문산으로 철수한 다음, 사단예비가 될 준비를 하라.’는 유사시 사단의 작전 및 철수계획이 하달되었다.; 李柱成, 『戰略戰術其他研究를爲한 資料集』, 步兵 第1師團 第11聯隊, 1978, 54쪽.

57) 1948년 9월 2일 조병옥(당시, 경무부장)은 경찰관 이양 조건 중 ‘경찰통신망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장비로 설치한 것이니,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國立警察創設」31, 『중앙일보』 1974. 11. 18.

58)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2), 106~108쪽.; 이영식, 『빨치산』, 행림출판, 1988, 110, 114쪽.

59) 김억순(당시, 부평경찰서 서장) 증언, 「1950년 6월 25일 새벽 4時...當時 一線指揮



상급기관인 치안국과 내무부에 사전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개전 당일 북한군의 남침 제1보를 방송한 위진록(전, 서울 중앙방송 아나운서)은 04시 30분경 ‘육군본부로부터 개성이 이미 북한군에 함락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sup>60)</sup> 그렇다면 개전 당일 04시~04시 30분경부터 내무부 치안국과 국방부에서는 북한군의 ‘개성침공’과 동시에 ‘개성함락’을 예견했고, 07시경에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61)</sup>

② 당시 경찰통신망에 대한 기록에서 ‘남침지구와 아방간의 선로를 신속히 절단함으로써, 통화비밀을 유지했다.’<sup>62)</sup>는 점이다. 대장의 작명에서 ‘통신두절시 일반경찰과 합류하라.’는 내용은 경찰작전상 유사시, 통신이 단절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전 당일 개성지구 각 경찰서의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당직 근무자에 해당되는 인원이었다. 이는 사망(전사 및 순직)한 당직 근무자들은 철수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개전 당일, 경찰 ‘갑호비상경계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 용진지역의 경찰통신망을 조기에 차단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sup>63)</sup>

넷째, 국군의 철수를 인지한 상태에서, 일요일 새벽, 50명의 대원이 집결하여 전투배치를 완료했다는 점과 대장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투대형으로 전투를 전개했다는 점 등은 비상시 소집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이 무렵, ‘청단,

官들의 證言」, 『경향신문』 1973. 6. 22.

60) 「6.25 북한군 남침, 9.28 서울수복 1보 방송한 전설의 아나운서 위진록」, 『서울신문』 2013. 10. 23.

61) 백선엽, 『군과 나』, 大陸研究所, 1989, 28~30쪽.

62) 『韓國警察史』 II, 515쪽.

63) 인명피해 현황은 여현지서와 청단지서 부상 3명, 연안지서-사망 5명, 배천지서-사망 17명, 장단경찰서-사망 15명, 과주경찰서-사망 4명, 부상 1명이다. 개성경찰서는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韓國警察史』 II, 250~251쪽.

연안지구를 침공한 북한군은 국군 제12연대 제3대대 제11중대에 대하여, “개성과 연안은 인민군이 이미 점령하였으며, 예성강 철교도 파괴되었다. 국방군은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으니, 항복하라.”는 내용의 대남방송을 되풀이 했다.<sup>64)</sup> 이 같은 증언으로 미루어, 당시 민간인인 대원들에게도 북한군의 투항권고 또는 회유작전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대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투항하지 않고, 방어전을 전개한 점 등은 대원들이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군의 방공호 공격 당시, 대원들이 죽음을 결의하고, 방공호 밖으로 나온 이유는 개성역 철도원들의 증언과 같이, 방공호에는 철도원들과 민간인들이 피신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up>65)</sup> 또한 제2방공호의 대원 3명이 탈출하기 직전, 대장 이하 대원들이 옥쇄를 감행한 점은 전. 후 상황으로 볼 때, 이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최후의 공격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원들의 희생정신과 관련하여 1950년 5월 말 기준, 개성시 인구는 174,593명이었고, 개성철도경찰대 관하 경의선 노선지역의 주민은 420,237명이었다.<sup>66)</sup> 그러나 1950년 3월 25일 작성된 육군 제1보병사단의 방어계획은 유사시, 청단, 백천, 개성을 포함한 1,200km<sup>2</sup>에 달하는 지역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sup>67)</sup> 이 같은 방어계획은 결국 이들을 포기한다는

64) 『韓國戰爭戰鬥史』 9, 162~163쪽.

65) 『韓國交通動亂記』, 交通部, 1953. 55쪽.

66) 경기지방경찰청, 『京畿警察史』, 2008, 29쪽.; 육군본부는 1950년 5월 25일부터 1개월 간,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기갑연대 장갑 1개 중대를 동원하여, 북한군에 대한 무력시위 및 주민들에게 선무활동을 했다. 그러나 유사시, 주민들에 대한 소개 작전은 계획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당시 미 군사고문단은 1949년 7월 14일 마련된 크롤러 계획(Plan Cruller)에 따라, 개전 당일 미국인 소개 작전에 들어갔다.;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398쪽.;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239~241쪽.

67) 1950년 3월 25일 작성된 육군본부 ‘작명38호(육군방어계획)’는 1949년 12월 작성된 미 군사고문단의 ‘반년간 보고서(Semi-Annual Report)’에 기초한 방어계획이라는 주장도 있다.; 『韓國戰爭戰鬥史』 9, 152쪽.;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 194~199쪽.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개성시민들은 ‘38선 접경 지역민으로서, 북한군과의 잦은 군사적 충돌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반공정신이 투철했고, 도시민으로서 긍지도 대단했다.’<sup>68)</sup> 그리고 전사자 명부를 살펴보면, 개성역 전투로 전사한 대원들 대부분은 당시 개성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개성시민들이었다. 따라서 개성역을 사수하기 위해 전투를 감행한 이유 중 하나는 대원들의 가족은 물론 이웃이기도 한 개성시민들의 유일한 탈출로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나. 전투시간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은 앞서 살펴본 기록과 관련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통신병 현 순경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된 시간은 06시경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본대 통신과 조 경사는 북한군의 공격시간이 04시경, 김억순 경감은 ‘04시경 개성이 함락되었다는 정보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6.25전쟁에 관한 기록과 일부 간접증언 등에서 시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6.25전쟁에 관한 학습된 정보 및 시간경과에 의한 기억의 왜곡 또는 유사성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1950년 6월 기준, 한국에서는 한국 표준시보다 1시간을 빠르게 설정하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sup>69)</sup>이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일간지들을 살펴보면, 공식적인 6.25전쟁의 개전시간인 04시를 05시로 기록하고 있다.<sup>70)</sup>

68) 「非常對委를 結成」, 『동아일보』 1949. 8. 24;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75~77쪽.

69) 서머타임(summer time)제도의 시행은 1950년 4월 1일 00시부터 동년 10월 10일 까지 실시되었다; 「섬머타임 四月一日부터」, 『동아일보』 1950. 3. 30; 「戰爭日誌」, 『경향신문』 1950. 10. 13.

70) 「傀儡軍全面南侵企圖」, 『경향신문』 1950. 6. 26; 「傀儡軍 突然南侵을 企圖」, 『동아일보』 1950. 6. 26; 1950년 12월 5일 발간된 『韓國의 動亂』은 6.25전쟁 개전시간을 04시로 기록하고 있다; 예관수, 조규동, 『韓國의 動亂』, 兵學研究社, 1950, 63쪽.

하지만 현 순경은 증언당시, 서머타임을 기억하지 못했고, 조 경사는 2014년 작고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개전 당일 경찰비상경제총사령부 또는 철도경찰본대에서 정확히 몇 시에 북한군의 전면 남침을 인지하였고, 정확히 몇 시에 전투명령이 하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은 앞으로 논의될 개성철도경찰대의 전과(戰果) 및 개성역 전투의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견지에서 연관 자료와 증언을 통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현 순경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될 당시, 개성역에는 아침 첫 통근열차가 대기 중이었고, 이후 개성역을 출발했다.’는 증언을 했다.<sup>71)</sup> 열차는 다중이용시설로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어야 함으로 교차 대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림 1〉 1950년 6월(기준) 개성지구 경의선 노선표<sup>72)</sup>

71) 현효진(당시, 개성철도경찰대 통신실 순경) 증언, 전화 인터뷰, 서울, 2016. 7. 4. 5.

72) 『경향신문』 1950. 6. 27.

개전 당일 개성역 철도원들과 다음역인 봉동역 역장의 증언은 『韓國交通動亂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토성에서 출발한 아침 통근열차인 제202열차를 응급으로 취급하여, 포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다음 역으로 출발시켰다. 개성시내에 포탄과 총탄이 작렬하자, 방공호와 대피소에 은신하였다. **약 1시간을 경과하지 못하고** 총성이 멈춘 사이, 방공호를 나왔을 때는 이미 괴뢰군이 사면팔방에서 함성이 일고, 괴뢰군의 군마가 시내를 질주하고 있었다.<sup>73)</sup>

05시 30분이 지나서 토성에서 오는 제202통근열차가 왔다. 승객들은 “개성은 지금 대단합니다. 시내에는 포탄이 비오는 듯하고, 시민들은 모두 대피하고, 이 열차도 천시만고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sup>74)</sup>

이 같은 기록을 전제로 개성역에서 개전 당일, 아침 첫 통근열차의 출발시간을 추론하면 05시 10분경이다.<sup>75)</sup> 그러면 현 순경의 증언은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이었고, 신호탄이 발사될 당시, 개성역에는 아침통근열차가 대기 중이었음으로 **‘북한군의 개성시 공격신호탄의 발사시각은 05시 또는 그 이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전투경과시간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군의 신호탄이 발사될 당시, 현 순경의 증언과 같이 개성 철도경찰대의 본부에는 당직대원 2명만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면 대원들은 05시 10분 이후, 소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장의 작전 명령이 하달된 시각인 05시 30분은 서머타임이 적용되지 않은 한국

73) 『韓國交通動亂記』, 55쪽.; 열차운행시간 또한 서머타임이 실시되었으나, 『韓國交通動亂記』 기록은 표준시간으로 확인된다.; 「섬머타임이 오늘부터 시작」, 『동아일보』 1950. 4. 1.

74) 『韓國交通動亂記』, 56쪽.

75) 1947년(기준), 개성발-용산행(05시 30분~08시) 열차시간은 1950년까지 변동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전 당일, 아침 첫 열차의 승객은 **‘정상운행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출발했다.’**는 증언을 했다.; 『동아일보』, 1947. 11. 30.;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50쪽.

표준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06시경 시가전이 치열했다’는 기록에 이어, ‘08시경, 전투경과 30분 후’라는 기록이 눈에 띈다. 이는 전투의 개전시간이 07시 30분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기록으로는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을 명확히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전시간을 검토해 보면, 우선 북한군의 신호탄 발사시각인 05시경은 곧 개성시 공격시간이었다. 현 순경은 북한군이, ‘신호탄 발사와 동시에 송악산 아래, 야산(본부건물과 약 2km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개성시로 달려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이는 군대 행군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sup>76)</sup> 신호탄 발사 이후, 약 20분~40분이면, 개성시로 진입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런데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이 07시 30분이라는 것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이다.<sup>77)</sup>

또한 앞서 살펴본 이종림은 ‘06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에게 기관차를 빼앗겼다는 개성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국군 제12연대 제7중대 중대장과 제2, 제3소대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sup>78)</sup> 다시 말해, 05시 30분경에는 대장의 작명과 같이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원들이 개성역에 전투배치가 되어 있었고, 북한군은 06시 이전에 개성역을 공격했다는 것임으로 대원들과 북한군과의 교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라주바예프 또한 ‘북한군은 06시 20분에 시가전에 돌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언과 추론을 종합하면,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08시경, 전투경과 30분 후’라는 기록은 기록자의 착오 또는 오기(誤記)로 판단되며,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은 시가전이 치열했다는

76) 군대행군시간(시속 4km), 급속행군시간(시속 6km) 기준.

77) 군검필(軍檢畢)을 거친, 당시 일간지들은 ‘25일 오전 5시 55분 적들은 예정대로 개성시가를 침입할 목적으로 비둘기고지와 104고지를 점령하고, 개성시가를 기습(奇 二十五일 오후까지에 전(襲)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三八魔線을 粉碎하자」, 『경향신문』 1950. 6. 27.; 「敵主力部隊 崩壞」, 『동아일보』 1950. 6. 27.

78)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06쪽.

06시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개성역 전투의 소요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개성역 철도원들의 증언에서, ‘대피 이후 약 1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은 북한군에게 기관차를 탈취당한 이후, 대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성역 전투의 소요시간이 1시간을 경과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라주바예프는 ‘북한군 제6보병사단은 05시 10분부터 약 30분간 포병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했고, 06시 20분에 시가전에 돌입했으며, 짧지만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07시 30분 무렵 개성을 점령했다.’<sup>79)</sup>고 기술하고 있다. 즉 북한군의 전투소요시간은 1시간 10분이었고, 전투종료시간은 07시 30분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간은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개성역 전투의 종료시간인 08시 30분과 정확히 1시간의 차이가 발생된다. 또한 『韓國戰爭戰鬪史』(9)에서도 개성이 점령된 시간은 ‘08시 전, 후’로 기록하고 있다.<sup>80)</sup> 이러한 점에서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전투종료시간인 08시 30분은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추론된 결과로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북한군의 개성시 공격 신호탄이 발사된 시각은 05시 이전이다. ② 대장의 작명이 하달된 시간은 05시 30분이다. ③ 전투의 개전시간은 06시 이전이다. ④ 통신이 두절되고, 대원들이 북한군에게 포위된 시간은 06시 30분이다. ⑤ 전투종료시간은 07시 30분이며, 전투소요시간은 약 1시간 20분~30분이 경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81)</sup>

79) 『라주바예프의 전쟁보고서』(1), 147, 295쪽.; ‘북한군 제4포병연대 1대대는 개전 당일 00시를 기해, 04시 30분부터 제13, 제18보병연대 지원사격으로 공격개시 명령이 내려졌고, 04시 40분~05시경 포병돌격 준비사격을 20분간 실시했다.’ 따라서 당시 북한군 제6보병사단 또한 04시 40분~05시경에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북한군 병사수첩』, 2001, 9쪽.

80) 『韓國戰爭戰鬪史』 9, 157쪽.

81) 북한군이 개성주둔 국군 제12연대 3개 중대 경계진지를 기습공격한 시간은 03~04시경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研究』 第二輯, 1966,

그렇다면 『特殊戰例集』에 기록된 작전경과시간은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으로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에 대한 기록은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북한군의 철도편승설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역 전투에 대해서는 1951년부터 『特殊戰例集』에 개성역을 침공한 북한군의 공격방향 및 전투요도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성역 전투 이후, 개성함락과 관련하여 경찰전사(戰史)와 일부 관련 자료 등에서는 ‘경의선 철도에 편승한 북한군이 여현쪽에서 개성역으로 돌입함으로써 얻게 된 기습효과로 개성시가 점령되었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sup>82)</sup> 하지만 197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에서는 개성주둔 제12연대 제1중대 1개 소대의 증언과 개성함락 시간을 근거로 ‘북한군의 철도편승설’은 일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한 바가 있다.<sup>8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술되어 있는 자료들은 정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일설을 인용한 기고문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개성역을 공격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의 사단장의 전술로 와전되어지고 있는 반면, 개성역을 사수하기 위해 전투를 감행한 개성철도경찰대의 용기와 희생은 퇴색시키는 결과를

81쪽.; 당시 국군 제12연대를 공격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연대 소속 최태환은 “38선을 넘었을 때는 이미 침병부대의 소조(小組)에 의하여 국군 진방 초소가 기습을 받아 무참하게 유린당한 이후였다.”고 증언했다.; 라종일,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예진출판사, 1991, 191쪽.

82) 『韓國警察史』Ⅱ, 249쪽.; 『韓國警察戰史』, 71쪽.; 尹長鎬, 『護國警察戰史』, 第一, 1996, 93쪽.;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아~살아있다! 대한민국경찰의 흔』, 2003, 370쪽.;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研究』第二輯, 1966, 80~81쪽.; 陸軍士官學校 戰史學科, 『韓國戰爭史』(增補版), 1994, 226쪽.; 兒島襄 著, 김민성 역, 한국전쟁(상), 종로서적, 1981, 33~34쪽.; 佐佐木春隆 著, 강창구 역, 『韓國戰爭秘史-기나긴 四日間』(中卷), 1983, 233~237쪽 등

83)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57쪽.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일설의 원 출처는 당시 개성주둔 육군 제12연대의 미 고문관이었던 다리고 대위의 ‘개성역에서 북한군이 열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 고문관 1명의 증언에 불과한 ‘북한군의 철도편승설’이 기록된 원인은, 초기 전사기록 당시 철도경찰대는 해체된 시점이었고,<sup>84)</sup> 6.25전쟁에 관한 경찰자료의 소실과 경찰자료의 비접근성, 국내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미군과 미 군사고문단의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인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이 연구를 통해 발굴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추론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리고 대위의 증언에 대한 진위여부와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의 핵심은 ‘북한군이 열차를 타고 개성역으로 돌입함으로써 얻게 된 기습효과로 개성시가 점령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추론된 내용을 재정리하면, 개성역에서 아침 첫 열차가 출발한 05시 10분경까지 개성역으로는 북한군의 침공이 없었고, 06시경 개성 시내에서 탱크를 앞세우고 침공한 북한군은 열차의 기관차를 탈취했다. 그러면 만일 그 시간에 열차를 타고 북한군이 개성역에 돌입했다면, 출발대기중인 통근열차의 기관차를 탈취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개성점령시간은 라주바예프의 기록과 같이, 개성역 전투의 종료시간인 07시 30분으로 추론되었다. 그런데 06시 이전부터 07시 30분까지 전개된 개성역 전투의 전투요도에는 개성역 방향에서 시작된 북한군의 공격방향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개성점령시간인 07시 30분까지 개성역으로 돌입한 북한군의 기습공격은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덧붙여 당시 북한군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은 북한군의 개성시 침공방향은 모두 송악산 방향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국군 제12연대 제7중대의 중대장이 목격한 북한군

84) 국립경찰 철도경찰대는 6.25전쟁 정전 80일 만인 1953년 10월 15일 해체되었다.: 「大統領令」 第823號(1953. 9. 26.) 《官報》 第977號(1953. 9. 26.)

들도 ‘송악산 능선 양쪽 도로와 1번 국도를 따라 남하했다.’<sup>85)</sup> 한편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연대 정치보위부 장교이었던 최태환은 “05시 45분 송악산 주봉(488고지) 동쪽 능선에 위치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연대의 병커에서 뛰쳐나와 남쪽을 향하여 밀고 내려왔다.”<sup>86)</sup>는 증언을 했다.

이와 연계하여 개전 당일, 개성을 침공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의 전투명령과 북한군 제6보병사단의 2개 연대의 전투명령과 부여된 전술 지역 및 진격방향은 개성을 점령한 후, 강리(개성 서남방 12km)와 토성(개성 서쪽 9km, 개풍) 등으로 진격하는 남침작전이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08시 30분경에는 토성방면인 대국동(개성 서방 3km)선까지 진출했다.<sup>87)</sup> 이 같은 사실은 개성역 전투의 전투요도에서도 북한군들은 개성역에 집결하여, 토성방면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으며, 『韓國交通動亂記』의 ‘토성역 철도원이 기관차를 운전해서 개성역 근방에 도착했을 때, 개성시내는 이미 북한군이 점령하여 되돌아갔으며, 토성은 개성 정면에서 장단, 고랑포 방면에서 남하한 적들로부터 점령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88)</sup>

둘째, 북한군이 열차를 타고 개성역으로 침입하려면, 북한 지역의 여현역에서 남한지역인 토성역까지의 구간거리인 약 7.8km의 철로를 연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6월 24일부터 개전 당일인 6월 25일 08시까지 국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의 제2대대 제5중대의 1개 소대가 여현 남쪽 1km 지점인 103고지(토성역 북쪽 700m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다.<sup>8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원들을 포함하여 동 지역의 주민들과 철도원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야간을 틈타 조명과 소음 없이 철로

85)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04쪽.

86)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191쪽.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북한군 전투명령』, 2001, 84~87쪽.;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 (1), 146~147쪽.

88) 『韓國交通動亂記』, 53쪽. 57쪽.

89)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09~410쪽.

를 연결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다리고 대위가 증언한 내용의 핵심은 ‘개성역에서 열차에서 하차하는 북한군을 목격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목격한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군을 목격했다.’는 시간을 추론해 보면, 05시 30분~05시 50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90)</sup> 그런데 이 같은 시간은 앞서 살펴본 개성역장의 증언에서, ‘06시경 북한군에게 기관차를 빼앗긴’ 시간과 일치한다. 따라서 다리고 대위가 목격한 북한군은 국군 제12연대 중대원들의 증언과 같이 개성역에서 기관차를 탈취하려는 북한군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성역 방향에서 총탄이 날라 왔다는 것은 추론된 바와 같이 개성역 전투가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결정적인 부분으로 ‘북한군이 열차를 타고 개성역에 하차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은 현재까지 다리고 대위 1명밖에 없는 사실이다. 특히 개성역 전투의 생존자와 개전당일 개성지구의 각 철도역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韓國交通動亂記』에서도 이러한 증언과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 개성을 탈출하기 위해 개성역에 밀집해 있었던 개성시민들의 증언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이외 다리고 대위의 증언에서는 모순된 정황증거들도 발견된다. 이를테면, 당일 날씨는 가랑비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였고, 일출시간은 05시 45분이었다.<sup>91)</sup> 그런데 달리는 차량에서 바라본 시야로 약 0.5마일(1.6km)의 거리에 위치한 개성역에서 ‘열차에서 하차하는 북한군을 목격하였다.’는 점과 ‘15여량의 열차 칸을 확인했다.’는 점, 더욱이 북한군의 군복 색상을 ‘겨자색을 띤 갈색(mustard-colored brown)’으로 식별하였다는 점 등이다.<sup>92)</sup>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90) 『한국전쟁사』 제2집, 184쪽.; 당시, 다리고 대위의 숙소인 송악산 바로 아래 위치한 성군관(개성 북동쪽, 개성시 부산동)에서 개성남쪽 문산 방향의 교차로 근처, 즉, 북한군을 목격한 지점까지의 예상소요시간이다. 1950년 미 군용지프(윌리스 M38A1 최고시속 80km 기준).

91) 『韓國戰爭史研究』 第二輯, 79쪽.; 『韓國戰爭戰鬪史』 9, 146쪽.

같이, 당시 개성시와 개성역을 기습한 북한군 선봉대는 대부분 국군 군복으로 위장한 상태였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미 육군 군사연구실에서 편찬한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기록에서도 다리고 대위의 ‘개성역에서 열차에서 하차하는 북한군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sup>92)</sup> 이처럼 국군 제12연대의 군사고문관으로서 가장 먼저 개성을 탈출한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과 그 진위여부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개전 당일 북한군의 개성시 공격신호탄이 발사된 05시경부터 개성점령시간인 07시 30분경까지, 다리고 대위 1명의 증언 이외에는 북한군의 열차편승에 대한 기록과 증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 편승설’은 개성함락과는 무관하며, 성립되지 않는 허구(虛構)에 불과하다.

## 라. 전투결과

### 1) 전과(戰果)

경찰전투교본인 『特殊戰例集』(1951년)은 6.25전쟁 개전 이후, 경찰전투 중 특수하게 이례적인(特殊異例) 각 전투의 작전경과를 소개하고, 전과 및 전훈, 교훈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개성역 전투에 관해서만은 전과 및 전훈, 교훈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92)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6), p.23.; T. R. Fehrenbach, *This Kind of War*(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83), pp.54~55.: 미 육군 군사감실에서 한국전사(戰史)편찬을 목적으로 창설된 군사지대가 자료생산과 수집을 위해 한국에 도착한 시기는 1951년 2월~7월 중이다. 또한 당시 군사지대의 활동을 살펴보면, 목격자가 1명뿐인 다리고 대위의 증언에 대한 진위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용욱, 「전선의 역사가들 - 6.25전쟁 기 미 육군군사지대의 한국전사 편찬활동」, 『군사』 제8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236~263쪽 참고.

93)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5), p.115.

개성역 전투를 기술하고 있는 『民族의 先鋒』(1952년)은 “當日戰果, 敵射殺多數”, 『韓國 警察史 II』(1972년)는 “전과를 헤아릴 길이 없었다.”, 『韓國警察戰史』(1982년)에서는 “그들(북한군)의 희생도 엄청났던 것이다.”고 기술하고 있다.<sup>94)</sup> 이와 같은 기록은, 개성역 전투는 6.25전쟁 발발 당일 벌어진 경찰 최초의 전투이었고, 전투종료이후, 개성지구는 북한군의 점령 지역이었으며, 탈출한 3명의 대원들 또한 정확한 전과산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연관된 기록과 증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성을 침공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 제13, 제15연대의 전투경과에 대한 라주바예프의 기록을 살펴보면, “06시 20분에는 제15 및 13보병연대의 예하부대들이 개성에서 시가전에 돌입하였으며, **짧지만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07시 30분 무렵에 적을 개성에서 완전히 소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전투대상에 대해서는 “붕괴된 적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예하부대들은 남쪽과 동남쪽 방면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sup>95)</sup>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북한군을 목격한 최응표(당시, 개성송도중학교 학생)는 이와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최응표의 증언에 의하면, 개전 당일 “인민군이 개성시내에 진입하면서, **철도경찰과 약간의 전투를 벌인 것 외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인민군은 개성을 점령했고,** 날이 밝으면서 학생들은 모두 등교하라는 학교 측의 지시가 시내에 전달됐다. …… 인민군 군복을 입은 고급장교는 자신을 연대장이라고 소개하며, ‘나는 팔로군(八路軍)입니다. …… 우리가 개성시내에 들어올 때까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는데, 개성시내에 들어와서 병사들이 개죽음을 했습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는 것이다.

94) 內務部 治安局 大韓警察戰史發刊會, 『民族의 先鋒』大韓警察戰史 第1輯, 興國研文協會, 1952, 115쪽.; 『韓國警察史』II, 250쪽.; 劉官鍾, 『韓國警察戰史』, 第一加除法令出版社, 1982, 71~73쪽.

95)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147쪽.

즉 라주바예프는 개전 당일, 개성시가전에서 북한군의 전투대상은 ‘국군 제12연대의 예하부대들’이라고 기술했지만, 최응표는 ‘개성철도 경찰대’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록과 증언의 신빙성 측면에서, 라주바예프의 기록은 ‘6.25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 평가하여 소련 상부기관에 보고한 문서’이고,<sup>96)</sup> 최응표의 증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응표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개전 당일 ‘전선에서 들어오는 무전내용을 번역해서, 개전 상황을 참관 중인 소련 장교들에게 전달했다.’는 당시 북한군 제2군단 공병참모 주영복(러시아어 통역장교)의 증언이다. 당시 주영복이 번역한 북한군의 무전내용을 살펴보면, “제6사단은 개성에서 국군 1개 연대를 진멸하고, 개성을 해방했다.”<sup>97)</sup>는 다소 과장된 보고가 발견되지만, 라주바예프는 일부 이러한 북한군의 전과 보고에 의한 기록들을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개성에는 아군의 포병지원이 없었음에도 라주바예프는 ‘(개성) 서북쪽, 서쪽 및 동쪽으로부터 도시로 진입하는 지역들은 강력한 포병과 박격포 화력으로 강화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98)</sup> 이러한 북한군의 보고내용으로 볼 때, 군의 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비정규군인 철도경찰대와와의 전투를 은폐하였을 가능성과 라주바예프가 철도경찰대를 국군 제12연대의 예하부대로 착각, 또는 의도적인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개성주둔 육군 제12연대 제2대대의 3개 중대의 개전 당일, 전투상황 및 조치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면, 라주바예프가 기록하고 있는 06시 20분에서 07시 30분경까지 개성시가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sup>99)</sup>

96)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48쪽.

97)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64~66쪽.

98)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95쪽.

99)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404~405쪽, 409쪽.; 『전진역사』, 1966년, 48~50쪽.; 『戰略戰術其他研究를 爲한 資料集』, 56쪽.; 『韓國戰爭戰鬪史』 9, 156~161쪽.; 『韓

따라서 살펴본 자료와 증언만으로 개성철도경찰대의 전과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라주바예프가 기술하고 있는 북한군의 전투대상은 최응표의 증언과 같이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원들로 추정되며, 피아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라주바예프의 ‘짧지만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라는 기술내용과 최응표의 증언으로 미루어, 개성철도경찰대의 전투결과로 북한군의 물적, 인적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이외 현재까지 개성철도경찰대의 전과를 추론할 수 있는 증언 및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하기까지 마지막 전투는 개성역 전투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성철도경찰대는 개성이 점령되는 순간까지, 방어전을 펼친 마지막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서 추론된 개성역 전투의 개전시간은 개전 당일 벌어진 경찰 최초의 전투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임으로 개성역 전투는 국립경찰 최초의 전투이었으며, 개성이 점령되기까지 마지막 전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는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인명피해 및 전사자 명단

『特殊戰例集』에는 개성역 전투의 결과에 대해, ‘소집인원 50명 중 3명만이 탈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 감봉룡 경감을 제외한 전사자 명단은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개성역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民族의 先鋒』 등의 자료에서는 전사 43명, 부상자 8명, 탈출 3명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들에서도 대장 감봉룡 경감을 제외한 전사자 명단은 찾아볼 수 없다.<sup>100)</sup> 때문에 2016년

『國戰爭戰鬪史』 9, 160쪽의 기록에서 제7중대의 중대장이 남하하는 북한군을 목격한 시간에 대해 “손목시계가 0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기록은 당시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실제시간은 06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00) 『民族의 先鋒』 이 발간된 1952년 당시 철도경찰대의 전사자 명부에 기록된 전사자는 43명이었다. 하지만 8명의 부상자에 대한 기록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 명단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철도경찰대는 내무부 직속 치안국 소속의 국립경찰조직으로 국가행정조직이었다. 따라서 조직이 해체된 이후에는 소관 관청인 경찰청에서 관리되며, 관련 문서는 정부보존문서로써 법규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보존하게 되어있다. 이 같은 근거로 관련 문서를 추적한 결과, 철도경찰대의 생산문서는 모두 소실되었다는 증언과 달리,<sup>101)</sup> 철도경찰대의 인명관련 문서는 2014년 현재, 경찰청과 국가기록원에서 관리, 보존되고 있었다.

이렇듯 철도경찰대의 인명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 명단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조직의 해체로 인한 관심부족과 관련법규 및 문서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문 수기(手記)로 작성된 문서들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간체자, 일본식 한자 및 표현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문서의 양이 많아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서들은 철도경찰본대에서 관리되었던 문서들이었으며, 문서의 종류는 본대를 포함한 1교(敎), 13개 대(隊), 2개 대대(大隊)의 직원명부 및 인명관련 문서들과 전사자 명부이다.

각 직원명부<sup>102)</sup>의 작성 시기는 1949년 7월 31일부터 해체일인 1953년 10월 15일까지이며, 약 4년간의 직원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다. 명부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임명, 전입, 전출, 면직(免職) 연월일과 전입 및 전출지이다. 면직사유는 전사, 순직, 사망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으며, 1949년 8월 1일 이후, 임명 및 면직된 대원은 본대에서 관리되었던 임명, 면직명부 등의 문서와 교차검증이 가능했다.

101) 대한민국 여경 재향경우회, 『韓國女子京察六十年史』, 도서출판 에스프리, 2007, 102쪽.

102) 내무부, 『직원명부 1949. 7 작성 치안본부 철경(청량리. 개성)』, 1949, 국가기록원 소장문서(CA0300190)



전사자 명부<sup>103)</sup>는 1948년 10월 1일부터 1953년 7월 20일까지의 순직, 전사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1988년부터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 추가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전사자 명부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은 순직 및 전사자의 소속과 순직, 전사 연월일, 순직사유 등이다.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 명단을 찾기 위해,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9월 5일까지(67일 간) 개성철도경찰대 소속으로 실종된 대원들은 총원(220명)의 36%인 80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7명, 순경 70명)이었다.<sup>104)</sup> 이들은 모두 동년 9월 5일자로 면직 처리 되었으나, 그 중 35명의 대원들은 정정표기와 전출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생존하여 원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45명의 실종대원들은 동일하게 1계급씩 추서(追叙)되어 '1950년 6월 25일, 전사(戰死)'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직원명부의 기록에 따르면, 개성철도경찰대는 실종된 대원 중 전사자 이외에는 당시 모두 복귀했다는 것이다. 즉 개성역 전투에 참전한 50명의 대원 중 전사자는 총 45명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特殊戰例集』의 기록과 증언으로 당시 탈출한 대원은 3명이었다면, 남은 2명에 대해서는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의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 및 증언과는 달리, 당시 5명의 대원이 탈출했을 가능성과 소속이 다른 철도경찰대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sup>105)</sup>

103) 內務部 治安局, 『鐵道警察本隊殉職警察官臺帳』, (1949~), 경찰청 소장, 관리문서.

104)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서 집계한 경찰 인명피해 현황(1차 통계, 1950. 6. 25~1950. 9. 30.)에서 철도경찰대는 실종 532명, 전사 1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들을 포함하여, 전사자 명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2차 통계(1950. 10. 1~1951. 4. 15) 또한 전사자 명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통계는 현재까지 정정되지 않고, 인용되고 있다.; 『韓國警察史』, 309쪽. 332쪽.(참고)

105) 개성역 전투에서 생존한 대원 3명의 명단은 대장의 작명에 기록된 홍리화 경위 이외에 직원명부의 기록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직원명부에서 확인된 45명의 전사자 명단을 철도경찰대의 전사자 명부와 교차, 검증한 결과, 황종록 경사, 이태중 순경, 한태수 순경 등 3명의 명단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sup>106)</sup> 직원명부에 기록된 전사자 명단이 전사자 명부에 누락된 이유는, 본대에서 관리되었던 철도경찰대의 전사자 명부는 각 지방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에 기록된 순직, 전사자 명단을 필경사(筆耕士)로 추정되는 기록자가 일괄적으로 사록(寫錄)한 문서로 추정된다. 하지만 1953년경, 전사연월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재 사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1959년경, 철도경찰 201대대, 202대대의 전사자 명부와 합본한 문서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서의 사록과정에서 이들의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사자 명단 또한 철도경찰본대의 1950년도 이동(異動), 임명(任命) 사령원부(司令原簿)<sup>107)</sup> 및 직원명부에 기록된 한자표기와 상이한 오기(誤記) 등이 발견된다.

전사자 명부에는 누락된 3명의 대원을 제외한 전사자 42명의 대원에 대한 순직상황과 유훈(遺勳)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本名은 四二八三年 六月 二十五日 七時頃, 三八前線인 開成地區에서 傀儡軍南侵에 際하여, 開成地區 防禦戰에서 最後까지 奮戰, 壯熱한 戰死를 함.”

이상,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와 전사자 명부를 교차 검증으로 확인된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는 총 45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4명, 순경 39명)이었으며, 그 명단은 <표 4>와 같다.

106) 직원명부와 전사자 명부의 교차 검증은 직원명부의 기록에서 1950년 6월 25일 기준, 개성철도경찰대의 대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명단은 대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외했다.

107) 『1950년도 사령원부 철도경찰본대』, 내무부, 1950, 국가기록원 소장문서(CA03 00211)

(표 4)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1950년 6월 25일) 전사자 명단<sup>108)</sup>

연번	사망 계급	추서 계급	성명		임명, 전입일	사망 구분	사망일자	사망 장소	사망개요
			한글	한자					
1	경감	총경	김봉룡	甘鳳龍	1947.12.1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	경위	경감	박준호	朴俊鎬	1949. 7.1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	경사	경위	김안관	金安權	1946. 8.1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	경사	경위	이균항	李均恒	1946. 8.23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5	경사	경위	최운학	崔雲鶴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6	경사	경위	황종록	黃鍾錄	1949. 4.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7	순경	경사	김경상	金景祥	1950. 3.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8	순경	경사	김봉서	金鳳瑞	1948. 12. 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9	순경	경사	김응대	金應大	1950. 3.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0	순경	경사	김익환	金益煥	1946. 12.1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1	순경	경사	김진웅	金鎭雄	1949. 10. 8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2	순경	경사	김창근	金昌坤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3	순경	경사	라덕운	羅德允	1950. 1. 10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4	순경	경사	박병선	朴炳旋	1948. 12.2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5	순경	경사	박영부	朴永富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6	순경	경사	박희춘	朴熙椿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7	순경	경사	백효원	白孝源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8	순경	경사	소상민	邵商敏	1946. 11.2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9	순경	경사	손득문	孫得文	1948. 7. 14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0	순경	경사	신석범	申錫範	1948. 11.30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1	순경	경사	윤중학	尹鍾學	1948. 5. 2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2	순경	경사	이동섭	李東燮	1949. 8. 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3	순경	경사	이범구	李範九	1950. 3. 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4	순경	경사	이성근	李成根	1949. 8. 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5	순경	경사	이영식	李永植	1949. 10. 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6	순경	경사	이장호	李章鎬	1950. 1. 12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108) 『직원명부 1949. 7 작성 치안본부 철경(청량리. 개성)』, 『鐵道警察本隊 殉職警察官臺帳』 분석 및 통계.(2015. 3. 30. 기준); 상기 전사자 명단 중 전사 연월일인 1950년 6월 25일 이후, 철도경찰대의 전체 사령원부 및 직원명부(1950. 6. 25 ~ 1953. 10. 15)를 통해 확인되는 동명인(한자)은 이성근(李成根), 이재성(李在成), 한태수(韓泰洙)이다. 그러나 명부들의 기록으로는 이들이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7	순경	경사	이재성	李在成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8	순경	경사	이정로	李貞魯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29	순경	경사	이종은	李鍾殷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0	순경	경사	<b>이태종</b>	<b>李台宗</b>	1950. 5. 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1	순경	경사	임성춘	林成春	1950. 5. 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2	순경	경사	임운규	林芸圭	1946. 12.14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3	순경	경사	장기대	張基大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4	순경	경사	전동연	全東燕	1949. 10. 8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5	순경	경사	전이광	全利光	1950. 5. 27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6	순경	경사	정원용	鄭元用	1948. 12.30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7	순경	경사	조계준	趙季濬	1948. 12.2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8	순경	경사	조응만	趙應萬	1949. 2. 1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39	순경	경사	주성남	朱成南	1946. 8. 6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0	순경	경사	최배일	崔培鎰	1950. 2. 13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1	순경	경사	최영기	崔永基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2	순경	경사	하호용	河豪龍	1949. 9. 9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3	순경	경사	한태섭	韓泰燮	1948. 10.10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4	순경	경사	한태수	韓泰洙	1949. 8. 31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45	순경	경사	홍태묵	洪台穆	1949. 5. 5	전사	1950. 6. 25	개성역	개성역 전투

한편 앞서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2명의 대원과 관련하여, 철도경찰대의 전사자 명부를 살펴보면, 개전 당일 개성지구에서 전사한 대원 2명의 기록이 주목된다. 이들은 당시 2인 1조로 편성되어 운용된 철도경찰대의 열차 이동승무대원으로서 경의선 용산역-청단역 구간을 담당한 용산철도경찰대<sup>109)</sup> 소속의 서당석(徐塘錫: 당시, 만 27세) 순경과 고흥복(高亨福: 당시, 만 23세) 순경이었다. 명부에는 ‘1950년 6월 25일 京義線 龍山發-土城行 列車 移動乘務 中, 開城地區에서 傀儡軍 南侵으로 因하여……戰死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09) 「鐵道移動乘務改編」, 『漢城日報』 1948. 10. 20, 국립중앙도서관DB.

그런데 기록과는 달리, 개전 당일은 북한군의 침공에 대한 개성지구의 각 역장들의 조치로 개성으로 향하는 모든 북행열차는 문산역에서 중착시켰기 때문에 경의선 용산발-토성행(05시 20~08시 35분) 열차는 개성지구로 운행되지 않았다.<sup>110)</sup> 더구나 서당석 순경은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생존한 것이 확인된다. 연관하여 개성 주둔 육군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오정혁(2등 중사)과 야전공병대 2중대 1소대 박춘건(2등 중사)도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생존한 것이 확인된다.<sup>111)</sup>

이러한 점에서 두 대원의 당시 행적을 추적해보면, 이들은 개전 전 날인 1950년 6월 24일 경의선 용산발-토성행 마지막 열차의 이동승 무대원으로 1박 2일의 근무규정에 따라, 청단역 및 토성역 등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열차로 복귀하는 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개성지구를 총괄하는 개성철도경찰대에는 <요도 1>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개성역에 별도의 당직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개전 당일 개성역 당직실에 있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역 전투에 참전한 50명의 대원 중 개성철도경찰대의 직원명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남은 2명의 대원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생존한 서 순경과 같이, 만일 개성역 전투에서 생존한 대원들이 있었다면, 그들 또한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0) 『韓國交通動亂記』, 54쪽.; 용산철도경찰대에서 이들을 전사로 처리한 근거는 당시 열차이동 승무대원은 피한들의 열차습격에 대비하여, 무장한 상태였고, 개전 당일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정웅 (철도경찰학교 31기), 전화인터뷰, 서울, 2015. 9. 21.

111) 「포로병들이 말하는 침입한 국방군의 와해상」, 『로동신문』 1950. 7. 4, 7. 5.(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52쪽과 102쪽에서 재인용)

## 4. 맺음말

6.25전쟁 개전 당일, 개성철도경철대가 감행한 개성역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의선 노선인 개성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수도 서울 방어에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개성시를 침공한 북한군이 개성역 후면을 향해 신호탄을 발사했다는 것은 개성역 확보를 목표로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가전에 앞서, 탱크를 앞세운 선두부대로 하여금 철로를 통제하고, 기관차 통행을 차단시킨 점<sup>112)</sup> 등은 북한군 또한 최우선으로 개성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철도에 대한 피아간의 이면에는, 전투의 제1목표는 적의 무력 즉 전투능력을 박탈 또는 소모시키는 것으로 제1공격은 군대의 병력이나 병기, 전투력의 집산처를 공격, 차단하는 것임으로 대량수송수단인 철도는 주 공격목표가 되기 때문이다.<sup>113)</sup>

반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대량 운송수단인 철도는 병력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sup>114)</sup> 철도를 전략적 수송수단으로써 무기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개전 당일, 개성을 침공한 서부전선의 북한군 제1군단 제6보병사단은 주 공격로를 철도로 삼고, 황해 응진지구와 연안을 석권하기 위해 개성의 연계지를 차단하여 토해선을 점령했고, 개성역을 점령하면서, 봉동-문산 등 수도 서울과 연결된 경의선을 따라 침공했다. 하지만 중. 동부전선의 북한군 제2군단 제2보병사단은 춘천지구의 보급을 차단하고, 병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경춘선을 제압하려 했으나,<sup>115)</sup> 실패했다. 이는 춘천에 배치된 국군 제6보병사단 제7연대가

1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2005, 183쪽.

113) 『韓國交通動亂記』, 45쪽.

114) 마르틴 반 크레펠트(Martin van Creved),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 미디어, 2010. 185쪽.

115) 『韓國交通動亂記』, 46쪽.

09시를 기하여, 춘천시에 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철도 및 통신시설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철도를 최우선으로 사수한 국군 제6보병사단 제7연대는 춘천역 구내와 철도시설을 군의 진지로 구축하여, 방어 및 지연전을 전개할 수 있었고, 임시군용열차로 26일까지 응원병력과 탄약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sup>116)</sup> 이처럼 전시 하에서는 철도가 갖는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철도시설의 확보 여부에 따라, 작전 및 전투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군사적 측면에서도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었던 개성역을 간과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sup>117)</sup> 하지만 개성 철도경찰대는 투철한 경계의식으로 본연의 직무인 개성역을 사수하기 위해, 빈약한 무기와 소수의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화력의 북한군과 방어전을 감행했다는 것은 전쟁사적 의의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기록과 같이 개성역 전투가 벌어지던 당시, 제12연대의 중대원들이 개성시에서 철수하였고, 다리고 대위는 문산에서 임진강까지 탈출했다. 이처럼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인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은 아군에게 확보된 시간이었다. 따라서 개전 당일,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감안했을 때, 대원들은 북한군의 남침속도를 지연시키는 성과로 국군 제12연대의 병력이 임진강으로 집결하는데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18)</sup>

11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戰鬥史』 3, 1982, 20~22. 26~28쪽.; 『韓國交通動亂記』, 52쪽.

117) 개전 당시, 북한군이 개성, 고랑포 방면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의 방어정면에 주력부대와 비견할 만한 병력을 투입한 것은 이곳의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기갑부대의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축선으로써, 서울의 서측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군 제1사단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1번 국도에 대전차 장애물 또는 진지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병력배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2권), 20 05, 108쪽.; 佐佐木春隆, 『韓國戰爭秘史-기나긴四日間』 (中卷), 1983, 231쪽.

118) 개전 당일 문산역장은 '14시경 장단역 1km 앞에 북한군이 나타났고, 불과 20분 만인 14시 20분경 폐색전화로 북한군은 장단역에서 임진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다. 개성역과 장단역까지의 노선거리는 약 21.2km이다.; 『韓

더구나 개성역을 침공한 북한군 제6보병사단(제15연대)은 북한 정규군의 주력으로서, 팔로군 출신의 최정예 부대이었다. 그러나 막강한 병력과 화력에도, 비정규군인 개성철도경찰대의 불과 50명의 대원에 대하여, 기갑부대의 지원과 약 1시간을 경과한 고전(苦戰) 끝에, 개성역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점은 대원들의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대원들의 저지로 병력 및 화력의 일부를 개성역에 집중시킨 북한군은 작전의 차질과 진격속도 등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원들의 전투상황에 대해서 개성역 전투의 생존자인 홍리화(당시, 개성철도경찰대 경비주임) 경위는 다음과 같이 술회한 바 있다.

“철도경찰대 본부를 사방에서 포위한 북한군은 전차포로 청사를 파괴하는 동시에, 자동 화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전 대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웠다. 끝내는 병력과 화력의 부족 때문에 적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장 감봉룡 경감 이하 전원이 옥쇄하고, 나를 포함하여 3명만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있어 그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된다.”<sup>119)</sup>

결론으로 정리하면, 당시 개성역은 38경계선 최북단에 위치하여, 6.25전쟁 발발 이후, 가장 먼저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으며, 개성역 전투는 전면전이라는 인식을 하기도 전에 벌어진 국립경찰 최초의 전투였고, 개성이 함락되기까지 마지막 전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45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개성역 전투는 개전 초기, 경찰전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치열한 전투이었다. 비록 그들이 결의한 개성역 사수는 실패했지만, 후퇴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북한군을 향해 전진 공격함으로써, 국립경찰의 명예와 호국의 의지, 희생정신을 고취시킨 점은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國交通動亂記』, 58~59쪽.

119)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759쪽.



이 연구는 이러한 개성역 전투에 대한 기록과 증언들을 발굴하고, 전투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여, 역사적 의의로의 재조명을 시도했고, 전사자 명단을 발굴하여 전투 이후, 66년 만에 그 명단을 밝혀냈다. 또한 연구의 결과로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 편승설’은 허구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6.25전쟁 당일 북한군의 개성공격시간과 개성함락시간, 개성역 전투의 경과시간 등을 검토하여 오류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전사에서 개성철도경찰대의 개성역 전투에 대한 전훈 및 역사적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은 경찰조직에서 특수경찰로 구분되는 철도경찰대라는 명칭으로 인한 심리적 경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하지만 전사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철도경찰대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전보 및 전입과 전출이 빈번하여, 일반경찰과의 구분이 모호했다. 따라서 경찰전사에서 이들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이 연구를 통해 마련된 토대로 기록의 재고와 함께 재조명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개성역 전투의 전사자 명단 중 전사자 명부에 누락된 대원 3명에 대한 명단등재 및 유가족을 찾지 못한 전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 또한 촉구하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2016.10.7, 심사수정일: 2016.11.20,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국립경찰 개성철도경찰대, 개성역 전투, 북한군 제6보병사단,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편승설, 전사자 명단

<ABSTRACT>

## The Study on the combat of Kae-song Rail Station by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during the Korean War

Byun, Hye-Seok

The combat of Kaesong Station by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was the first combat conducted by national police in order to defend Kaesong Station of Gyeongui Line to the point of death and it was also the last combat before Kaesong was taken by North Korean army, while the 12th Regiment of the Korean armed force was dispersed and evacuated from the area because of the surprise attack at the dawn of June 25, 1950.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of national police was one of 13 local railroad police units which were subordinate organizations of the railroad police's main force which directly belonged to the Public Order Bureau i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and it was the special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security mission of the railroad station and its facilities of the Kaesong district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38th parallel. It was the first railroad police organization made by the military governor,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on Jan 25, 1946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eriod in Korea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and maintaining railway security and its facilitie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t had managed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office like a local National Police Agency for 7 years until October 15, 1953 when it was disbanded.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was an irregular forces and special police organization, but the fifty policemen collected by emergency call in order to defend Kaesong Station fought with poor weapons such as carbine rifles and 99-type rifles against the 15th regiment of the 6th infa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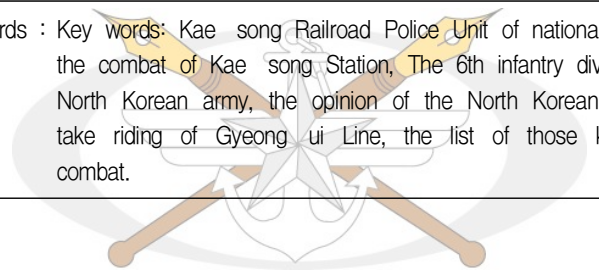
division of North Korea's regular army which had powerful weapons such as T-34 tanks. They were ready to die and fought desperately according to the plan of their commander without being dispersed and evacuated.

The policemen of the Railroad Police Unit were isolated in air-raid shelter, but they came out of the air-raid shelter in order to defend the civilians of Kaesong and carried out attack toward the North Korean army to the last minute. Although they failed to secure the Kaesong Station which they had planned to defend to the death, the result of their delaying and defensive action over one hour contributed to the assembling Korean troops at the defense line of Im-jin River for the defense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It is natural and right thing that their spirit of sacrifice, the will power for defending nation, and the honor of national police be well appreci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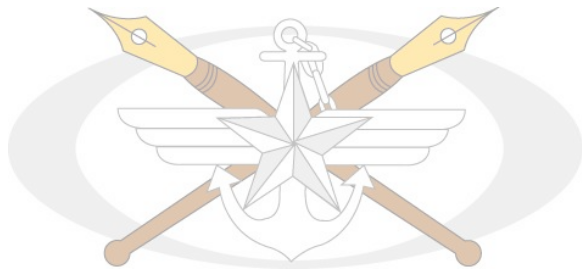
However, we cannot find any empirical studies on the combat of Kaesong Station fought by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now, although it has passed almost 60 years since the combat occurred. And especially the names of the policemen except the commander inspector Gam, Bong-ryong who were killed at the combat haven't been discovered. Besides, the fact that on the day of the outbreak of war the North Korean army which attacked the Kaesong Station got inside Songrak mountain of Kaesong and invaded Kaesong city is well recorded in the police combat manual called as 『Teuksujeonryeosaryeojip』(特殊戰例事例輯) written in 1951. Although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army didn't invade the Kaesong Station with riding trains is clearly confirmed through 『Hangukgyotongdongrangi』(韓國交通動亂記)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in 1953, the unverified fact about the details of the fall of Kaesong city is being quoted, so the courage and sacrifice of the Kaesong Railroad Police Unit is being discolored.

This study cross-validated the documents and testimonies related with the combat of Kaesong Station and it also cleared up the fact that 'the opinion of the North Korean army's take riding of Gyeong-ui Line' was misinformed due to utilizing conflicting testimonies. Thus, it shedded new

light on the recovery of Kaesong Railroad Police Unit's honor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combat of Kaeseong Station. It confirmed that the elapsed time of the combat in 『Teuksujeonryeosary eoip』 which had recorded the combat of Kaesong Station for the first time was recorded by using summer time which was implemented in Korea at that time. So, it reconfirmed the time of attack by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time of fall of Kaesong city. Besides, it discovered not only the list of the police men but also the list of those killed in combat. It was after 66 years that the list of 45 men killed was discovered.



Key words : Key words: Kae song Railroad Police Unit of national police, the combat of Kae song Station, The 6th infantry division of North Korean army, the opinion of the North Korean army's take riding of Gyeong ui Line, the list of those killed in combat.



# 한국전쟁기 미국의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

이상호\*\*

1. 서론
2. 한국정부 해외 이전 구상의 출현과 미국의 대소 비상계획
3. 중국군 공세에 따른 유엔군 철수와 한국정부 이전 계획안
4. 1·4 후퇴 전후 소련과의 전면전 예상과 한국정부 이전 계획의 구체화
5. 결론

## 1. 서론

전쟁의 영향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아마도 전쟁 당사자가 패망하여 없어지거나, 자국의 영토를 지키지 못한 채 망명정부로 전락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기 프랑스는 독일군에 의해 영토가 함락되었지만, 드골을 중심으로 하는 망명정부가 연합국과의 공조 속에서 다시 영토를 회복하고 정부를 환도시키는 임무를 완수하기도 하였다.

\* 여기서 해외(海外)란 단순히 외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및 남해안의 도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이외의 지역을 포괄하는 광의(廣義)로 해석한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전쟁기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도 여러 차례 준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망명계획은 한국정부 내에서 비계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국의 주도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다. 당시 유엔군의 주축 국가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미국은 소련 진영과의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정부의 철수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국전쟁기 한국정부 망명계획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1)</sup> 최근에 들어와 단편적으로 당시 계획의 일부를 반영한 연구를 통해 망명정부 계획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sup>2)</sup> 그런데 일본의 한 학자가 한국정부가 일본으로 망명정부 설치를 요청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sup>3)</sup> 하지만 이 학자의 주장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주장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 이후부터 나타난 유엔군의 한국정부 이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 인원, 소개 대상지역 및 관련 문제 등을 당시 미 국무부 자료 및 극동군사령부 문서를 통해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전쟁 전황의 긴박성과 함께 한국

- 
- 1) 대부분의 한국전쟁을 다루는 연구서들은 미국의 한국정부 이전계획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Vol. III - The Korean War* (Historical Division, Joint Secretariat, Joint Chiefs of Staff, 1978); 오코노기 마사오·현대사연구실 역, 『한국전쟁-미국의 개입과정』, 청계연구소, 1986, 288~293쪽; 김철범, 『한국전쟁과 미국』, 평민사, 1995, 309~310쪽;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두레, 1998, 296쪽; 와다 하루끼·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216쪽; 박명립, 『한국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728~731쪽;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 함께, 2005, 233~235쪽; 남정옥·양영조, 『알아봅시다! 6·25전쟁사』 제3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 2) 양영조, 「1·4후퇴와 유엔군의 한국 망명정부 계획」, 《항방저널》 제15권 1호, 향토방위연구소, 2010; 남정옥, 「6·25전쟁 시 이승만의 초기 대응과 전시지도자로서 역할」, 《군사》 제7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
  - 3) 庄司潤一郎, 「朝鮮戦争と日本の対応-山口縣を事例として」, 《防衛研究所紀要》第8卷 第3号(2006. 3).

정부 해외 이전 계획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이 단순히 망명정부가 아니라 전쟁의 각 국면에 따라서 유동적이지만 소련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비상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즉 계획상 제3차 세계대전의 최후 국면에 들어서서는 한반도로의 재진입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2. 한국정부 해외 이전 구상의 출현과 미국의 대소 비상계획

미 국무부 외교관계문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고 며칠이 지난 6월 27일 오전 7시 국무총리 서리인 신성모가 주한 미국대사인 무초(John J. Muccio)를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근황을 설명했다.<sup>4)</sup> 신성모는 이승만 대통령이 새벽 3시에 진해로 향했으며, 행정부는 특별열차 편으로 오전 7시에 남쪽으로 피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이때 추가적으로 국무회의의 결정을 알려주었는데, 군의 전권은 채병덕 참모총장에게 부여하였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집안에 있을 것과 탱크가 오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성모로부터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본으로 가 ‘망명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지를 질문 받았으나, 무초는 “나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이것이 전쟁 초기 나타난 한국정부 해외 이전 계획의 최초 언급이었다. 그러나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4)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50, vol. VII : Korea (Washington : U.S.G.P.O., 1976), p.176.



무초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일본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장(당시 전사부장)인 쇼지준이치로(庄司潤一郎)가 2006년 3월에 발표한 ‘한국전쟁과 일본의 대응 - 야마구치현을 사례로 -’<sup>5)</sup>라는 논문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는 2000년에 발간된 1950년대 야마구치현(山口県) 지사로 재임했던 다나카 타쓰오(田中龍夫)<sup>6)</sup>의 평전<sup>7)</sup>을 근거로 당시 야마구치현사를 보충하여 한국전쟁 발발 초기 한국정부가 6만 명을 야마구치현에 소개하고 망명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쇼지의 글에 따르면 야마구치현 지사였던 다나카는 한반도의 전쟁 발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러한 전세를 파악하기 위해 야마구치현에 ‘조선정보실(朝鮮情報室)’을 설치하여 정보파악에 주력하였고, 이미 1950년 6월 21일 북한의 남한 침공 가능성을 탐지, 이를 요시다 수상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sup>8)</sup> 대한민국 정부가 야마구치현에 망명정부 설립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이 6월 28일 서울에 입성한 후 한국정부는 수도를 대전, 대구 다시 부산으로 이전했고, 8월 하순에는 낙동강으로 도하했던 북한군이 한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부산 앞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이 때 외무성으로부터 ‘한국정부는 6만 명의 망명정권을 야마구치현에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전보를 입수하였다. 하지만 야마구치현에서는 시설, 숙사 등 당시 현민(県民)에 대한 배급도 15일 이상 부족하고 특히 군인의 귀환, 시모노

5) 庄司潤一郎, 앞의 논문.

6) 다나카 타쓰오는 1920년대 중국침략을 입안한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전 일본군 원수의 장남으로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이후 1953년 중의원 의원이 되었고, 통산대신, 문부대신 등을 역임했다. 庄司潤一郎, 위의 논문. 41쪽.

7) 安廣欣, 『至誠は息むことなし-評伝田中龍夫』, 東京, 三晃實業出版部, 2000.

8) 庄司潤一郎, 앞의 글, 44쪽.

세기 등으로부터의 귀환자가 계속 증가하므로 6만 명분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sup>9)</sup>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인해 소멸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골자였다. 그런데 쇼지 본인도 위 논문에서 밝혔듯이 다나가 지사는 일개 지사(知事)의 지위로서 전쟁 발발 이전부터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고, 또한 전쟁 발발 이후에는 도쿄로 상경하여 각료간담회에 출석하여 한반도 정세, 즉 전쟁발발까지의 경위, 금후의 전국(戰局)에 대한 견해 등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몹시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sup>10)</sup>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료를 통해 보았을 때 당시 미국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한국정부는 당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비상계획을 미국에 문의하였지만, 무초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정부의 대응 문제이다. 엄밀히 말해 일본은 1951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총사령관(GHQ/SCAP)의 통치 아래에 존재했던 피점령국의 상태였다. 따라서 일체의 외교적 사무를 할 수 없었고, 단순히 전후 처리(자국민의 귀환, 승전국에 대한 보상, 배상 등)만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sup>11)</sup>

따라서 한때 논란이 된 야마구치현에 대한 한국의 망명정부 설치 구상은 그 계획 수립의 실제적 진실 자체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전후 맥락과 함께 상세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설령 그러한 계획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소련의

9) 庄司潤一郎, 위의 글, 45쪽.

10) 庄司潤一郎, 위의 글, 45쪽

11) 당시 일본의 법적, 정치적 상태에 대해서는 竹前榮治, 『GHQ』, 東京, 岩波書店, 1983; 五百旗頭眞, 『米國の日本占領政策』, 東京, 中央公論社, 1985 등을 참조.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의식하여 이를 반격하고자 하는 비상계획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단지 이러한 소동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 당시 한국정부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군의 38선 이남으로의 공격이 당시에도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으로 한 때 북침설 내지는 남침유도설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소련의 세계 정복을 위한 3차 세계대전 도발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잘 알려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68(NSC 68)에 따르면 소련은 유라시아 대륙 내의 비공산권 국가의 정부구조를 완전히 전복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보루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2달 전인 1950년 4월에 입안되었다. NSC 68에서 미국은 소련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소련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통제하고 있는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첫째로는 소련, 그리고 둘째로는 현재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 그들의 절대권을 유지·강화코자 하는 것이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팽창해야 하고 그들의 권위에 효과적으로 반대하는 그 어떠한 세력들도 근절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바는 비공산권 국가의 정부구조를 완전히 전복·파괴하여 여기에 그들을 추종하는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소련은 현재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증거로 미국은 소련의 자국 병력 증강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소련은 세계 정복을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소련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 이상의 병력을

12) "A Report to the President Pursuant to the President's Directive of January 31, 1950"(1950. 4. 7), *FRUS*, 1950, vol. 1, pp.235~292.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의 대규모 병력이 핵폭탄으로 무장하게 될 경우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고, 만약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소련은 유럽 및 중근동 지역의 석유보유국가, 그리고 극동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련에 대한 군사적 열세로 인해 미국은 미국 자신 및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해 지연작전을 감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 비상계획은 한반도를 포기한 후 이후 작전 계획에 따라 반격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이 비상계획은 이미 1946년 3월부터 준비된 핀처PINCHER계획, 1948년의 브로일러BROILER계획, 1949년의 오프태클OFFTACKLE 계획 등이다. 각각의 계획은 핵무기로 소련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 것인데, 핀처 계획에서는 20여발로 20개 도시를, 브로일러 계획에서는 34발로 24개 도시를, 그리고 오프태클 계획에서는 104개 도시에 290여발을 공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sup>13)</sup> 이들 계획은 여러 가지로 수정, 보완되고 있었으나 대강은 비슷하였다. NSC68은 1950년 4월에 작성되었으므로 앞의 비상계획을 준용하였다.<sup>14)</sup>

1950년 9월에 수정된 NSC 68/1에서도 미국은 소련과의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준비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sup>15)</sup>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전쟁 준비에 착수하고 있어 1951년과 1952년 사이에 더 심각한 전쟁 위험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소련이나 공산 진영의 공격 범위나 규모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이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였고, 소련이 아닌 소련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13)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289~290쪽.

14) 赤木完爾, 「核兵器と朝鮮戦争」, 赤木完爾 編著, 『朝鮮戦争』,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3, 364쪽.

15) “Conversation of U.S. Aid Programs for Far Eastern Areas, May 16, 195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1: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Korea I (1948~1950)』, 국방군사연구소, 1996, 208~215쪽.

제3국의 공격으로 인해서도 전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을 상실할 것으로 보았다.

### 3. 중국군 공세에 따른 유엔군 철수와 한국정부 이전 계획안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책문서에서 한국정부의 망명정부 구상이 등장하는 시기는 중국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된 1950년 겨울 이후부터라고 보인다.

1950년 9월 15일 감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켜 한국군과 유엔군이 공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이때 상부로부터 맥아더에게 보내진 지침은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이는 38선을 넘어 작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9월 27일 볼트(Charles L. Bolte) 장군은 유엔군사령관으로써 자신의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38선 이북의 작전권한을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게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는 콜린스 대장에게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이른 시기에 맥아더 장군의 38선 횡단을 승인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7일 미 합참은 한반도에서 맥아더장군의 작전권한을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전문을 보냈다.<sup>16)</sup> 이러한 상부 지시에 따라 1950년 10월 1일 맥아더는 북한군의 항복을 권고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sup>17)</sup>

16) James Schnabel,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242-243쪽.

17) 《민주신보》 1950년 10월 5일.

한편 1950년 10월 3일 중국 외상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유엔군이 38선 이북을 공격한다면 전쟁에 개입을 하겠지만 한국군만이 38선을 넘을 경우 개입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 줄 것을 북경의 주중국대사 파니카(K. M. Panikkar)에게 부탁했다.<sup>18)</sup> 그러나 미국은 파니카의 親共적이고 反美적인 입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sup>19)</sup>

이 당시 중국군의 참전에 대한 정보는 여러 방면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었다. 네덜란드 주재 미 대사인 차핀(Seldon Chapin)은 “저우언라이는 개인적인 대화에서 38선이 붕괴될 경우 중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군 참모총장인 네룽전(聶榮臻)도 역시 38선이 유엔군에 의해 돌파된다면 중국군이 참전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고, 비록 미국과의 전쟁으로 중국의 발전이 50년 이상 후퇴한다 하더라도, 만약 지금 저항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영원히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고했다. 그는 중국군이 만주에 약 100만 명의 정예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보고서를 끝맺고 있다.<sup>20)</sup>

이미 1950년 8월에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가능성을 예측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 73/2에는 소련이 중국을 이용하여 한국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소련이 아래와 같은 행동 방침 중의 1개 또는 몇 개를 채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8) 원문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한국전쟁과 중국』 I,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39~42쪽; 주지안룡 지음·서각수 옮김,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도서출판 역사넷, 2005, 226쪽; James Schnabel, *op. cit.*, p.262.

19) James Schnabel, *ibid.*, p.263;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97.

20) “The Ambassador in the Netherlands (Chapin)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 10. 3), *FRUS*, 1950, Vol. VII, pp.869~873.

- a. 세계대전을 유발한다.
- b. 소련군 단독으로 또는 위성국 군대와 연합하여 지역적이고 제한된 목표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하며 세계대전을 계획하지는 않는다.
- c. 소련군은 사용하지 않고 위성국 군대만을 사용하여 침략을 계속한다.
- d. 미국의 결심과 군사적 능력을 시험한다.<sup>21)</sup>

즉 이러한 소련의 의도에 따라 한반도에 정규 중국군의 투입 가능성을 예상하였다. 이는 중국군이야말로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위성국 군대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중국이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할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워싱턴에서 중국개입 가능성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행정부 전체의 정책지시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었다. 10월 5일 북한에 중국군이 개입하였다는 믿을만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극동군사령부 정보장교들은 만약에 유엔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공공연히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정보참모인 월로우비(Charles A. Willoughby)도 워싱턴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최소한 38개 중국군 사단 중에서 9개 내지 18개 사단이 한만국경에 집결하고 월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sup>22)</sup>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지사령관인 맥아더에게 보내진 메시지에는 10월 7일 통과된 유엔총회결의안<sup>23)</sup>이 38선 이북에 대한 작전 수행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1950년 6월 27일의 안보리 결의안 집행을 한층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sup>24)</sup>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21)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ugust 8, 195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1: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Korea I (1948~1950)』, 578~596쪽.

22) James Schnabel, F., *op cit.*, p.265.

23) 10월 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유엔군의 월북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자유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8개국 공동제안이 47대 5로 통과되었다. 《경향신문》 1950년 10월 9일; William W. Stueck, Jr. *op. cit.*, p.94.

24) "Message from D. Rusk to George C. Marshall"(1950. 10. 6), 『한국전쟁 자료총서 49: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I, 국방군사연구소, 1999,

따라 맥아더는 북한에 유엔총회의 결정조치를 통고하며, 적대행위의 중지 및 항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10월 8일 또 다시 발송했다.<sup>25)</sup>

미국은 중국이 개입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보다 소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소련이 개입할 경우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더욱 심각히 분석하고 있었다.<sup>26)</sup>

10월 17일 맥아더는 유엔군사령부 명령 제4호로 제한을 철회하고 전 지상부대가 진격할 수 있는 선까지 북진하도록 명령했다.<sup>27)</sup> 10월 24일에는 국경 남쪽의 유엔군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을 철폐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북단까지 전진할 것을 지시한 것이었다.<sup>28)</sup>

1950년 10월 19일 오후 5시 30분, 제40군의 도하를 시작으로 중국 인민지원군의 주력부대는 당일 밤에 3개소의 도강 지점에서 압록강을 건너 남하했다. 중국의 참전은 이로써 정식으로 개시되었다.<sup>29)</sup> 맥아더사령부의 의도와 달리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같은 날 한반도 북부에 진출했던 중국군의 총 병력 수는 40만 명 이상이었다.<sup>30)</sup> 이 시기에도 맥아더사령부는 11월 25일 정보에서 중국군에 대해 약 6만 명 내지 8만 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sup>31)</sup>

---

328쪽.

25) "Message from CINCFE to Department of Army"(1950. 10. 9), 『한국전쟁 자료총서 49: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I, 349쪽.

26) James Schnabel, F., *op. cit.*, p.264.

2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28) Roy E. Appleman, *ibid.*, p.670.

29) 주지안룡 지음·서각수 옮김, 위의 책, 333, 3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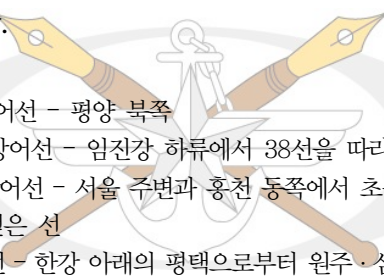
30) 주지안룡 지음·서각수 옮김, 위의 책, 375쪽.

31) "Aid and Comfort to the Enemy", MA, RG 6, Box 3, File 8, p.6;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Eighty-Second Congress First Session, Part 1*, pp.18~19.



하지만 이러한 맥아더의 판단은 3일이 지나서야 특별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맥아더는 이 발표에서 “총 합계 20만 이상으로 조직된 중국군의 주력부대가 현재 북한에 있는 유엔군과 대치하고 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전쟁이 국제전화 되었음을 주장했다.<sup>32)</sup>

육군참모총장 콜린스대장은 12월 4일 도쿄를 방문해 맥아더사령관과 제1차 전략회담과 12월 7일에 이어진 제2차 전략회담에서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통합한 후 단계별 방어선을 설정하여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부산으로 철수하는 계획에 최종 합의하였다.<sup>33)</sup> 다음은 이 회의에서 합의된 9개의 방어선으로 12월 10일 미 제8군은 축차적인 방어선을 확정했다.

- 
- 에이블(Able) 방어선 - 평양 북쪽
  - 베이커(Baker) 방어선 - 임진강 하류에서 38선을 따라 동쪽으로 뺀 선
  - 찰리(Charlie) 방어선 - 서울 주변과 홍천 동쪽에서 초승달 모양을 하다가 동해안을 향해 뺀 선
  - 도그(Dog) 방어선 - 한강 아래의 평택으로부터 원주·삼척을 향해 뺀 선
  - 금강 방어선 - 금강 남안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
  - 낙동강 방어선 - 북한군으로부터 부산을 방어하기 위해 여름동안(1950. 8. 4~9. 16) 사용하였던 방어선의 이름과 같다.
  - 데이비드슨(Davidson) 방어선 - 부산 주변 68마일 교두보
  - 레이더(Raider)방어선 - 부산 주변 48마일 교두보
  - 부산 방어선 - 부산 주변 28마일 교두보<sup>34)</sup>

12월 이후 중국의 한국전 개입은 소련이 세계 대전으로 이끌어 가는

32) 《경향신문》 1950년 11월 30일;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1950. 11. 28), *FRUS*, 1950, Vol. VII, pp.1237~1238.

3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0, 524쪽.

34) 로이 애플맨, 앞의 책, 465~466쪽.

한 단계일 뿐이라는 점에 워싱턴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점을 걱정하여 미국의 모든 주요 사령부에 임전 태세를 갖추도록 통고했고 12월 16일에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sup>35)</sup>

12월 23일 미8군 사령관 워커가 사망한 이후 작전권한을 인계 받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는 미 제8군의 작전방침은 38도선에서 부산까지의 공간지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려고 계획하였고, 미 제8군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였다.

- ① 제1통제선 : 38도선 진지로, 임진강 하구에서 양양에 이르는 주저항선
- ② 제2통제선 : 수원-양평-홍천-주문진을 연하는 선으로, 평택-삼척선의 방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
- ③ 제3통제선 :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연하는 선으로, 평택-삼척선의 방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
- ④ 제4통제선 : 금강선으로, 금강 남안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
- ⑤ 제5통제선 : 소백산맥선으로,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
- ⑥ 제6통제선 : 낙동강 방어선으로, 유엔군이 최대한의 저항을 시도할 진지로 이 방어선이 와해되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도서로 철수시킬 계획<sup>36)</sup>

리지웨이 장군은 12월 말 단계별 방어선을 확정하였다. 제6통제선이 무너지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도서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작전 계획서 상에서 군대의 이동과 잠정적으로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의 초기안이 나타났다.<sup>37)</sup>

35)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 - July 1951* (Washington D. 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231.

3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525쪽.

3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 124쪽.

## 4. 1.4 후퇴 전후 소련과의 전면전 예상과 한국정부 이전 계획의 구체화

1951년 1월 중국군의 제3차 공세에 따라 유엔군은 다시 38선 이남으로 후퇴하였다. 이때 미국과 유엔군은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대략적인 구체안은 12월 28일 미국무부에서 마련되었다. 당시 계획에서는 철수시킬 한국인들의 예상인원을 대략 5만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 철수시킬 한국인들의 예상인원(57,700명)
- 1) 국회의원, 중앙 및 지방경찰의 고위직과 가족(3,500여 명)
- 2) 대한민국의 고위 장교단(1,000명)
- 3) 민간분야의 저명한 지도자 및 기독교인사, 교육자 등 향후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3,000명)
- 4) 한국군(약 50,000명)
- 5) 정보수집 및 심리전 수행에 필요한 북한포로(500명)
- 6) 유엔군사령부는 일반 민간인의 철수를 지원할 수 없음.<sup>38)</sup>

이 당시 계획에서 선정된 철수 지역은 물자공급과 방어에서 불리한 점은 있지만 제주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정부가 여전히 한국의 영토에서 기능할 수 있으며 한국군 역시 수비대의 형태로 주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계획의 내용은 이것이 전부였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1월 4일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주미 한국대사 장면과의

---

38) “Telegram from SecState(Acheson) to Seoul Embassy”(1951. 1. 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53: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V』, 국방군사연구소, 1999, 471~473쪽.

대답에서 한국에서의 유엔군의 철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sup>39)</sup> 먼저 장면은 미국의 정책이 한국으로부터의 철수인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덜레스는 군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장면은 만약 전면 철수 시 한국정부에게 근거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제주도를 언급했다. 그는 제주도가 한국영토라는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만약 공산 측이 한반도 전역을 장악할 경우, 오키나와 혹은 일본을 그 대상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덜레스는 일본에 망명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같은 날 국무부 동북아시아국은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다.<sup>40)</sup> 물론 당시 상황의 전제는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이 소련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련과의 전면전을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군은 제주도나 오키나와 혹은 일본에 기지를 두고 한반도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한편 한국정부와 해당 인원들은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의 소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대상지는 우선 제주도가 1순위였고, 다음으로 일본 및 부속도서, 그리고 오키나와가 대상지로 모색되었다. 또한 철수계획의 대상자는 한국정부 및 군부 고위인사, 기독교지도자, 교육자, 사업가 및 반공지도자와 한국군 그리고 북한 포로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군의 서울점령 이후 37도선으로의 남하가 이루어지자 유엔군은 더욱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더욱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1월 9일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중국군에 대한 대응

39)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John Foster Dulles”(1951. 1. 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53: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V』, 500~501쪽.

40) “Office Memorandum: Problems Relating to the Present Korean Situation”(1951. 1. 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53: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V』, 509~511쪽.

및 군사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령했다. 우선 중국해안 봉쇄는 한국에서 유엔군의 지위가 확고해지거나 아니면 완전 철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행되어야 하고, 중국에 대한 공격 역시 중국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군을 공격하는 경우에 허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군의 이용에 대해 이들이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들을 한국에 파병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sup>41)</sup>

이러한 상황에서 워싱턴 당국은 한반도 전황을 휴전으로 이끌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sup>42)</sup> 여기에 더해 한국으로부터 유엔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해군과 공군의 철수도 계획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100(NSC100)을 준비했다.<sup>43)</sup> 미국은 유엔군이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항한 군사 및 정치 보복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1. 한국으로부터 유엔군을 철수시키고, 해공군력을 철수함.
2. 해공군력과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봉쇄를 강화함.
3. 중국과 한국 사이의 병참선에 대한 공격의 개시와 지속 또한 군사적 중요성이 있는 만주의 공격지원용 산업시설에 대한 공격도 포함함.
4.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극동에서의 모든 반공주의 요소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함. 그리하여 중국의 중부 및 남부에서 전면전을 개시하고, 게릴라 활동을 확대함.
5. 해공군력을 통한 군사적 역량의 확대를 통해 대만 지역의 방어를 강화함.

41)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1951. 1. 9), *FRUS*, 1951, vol. VII, pp.41~43.

42)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Item No. 6 - Cease Fire Principles”(1951. 1. 1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54: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VI』, 국방군사연구소, 1999, 40~46쪽.

43) “Recommended Policies and Actions in Light the Grave World Situation”(1951. 1. 1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2: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Korea II (1951~1954)』, 국방군사연구소, 1996, 1~19쪽.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행동방침이 되는 NSC 101을 작성했다.<sup>44)</sup> 이 문서에서 합참은 일본, 류큐열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해안방어선을 유지하고, 대만의 공산화를 저지하되,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 망명정부를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국군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유엔결의를 요구하며, 중국내에 활동 중인 게릴라에게 비밀지원을 할 것을 주장했다.<sup>45)</sup> 이 NSC 101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정부의 철수를 공식화하며 이에 대한 계획 작성을 촉구했다. 1951년 1월 15일 개정된 NSC 101/1은 철수할 경우 미군은 일본으로 이동해야 하고, 한국군 및 그 외 국제연합군의 철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sup>46)</sup>

이 당시 미 국무부도 미 합참과의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비계획을 수립하였다.<sup>47)</sup> 여기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대규모 인원(80만~100만)을 제주도로 옮기느냐 아니면 소규모 인원(1만~2만)을 전 세계에 분산 수용하느냐의 선택 문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전 대상지인 제주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제주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또한 단점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가 이전 대상지로 갖는 장점은 대략 6가지로 분석되었다. 1) 많은 인원을 공산 측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2)공산 측의 완전한 승리를 저지할 수 있으며, 3)미국과 유엔의 반격에 대한 지속적인 상징을 갖는다는 점이다. 4)자유 한국정부가 한국 영토에 존재한다는

44) “Course Action Relative to Communist Chinese and Korea”(1951. 1. 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2: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Korea II (1951~1954)』, 20~24쪽.

45)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Marshall)”(1951. 1. 12), *FRUS*, 1951, vol. VII, pp.70~72.

46) “U.S. Action to Counter Chinese Communist Aggression”(1951. 1. 1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2: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Korea II (1951~1954)』, 74~79쪽.

47) “Outline for Discussion with JCS”(1951. 1. 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53: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관련 문서 XV』, 624~631쪽.

점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고, 5)게릴라 지원과 심리전을 위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6)한국정부의 해외 이전의 어려움을 피하면서 지속적인 한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반면에 단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1)피난민들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2)제주도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둘러싼 연합국들 사이의 견해 차이가 증대될 수 있으며, 3)만약 공산 측과의 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의 항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군사적인 측면에서 현재 포기하는 것보다 미국과 유엔의 위신에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기본적인 구호에 있어서 다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5)제주도는 불가피하게 대만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었다.

따라서 만약 피난처가 제주도가 아닌 곳으로 정해진다면 제한된 철수를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1)정부의 주요인사와 그 가족들(약 4,000명), 2)한국군 고위장교단 및 기술관리들과 가족들(약 3,000명), 3)기독교계 인사 및 민간지도자, 교육가 등과 그 가족(약 10,000명), 4)포로관련 기관과 전쟁포로 순이었다. 한국군은 그 군사적 잠재력을 고려하여 오키나와와 같은 독립된 기지에 주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대통령, 내각, 의회 등으로 구성될 한국정부는 유엔의 책임이라는 원칙이 유지된 가운데 하와이나 다른 미국영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 담당자들은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제주도를 포기한다면 공산 세력에 대한 반격이라는 상징성을 포기한다는 지적이었다. 무초 역시 한국 정부가 철수할 경우 제주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sup>48)</sup>

48) "Telegram from Pusan(Muccio) to Secstate"(1951. 1. 10.) 국방군사연구소,

그는 제주도로의 이전이 심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의 누설에 대해 걱정스러워했다. 이미 이러한 유사한 계획이 도쿄의 유엔군사령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의 내용이 그곳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누설되어 한국에까지 알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1월 15일자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게재되면서 나타났다.<sup>49)</sup> 당시 기사에 따르면 부산에 임시로 이전한 한국정부가 제주도로 철수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기사에서는 제주도의 통상 인구를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며 대만과 달리 좋은 항구와 현대식 비행장이 없으므로 미국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한반도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은 그 전제가 의심스러웠다.

1951년 1월 15일 콜린스(Lawton J. Collins) 육군참모총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공군참모총장이 한국에서의 군대 철수를 맥아더와 논의하기 위해 도쿄에 도착하였다. 1월 17일 회의에서 맥아더는 한국에서 자신의 군사적 위치는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으나 이제 상황이 한국에서 교두보를 유지할 만큼 개선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콜린스가 보기에 맥아더의 주장과 달리 유엔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본 한국에서의 희망적인 내용들을 1월 17일 워싱턴에 전달했다. 리지웨이가 지휘하는 제8군의 상태는 맥아더가 주장했던 절망적인 상태와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sup>50)</sup>

『한국전쟁 자료총서 53: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관련 문서 XV』, 650~651쪽.

49) “Memorandum of Conversation”(1951. 1. 1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54: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관련 문서 XVI』, 128~129쪽.

50) Michael Schaller, *Douglas MacArthur: The Far Eastern Gener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413.



그러나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이 실제 전선 상황에 따라 취소된 것은 아니었다. 유엔군은 소련과의 전면전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소련과의 전면전이라는 제3차 세계대전을 예상하면서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소련과의 전면전을 예상하고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은 1951년 4월 극동군사령관에 의해 Operation Plan CINCFE 4-51로 준비되었다.<sup>51)</sup> 이 계획은 유엔군이 한국전에 개입하고 있는 동안 소련에 의해 공격당해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다.

이 계획의 대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즉 한국정부와 선별된 포로를 사이판(Saipan)과 티니안(Tinian)에 이송하는 것이다. 이송해야 할 인사들의 범주는 A급 - 중앙공무원, 군대, 경찰(총인원 300,543명)과 B급 - 종교 및 전문직 지도자(총인원 182,000명), 그리고 10,000명의 선별된 포로들로 총원은 약 50만 명이였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 미 육군부는 이들 섬을 이용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sup>52)</sup> 먼저 계획상의 인원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당시 극동군사령부는 인도차이나로부터 14만 명의 프랑스 군대와 10만 명의 선별된 민간인을 하이퐁으로부터 소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민간인들이 프랑스 군대의 재배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음으로는 해외 이전 대상지가 거리상 너무 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바이(Savaii), 유폴루(Upolu)를 포함한 서사모아(Western Samoa), 팔라우(Palau), 얍(Yap), 포나페 열도(Ponape islands),

51) "Operation Plan CINCFE 4-51"(1951. 4. 3), NA, RG 319, Position of Commander-in-chief, Far East on Republic of Korea evacuation problems. Entry 97, Box 38A.

52) "A preliminary study on the evacuation of ROK Personnel from Korea"(1951. 4. 3), NA, RG 319, Position of Commander-in-chief, Far East on Republic of Korea evacuation problems. Entry 97, Box 38A.

괌(Guam)이나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등은 피난민을 수용할 수 있으나 거리가 문제라는 것이다. 역시 같은 문제로 인해 미국 본토와 하와이도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 육군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먼저 소개될 인원과 장비는 미국의 수송 능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군은 아시아 연안에서 공산진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다수의 군대를 보유한 한국정부도 외국 이전이 아닌 제주도로의 이전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인 피난지로 1) 서사모아, 2) 팔라우, 얍, 포나페 열도, 3) 영국령 뉴기니아 등을 추천하였다.

극동군사령부에서도 일본으로의 한국정부 이전을 반대했다.<sup>53)</sup> 1951년 6월 27일 극동군사령관 리지웨이는 육군부에 한국과 일본의 원한이 높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소개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우선적인 고려대상 지역으로 사이판-티니안 제도를 추천했다.

1951년 8월 30일 리지웨이는 미 합참에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을 수정하여 보고했다.<sup>54)</sup> 이 보고에 따르면 이전의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먼저 만일 공산군에 의해 한반도 전역이 점령당할 경우 보복에 처할 한국인의 수를 산정하였다. 그 수는 정부 인사, 군인, 경찰, 종교인 등 150만여 명에 달했다.<sup>55)</sup> 따라서 이들의

53) "Message from CINCFE to DEPTAR"(1951. 6. 27), NA, RG 319, 091 Korea, Box 38-A, Army-Operations, General Decimal File, 1950~1951.

54) "Telegram from M. B. Ridgway to Chief of Staff, USA : Position of Commander in Chief, Far East on Republic of Korea Evacuation Problems"(1951. 8. 30). NA, RG 319, 091 Korea, Box 38-A, Army-Operations, General Decimal File, 1950~1951.

55) 정확한 수자는 1,557,355명으로 정부 및 고위 군 관료 6,478명, 국군 241,318명, 군무관련 인사 32,426명, 경찰 64,228명, 미 8군 계약 인원 140,405명, 정부, 군, 경찰 가족 1,043,000명, 종교지도자 및 가족 1,500명, 민간지도자 및 그 가족 28,000명, 기타 29,500명이다. 추가로 이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안전과 병참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의 교두보 확보를 주장했다. 즉 유엔군사령관은 모든 한국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반도내에 충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이 지역 내에 한국정부가 위치해야만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일본으로의 한국정부 이전은 과거 역사와 현재의 정치적 요인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전 한반도가 공산화될 경우 사이판, 티니안, 괌을 그 후보 대상으로 건의했다.

1951년 후반기에 들어와 전쟁의 양상은 38도선을 경계로 밀고 밀리는 고지전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제 전선의 유동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참호전과 고지쟁탈전으로 변하고 있었다. 휴전협상이 여러 난관에 따라 여러 번 결렬되고 있지만 꾸준히 전개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향후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면화 되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 한국정부와 한국인의 철수에 대한 예비 연구가 계속되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계획은 1952년 1월 23일자 미 합동참모본부의 예비 연구이다.<sup>56)</sup> 이 예비 연구에 따르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경우 우선 한반도 남부에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것이 극동군사령관의 기본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는 제한된 시간, 전략적 목적에 대한 고려,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능력의 차이, 한국인들의 소개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와 한국인의 철수 지역으로는 각각 류큐와 일본이 가장 적절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본, 대만, 류큐는 인종적 차이로

전쟁포로 10,000명도 포함되었다.

56)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on Evacuation of ROK Personnel from Korea", JCS 1776/278(1952. 1. 23), NA, RG 319, 091 Korea, Box 38-A, Army-Operations, General Decimal File, 1950~1951.

인해 적절한 소개 장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선택 가능한 지역은 바로 싸이판-티니안 제도가 그 후보지로 고려되었다.

이상으로 당시 미 국무부와 미 군부의 한국정부 이전계획을 살펴본다. 먼저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의 인원을 5만 명 이하의 소규모로 산정했으며, 군사적 이유보다는 미국의 국가적 위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 군부의 한국정부 이전계획은 소련과의 전면전을 고려하면서 군사적 입장에서 규모가 대규모이고 반격시 전진 교두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 5. 결론

미 국가안보회의에서 진술된 “위험지역에서 주요 해당국 인사들의 소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에서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을 어떠한 입장에서 접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sup>57)</sup>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미국 정책의 목적은 ‘소련의 팽창에 맞서기 위한 전쟁에서 고도로 숙련되고, 유능한 개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특히 ‘과학, 산업, 정책, 군사에서의 주요 해당 지도자와 지식인들은 그들의 능력이 적에 의해 활용되지 않도록 보호되거나 소개됨으로써 동맹국이 전쟁 노력을 증대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대규모 소개는 어떠한 표준을 세워야 하며 공산군에 의해 침략을 받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위협받는 민간인들의 소개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57) *ibid.* Enclosure B. p.1458.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당시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은 단순히 공산진영의 전 한반도 공산화에 따른 우익 인사들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계획만은 아니었다. 또한 한때 논란이 되었던 정권의 안위를 위한 일본으로의 한국 정부 이전 계획도 아니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당시 자료를 통해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당시 한국 정부 해외 이전 계획은 소련과의 전면전, 즉 제3차 세계대전을 예상하면서 추진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상지역은 제주도였다. 제주도를 한국정부의 이전 대상지로 규정한 것은 제주도야말로 공산세력에 대한 반격이라는 상징성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이 아닌 제주도로의 이전이 갖는 의미 가운데 정치적, 심리적 이유를 들고 있다.

결국 한국전쟁기 한국정부의 해외 이전은 먼저 이에 대한 상황의 전제가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을 소련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간주, 최종적으로는 소련과의 전면전을 예상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반격을 준비하는 유엔군(미군)의 거대한 작전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6.10.5, 심사수정일: 2016.11.20,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망명정부 계획, 극동군사령부, 한국전쟁, NSC 68, 유엔군사령부, 무초

<ABSTRACT>

## The Research on the Overseas relocation plan of Korean Government led by the US in the Korean War

Lee, Sa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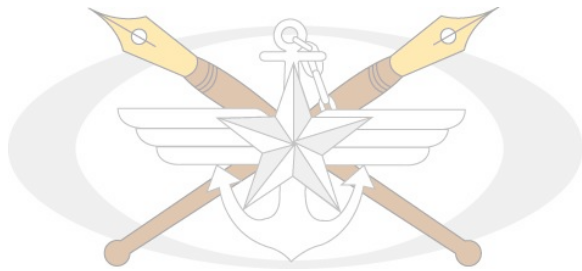
During the Korean War, Government in exile plan was prepared several occasions by Korean Government. But these plans are in exile but also by unplanned flows out in South Korea, most of which had been prepared by the initiative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the United States was at war as the main bodies of the UN allied forces. So they seemed that Korean War was expand and became a Third World War with the Soviet Union. It prepared the planned of withdrawa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current academic research, it is not being done very little about South Korea South Korea government in exile plan during the war.

This study seeks to track the specific personnel, subject areas and issues such as the government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 Command plan which appeared before large-scale attack of the Chinese Communist Force in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Far East Command document at that time.

Key words : Overseas in Exile Plan, Far East Command, United Nation Command, Korean War, NSC 68, John J. Muccio



# 조선후기 拳法の 군사무예 정착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최형국\*

1. 머리말
2. 拳法の 문화적 보급 과정과 군사훈련 정착
3. 拳法の 실제와 武藝史的 특성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개전 초기의 적절한 전술적 대응 부족으로 인해 불과 20여일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성은 함락되었고, 국왕은 수도를 버리고 북으로 몽진을 떠나야 했다. 이는 변화하는 전장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개인용 화약무기와 함께 戰國時代를 거치면서 양성된 창검을 비롯한 단병무예에 뛰어난 군사들을

---

\* 중앙대 강사(한국사)/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



혼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술체제를 고안하여 실전에 활용한 상태였다.<sup>1)</sup> 조선군은 기병전술 위주의 五衛체제에서 長短兵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일본군의 전술전개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sup>2)</sup> 西厓 柳成龍은 일본군의 장기로 조총·用劍·돌격 등 세 가지를 주요 전력으로 인식하며 조총과 더불어 단병접전 전투능력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기도 하였다.

임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에 새롭게 창설된 訓練都監의 기본 편제가 砲手·射手·殺手체제의 삼수병방식으로 구성된 핵심이유는 조총병과 단병접전용 창검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조총의 경우는 전투시 노획한 것을 활용하다가 金忠善(沙阿可)을 비롯한 降倭의 도움을 통해 제작 기술을 습득하여 훈련도감을 창설할 때에는 군영 안에서 조총을 자체 제작하여 전투에 활용하였다.<sup>3)</sup> 단병접전에 활용한 왜검법 역시 항왜를 적극 활용하고 兒童隊를 비롯한 특수 직역을 만들어 보급에 힘을 썼다.<sup>4)</sup>

그러나 조총의 경우는 焰硝의 제조 및 제작 기술의 보안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쉽게 조선군에게 보급된 반면 왜검법을 비롯한 살수의 전투기술은 빠르게 보급시키기 어려웠다. 이는 조총 발사훈련의 경우는 단기간에 걸쳐 집중 훈련을 할 경우 전투에 바로 활용할 정도로 실력을 높일 수 있었지만,<sup>5)</sup> 도검이나 창을 훈련하는 단병접전술의 경우는 훈련과정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1) 노영구,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46-47쪽.

2) 최형국,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23-29쪽.

3) 한문중, 「임진왜란시의 降倭將 金忠善과 『慕夏堂文集』」, 『한일관계사연구』 24권, 한일관계사학회, 2006. 71-80쪽; 『宣祖實錄』 卷44, 宣祖 26年 11月 壬戌條; 『西厓集』 卷6, 書狀, 「再乞鍊兵且倣浙江器械多造火砲諸具以備後用狀」

4) 최형국, 『朝鮮後期 倭劍交戰 변화 연구』, 『역사민속』 2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93-98쪽.

5) 『宣祖實錄』 卷48, 宣祖 27年 2月 己巳條.

모호했기 때문에 군사들 내부에서도 동요가 잦았기 때문이다.<sup>6)</sup>

이러한 단병접전 기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원군으로 조선에 건너온 明軍중 단병접전 능력이 뛰어난 南兵의 전투방식을 채용하였다. 남병은 왜구와의 실전 전투경험이 풍부하여 遼東都司 소속의 副總兵 祖承誨이 이끈 1차 원군에 비해 효과적으로 임란에 대처할 수 있었다.<sup>7)</sup> 이때 핵심적으로 보급된 단병무예는 訓局郎 韓僑를 중심으로 간행된 『武藝諸譜』에 수록된 棍, 籐牌, 狼筈, 長槍, 銃鈹, 長刀 등 모두 여섯 가지의 무기 활용법이었다.<sup>8)</sup> 그러나 임란이 끝나고 나서 군사들의 무예에 대한 보다 정밀한 훈련을 위해서는 무기를 잡기 전에 익혀야 하는 맨손무예인 권법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맨손무예인 拳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체육학 영역에서 태권도와와의 유사성 혹은 고대 手搏이나 角抵와 같은 전통적인

- 
- 6) 초종의 경우는 일정한 거리에 세워둔 표적에 시험발사를 하여 적중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훈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병접전술의 경우는 실체가 전투가 아닌 이상 적과의 교전을 가상으로 상정하여 살상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기본적으로 활을 다루는 射手 중심의 보병전술체제에서 군사들 스스로가 단병접전술을 익혀야 하는 의미성과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宣祖實錄』 卷 62, 宣祖 28年 4月 辛未條.)
- 7) 임란 발발 후 명군의 1차 원군은 조승훈이 이끈 기병위주의 북병이었던 반면 2차 원군은 李如松이 이끈 남병은 보병위주였다. 평양성 탈환전투시 1차는 기병위주의 전술로 패배하였고, 이후 2차 전투에서는 남병의 보병 중심 전술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남병의 일본군에 대한 전투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8) 壬辰倭亂 당시 日本軍의 短兵接戰術에 대항하기 위하여 명나라에서 입수한 『紀效新書』의 여섯 가지 기예를 수록한 『武藝諸譜』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朴起東, 『朝鮮後期 武藝史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盧永九,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호, 군사편찬연구소, 1998; \_\_\_\_\_, 「壬辰倭亂 이후 戰法の 추이와 武藝書의 간행」, 『한국문화』 27집, 2001; 沈勝求, 「壬辰倭亂 中 武藝書의 편찬과 의미」,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26집, 한국체육대학교, 2003; \_\_\_\_\_, 「한국 무예사에서 본 『武藝諸譜』」, 『한국무예의 역사·문화적 조명』, 국립민속박물관, 2004; 정혜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편찬」, 『軍史』 51호, 2004; 최형국, 「조선후기 倭劍 交戰 변화연구」, 『역사민속학』 25호, 역사민속학회, 2007. ; \_\_\_\_\_, 「조선후기 陣法 鴛鴦陣의 군사무예 특성」, 『軍史』 78호, 군사편찬연구소, 2011. 참조.

몸문화 흐름 속에서 권법의 변화와 연관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sup>9)</sup> 또한 1790년에 편찬된 『武藝圖譜通志』의 수록된 무예24기중 맨손무예인 권법이 들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태권도와 연관된 맨손무예 자세의 특성 및 실기적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조선후기 권법의 특성이 전투에 활용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연마된 전투기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연원을 찾기 위하여 삼국시대나 혹은 그 이전의 무예까지 무리한 연관을 지어 당대 무예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짚어 낼 수 없었다. 무예 또한 몸 문화의 일부로 유구한 전통 문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임란을 거치고 조선에 보급된 권법의 경우는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이 담겨 있기에 무리한 연원 거슬러 올리기 방식이나 단순 문자적 비교로는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체육학 영역에서의 관련 논문들은 지나치게 태권도와의 연관성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무리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현재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이고, 세계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급된 무예이지만, 올바른 역사적 이해가 없다면 발전 가능성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태권도의 경우는 그 형성과정에서 이미 일본의 가라테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이후 근대 스포츠로 발전하면서 토착화된 무예지만, 무조건 한국의 전통무예라는 점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외부영향에 대해 금기시하는 분위기로 연구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다.<sup>10)</sup>

9) 이러한 조선시대 권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영일, 「조선시대의 手搏과 拳法에 대하여」, 『무도연구소지』 8, 용인대 무도연구소, 1997; 심승구, 「韓國 武藝의 歷史와 特性 : 徒手武藝를 中心으로」, 『군사』 4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산, 『壬辰倭亂 이후 朝鮮의 拳法에 대한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최복규, 「《무예도보통지》 권법에 관한 연구: 《기효신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1, 2002; 김현일, 『《무예도보통지》에 나타난 권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광낙현, 임태희, 「전통무예에서의 권법 분석」, 『東洋古典研究』 54, 동양고전학회, 2014. 등이 대표적이다.

10) 태권도 형성의 기원과 변화 중 가라테와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양진방, 『해방 이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후기 拳法の 도입과정과 군영내 훈련 변화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1)</sup> 특히 군사무예에서 권법수련에 대한 의미와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권법이 갖는 전투적 속성과 무기 수련과의 연관성을 군사무예사적 입장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임란 이후 최초로 권법에 대한 기록을 모아놓은 『武藝諸譜續集』과 『武藝圖譜通志』 등 당대 맨손무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세 비교를 통하여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당대 군사무예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 2. 拳法の 문화적 보급 과정과 군사훈련 정착

임란이후 조선에 보급된 맨손무예인 拳法이 보급되기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맨손무예인 手搏이 성행하고 있었다. 조선전기의 수박은 주로 궁궐의 시위 군사를 뽑는 특수시험이나<sup>12)</sup> 手搏戲라고 하여 군사들이 맨몸으로 붙어 싸우는 모습을 관람하기 위하여 연희에서 주로 활용되곤 하였다.<sup>13)</sup>

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에서 처음으로 지적되었으며, 이후 조금씩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민족과 전통이라는 입장에서 태권도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상당부분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1) 무예에 대한 역사문화사적 고찰은 임동규, 『武藝史 연구』, 학민사, 1991이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임동규는 무예를 단순한 전투기술로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탄생하여 발전한 문화의 일부라 설명하였다. 특히 조선후기 무예서인 『武藝圖譜通志』에 대한 연구를 역사 및 실기와 함께 진행하여 『한국의 전통무예』, 『실연, 완역 무예도보통지』를 출판하는 등 한국 전통무예 발전의 실기 및 이론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2) 『太宗實錄』卷19, 太宗 10年 1月 戊子條; 『太宗實錄』卷21, 太宗 11年 6月 己亥條.

13) 『太宗實錄』卷32, 太宗 16年 7月 庚寅條; 『太宗實錄』卷34, 太宗 17年 7月 甲寅

특히 조선 개국 초에 반포된 국가의 공적인 법전인 『經濟六典』에 수박을 통한 맨손 겨루기 시험을 공식적인 무관 선발 방안으로 확립하였다. 다음의 사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삼가 六典을 상고하건대, 이르기를,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 능히 3백 步를 달리는 자가 상등이고, 2백 보를 달리는 자가 중등이며, 또 手搏의 능력이 능히 네 사람을 이기는 자가 상등이고, 세 사람을 이기는 자가 중등이 된다.’ 하였다.<sup>14)</sup>

위의 사료에 등장하는 수박은 고려시대부터 군사들 사이에서 성행되었던 맨손무예인 수박으로 그때까지는 私兵혁파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들의 실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특히 고려시대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文科시험은 존재했지만, 무관을 뽑는 무과시험이 없어 수박의 능력은 곧 당시 권력층 私兵의 무관으로 진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였기에 맨손무예인 수박이 폭넓게 보급될 수 있었다.<sup>15)</sup>

그러나 太宗代를 거치면서 사병혁파가 이뤄지고 모든 군사들이 국가에 귀속된 이후 이들을 이끄는 무관들을 뽑는 공식적인 시험인 무과시험에서 창검술과 맨손무예 종목이 제외되면서 수박은 군사무예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잃어 갔다.<sup>16)</sup> 이는 무과시험에서 무예실기뿐만 아니라 유학적 지식을 겸비시키기 위해 이론시험이 추가되어 실기는

條; 『世宗實錄』 卷4, 世宗 1年 7月 甲辰條; 『世宗實錄』 卷12, 世宗 3年 5月 己卯條; 『世宗實錄』 卷51, 世宗 13年 3月 壬辰條; 『端宗實錄』 卷14, 端宗 3年 6月 癸巳條; 『端宗實錄』 卷14, 端宗 3年 6月 癸巳條;

14) 『世宗實錄』 卷102, 世宗 25年 11月 癸丑條. “謹考六典云 帶甲執槍 能走三百步者爲上等 二百步者爲中等 又爲手搏技能勝四人者爲上等 三人者爲中等.”

15) 고려 毅宗때 무장으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던 李義旼의 경우도 출신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수박의 능력이 뛰어나 무장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高麗史』 卷128, 列傳41, 李義旼條. “義珉 善手搏 毅宗愛之以隊正 遷別將.”)

16) 이러한 조선전기 수박의 쇠퇴 영향과 흐름은 심승구, 『韓國 武藝의 歷史와 特性 : 徒手武藝를 中心으로』, 『군사』 4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를 참고한다.

활쏘기와 騎兵을 위한 馬上武藝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이러한 이유로 임란시에는 槍과 劍을 비롯한 보병용 무예는 그 무기만 존재하고 수련하는 방법이 없었고 오로지 弓矢만 보병의 주력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무예변화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나) 우리나라는 해외에 치우쳐 있어 예로부터 전해오는 것은 弓矢의 한 기에만 있었고 검과 창에 대해서는 그 무기만 있고 원래 習用하는 방법이 없었다. 馬上槍 하나만이 과거시험의 試場에서 사용되었지만 그 법도 상세히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검과 창이 버려진 무기가 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왜적과 대진할 적에 왜적이 갑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면 우리 군사는 비록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있더라도 검을 칼집에서 뺄 겨를이 없었고 창도 창날을 부딪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흉악한 칼날에 모두 꺾였으니, 이는 모두 창과 검에 대한 수련법이 전해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8)</sup>

위의 사료에서처럼 창검을 비롯한 보병의 단병접전용 무예 수련법이 失傳되면서 임진왜란시 심각한 전술적 혼란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무과시험의 핵심과목으로 자리잡은 木箭, 鐵箭, 片箭 등 다양한 활쏘기와 五衛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병의 마상무예 일종인 騎射, 騎槍, 擊毬 등이 군사무예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조선헌기 핵심전술체제가 오위전술체제로 원사무기인 弓矢와 기습돌격용 기병으로 구성되었기에 단병접전에 활용 가능한 수박은 군사무예로서 효용성을 잃는 현실적인 계기가 되었다. 반면 민간에서 수박은 맨손격투술로 여전히 넓게 수련되었다. 예를 들면, 潭陽지역

17) 최형국, 「조선후기 騎射 시험방식의 변화와 그 실제」, 『중앙사론』 24집, 중앙사학연구소, 2006, 33-45쪽.

18) 『武藝諸譜』, 「武藝交戰法」 “惟我國家偏處海外 從古所傳 只有弓矢一技 至於劍槍則徒有其器 顧無習用之法 馬上一槍雖用於試場 而其法亦未詳備 故劍槍之爲棄器久矣 故與倭對陣 倭輒死突進 我軍雖有持槍而帶劍者 劍不暇出鞘 槍不得交鋒 束手而盡 黜於兇刃皆由於習法之不傳故也.”

에서는 鄉吏와 官奴들까지 나서서 “나라에서 手搏으로써 試才한다는 말을 듣고는 다투어 서로 모여서 手搏戲를 하면서 몰래 勇士들을 뽑았다”<sup>19)</sup>고 할 정도로 격투실력을 가름하기 위해 수박이 활발하게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경지역에서는 수박을 잘하는 자를 선발하여 良賤을 가리지 않고 지역 방위군에 편입시켰는가 하면,<sup>20)</sup> 지방에서는 수박이나 角力 등 맨손무예로 겨루다가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때려죽이거나 도끼나 낫과 같은 무기를 이용하여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하였다.<sup>21)</sup> 그리고 수박은 씨름과 함께 세시풍속의 한 종목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는데, 모내기를 마치고 일손이 조금 한가해진 白中날에 수박을 겨루며 화합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sup>22)</sup> 특히 군사들을 이끄는 장수의 기본 자질에 맨손격투 능력이 중요하게 언급될 정도로 수박은 장수 선발의 일정한 준거가 되기도 하였다.<sup>23)</sup>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수박이 군사무예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기술의 체계화 및 공식화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군사훈련은 동일한 자세와 움직임으로 수 백 혹은 수 천명이 한꺼번에 수련해야 하기에 활쏘기와 마상무예의 경우는 일정한 체계화가 이뤄졌지만, 수박은 공식적인 군사 선발시험과 훈련에서 제외되어 기술의 정리와 체계화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조선전기의 군사훈련의 경우 개인 기예보다는 진법 속에서 안정적으로 대오를 갖춘 전투방식을 지향했기 때문에 군사 개개인의 수박이나 창검 운용법 등 단병접전 기법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19) 『世祖實錄』卷9, 世祖 3年 9月 丁丑條. “潭陽鄉吏官奴等 聞國家以手搏試才 爭相聚集爲手搏戲 陰揀勇士.”

20) 『世祖實錄』卷43, 世祖 13年 7月 丁丑條.

21) 『世宗實錄』卷50, 世宗 12年 閏12月 癸丑條; 『世祖實錄』卷33, 世祖 10年 5月 辛未條.

22) 『新增東國輿地勝覽』卷34, 礪由郡 由用條, “鵲旨在郡北十二里忠清道恩津縣界 每歲七月十五日 傍近兩道居民 聚爲手搏戲 以爭勝.”

23) 『成宗實錄』卷82, 成宗 8年 7月 丙子條.

조선군은 이러한 단병접전 무예의 퇴조 속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하였고, 일본군의 단병접전 기술과 개인 화약무기인 조총의 융합 戰法 속에서 전술적 혼란을 겪었다. 임란 당시 조선군의 단병접전 기법을 임시방편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의 병서인 『紀效新書』를 차용하여 『武藝諸譜』라는 조선 최초의 단병무예서를 편찬 및 보급하기는 했지만, 전시라는 특수상황에서 활발하게 보급하기는 어려웠다.<sup>24)</sup> 특히 銃鈹나 狼筈과 같은 명군의 독특한 무기와 무예의 경우는 조선군이 이전에는 사용해 본적이 없는 새로운 무기였기에 군사들 스스로 비웃거나 거부감을 표하는 등 많은 한계가 드러났다.<sup>25)</sup>

이는 무예 또한 문화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낯선 문화에 대한 배타성과 두려움이 군사들 내부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武藝諸譜』의 내용을 보면 무예의 문화적 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 무릇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지만 중국인은 젓가락을 사용하니 중국인으로 하여금 손가락을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시험하면 각각 생소한 근심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검과 창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弓矢는 비록 우리나라의 長技지만 어찌 그 하나만을 익히고 다른 무예를 폐할 수 있겠는가.<sup>26)</sup>

위의 사료에서 보듯이 무예를 당대 음식문화 중 하나인 손가락과

24) 임란당시 조선에 임시방편으로 보급된 단병접전용 무기와 무예는 다음의 논문이 자세하다.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편찬」, 『軍史』 51호, 2004; 최형국, 「朝鮮後期 倭劍交戰 변화 연구」, 『역사민속』 2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5) 『兵學指南演義』 序文.

26) 『武藝諸譜』, 「武藝交戰法」 “夫我國人則喫飯用匙 而中國人則乃以箸 試今中國以匙而我國以箸 則各不無生疎之患 由習與不習故也 匙箸之用尙然 況劍鎗乎 夫弓矢雖爲我國之長技 烏可習其一而廢諸技哉.”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비록 숟가락과 젓가락이 음식을 먹는데 사용하는 도구지만,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 각 나라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에 이를 바꾸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미 조선시대에 무예를 하나의 문화의 일부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무예와 조선의 무예가 다르기에 그것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급하게 차용할 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武藝諸譜』의 여섯 가지 중국무예를 보급할 때에도 전장에서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해 바로 해당 무기를 연마하는 수련법을 택한 것이기에 기본이 되는 권법을 익힐 틈이 없어 무예전수의 이질감이 더욱 커졌던 것이다. 이후 임란이 끝나고 난 후에는 중국의 무예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중국의 권법을 문화적으로 유통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라) 拳法은 용맹을 익히는 무예인데,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이를 배우게 한다면 마을의 아이들이 서로 본받아 연습하여 놀이로 삼을 터이니 뒷날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무예를 익힐 아동을 뽑아서 종전대로 李中軍에게 전습 받게 할 것을 훈련도감에 이르러 하였다. 인하여 『紀效新書』 가운데 곤방과 권법에 관한 두 그림에 표시를 하여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법을 訓練都監에 보이라고 하였다.<sup>27)</sup>

위의 사료를 보면 권법을 勇猛을 익히는 무예로 생각하고, 어른이 된 후에 갑자기 익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익히게 하여 놀이로 정착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훈련도감의 兒童隊의 경우는 비록 軍役을 시작하는 만 15세 나이는 아니었지만, 倭劍이나 馬上才 등 고난이도 무예훈련을

27) 『宣祖實錄』卷124, 宣祖 33年 4月 丁亥條. “且拳法 乃習勇之藝 若使小兒學此 則閭巷兒童 轉相效則 習而爲戲 他日不爲無助 此兩藝 兒童抄出 依前傳習於李中軍事 言于訓練都監 仍以紀効新書中 木棍拳法兩圖 付標而下曰 此法示于訓練都監.”

집중적으로 했던 특수직역이라 보급이 원활했으리라 판단된다.<sup>28)</sup> 군영에서 아동대에게 권법 훈련을 시키면 그들이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권법을 놀이처럼 보급하여 훗날 임란과 같은 전시가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단병집전을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박이나 택견과 같은 민간에서 수련된 무예에 권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권법은 “初學入藝之門”이라고 하여,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무예를 익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습득하여 손과 발 그리고 몸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무예였다.<sup>29)</sup> 권법이 다른 병기술을 익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익혀야 한다는 개념은 조선이 임란 당시 『紀效新書』를 분석하면서 여러 무예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된 것이다.<sup>30)</sup> 이 병서에는 구체적으로 “拳, 棍, 刀, 槍, 耙, 劍, 戟, 弓, 矢, 鉤, 鎌, 挨牌 등의 종류는 권법보다 먼저 시작된 것이 없으니, 몸과 손을 움직임에 있어서는 권법이 무예의 근원이 된다”<sup>31)</sup>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임란 당시에는 우선 전장에서 직접 활용할 창검법을 비롯한 병기술 중심의 군사훈련을 진행했지만, 임란이 마무리 된 후에는 군사무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권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武藝諸譜』 간행 이후 군사무예의 보강차원에서 光海君 2년인 1610년에 『武藝諸譜翻譯續集』이 간행된 것이다. 이 병서에 실린 무예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8) 『宣祖實錄』卷64, 宣祖 28年 6月 壬戌條. ; 이러한 문화적 보급과정에서 민간에서 전승되던 手搏이나 택견에 권법의 흐름이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29) 『武藝圖譜通志』拳法條, “拳法似無預于大戰之技 然活動手足慣勤肢體 爲初學入藝之門”.

30) 권법 이외에도 ‘走力’이라 하여 달리기 훈련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때에는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양 손에 모래 50근을 들고 훈련하기도 하였다. (『文宗實錄』卷3, 文宗 卽位年 8月 戊寅條.)

31) 『紀效新書』手足篇, 拳法解.

〈표 1〉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수록된 武藝와 그 특징

종류	특징	武藝의 특징	비고
拳法		보병들이 무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익히는 무예로 다른 병장기를 익히기 전에 수족을 원활케 사용하기 위해 배우는 것	-
靑龍偃月刀		날 길이 2척, 자루길이 4척의 자루가 긴 칼로 크게 휘둘러 적을 베는 기법이 많은 무예	-
夾刀棍		전장길이 7척의 봉 끝에 5촌길이의 아주 짧은 칼을 달아 주로 적을 때리는 기법이 많은 무예	鈎槍圖 附錄
倭劍		두 사람이 마주서서 외날 칼을 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펼치는 교전형 무예	新書倭劍圖, 日本國圖
* 附		日本考, 倭船, 寇術, 倭刀, 切意, 跋文	*附: 책 후반부의 부록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무예들은 기본적으로 이전 무예서의 속 집형태였기에 주로 일본군의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예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청룡언월도나 협도곤 및 구창 등은 적 기병에게도 활용 가능한 무예였기에 당시 준동하던 女眞을 비롯한 북방세력에 대한 군사적 준비차원에서 함께 이뤄진 것이다.<sup>32)</sup>

이 중 권법은 『紀效新書』에 수록된 날개형태의 무예 자세들을 한꺼번에 수련할 수 있도록 연결 지어 소위 套路 혹은 形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자세를 연결하는 방식은 단순한 자세의 연결이 아니라 각각의 자세의 의미를 살리면서 다음 자세를 위한 안정적인 身法을 가능케 하여 가상의 상대와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모의 전투 연습 및 지구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sup>33)</sup> 이 과정에서 형과 형 사이의 빈 공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선군의 시각으로 재구성해야 했기에 권법의 흐름이 상당부분 조선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武藝諸譜翻譯續集』의 발문을 보면 당시 권법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 “각 기예를 평가 할 때에 근거할만한 譜가 없어 오래 시간이 지나면

32) 최형국, 「17세기 대북방 전쟁과 조선군의 전술 변화-深河戰鬥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33집, 육군군사연구소, 2012, 111-114쪽.

33) 최복규, 「《무예도보통지》 권법에 관한 연구: 《기효신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1, 2002, 36-37쪽.

반드시 그 전할 때에 그 진수를 잃어버릴 것이다.”<sup>34)</sup>라고 하여 무예의 본질인 실전 전투력 강화를 위하여 정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예를 연결된 형태로 수련할 경우 자칫 ‘花法’이라 하여 실전적인 움직임 보다는 화려한 자세의 연결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권법의 실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행한 것이다. 임란 당시 중국의 다양한 병기무예를 조선군에 보급할 때에도 花法과 正法の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 상태였다.<sup>35)</sup>

이러한 권법에 대한 실전적 이해는 임란 이후 조선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된 상황이었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이시백이 아뢰기를, “근래 보니 拳法으로 손과 발을 운용하는 것을 익히고 있는데, 이는 실로 군졸들을 단련시키는 妙法입니다” 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劍을 운용하는 것과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자, 이시백이 아뢰기를, “일찍이 권법을 잘하는 자를 본 적이 있는데, 옆에 있는 壯士가 몽둥이로 치려 했으나 끝내 빈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기술을 칼 같은 무기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권법을 잘한다고 해도 어찌 칼 같은 무기를 당할 수 있겠는가.” 하자, 이시백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李汝松은 맨주먹으로 혼자서 적 수십 명을 대적하여 끝내 격퇴시켰다고 하며, 게다가 군졸들의 기운을 배양하는 데에 있어 참으로 兵家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李牧이 趙나라 장수였을 적에, 군졸들이 ‘돌을 던지며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듣고는 ‘그 기운이 쓸 만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침내 나가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또한 이목이 기운을 배양한 것처럼 한다면, 병사를 잘 양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sup>36)</sup>

34) 『武藝諸譜翻譯續集』跋文, “遼甲辰秋 臣盧稷 方爲提調 以爲各藝比較之際 其無譜可據者 久必傳失其眞已 付前擇譜之手 使之並譜其未譜之技 而適於其時.”

35) 『宣祖實錄』卷90, 宣祖 30年 7月 甲午條, “吳總兵處 其時卽令中軍趙諶 往請教師 則總兵卽發軍中善於武藝者六人 連日來教於都監 其言用槍之法 亦稍與 紀效新書有異 新書則以槍梢軟顛者爲上 而此則以軟顛爲非 大概以爲我國之軍 於諸技 頗已向熟 只是手法 足法 有些少未通處云 新書中 殺手之技 有花法 正法 未知前後唐人所教 孰正孰花耳.”

36) 『承政院日記』103冊 仁祖 26年 10月 13日 甲辰條, “時白曰 近見拳法 習於運用手

위의 사료는 당시 국왕이었던 仁祖와 병조판서 李時白이 나누는 것으로 비록 권법이 무기사용 없이 맨손으로 적과 겨루는 무예이지만, 군졸들의 용맹함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권법은 조선군에 보급되면서 각개의 자세가 아닌 연결된 형의 방식으로 재구성되면서 토착화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간략하게 권법이 수록된 병서편찬의 흐름을 보면, 임란이후 1604년에 『拳譜』라는 이름으로 권법만을 전문적으로 익힐 수 있는 병서가 간행되었고,<sup>37)</sup> 광해군대인 1610년에 『武藝諸譜翻譯續集』을 거쳐, 1759년(英祖 35년)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만들어진 『武藝新譜』에 교전의 방식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1790년(正祖 14년)에 편찬된 『武藝圖譜通志』의 무예24기 중 擊法의 일부로 권법이 재수록되면서 권법은 군사무예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sup>38)</sup> 특히 正祖代 핵심군영으로 부각된 壯勇營의 경우 步軍의 무예시험인 大比較에 조총과 권법을 필수무예로 삼을 정도로 권법은 활발하게 보급되었다.<sup>39)</sup>

### 3. 拳法의 실제와 武藝史의 특성

武藝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맨손이나 창칼과 같은 무기를 활용

足 此實鍊卒之妙法也 上曰 無異於用劍矣 時白曰 曾見善於拳法者 壯士在傍 以杖欲擊 而終不能得其間 手歐足蹄 鋒刃不能敵矣 上曰 雖善於拳法 豈當鋒刃乎 時白曰 不然 李汝松以空拳 獨當數十賊 終能擊走云矣 且養其軍卒之氣 誠爲兵家之切要 李牧之爲趙將 聞軍卒投石 超距曰其氣可用 遂出戰大勝 今亦如李牧之養氣 則可謂善養兵也.”

37) 『宣祖實錄』 卷182, 宣祖 37年 12月 辛酉條.

38) 이러한 조선후기 무예서의 간행 형태 변화는 朴起東, 『朝鮮後期 武藝史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를 참고한다.

39) 『壯勇營大節目』 卷1, 試射 大比較. “一 大比較時規矩 …(中略)… 步軍則鳥銃三放技藝 一次 拳法 一次試取計劃.”

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와 맞서는 기술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무예의 핵심은 창칼과 같은 무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몸통과 사지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에 있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몸통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의 바른 사용법에 대한 身法과 손과 팔을 단련하는 手法, 그리고 발과 다리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腳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0)</sup> 여기에 수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적을 공격하는 주먹질로 발전시킨 것이 拳法이며, 다리의 경우는 足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sup>41)</sup>

이런 이유로 전통시대에도 무예를 수련하는 기본 순서에 대하여 ‘身步手劍’이라는 경구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였다.<sup>42)</sup> 먼저 ‘身’은 자신의 몸과 상대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몸’의 한계가 어느 정도이며, 그 ‘몸’에서 분출시킬 수 있는 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통하여 상대의 ‘몸’을 이해할 기본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sup>43)</sup>

둘째, ‘步’ 즉, 걸음걸이다. 자신의 몸을 이해한 후에는 그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두 다리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걸음은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두 다리의 움직임을 통하여

40) 병서에서 상대를 대적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초과정을 身法, 腰法, 手法, 足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武藝圖譜通志』技藝質疑, “答曰 此技必 身法 腰法 手法 足法.”)

41) 이런 방식으로 무예를 구분하면 크게 맨손무예와 병기무예로 구분되고, 맨손무예는 주요 쓰임에 따라 拳法과 足法으로 구분되고, 상대와의 거리와 제압방식에 따라 타격기와 유술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병기무예 역시 거리에 따라 활이나 초총과 같은 遠射武器와 창검과 같은 近接武器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42) ‘身步手劍’의 구절은 『武藝圖譜通志』 銳刀譜의 腰擊勢에 등장한다. 다음은 요격세의 내용이다. “腰擊勢者即腰擊也 法能橫衝中殺身步手劍疾若迅雷 此一擊者劍中之首擊也 右腳右首斬蛇勢 向前進步逆鱗 看法.”

43) 이러한 군사들의 身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각의 무기에 맞는 選兵法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방패를 사용하는 군사는 일어나고 엎드리는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야 하고, 낭선은 무거워서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을 선발하여야만 하고, 당파는 창을 막고 적을 죽이므로 반드시 용맹과 위엄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다.(『兵學指南演義』 營陣正觀 2卷, 選兵)

몸통이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의 조화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수없이 넘어지는 이유 또한 그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거기에서 핵심은 척추를 바르게 세워 몸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에 있다. 몸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몇 걸음을 걷지 못하고 중심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보법 수련을 통해 이후에는 빠르게 달려도 넘어지지 않는 중심이동법을 익히게 된다.<sup>44)</sup>

셋째, ‘手’는 손과 팔의 사용이다. 상대와 맞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이 손의 활용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로 일정한 거리에 서서 주먹과 주먹을 견주는 것이 공방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상대의 주먹을 방어하기 위하여 팔로 막거나 다른 주먹을 내뺀 동작을 통해 상대와의 호흡을 주고받게 된다. 이후 좀 더 근접거리로 들어서면 손을 이용하여 상대의 팔이나 옷깃을 붙잡아 펼치는 유술기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리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발차기 형태의 足法이나 脚法이 더해지면 맨몸을 이용한 공방의 기법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劍’ 즉, 무기술이 된다. 자기 신체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기라고 하는 연장을 손에 쥐고 공방법을 수련하는 것이다.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신체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상대와 보다 먼 거리에 겨루기 위해서 창이나 봉과 같은 긴무기를 수련하기도 하고 좀 더 짧은 거리에서 승부를 보기 위하여 도검이나 짧은 단도 같은 근접전형 무기를 연마하게 된다. 이러한 무기술의 바탕은 자신의 신체를 바탕으로 하기에 身, 步, 手와 관련법을 차례로 익히지 않을 경우 사용상의 제약이 따른다. 심지어 자신이 휘두른 무기로 자신이 다치는 자해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45)</sup>

44) 전통시대 군사무예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한 步法으로는 進歩, 掣步, 進掣步, 跳步 등 다양한 걸음걸이가 존재한다.

45) 무기의 활용법은 “각 병사들이 휴대하고 있는 器械(兵器)는 동물의 발톱과 이빨,

따라서 권법은 무예를 익히는 기본 순서인 ‘身步手劍’의 근간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권법은 ‘無拳無勇 職爲亂階’라 하여 용기와 군권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활용되었기에 마음을 다스리고 용맹을 키우는 수련으로 인식되었다.<sup>46)</sup> 임란이후 조선 군영에 보급된 권법 역시 군사들의 ‘일반적인 몸’을 ‘무예하는 몸’으로 사고와 육체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한 것이다. 임란이후 최초로 조선에서 정리된 권법은 『武藝諸譜翻譯續集』의 첫 장에 실렸다. 여기에 실려있는 권법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바) 권법을 배우는 자는 身法이 활발하면서도 편해야 하며, 手法은 빠르면서도 날카로우야 하며, 腳法은 가벼우면서도 굳건해야 혹 나아가고 혹 물러남에 모름지기 마땅함을 얻을 것이다.<sup>47)</sup>

위의 사료에 알 수 있듯이, 拳法 수련을 통해 몸의 근간이 되는 身法을 익히고, 手法과 腳法을 안정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병장기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무예로 인지한 것이다.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권법의 연결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 과호세-일조편세-순란주세-현각허이세-축천세-축천세-축천세-지당세-포가세-요단편세-칠성권세-요단편세-축천세-탐마세-정란세-도삼세-중사평세-고사평세-요단편세-탐마세-작지룡세-고사평세-요단편세-하삼세-일삼보세-복호세-복호세-요란주세-요단편세-염주세-요단편세-조양세-

비늘과 깃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자신에게 맞는 병기를 잘 활용하면 적을 제압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적에게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할 정도로 각 군사의 몸에 맞는 병기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兵學指南演義』營陣正毅 2卷, 選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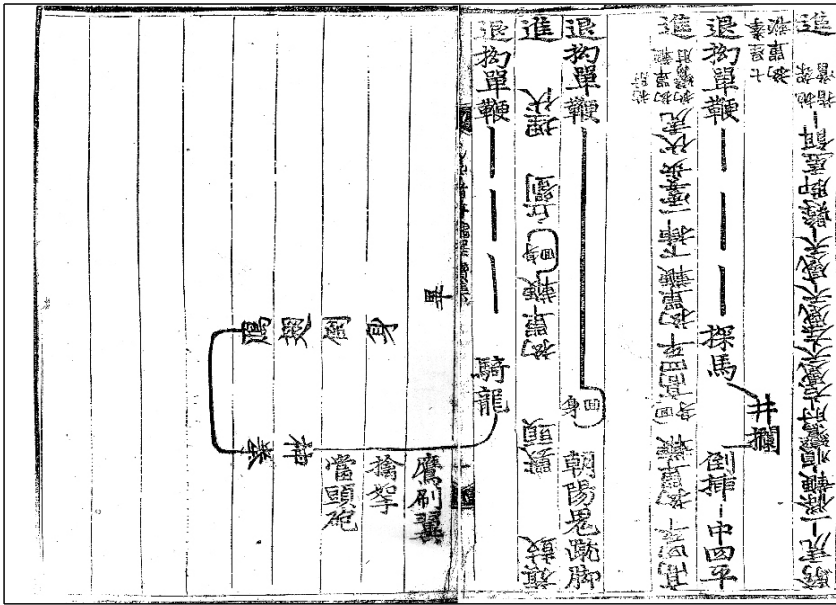
46) 『武藝圖譜通志』拳法, “(案) 詩小雅 無拳無勇職爲亂階 注拳力也.”

47) 『武藝諸譜翻譯續集』拳法, “學拳者 身法要活便 手法要捷利 腳法要堅固 或進或退 要得其宜.”



귀축각세-기고세-수두세-요단편세-구유세-매복세-요단편세-축천세-도  
기룡세-응쇄익세-금나세-당두포세-신권세-안시축신세. 48)

위의 사료에서 보면, 전체 46세의 연결형을 방향전환을 이루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함을 알수 있다. 그런데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자세들은 모두 중국의 병서인 『紀效新書』에서 추출한 것으로 군사 훈련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권법의 연결그림인 拳法總圖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拳法總圖

48) 『武藝諸譜翻譯續集』拳法, “跨虎勢—一條鞭勢—順鸞肘勢—懸脚虛餌勢—蹙天勢—蹙天勢—蹙天勢—指當勢—拋架勢—拗單鞭勢—七星拳勢—拗單鞭勢—蹙天勢—探馬勢—井欄勢—倒插勢—中四平勢—高四平勢—拗單鞭勢—探馬勢—雀地龍勢—高四平勢—拗單鞭勢—拗單鞭勢—下插勢—一插步勢—伏虎勢—伏虎勢—拗鸞肘勢—拗單鞭勢—拈肘勢—拗單鞭勢—朝陽勢—鬼蹴脚勢—旗鼓勢—獸頭勢—拗單鞭勢—丘劉勢—埋伏勢—拗單鞭勢—蹙天勢—倒騎龍勢—鷹刷翼勢—擒拿勢—當頭砲勢—神拳勢—雁翅側身勢.”

권법에 등장하는 여러 자세들은 소위 ‘勢’라고 하여 특정한 손이나 발 혹은 몸이 연속적으로 일으키는 움직임에 말한다. 그래서 병서에서는 ‘勢’에 대하여 “권법에 勢가 있다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이다. 횡, 사, 측, 기, 립, 주, 복 모두 장호가 있어서 가히 지킬 수 있고 가히 공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勢라 한다. 권법에는 정해진 세가 있는데, 실용에는 정해진 세가 없다. 당하여 임기로 그를 활용한다. 변화에는 정해진 세가 없으나 실용에서 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sup>49)</sup>라고 하여 일정한 흐름 혹은 핵심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 가능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설명하고 있다.<sup>50)</sup>

이러한 세의 연결을 통해 보다 실전적인 자세의 활용이 가능하고 권법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할 때 기준을 만들 수 있어서 拳譜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sup>51)</sup>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권법의 언해 첫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 주먹으로 치는 보 : 옷을 벗고 동쪽을 향하여 서서 과호세를 취하고 이어서 일조편세를 취하고 곧 두 손으로 위쪽으로 향하여 세 번 휘저어 그리며 세 걸음 나아가 현각하이세를 취하여 오른발로 축천세를 취하고, 또 왼발로 축천세를 취하고 한 걸음 나아가 또 축천세를 취하고 즉시 왼다리로 물러서서 지당세를 취하고 또 오른다리로 왼쪽을 향하여 가로서서 포가세를 취하고 또 왼쪽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 요단편세를 취하고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를 쳐 칠성권세를 취하라.<sup>52)</sup>

49) 『武藝圖譜通志』 拳法, “(增)拳有勢者所以爲變化也 橫邪側面起立走伏皆有牆戶 可以守可以攻 故謂之勢 拳有定勢 而用無定勢 當其用也 變無定勢 而實不失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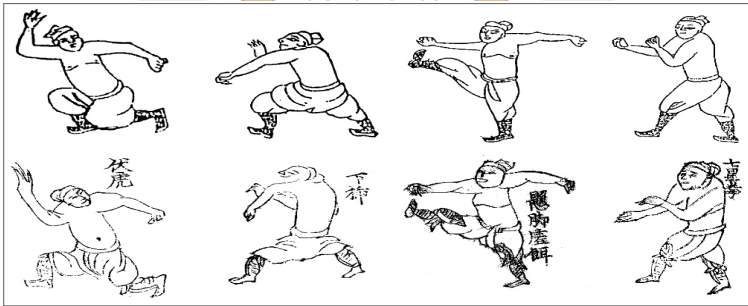
50) 이러한 勢의 의미는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는 움직임의 변화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먹을 한번 치는 것이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일 수도 있으며, 상대의 공격을 주먹지르기를 통해 막을 수도 있다는 움직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무기를 들었을 경우에도 똑같은 勢라 할지라도 상대의 목을 수평으로 공격할 수도 있으며, 자세를 낮춰 허리부분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51) 『武藝諸譜翻譯續集』 跋文.

52) 『武藝諸譜翻譯續集』 拳譜 언해, “주머귀로 티는 보 : 옷 벗고 東으로 向하여 서서 跨虎勢를 하고 인하여 一條鞭勢를 하고 곧 두손으로 버니 우향로 向하여 세

위의 사료는 권법보의 첫 부분인 과호세, 일조편세, 현각허이세, 축천세, 지당세, 포가세, 요단편세, 칠성권세를 연결지어 방향과 횡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세는 『紀效新書』에 등장하는 날개의 세를 토착화시켜서 연결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53)</sup> 예를 들면 권법의 첫 자세인 과호세의 경우 『紀效新書』에서는 “발을 움직여서 넓적다리가 가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왼쪽과 오른쪽 발뒤꿈치가 한꺼번에 끌고 들어가게 해야 하니, 자칫 실수하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武藝諸譜翻譯續集』의 권법보에서는 과호세에 대한 기본 설명 없이 바로 방향과 횡수만을 언급하여 자세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武藝諸譜翻譯續集』에 등장하는 권법보는 『紀效新書』의 날개 세 중 움직임이 편하고 핵심이 된다고 판단한 자세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紀效新書』와 『武藝諸譜翻譯續集』에 등장하는 몇 가지 세의 그림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 『紀效新書』와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拳法 그림 비교

번 휘저어 그리티며 세 거름 나아 顯脚虛餌勢 흔여 올흔발로 ㄸ나 蹙天勢로 하고 또 왼발로 ㄸ나 蹙天勢를 ㅎ고 ㅎ 거름 나아 또 蹙天勢를 ㅎ고 겨레 왼 다리로 ㄸ나 물러서서 指當勢를 ㅎ고 또 올흔 다리로 ㄸ나 왼너크로 向ㅎ야 ㄸ러서서 拋架勢를 ㅎ고 또 외너크로 向ㅎ야 ㅎ 거름 거리 拗單鞭勢를 ㅎ고 인ㅎ야 왼 소노로 올흔풀 궁동이틀 ㄸ 七星拳勢를 ㅎ라.”

53) 이미 각 ‘勢’에 대한 인식은 군사들 사이에서도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 그 세의 연결과정과 방향을 중심으로 연결된 譜를 설명한 것이다.

〈그림 2〉의 윗줄은 『紀效新書』에 실린 권법 그림이며, 아랫줄은 『武藝譜翻譯續集』의 그림이다. 자세는 伏虎勢, 下插勢, 懸脚虛餌勢, 七星拳勢 등을 비교하였는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세의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sup>54)</sup>

이러한 권법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자세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손이나 발 혹은 몸통을 이용해야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거나 상대 신체의 일부를 잡고 꺾는 유술과 같은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몸의 중심을 빠르게 낮췄다가 일어서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발을 들어 올리거나 손을 휘두르는 것처럼 신체의 유연성을 극대화 시키는 자세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법이 군사무예 훈련의 기본 종목이 되었기에 조선후기 대표적인 군영인 訓練都監이나 壯勇營 소속 군사들의 경우 군영 자체에서 평가하는 시험인 中甸이나 大比較에서 拳法을 가장 많이 시험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특히 조선후기 창검군 강화를 위한 殺手들의 시험인 中日에서 권법은 핵심 과목을 지정되어 『續大典』에 실릴 정도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sup>56)</sup>

그러나 이러한 세의 연결은 자칫 단순한 자세의 연결로 흘러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1759년에 편찬된 『武藝新譜』에는 甲과 乙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여 好勝心を 키우도록 모두 38습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sup>57)</sup> 1790년에 편찬된 『武藝圖譜通志』의 권법에도 이러한 세의 연결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몸을 맞대고 수련하는 교전의 방식을 첨가함으로써 권법의 실전성을 확보할 수

54) 중심축을 빠르게 낮췄다가 일어나거나 手法, 腳法の 움직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예를 들었다. 나머지 자세 역시 거의 그림 상으로 일치한다.

55) 정혜은, 「18세기 무예 보급에 대한 새로운 검토」, 『이순신연구논총』 9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7년, 240-244쪽.

56) 『續大典』 兵典, 殺手.

57) 『凌虛關漫稿』 卷7, 藝譜六技演成十八般說, “交戰拳法鞭棍 則各以一夫之鬥力 交鋒相接 明於勢者捷 大抵鞭拳之制 見於毛氏之詩 左氏之史 而皆似無預於大戰之技 如其活動手足 鍊習擊刺 誠有一聲響處 直千金之至妙 戚帥之許以初學入藝之門者 不亦然乎 ... (中略) ... 拳法 甲乙進退 自探馬至拈肘 凡三十八合.”

있었다.<sup>58)</sup>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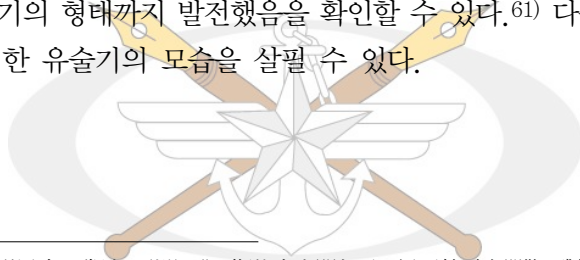
(자) 권법으로써 말한다면 척계광의 보에는 반드시 두 상대가 있다. 두 상대란 갑이 탐마세를 지으면 을은 요단편세를 짓고, 갑이 칠성권세를 지으면 을은 기룡세를 취한다는 것 등과 같이 모두 공수 자연지세이며, 오늘날의 법칙이 처음 모세를 짓고 다시 모세를 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여서 일통을 이룬다. 이미 본의를 잃었다가 또한 향차 갑을이 같이 한 자세를 취하여 마치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라 상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시측신세와 구류세 등 몇 자세에 지나지 않아서 끝나버린다. 두 상대가 메고 새로 치고 변화하여 이로부터 거의 유희처럼 차례로 행해진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구보(『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신보』)가 되었다. 그러나 식자는 당연히 열 가지 자세를 잃어버렸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무예도보통지』)에는 그 비결을 증입한다.<sup>59)</sup>

위의 사료에서 언급하듯이, 『武藝圖譜通志』의 권법 역시 이전에 완성된 舊譜의 내용을 충분히 신는 것과 함께 두 상대가 서로 합을 맞춰

- 58) 『武藝圖譜通志』拳法譜, “兩人各以左右手夾腰雙立 初作探馬勢 右手打開左肩 旋作拗鸞肘勢 左手打開右肩 進前作懸脚虛餌勢 右足蹴右手 左足蹴左手 右足蹴右手 卽作順鸞肘勢 左一廻 左手一打右足 仍作七星拳勢 左右洗作高四平勢 右手左脚前一刺 卽作倒插勢 左右手高舉後顧 回身向後 作一霎步勢 右手夾右腋 仍作拗單鞭勢 跳一步右手打右臀 仍作伏虎勢 進坐右廻起立 又作懸脚虛餌勢 仍作下插勢 左一廻 右手左足一打 卽作當頭砲勢 左手防前 右手遮額 仍作旗鼓勢 左右洗 又作中四平勢 右手左脚後一刺 仍作倒插勢前顧 廻身作倒騎龍勢 左右手開張 作拗單鞭勢進前 仍作埋伏勢一字進坐起立作懸脚虛餌勢 仍作下插勢當頭砲勢 又作旗鼓勢高四平勢倒插勢 卽作一霎步勢拗單鞭勢 卽作五花纏身勢 右手右脚右廻 [兩人對立 作側側身勢跨虎勢 兩手開闔 左右相尋 甲作懸脚虛餌勢 左踢右踢驅遂前進 乙作丘劉勢 左右手遮退 作雁翹側身勢跨虎勢 相廻立 乙卽作懸脚虛餌勢進甲 又作丘劉勢 退兩人卽作雁翹側身勢跨虎勢 相廻立 甲進作伏虎勢 乙作擒拿勢跳越 旋作伏虎勢 甲亦作擒拿勢跳越 兩人卽作拋架勢 左右手打右足背 又作拈肘勢 甲以右手攬乙左肩 乙以右手從甲右腋下 絞過甲項攬甲左肩 各以背後勾左手 甲負乙橫舉倒擲之 乙作紡車旋霎然下地立 乙又負甲如前法畢”
- 59) 『武藝圖譜通志』拳法, (案) “卽以拳法言之威譜必兩 兩相對如甲作探馬 乙作拗單鞭 甲作七星 乙作騎龍之類皆攻守自然之勢 而今法則初作某勢再作某勢 從頭至尾湊成一通 已失本意 又況甲乙同作一勢 如影隨形其相搏也 不過雁翹丘劉數勢而終之兩相攀斃(眷切雙生子)負相撲 而起此殆近戲第其行之既久仍舊譜焉 識者當自知之其十勢逸於今本 故增入並錄其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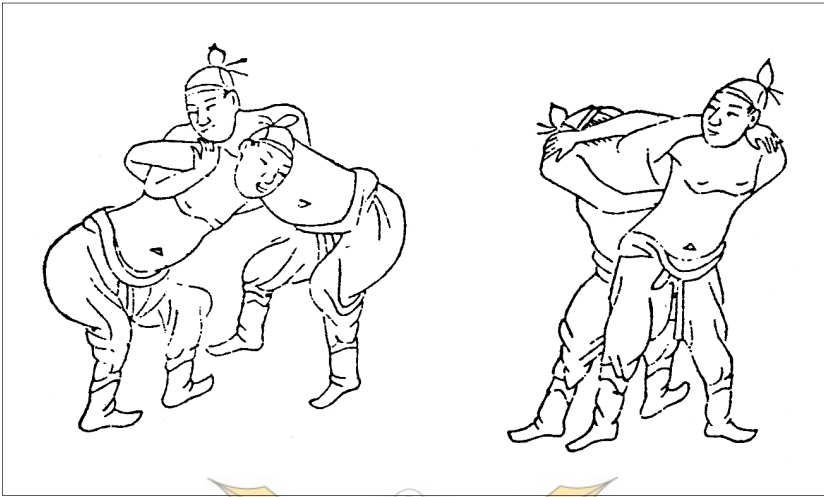
권법을 진행하는 교전의 양식을 더해 실전성을 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상대의 특정 부위를 공격하는 자세들이 추가되었다. 『武藝圖譜通志』에서 새롭게 추가된 자세는 懶扎衣, 金雞獨立, 井欄四平, 鬼蹴脚, 指當勢, 獸頭勢, 神拳, 一條鞭, 雀地龍, 朝陽手 등 모두 10가지 勢로 발로 정강이나 무릎을 공격하거나 팔꿈치로 심장을 타격하는 등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움직임이 더해졌다.<sup>60)</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武藝圖譜通志』의 권법은 좀 더 조선군의 현실에 맞게 토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법의 마지막에는 단순한 타격기를 넘어서 상대와 서로 붙잡고 관절 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유술기의 형태까지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1)</sup> 다음의 <그림 3>은 이러한 유술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60) 『武藝圖譜通志』拳法, (增) “○懶扎衣出門架子 變下勢霎步單鞭 對敵若無膽向先空自眼明手便 ○金雞獨立 顛起裝腿 橫拳相兼 搶背臥牛 雙倒遭著 叫苦連天 ○井欄四平 直進剪膝 踢膝當頭 滾穿劈靠抹一駒 鐵樣將軍也走 ○鬼蹴脚 搶人先著 補前掃轉 上紅拳背 弓頭披揭 起穿心肘 靠妙難傳 ○指當勢是箇丁法 他難進我好向前 踢膝躡滾上面 急回步顛短紅拳 ○獸頭勢如牌挨進 凭快脚 遇我慌忙 低驚高取 他難防接 短披紅衝上 ○神拳當面插下 進步火燄攢心 遇巧就拿就跌 舉手不得留情 ○一條鞭 橫直披砍兩進腿當面傷人 不怕他力粗膽大 我巧好打通神 ○雀地龍下盤腿法 前揭起後進紅拳 他退我雖顛補衝來 但當休延 ○朝陽手偏身防腿 無縫鎖逼退豪英 倒陳勢彈他一脚 好教師也喪聲名.”

61) 이러한 유술기의 모습은 『武藝圖譜通志』의 마지막 교전 부분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씨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은 角觚나 角力이라 불리는 전통 몸문화의 일부분으로 살바의 위치에 따라 왼씨름과 오른씨름으로 구분되고, 살바대신 허리띠를 붙잡고 하는 띠씨름 혹은 통씨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씨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한다. 김선풍, 「韓國 씨름의 歷史와 祭儀」, 『중앙민속학 5』,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993; 김종교, 『한국 씨름의 체육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민상근, 『씨름의 원류와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그림 3〉 『武藝圖譜通志』에 실린 拳法 중 유술기 관련 자세

그러나 『武藝圖譜通志』에서도 여전히 그 핵심 기법은 강력한 타격력을 얻는 것보다는 수족을 원활케 하기 위한 일종의 도수체조의 성격이 주를 이뤘으리라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양손으로 무기를 활용할 때 바탕이 되는 손과 공격의 방향을 정해주는 손의 위치와 형태를 소위 ‘陰陽手’라 부르는데, 이것은 무기술을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 해당한다.<sup>62)</sup> 권법은 음양수의 기본을 익히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 법이기도 했다.

또한 권법이라는 원래의 의미에서처럼 발기술보다는 손기술 중심의 동작이 주로 많았으며, 이는 창이나 도검등과 같은 무기술 연마시 권법의 자세를 그대로 활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권법의 자세 중 高四平勢이나 中四平勢의 경우는 주먹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찌르듯이 활용하는 자세를 말하는데,<sup>63)</sup> 이러한 움직임이 長槍의 찌르기

62) 『武藝圖譜通志』 技藝質疑, “又問所謂陰陽手何謂也 答曰凡器械以手向下執者 謂之陰向上執者 謂之陽陽以提起陰以打去殺去 皆自然如此.”

63) 『武藝圖譜通志』에서 권법의 고사평의 경우는 “右手左脚 前一刺”라고 하여 오른손과 왼다리로 앞을 한 번 찌른다고 하였다. 중사평의 경우도 역시 “右手左脚

위치 중 上平, 中平, 下平 등으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장창의 指南針勢의 경우는 上平으로 볼 수 있으며, 十面埋伏勢의 경우는 下平 鎗法 수련과 연관지어 훈련할 수 있다.<sup>64)</sup> 또한 권법에서 자세를 앉듯이 완전히 낮춰 손이나 발로 적을 공격하는 형태인 埋伏勢나 伏虎勢의 경우는 籐牌의 埋伏勢나 低平勢의 신체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sup>65)</sup> 이러한 권법을 통한 무기활용 능력 강화는 관무재에서도 拳法手라는 殺手시험 과목에 권법뿐만 아니라 鞭棍·挾刀·棍棒·竹長槍 등을 함께 시험을 본 배경이기도 했다.<sup>66)</sup> 따라서 조선후기 권법의 보급은 명나라에서 보급된 다양한 단병접전용 무기술의 활용범위를 보다 넓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리의 경우는 足法이라 하여 상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步法の 형태를 수련하기 위해 빠른 중심이동이나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수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懸脚虛餌勢를 비롯한 발기술을 핵심적으로 사용한 ‘勢’에서도 허리 이상 발을 들지 않거나 직접적인 타격을 주된 목표로 삼지 않은 것이다.<sup>67)</sup>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권법 정착 과정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새로운

後一刺”라고 하여 한번 찌르듯이 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4) 『紀效新書』長槍, “指南針勢 乃上平鎗法 其類用近手中平 而着數不離六合之變 有心演悟 二十四勢之中 可破其半.”; “十面埋伏勢 乃下平鎗法 門戶緊於上平 機巧不亞中式 精於此者 諸勢可降.”

65) 『紀效新書』拳法, “埋伏勢 窩弓大虎 犯圈套寸步難移 就機連發幾腿 他受打必定昏危.”; “伏虎勢 側身弄腿 但來湊我前撐 着他立站不穩 後掃一跌分明.”

66) 『萬機要覽』軍政篇2, 附 龍虎營 試藝 觀武才.

67) 실제 전투에 활용한 발차기의 경우는 그 높이가 허리 이상 올라가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만드는 일이다. 허리 이상 발이 올라갈 경우 상대에게 발을 붙잡힐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발을 잡혔을 경우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투에서 활용하는 발차기는 허리 이하의 하단에 집중되어 있고, 주먹을 사용하는 손기술은 상단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보급된 拳法の 경우는 주로 무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손기술을 중심으로 자리잡혀 있으며, 발과 다리의 경우는 보법과 신체균형을 맞추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무예에 대한 정착과 변화를 국가라는 공적체제를 통하여 수용하고 보급시켰다는 것이다.<sup>68)</sup> 특히 민간이나 私兵들이 아닌 公兵의 개념인 군영 소속의 군사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하여 훈련도감을 비롯한 핵심 군영에서 권법 관련 병서를 인쇄 및 보급했다는 것은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정착 방식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상당부분 무예와 관련한 책의 편찬이나 수련전승 방식의 경우 지극히 사적인 방식으로 가문이나 문중 혹은 개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권법과 관련한 중국의 병서인 『紀效新書』, 『武備志』의 경우도 국가가 주도했다기 보다는 개인이 주관한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핵심적인 창검술 등이 여러 무예 문파를 통해 사적인 전승이 이뤄졌다. 반면 조선은 외래 무예의 공식적인 보급을 위해 국가의 군사조직이라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적 확산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었으며, 보다 실용적이며 전투적인 움직임으로 권법이 보급 및 정착될 수 있었다.

#### 4. 맺음말

조선후기 군영에 보급된 권법은 민간에서 수련되었던 수박이나 택견과는 다른 형태로 중국의 맨손무예가 보급되었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명의 남병이 사용했던 당파나 낭선 등과 같은 독특한 무기들을 활용하면서 보다 기초적인 신체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예 역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조선군에

68) 심승구, 「韓國 武藝의 歷史와 特性 : 徒手武藝를 中心으로」, 『군사』 4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293-295쪽.

쉽게 전파하기 어려웠다. 이를 위하여 임란 중 새롭게 편성한 훈련도감의 아동대를 비롯한 특수 직역에 권법을 실험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놀이문화의 일환으로 권법이 전파되는 방식도 함께 고려되었다.

임란 이후에는 『武藝諸譜翻譯續集』이나 『拳譜』 등 병서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려 하였다. 당시에 무예에 대한 인식은 음식 문화 중 중국의 젓가락 문화나 조선의 숟가락 문화와 같이 생활양식의 일부로 받아드려졌으며, 문화적으로 권법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전해진 권법의 형태가 우리의 전통적인 몸짓과는 다른 형태였기에 문화적 거부감이 생길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권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명군의 무기술을 익혀야 하는 상황에서 권법의 문화적 보급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무예를 실기적 기술체계나 군사 전술사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무예의 본질과 전파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는 조선군에 권법이 정착되는 과정 중 그 독특한 특성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군영에 보급된 권법은 중국의 맨손무예인 권법을 그대로 연결지어 만들어낸 譜의 형태로 보급되었다. 이는 기효신서를 비롯한 당대 권법 수련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조선군의 권법 시험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착화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 조선군이 권법을 군사들에게 익히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병기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고 보편적인 신체훈련 방법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있었다. 예를 들면 권법에서 주먹을 지르는 동작을 높이에 따라 上平, 中平, 下平 등으로 나눌 때 이것이 槍法에서 동일하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권법에서 자세를 앉듯이 완전히 낮춰 손이나 발로 적을 공격하는 형태인 埋伏勢나 伏虎勢의

경우는 籐牌의 埋伏勢나 低平勢의 신체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狼筈이나 鎗鉞와 같은 특수 무기의 경우는 그 무게와 길이로 인해 기본적인 체력 훈련 및 유연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권법은 군사들의 일반적인 ‘몸’을 무예하는 ‘몸’으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련방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권법은 무기의 활용을 원활케 하기 위해 손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발과 다리의 경우는 보법의 활용이나 신체의 중심을 잡기 위한 특성을 보인다.

셋째, 투로형태에서 두 사람이 서로 몸과 몸을 맞대고 합을 맞춰 연습하는 교전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보다 실전적인 움직임으로 변화해 갔다. 특히 단순한 타격기뿐만 아니라 근접거리에서 상대의 관절을 꺾거나 제압하는 유술기의 형태까지 추가되면서 권법의 활용성은 보다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씨름이나 角力을 비롯한 전통적인 유술형 무예가 권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교전 능력의 강화를 통해 군사들의 호승심을 키우는 사기진작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권법 정착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권법을 군사들을 중심으로 보급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특한 무예전파 방식이자 정착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의 권법은 보다 빠르게 군사들을 통해 안착할 수 있었으며, 觀武才나 試取 등 각종 군사시험의 과목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으로 수련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정착된 권법은 군영을 중심으로 수련되었지만, 이후 수박이나 택견과 같은 민간에서 수련되었던 맨손무예와 다양한 문화적 접합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오늘날 태권도와와의 관계이다. 현재 태권도에 대한 대부분의 관점은 전통무예라는 입장 하에 지나치게 국수적으로 과거의 몸문화 흐름과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이 다분하다.

그러나 본 글에서도 밝혔듯이 조선후기 정착된 권법의 경우는 비록 토착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초기에는 중국의 맨손무예 형태가 그대로 전이된 형태였다. 또한 초기 태권도의 형성과정 중 가라테의 기술을 차용한 것을 역지로 왜곡하거나 등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에 가치판단을 내리고 무조건 전통적인 것만 의미가 있다는 전통중심주의적 발상이 태권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중국의 권법과 일본의 가라테가 태권도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화의 속성이고 발전과정 이기에 전통성 논쟁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우리의 전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식민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한 콤플렉스와 같은 형태로 자리잡혀 있다. 우리의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 역시 이러한 한계 속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근대가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적 한계 속에서 무예 문화 역시 일제라는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왜곡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가 학교라는 근대적 교육기관을 통해 예비 전력으로서 개인의 몸에 대해 집중관리를 진행했던 핵심에는 무예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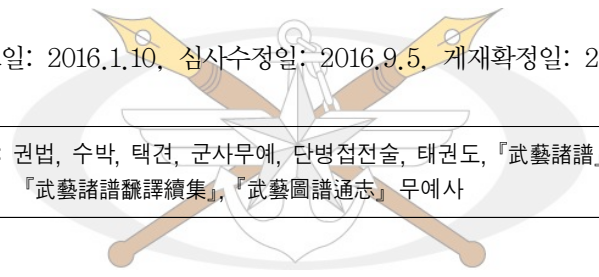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일제는 ‘五武道’라 하여 전투에 실제로 활용가능 한 무예인 柔道, 劍道, 弓道, 銃劍術(銃劍道), 射擊(射擊道) 등 다섯가지 무예를 학교를 통해 강제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조선인의 몸을 강제로 군사화시켰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무예 훈련에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에 대한 정신적인 훈육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일제의 ‘군국주의적 武道정신’을 조선인의 몸에 강제적으로 주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점시기 근대에 탄생한 무예훈련은 일본식 ‘武士道’ 정신을 익혀 심신을 단련하고 국가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주입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근대 스포츠의 형태로 무예수련의 의미를 심신수양이나 자기완성이라는 철학적 가치가 더해지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의 몸에 대한 규격화를 위해 지속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체력측정을 통하여 예비군사 자원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무예 문화의 왜곡현상을 낳게 되었다. 각각의 개인의 몸에 신장과 몸무게를 중심으로 등급을 나누고 체력에 따라 우열을 가리는 지극히 자본주의적 몸 인식으로의 전환은 해방 이후에도 왜곡된 무예 문화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예에 대한 인식도 ‘주체적 수용’인지 ‘강제적 수용’인지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련생들에게 본질에 대한 고민을 던지며 수련을 지도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무예 문화가 성장 가능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6.1.10, 심사수정일: 2016.9.5, 게재확정일: 2016.9.10.]

주제어 : 권법, 수박, 택견, 군사무예, 단병접전술, 태권도, 『武藝諸譜』, 『武藝諸譜翻譯續集』, 『武藝圖譜通志』 무예사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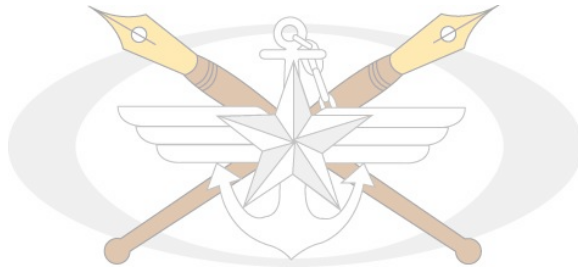
The Study o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unarmed fighting skill(拳法) from the cultural aspects as military martial art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Choi, Hyeong-Guk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unarmed fighting skill(拳法) and its change of training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with cultural and historical point of view.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diffused unarmed fighting skill to military camp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was come into widely use as 'Bo(譜)' format which was made by connecting Chinese unarmed fighting skill. This format had become a background unlike unarmed fighting skills' training method of the time and used for unarmed fighting skill test and evaluation for Joseon's soldiers. Secondly,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Joseon soldiers learnt unarmed fighting skill was to use other weapons smoothly and set the common standard for body training. For instance, the height of punch from unarmed fighting skill was divided into 3 levels (上平, 中平, 下平) and the fact was confirmed that this method was used for spear fighting skill as well. Especially, weapons such as 'Nang-sun(狼筈)' or 'Dang-pa(鎗鉞)' were required with basic strength and flexibility of physical body because of its length and weight and unarmed fighting skill was most effective way to train soldiers for making fitted body to do martial art. Thirdly, It had improved from the form of 'Bo(譜)' to face to face battle form and body movements also became realistic. The usage of unarmed fighting skill had enlarged with not only simple blow skill but also newly added 'Jujitsu' skill to attack enemy in close distance. Last, the most distinctive point for settlement process of unarmed fighting skill in late Joseon dynasty was that this skill was spread focusing on soldiers. It was Joseon's typical

process unlike China or Japan to settle and spread martial art skill, Joseon's unarmed fighting skill had settled through this way and stably trained as a subject for national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Key words : Unarmed fighting skill(拳法), Subak(手搏), Taekkyeon(택견), Military martial art, Taekwondo(跆拳道), 『Muyejaebo(武藝諸譜)』, 『Muyejaebobunyuksokjib(武藝諸譜翻譯續集)』, 『Muyedobotongji(武藝圖譜通志)』, History of Martial art



# 壬辰倭亂 직후 軍需物資 확보와 軍需交易의 영향

윤여석\*

1. 머리말
2. 壬辰倭亂期 軍需物資의 확보
3. 임진왜란 직후 軍需市場의 발전
4. 軍需交易의 영향
5. 맺음말

## 1. 머리말

궁각(弓角)· 조총(鳥銃)· 화약(火藥)· 연환(鉛丸) 등의 군기(軍器)와 쌀· 보리· 콩 등의 군량(軍糧)을 비롯한 군수물자(軍需物資)의 확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였다. 조선은 임진왜란기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편으로 부족한 군수물자는 명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명의 군수물자 지원은 크게 현물지원과 은(銀)을 지원하는

---

\*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명 간 금지되어 있던 군기와 은의 교역이 공인되면서 조선은 자국 은과 명은(明銀)을 이용한 군수교역이 가능해졌다. 전쟁 이후에도 군수물자의 국내생산 확대와 포상정책, 군수교역이 지속되면서 군수시장이 형성되었고, 대일교역이 재개되면서 시장은 확대되었다. 또한 군수물자의 확보와 군수교역은 조선 후기 경강(京江)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선(私船)의 활동, 중개무역의 매개체가 될 수 있었던 은 유통 및 사무역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군수교역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17세기 전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리며 조선의 상업사적인 측면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수교역에 관한 연구는 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화기·화약의 발전상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17세기 조명·조청·조일 간 군기교역의 주체나 전개과정 등이 검토되었으며,<sup>1)</sup> 17세기 전후 대중국 교역정책 속에서도 일부 다루어졌다.<sup>2)</sup> 군량은 조선과 일본의 군량 확보 및 조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sup>3)</sup> 이외에 군량

1) 유승주, 「17世紀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 『弘大論叢』 10, 홍익대학교, 1979; 吉岡新一,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火器についての研究」, 『朝鮮學報』 108, 朝鮮學會, 1983; 김동철, 「17세기 日本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米谷均, 「十七世紀前期日朝關係における武器輸出」, 『十七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 山川出版, 2000; 김양수, 「朝鮮後期 譯官들의 軍備講究」, 『실학사상연구』 19-20, 모약실학회, 2001; 허태구, 「17세기 朝鮮의 焰硝貿易과 火藥製造法 발달」, 『韓國史論』 47, 서울대학교, 2002; 양홍숙, 「17世紀 前半 回答兼刷選使의 派遣과 經濟的 意味」, 『항도부산』 21, 부산광역시, 2005; 윤유숙, 「17世紀 朝日間 日本製 武器類의 交易과 密買」, 『史叢』 67, 고려대학교역사연구소, 2008.

2) 이현숙, 「16-17世紀 朝鮮의 對中國 輸出政策에 관한 연구」, 『弘益史學』 6, 홍익대학교사학회, 1996; 『十七世紀初葉の中韓貿易』, 중국문화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7; 『왜란·호란 시기 조선의 對中國 輸入政策에 대한 연구』, 『白山學報』 68, 백산학회, 2004.

3) 조선의 군량 확보 및 조달은 이장희, 「壬亂中糧餉考」, 『史叢』 15-16, 고려대학교역사연구소, 1971; 김용근,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 『史學研究』 32, 한국사학회, 1981; 장학근, 「壬亂初期 明軍 來援과 軍糧論義」,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해군군사연구소, 1993; 김강식, 「任辰倭亂中の 軍糧 調達策과 影響」, 『文化傳統論集』 4, 경성대학교부설한국학연구소, 1996; 六反田豊,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開戰初期에 있어서의 朝鮮側の 軍糧調達과 그 輸送」,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확보의 어려움과 조명 간 곡식의 유통을 당시 기근현상에서 살펴거나<sup>4)</sup> 전쟁 이후 군량의 확보와 명군의 주둔 문제를 다룬 연구도 있다.<sup>5)</sup> 하지만 군기의 교역은 주로 17세기 중반 이후를 다루고 있으며, 군량의 경우 교역을 통한 군량확보 과정이나 사선의 활용에 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연구는 당시 군수물자의 확보와 군수교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전쟁 직후 군수시장의 형성과 확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못했다.

조선후기 월과총약환계(月課銃藥丸契)의 성장이나 궁각계공인(弓角契貢人)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sup>6)</sup> 전쟁이후에도 군수시장이 지속되는 모습과 군기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활동을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 국내 군수공업의 발달이나 공인들의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군수물자 확보와 교역의 영향선상에서는 고찰이 부족하다. 임진왜란 때 유입된 은이 조선후기 은 유통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연구는<sup>7)</sup> 군수교역의 영향으로써 주목되나 주로 국제적인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3, 일본의 군량 확보 및 조달은 三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兵糧米調達について」, 『名古屋大學 文學部 三十週年記念論集』, 名古屋大學文學部, 1978; 櫻井克己, 「豊臣政權の朝鮮出兵における兵糧米調達政策とその實態」, 『一橋研究』, 一橋大學大学院學生會, 1984; 中野等, 「朝鮮侵略戰爭における豊臣政權の兵糧補給について」, 『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35, 九州大學文學部附屬九州文化史研究施設, 1990; 中條健太, 「秀吉の朝鮮侵略における兵糧米調達について」, 『ヒストリア』 165, 大阪歴史學會, 1999.

- 4)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경남사학회, 2012.
- 5) 유승주, 「壬亂後 明軍의 留兵論과 撤兵論」,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史, 1985; 김경태, 「임진왜란 후 明 주둔군 문제와 조선의 대응」, 『동방학지』 147,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2009.
- 6) 유승주, 「朝鮮後期の 月課銃藥丸契 研究」, 『韓國史論』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김동철, 「朝鮮後期 水牛角貿易과 弓角契貢人」, 『韓國文化研究』 4, 부산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91; 『朝鮮後期 貢人研究』, 韓國研究院, 1993.
- 7) 한명기, 「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 15,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2;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조선의 은 유통」, 『역사학보』 221, 역사학회, 2003; 박소은, 「17·18세기 호조의 銀 수세 정책」, 『한국사연구』 121, 한국사연구회, 2003.

관계 속에서의 은 유통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유통이 억제되었던 은이 군수물자의 확보 및 교역과정에서 활용되는 모습이나 임진왜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 등을 정치하게 다루지는 못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임진왜란을 상업 발달의 계기로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토지 감소와 인구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 17세기 중반 이후의 증개무역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조선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군수교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확대되면서 조선후기 상업 발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했다.

본 논문은 먼저 조선의 군수물자 확보와 명의 지원과정에서 은(銀)의 지원을 통한 조명 간의 군수교역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전쟁 직후 명과 이루어진 군기의 교역은 염초와 화약의 확보 및 군수시장의 형성에, 일본과의 교역 재개는 조총과 재원의 확보 및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임진왜란을 정치적·군사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던 것에서 나아가 임진왜란 직후 군수물자 확보와 군수교역이 조선후기 상업발달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壬辰倭亂期 軍需物資의 확보

### 가. 조선의 군수물자 확보 노력

조선은 지방의 병영·수영 등에서 군기를 제조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군기시(軍器寺)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서 생산하였다.<sup>8)</sup> 예를

8) 허선도, 『韓國火器發達史』上, 군사박물관, 1969 참조.

들어 화약은<sup>9)</sup> 제조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 원료의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생산할 수 있었던 유탄(柳炭)을 제외하면 염초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자급자족의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sup>10)</sup> 유황은 주로 일본에서 조달하였으므로 기술과 재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했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이 군기의 생산·유통을 통제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타네가시마 토키타카[種子島時堯]가 포르투갈 상인에게서 조총을 구입하여 제조기술을 익힌 것을 시작으로 각 다이묘들도 조총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sup>11)</sup> 일본의 무기 제조업자는 자유업 형태로 기술이 우수하면 중용되었으며,<sup>12)</sup> 사카이[堺]·쿠니토모[國友] 등 킨키[近畿] 지역에서는 조총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sup>13)</sup>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무기체계는 조총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조선도 조총의 필요성을 느끼고<sup>14)</sup> 전술체계와 군사제도의 변화를 감수하면서 포수

9) 조선전기에는 화약을 염초 75%·유황 15%·유탄 10%의 비율로 조합해서 만들었다 (육군본부, 『韓國古代武器體系』, 군사연구실, 1979, 60~61쪽). 1698년 역관 김지남(金指南)이 지은 『新傳煮硝方』에는 염초 16냥·유황 1냥 4전·유탄 3전의 비율로 배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10) 허태구, 앞의 논문, 2002, 212~213쪽.

11) 노성환, 「조총을 통해서 본 한일관계」, 『동북아문화연구』 2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494~497쪽.

12) 吉岡新一, 앞의 논문, 1983, 108쪽.

13) 宇田川武久 編, 『鐵砲傳來の日本史』, 吉川弘文館, 2007, 55~118쪽 참조.

14) 『宣祖實錄』 권45 宣祖 26년 윤11월 戊申. 류성룡(柳成龍)은 일본이 승리하는 이유를 조총 때문이라고 하였으며(류성룡, 『西厓先生文集』 권6 「書狀」 乞抄擇精兵以爲後圖狀), 이순신(李舜臣) 역시 조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이순신, 『亂中日記』, 癸巳 9월 15일). 한효순(韓孝純)은 병서 『神器秘訣』에서 조총의 우수성을 치사율과 명중률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궁시보다 적은 훈련으로 조작법을 익힐 수 있어 단기간 내 많은 포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노영구, 「16~7세기 鳥銃의 도입과 조선의 軍事的 변화」,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121쪽). 그러나 조총은 기병의 공격에 취약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연사의 어려움과 화약 보급문제 등의 단점들도 있었다(장정수, 「17세기 전반 朝鮮의 砲手 養成과 運用」,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18~20쪽).

(砲手)와 살수(殺手) 주력의 훈련도감을 설치하였으며<sup>15)</sup> 군기와 제조 원료의 확보 및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은 부족한 군기의 제조기술을 항왜(降倭)나 명인(明人)에게서 배우고 국내 기술자에게 전습시켜 생산의 증가에 힘을 쏟았다.<sup>16)</sup> 주목되는 점은 60근 이상의 염초를 바친 사람은 면역시켜주고<sup>17)</sup> 화약도 개인이 만들어서 관에 납부하거나 전매(轉賣)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이다.<sup>18)</sup> 비록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통제되었던 군기의 사적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궁각의 주요 재료인 흑각은 조선전기에는 명과 공식적으로 매년 200부(副)를 교역하였는데,<sup>19)</sup>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일본과 교역량이 증가하던 상황이었으므로<sup>20)</sup> 전쟁의 발발로 주요 수입처가 사라지게 되었다. 즉, 조선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했던 연환(鉛丸)을 제외한<sup>21)</sup> 궁각·조총·화약 및 염초 등 전쟁 수행을 위한 주요 군기들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선은 자국 군사뿐만 아니라 명군이 소비하는 군량까지 확보해야 했다.<sup>22)</sup> 조선군은 약 168,400명이었으며<sup>23)</sup> 군량은 1만 명이 1년에

15) 노영구, 앞의 논문, 2012, 117~122 참조.

16) 조총의 제조기술 습득은 박철환, 「壬辰倭亂期 朝鮮軍의 火藥兵器에 대한 一考察」, 『軍史』 3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95, 385~389쪽, 염초 제조기술 습득은 유승주, 앞의 논문, 1979, 113~114쪽 참조.

17) 『宣祖實錄』 권43 宣祖 26년 10월 壬寅; 권134 宣祖 34년 2월 丁丑

18)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丁亥

19) 『成宗實錄』 권130 成宗 12년 6월 壬子. 대명관계에 따라 교역량은 일정치 않았으며, 조선이 사무역으로 궁각을 확보하여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20) 김병하, 『李朝前期 對日貿易 研究』, 한국연구원, 1969, 155쪽.

21) 연환의 재료인 연철(鉛鐵)은 함흥(咸興)·안변(安邊)·단천(端川)·충주(忠州) 등지에서 채취되었다(『宣祖實錄』 권71 宣祖 29년 1월 乙未). 단천은 은을 비롯한 연환의 주요 생산지였다. 1594년 단천의 채은관(採銀官) 김계선(金繼先)은 연환 20,100개를 켜며(『宣祖實錄』 권56 宣祖 27년 10월 甲寅), 1596년에는 병조에서 사들인 연환이 10만개에 이르렀다(『宣祖實錄』 권83 宣祖 29년 12월 庚午).

22) 『宣祖實錄』 권34 宣祖 26년 1월 丁卯

23) 군사와 말의 합은 172,40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육군은 약 115,200명,

약 44,000석을 소비하였다.<sup>24)</sup> 임진왜란 초기 명군 48,585명에게는 1명 당 쌀 1되 5홉을, 26,700필의 말에게는 콩 3되를 보급하여 하루에 쌀은 약 720석, 콩은 약 801석을 소비하였다.<sup>25)</sup> 정유재란 때에는 142,700명이 파견되었는데<sup>26)</sup> 군량의 지급 기준이 앞의 조건과 같다면, 쌀은 하루에 약 2,115석, 콩은 약 2,353석이 소비되는 것이다. 실제 조선정부는 2만 명의 명군이 1년간 소비하는 군량은 12~20만석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였다.<sup>27)</sup>

조선은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세(收稅)·작미(作米)·둔전(屯田)·모곡(募穀)·무곡(買穀)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세는 인구와 전결의 감소 등으로 전쟁 발발 이듬해인 1593년에는 서울로 운반된 전세가 25,000여석에 불과할 정도로<sup>28)</sup> 급격히 감소하였다. 작미는 노비의 신공이나 정부에서 수취 할 공물 등을 쌀로 거두는 것인데, 소강상태인 1595년에도 원수(元數) 약 5만여석의 확보도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했다.<sup>29)</sup> 둔전은 부족한 군량 충당과 백성의 구제, 훈련도감군(訓練都監軍)의 군량미 조달을 위해 실행되었다.<sup>30)</sup> 일정부분의 성과는 있었으나 수확량이 종자만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sup>31)</sup> 모곡의

---

수군 약 15,300명, 의병 약 27,900명, 조비군(措備軍) 10,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宣祖實錄』 권34 宣祖 26년 1월 丙寅; 서태원, 「壬辰倭亂에서의 地方軍 指揮體系」, 『역사와 실학』 19·20, 역사실학회, 2001, 319쪽).

24) 『宣祖修正實錄』 권28 宣祖 27년 4월 己酉

25) 말 26,700필은 장령의 말이 제외된 것이고, 장령을 제외한 군사 수는 48,005명이다. 중국의 쌀 1되 5홉은 조선의 2되 7홉에 준하고 콩 3되 는 대략 5되 4홉에 이른다(『宣祖實錄』 권31 宣祖 25년 10월 壬子). 이후 다른 기사에는 명군 1명이 4되를 소요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宣祖實錄』 권46 宣祖 26년 12월 戊辰)

26) 최두환,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경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289쪽.

27) 전성기 조선의 수세량도 양계(兩界)를 제외하면 쌀과 콩·조는 23~24만석이었는데 쌀은 14만석에도 이르지 못했다(『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辛卯).

28) 『宣祖實錄』 권40 宣祖 26년 7월 辛酉

29) 『宣祖實錄』 권67 宣祖 28년 9월 癸巳

30) 이장희, 「壬辰倭亂中 屯田經營에 대하여」, 『東洋學』 26,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1996, 160~165쪽.

31) 『宣祖實錄』 권65 宣祖 28년 7월 癸酉

경우 납곡자가 일정한 군량을 납부하면 면천·면역이 가능하도록 공명첩(空名帖)을 주어 독려하였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혜택을 개선하였음에도 어려워졌다.<sup>32)</sup> 마지막으로 매매로 군량을 확보하는 무곡이 있었다. 조선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군량을 매매하여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이 부족하고 곡물의 생산량도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양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처럼 조선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재정·기술·재원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명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군수물자를 확보하였다.

#### 나. 명의 지원과 군수교역

명의 군수물자 지원은 크게 현물을 지원하거나 결제대금인 은을 지원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원된 은은 조선이 보유한 은과 함께 군수물자를 교역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명의 군수물자 지원은 단순한 현물 지원이 아니라 교역을 동반하였으며, 조선은 교역의 주체로서 참여하였기에 조명 양국의 교역이라는 관점에서 군수물자의 지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초기 군수교역은 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592년 명군의 파병을 사은(謝恩)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신점(申點) 일행은 면연은(免宴銀) 45냥 및 여비와 잡물로 궁각 1천 3백 8편(片)과 염초 2백 근을 구입하였다.<sup>33)</sup> 명은 타국과 군기를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sup>34)</sup> 조선은 따로 군기교역을 요청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보아 사무역으로 여겨지며 교역량도 많지 않았다.

32) 이장희, 앞의 논문, 1971, 364~365쪽. 혜택의 변화는 『宣祖實錄』 권33 宣祖 25년 12월 乙卯; 권35 宣祖 26년 2월 辛丑 事目 참조.

33) 『宣祖實錄』 권28 宣祖 25년 7월 辛巳

34) 『大明律集解附例』 권55 「兵律」, 私出外境及遠禁下海. 임진왜란 직전인 1589년에도 명은 조선의 화약 구매(收買) 요청을 거절하였다(한치윤, 『海東繹史』 권23 「兵志」 兵器).

이와 함께 공식적인 군기의 교역도 이루어졌다. 1592년 명은 마가은(馬價銀) 3,000냥을 조선에 지급하여 궁각과 화약을 교역하도록 하였다.<sup>35)</sup> 마가은은 말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명의 서북지역에서는 차마무역(茶馬貿易)을 통해 말을 마련하였지만 북방과 요동(遼東)은 병부와 태복시(太僕寺)에서 지급한 마가은으로 말을 구입하였다. 또한 마가은은 변방 오랑캐의 방어를 위해 상공(賞功)·양향(糧餉)·수변(修邊) 등에도 사용하였으며 지급되는 수량이 고정되어있지는 않았다.<sup>36)</sup> 요동과 인접해 있는 조선은 마가은을 지원받았으며 전쟁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일에 사용하였다. 고급사(告急使) 권협(權愜)이 일본의 재침을 알리러 명에 간 사례는 마가은을 이용한 군기교역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어 주목된다.

가-1) 신이 또 표헌(表憲)을 시켜 궁각·초황을 사줄 것을 고하니, 낭중이 '내가 마땅히 제청하여 군문에 축적된 것을 급여하겠으니, 그대들은 그곳에 가서 받아가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sup>37)</sup>

가-2) 조선에서 요청한 초황과 궁각은 원래 군중의 화약 제조와 활 제작에 쓰이는 것이므로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태복시에 공문을 보내어 마가은 2천 냥을 변통해서 예부에 보내어 차출되어 온 배신(陪臣)에게 부쳐 보낼 것이니, 해관(該館)에서 시장을 여는 날 스스로 교역하게 하라. 따라서 해관의 관부(館夫) 및 포상(舖商)들을 엄히 통제하여 공평한 값으로 교역하게 할 것이요 (중략) 화약과 병기는 더러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일일이 다 조정에 아될 필요는 없다.<sup>38)</sup>

가-1)에서 명은 군문에서 보유 중인 군기를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가-2)를 보면 마가은을 지원하여 조선의 사신과 역관이 명의 포상과

35) 『宣祖修正實錄』 권26 宣祖 25년 11월 丁巳

36) 賴建誠, 『邊鎮糧餉: 明代中後葉의邊鎮糧餉與國家財政危機, 1531~1602』, 清華大學經濟學系, 2005, 265~267쪽.

37) 『宣祖實錄』 권87 宣祖 30년 4월 乙亥

38) 『宣祖實錄』 권87 宣祖 30년 4월 癸酉



관부를 통해 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조선의 역관이 명의 상인들과 직접 교역하였으나, 명의 상인들이 비싼 값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명 관료가 개시(開市)를 주재하였으며, 거래내역은 표문(票文)으로 상세하게 남기도록 하였다.<sup>39)</sup> 당시 제독이 자신이 아는 사람 6~7인만을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기록을 통해<sup>40)</sup> 군기교역은 이윤이 많아 참여하고자 하는 상인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군기의 교역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명이 지원한 마가은을 사용하면서 시세에 따라 조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1597년 고급사 권협의 군기교역 현황

교역 물품	구가(舊價)	현가(現價)	교역량	지급액
우근(牛筋) 1근(斤)	1전(錢) 7푼(分)	1전 5푼	856근 4냥	155냥 4전
궁각 1부(副)	6푼 5리	6푼 5리	9,670부	630냥 5전 5푼
유황 1근	4푼 5리	4푼	6,218근 12냥	248냥 7전 5푼
염초 1근	1푼 8리	1푼 8리	53,552근 2냥	909냥 4전 1푼 3리

출처: 권협, 『石塘公燕行錄』 5월 20일 기사.

〈표 1〉을 통해 당시 교역물품, 가격변동과 교역량 및 지급액을 알 수 있다. 권협 일행은 회동관(會同館)의 개시에서 궁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우근 856근 4냥·궁각 9,670부를 교역하였다. 궁각은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보유했던 기록으로 보아<sup>41)</sup> 명과의 교역으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염초와 유황의 경우 화약으로 제조한다면<sup>42)</sup> 염초로는 7만근, 유황으로는 4만근 이상

39) 권협, 『石塘公燕行錄』 3월 23일; 30일

40) 권협, 『石塘公燕行錄』 4월 9일

41) 『宣祖實錄』 권121 宣祖 33년 1월 辛酉

42) 주 9)참조.

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었다. 임진왜란 이전 군기시에 보관된 화약이 27,000근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sup>43)</sup> 당시 교역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 우근과 유향의 가격을 낮춘 것과 군기의 교역임에도 명 조정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원활한 군기교역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은 명이 지원한 마가은을 교역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제한적이던 명과의 군기교역을 확대시켰음은 물론 일본에서 유입되던 궁각과 유향 등의 군기를 대체하였다. 또한 그 동안 금지되었던 은과 군기라는 금물(禁物)의 교역이 허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군량도 교역을 통해서 확보되었다. 명은 소비기로 인한 기후 이상으로 곡물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sup>44)</sup> 전쟁기간 약 675,000여 석의 군량을 소비하였다.<sup>45)</sup> 이때 명은 양은(糧銀) 약 5,831,000냥 가운데 미두(米豆)로 교역하는데 사용한 은이 3,000,000냥에 이를 정도로<sup>46)</sup> 매매를 통한 군량의 확보가 많았다. 이는 명이 군량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군량과 노역을 줄이기 위해 조선 인근에서 군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도 군량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명과 군량을 교역하면서 명의 군량 지원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살피기 위해 『宣祖實錄』에서 발췌한 명의 군량지원 사례를 군량교역의 시기·내용·교역주체·결제수단·교역장소 및 지원형태 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3) 류성룡, 『西厓先生文集』 권16 「雜著」 記火砲之始

44) 김문기, 앞의 논문, 2012, 327~334쪽.

45) 楊理連, 「天津在明朝抗倭援朝戰爭中的作用分析」, 『鄖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8, 2008, 87쪽.

46) 楊昭全, 『中韓關係通史』, 吉林人民出版社, 1996, 320쪽.

〈표 2〉 명의 군량 지원

시기	선조실록 기록날짜	내 용	교역 주체	결제 수단	교역 장소	지원 형태
임진왜란	1592.12.22.	명이 청포 등으로 시기에 따라 안정(安定)근처에서 쌀을 구입하여 지원	명	포화	조선의 안정 근처	현물
	1593.3.23.	명이 은 수 만 냥으로 강서·요동에서 군량을 구입 후 지원	명	은	명의 강서·요동	현물
	1593.8.28.	명이 산동에서 구입한 쌀과 요동해에서 민간의 비상량(備上糧)을 지원	명	은	명의 산동·요동	현물
	1594.7.16.	조선이 은으로 중강시에서 군량 교역	조선	은	조선의 중강시	교역
	1595.10.7.	조선이 함경도에서 채굴한 은으로 중강시에서 군량 교역	조선	은	조선의 중강시	교역
정유재란	1597.3.14.	군사에게 은을 주고 식량을 조선 내에서 구입	명군	은	조선 국내	교역
	1597.10.11.	명이 은과 청포·화용 등을 조선에 보내서 조선이 국내에서 군량 교역	조선	은·포화	조선 국내	교역
	1598.2.4.	명이 은과 청람포로 조선에서 군량 교역	명	은·포화	조선 국내	교역

〈표 2〉를 보면 명의 군량지원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초기에는 주로 현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명이 군량을 조선에서 확보하여 지원할 경우 1592년 사례처럼 포화로 쌀을 구입하였으며, 명에서 확보할 경우에는 1593년 사례처럼 명 국내에서 은으로 매매하거나 기존에 비축된 군량을 현물로 지원하였다. 명이 조선과 명 국내에서 군량을 매매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조선에서는 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역이 어려웠기 때문이다.<sup>47)</sup> 이후 조선도 가격이 싼 요동 지방의 군량을 교역하기 위해 요동도사(遼東都司)에게 의주(義州)의 중강(中江)에서 개시하기를 요청하였다.<sup>48)</sup> 중강개시가 설치되면서 1594·1595년 사례처럼 조선에서 생산·유통되던 은으로 요동 지역의 상인들에게 군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유재란

47) 『宣祖實錄』 권30 宣祖 25년 9월 己未

48) 『宣祖實錄』 권46 宣祖 26년 12월 壬子

시기에도 명은 여전히 현물로 군량을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1597·1598년 사례와 같이 명군 개인의 소규모 매매뿐만 아니라 양국이 각각 주체가 되어 조선 내에서 은으로 군량을 교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은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국내에서 활용하기 쉬운 면포·가죽·어염 등 토산물을 위주로 매매한 후 각 물화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즉, 명의 군수물자 지원은 현물 지원에서 차츰 교역을 위주로 한 군량 지원으로 변화하였으며, 조선 역시 요동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3. 임진왜란 직후 軍需市場의 발전

#### 가. 군수시장의 형성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은 군기의 생산·유통·매매 등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명이나 일본과 국용을 위한 일부 교역만 허락하였기 때문에 사적 유통을 중심으로 한 군수시장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기 조선의 군수물자 확보는 기술습득과 생산 확대, 명의 현물 지원과 함께 은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한 군수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군량교역을 위해 중강시가 설치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군기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군수물자의 확보책이 시행되고 군수교역이 지속되면서 군수시장이 형성되었다.

군수시장은 공·사적으로 생산된 군수물자의 거래가 가능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형성된다. 당시 군수시장의 특징은 대외교역을 중심으로 형성·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전쟁 이후 명과의

군기교역 유지는 염초의 확보와 군수시장의 형성에, 대일교역의 재개는 조총과 군기의 제조 원료인 동철·흑각·유황 등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명과의 교역 및 시장의 형성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시행된 조명 간의 염초교역은 명군이 철수하면서 금지되었다.<sup>49)</sup> 그럼에도 조선은 유격 장량상(張良相)으로부터 염초와 유황을 예물로 받거나 염초를 얻기 위해 명의 병부에 이자(移咨)하는 등<sup>50)</sup>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명을 통해 군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 염초를 구워 만들어 쓰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기는 하나 그 공역이 매우 많아 차라리 중국인에게 무역하는 것만 못합니다. 북도에는 은이 나는 곳이 있어 무역을 할 수 있으나 그 길이 한번 열리면 장래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하지 않습니다. 윤승훈(尹承勳)이 중국에 직무역할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비변사에 은을 보냈던 것은 잡음이 자신에게 미칠까 염려해서였는데 비변사가 아직까지 무역해 보내지 않고 있으니, 포수가 무슨 수로 성재가 되겠습니까. (중략) 관원을 보내 은을 캐 본도에서 직접 염초와 화약을 많이 사와 전쟁 물자로 쓰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sup>51)</sup>

나)는 염초와 화약을 마련하기 위한 신잡(申礮)의 의견이다. 조선은 국내 생산보다는 명과의 교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은을 생산하여 결제대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윤승훈이 직무역할 길을 알고 있으나 폐단을 염려하였다는 점, 명과의 공무역이 정례화 되기 이전이었다는 점, 사행을 통한 교역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통해 보았을 때 공식적인 군기교역은 금지되었지만 사무역으로도 확보 할 수는 있었다. 이와 함께 중강개시에서 염초를 매입하고자 진강유격(鎭江遊

49) 이현숙, 앞의 논문, 2004, 354쪽.

50) 『宣祖實錄』 권131 宣祖 33년 11월 丙寅; 권168 宣祖 36년 11월 丁卯

51) 『宣祖實錄』 권134 宣祖 34년 2월 癸巳

擊)에게 이자하는 등<sup>52)</sup> 공식적인 교역을 시도하는 한편 대명사절을 통한 공무역 재개에도 노력하였다.

조선은 1606년부터 매년 동지사(冬至使)를 통한 3,000근의 염초교역을 정례화 하였으나 1609년 명은 교역을 중단, 조선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1610년 교역이 재개되었다.<sup>53)</sup> 1618년 명은 산해관(山海關)에서 수천 근에 이르는 밀무역을 지적하며 연례 교역 이외에는 금지하고자 하였으나, 조선은 오히려 더 많은 양의 교역을 허락해 줄 것은 물론 궁각 등의 교역도 함께 요구하고자 하였다.<sup>54)</sup> 이처럼 조선은 정해진 수량보다 공·사적으로 많은 염초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의 염초교역은 정례화에서 벗어났다. 1619년 명은 진주사(陳奏使) 이영(李輦)에게 은 3,000냥을 지원하고 염초나 궁각 등을 교역하도록 하였는데<sup>55)</sup> 임진왜란기 마가은을 이용한 군기교역의 선례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은 조선이 후금정벌을 위해 원군을 일으키면 요동의 화약과 군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거나<sup>56)</sup> 인조대에는 정기사행은 2만근, 임시사행은 1만근의 염초를 교역하기도 하였다.<sup>57)</sup> 이는 후금과의 관계 악화와 요동지역의 단절 등 시대적 요인에 기인한 변화다.

명은 조선과의 염초교역을 건주여진(建州女眞)의 세력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시행하였기에<sup>58)</sup> 교역 시기나 양이 일정하지 못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국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염초의 생산량을 매월 대읍 40근·중읍 30근·소읍 15근으로 규정하였다.<sup>59)</sup> 광해군대에는 조총과

52) 『宣祖實錄』 권159 宣祖 36년 2월 辛丑  
 53) 『宣祖實錄』 권201 宣祖 39년 7월 甲申; 『光海君日記』 권21 光海君 1년 10월 辛酉; 권27 光海君 2년 윤3월 庚午  
 54) 『備邊司謄錄』 2책 光海君 10년 5월 22일  
 55) 『光海君日記』 권143 光海君 11년 8월 乙卯  
 56) 『光海君日記』 권143 光海君 11년 8월 壬戌  
 57) 유승주, 앞의 논문, 1976, 119쪽.  
 58) 허태구, 앞의 논문, 2002, 206쪽.  
 59) 『宣祖實錄』 권164 宣祖 36년 7월 丁丑

화약 및 연환까지 각 읍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월과군기법(月課軍器法)을 정비하였다.<sup>60)</sup> 그러나 기술자와 제조 원료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했던 중앙의 군영을 제외한 각 읍들은 민간제조업자들이나 중간상인을 통해 구입하였다.<sup>61)</sup>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에도 명과의 군수물자 교역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군량교역을 위해 설치되었던 중강시가 군기교역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또한 백성들에게 군기 생산이 일부 전가되고 사신이나 관리들에게는 군수물자의 확보가 포상이나 재정 확보의 수단이 되었다.<sup>62)</sup> 생산보다 매매로 군기가 확보되면서 군기의 상품적 가치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군수시장이 형성되었다.

#### 나. 대일교역 재개와 시장의 확대

군수시장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 만큼 시장의 확대에 앞서 시장의 지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이 건국되고 대외 관계가 안정된 후에도 조선의 역관들과 만상군관(灣上軍官) 및 무역별장(貿易別將)들은 사무역으로 염초를 구입하였다.<sup>63)</sup> 일본과는 공무역을 통해 흑각을 교역하였고 조선정부나 군문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유향의 교역이 이루어졌다.<sup>64)</sup> 특히 동래상고와 왜학역관을 중심으로 설립된 공각계는 사무역으로 많은 이윤을 추구하였다.<sup>65)</sup>

이와 함께 국내의 군수시장도 발전하였다. 월과군기법은 대동법

60)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武器發達史』, 국방군사연구소, 1994, 669쪽.

61) 유승주, 「朝鮮後期 貢入에 관한 一研究」 上, 『歷史學報』 71, 역사학회, 1976, 12쪽.

62) 1백 근 미만의 염초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도 포상하였으며(『光海君日記』 권63 光海君 5년 2월 甲午), 군수(郡守)가 타 지역에 여분의 염초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군기를 장만하기도 하였다(『備邊司謄錄』 3책 仁祖 19년 6월 26일).

63) 유승주, 앞의 논문, 1979, 123쪽.

64) 김동철, 앞의 논문, 1995, 255쪽.

65) 김동철, 앞의 논문, 1991, 56~59쪽.

시행 이후 민간제조업자들이 민결에서 수취한 월과가(月課價)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는 공물 형태로 변화되었다.<sup>66)</sup> 군기의 상품화가 촉진되면서 제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공가(貢價)와 시가(市價)의 차이는 확대되어 갔으므로 많은 이윤을 보장하였다.<sup>67)</sup> 군수시장은 일정치 않은 교역량과 국내생산량 등 규모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으나 여전히 청과 일본을 통해 군수교역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도 군수시장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군수시장이 지속·확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대일교역의 재개이다. 일본과의 통교재개는 후금의 발호로 인한 남방 안정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은 이를 군수물자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일교역을 통한 군수물자의 확보는 사신의 왕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총 중심의 군기교역과 공무역을 통한 제조 원료의 교역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정부는 일본과의 통교가 재개되기 이전부터 조총의 교역을 위해 노력하였다. 강화교섭기임에도 황신(黃愼)은 조총 한 께미를 교역하였다.<sup>68)</sup> 1601년에는 소 요시토시[宗義智]·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가 가져온 총과 창, 다치바나 토모마사[橋智正]가 바친 흑각 등을 값을 정해서 토산물로 지급하였다.<sup>69)</sup> 1602년에는 토모마사가 가져온 조총 10자루 등을 구입하였다.<sup>70)</sup> 임시조치로 허용된 소량의 교역은 대마도 측의 진상에 대한 회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었던 만큼 일종의 교역 형태로 볼 수 있다.<sup>71)</sup> 회담검쇄환사가 파견되면

66) 이왕무, 「17~18세기초 鳥銃製造에 관한 研究」, 경기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6, 46~47쪽.

67) 유승주, 앞의 논문, 1976, 11쪽.

68) 황신, 「日本往還日記」 『國役海行摠載』 권8, 민족문화추진회, 1974, 167쪽. 사료상 단위는 串으로 나오는데 한 께미의 정확한 수량을 알 수는 없다. 단일 수량은 柄, 挺 등으로 표기되나 본 논문에서는 자루로 통일한다.

69) 『宣祖實錄』 권143 宣祖 34년 11월 戊午

70) 『宣祖實錄』 권152 宣祖 35년 7월 己巳

71) 이현중, 「己酉條約成立始末과 歲遺般數에 對하여」, 『항도부산』 4, 부산직할시,



서 조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총을 교역하고자 하였는데, 군관·군관의 노자·상하급 역관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sup>72)</sup>

다) 적을 막는 병기로는 왜의 조총만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가 대략 만드는 법을 배워 만들기는 하였으나 모두 쓸 수 없었다. 얼마 전에 함경 감사가 은자를 모아 올려 보내서 조총을 사가기까지 하였었다. 만일 이번 회답사의 사행에 해조에게 물건 값을 헤아려 주게 하여 조총을 편리한 대로 다수 사들여 오게 한다면 적국의 병기를 배에 가득히 싣고 돌아온다 해도 참으로 방해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sup>73)</sup>

다)는 1607년 선조가 회답검쇄환사에게 조총 교역을 지시한 사례다. 국내에서도 조총의 생산은 가능하나 질이 떨어진다는 점, 은으로 조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조총을 많이 교역하더라도 일본에서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군기 확보의 중요성과 조총교역의 단면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사신파견 과정에서 일본은 대마도를 통해 통교재개를 시도하면서 군기를 보내 조선의 환심을 사고자 하였고, 조선은 사신이 일본에 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일교역의 재개는 군기교역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조선후기 교역의 기본 체계가 되었던 기유약조를 논의할 당시 강화를 허락하는 것보다 약조의 내용을 정하기 어렵다는 논의는<sup>74)</sup> 일본과의 통교재개 과정에서 교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조선정부는 조총·궁각·은뽀만 아니라 금지된 물건까지로 교역을 허락하고 시장을 열어 세금을 거두자는<sup>75)</sup> 대일교역 물품의 확대에 대한 논의로

1964, 237~238쪽.

72) 양홍숙, 앞의 논문, 2005, 162~172 참조.

73) 『宣祖實錄』 권207 宣祖 40년 1월 戊辰

74) 『光海君日記』 권17 光海君 1년 6월 丙寅

75) 『光海君日記』 권26 光海君 2년 3월 庚辰

이어졌다. 이처럼 군기와 은은 더 이상 통제 물품이 아닌 주요 교역품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대일교역의 재개는 군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로 이어졌다.

〈표 3〉 1614년 대일교역 거래품목

물품	동철	납	단목	흑각
수입 수량	20,700근	9,581근	325근	297통(桶)
공목절가(公木折價)	100근=공목 60필	1근=공목 2필	3근=공목1필	1통=공목3필
총 결재액	12,420필	19,162필	108필	891필
비율(%)	38%	59%	0.3%	2.7%

출처: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66쪽 표 I-2 재인용 및 수정

〈표 3〉은 1614년 대일교역 물품으로 활의 재료인 흑각, 연환을 만드는 납, 화기의 주원료인 동철 등이 99.7%로 교역 물품의 대부분이며, 650동이 넘는 목면을 교역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목면 650동은 쌀 21,600석이 넘는 양으로<sup>76)</sup>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전결수가 임진왜란 이전보다 1/3로 감소하여 재정이 극도로 불안한 점을 감안하면<sup>77)</sup>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화기도감(火器都監)은 화기 생산에 왜동(倭銅)을 사용할 수 있었고,<sup>78)</sup> 궁각과 연환의 확보 수량 역시 증가하였으니 대일교역 재개가 군기 제조의 원료 확보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조총의 생산 및 교역량도 증가하였다. 1614년 조선은 조총칭(鳥銃

76) 1614년 목면 1동은 50필이며, 1필로 쌀 10두를 구입할 수 있었다(『光海君日記』 권80 光海君 6년 7월 甲子).

77) 임진왜란 전후의 재정에 관해서는 황하현, 「壬辰倭亂과 國家財政의 破綻」, 『경제연구』 1,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1979 참조.

78) 『火器都監儀軌』 1615년 1월 21일

廳)을 화기도감으로 재편하였는데, 인조대 도감에 설치된 제조장의 수가 17개로 늘어나면서 한 달 동안 170자루의 조총을 제조할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sup>79)</sup> 이와 함께 월과군기법을 통한 조총 제조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조총을 수입 할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sup>80)</sup> 따라서 세은(稅銀)이나 결가(結價)를 이용하여 왜관이나 대마도에서 조총을 교역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나고 조총교역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 보유량도 증가하였다. 1627년 양서(兩西)를 제외한 6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총이 17,180자루였는데,<sup>81)</sup> 1641년에는 8도에 50,000자루에 이르렀다.<sup>82)</sup> 이러한 조총의 증가는 사행을 통한 조총의 교역, 왜관에서의 매매와 지속적인 국내 생산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사적 매매로 이어진다. 조선정부가 저자에서 200여 자루의 조총을 구입하거나<sup>83)</sup> 백성이 왜관에서 일본 검이나 조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등<sup>84)</sup> 큰 어려움 없이 국가와 개인이 비교적 쉽게 조총을 매매 할 수 있었다. 호란 이후에는 조총의 사적매매가 더욱 활발해져 1642년 이전에 속오군 중 스스로 조총을 마련한 사람이 5,025명에 이를 정도였다.<sup>85)</sup> 조총 역시 염초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생산과 거래가 용인되었으며, 상품성은 더욱 증가하였던 것이다.

대일교역의 재개과정에서 군수물자 교역은 주요 논의 중 하나로 다루어졌으며 대일교역의 재개는 군수시장의 전환점이 되었다. 명과의 불안정한 군수교역에서 벗어나고, 은이라는 결제수단 부족으로 인한 교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조선의 토산물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군수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임진왜란기 명과의 군수

79) 『承政院日記』 3책 仁祖 14년 8월 7일

80) 『承政院日記』 1책 仁祖 1년 4월 13일

81) 『仁祖實錄』 권16 仁祖 5년 5월 丙寅

82) 『承政院日記』 4책 仁祖 19년 5월 17일

83) 『仁祖實錄』 권5 仁祖 2년 4월 戊申

84) 『光海君日記』 권87 光海君 7년 2월 己卯

85) 『承政院日記』 4책 仁祖 20년 11월 11일

교역을 기반으로 한 직후의 염초교역과 군기 생산으로 군수시장이 형성되었다면 일본과의 교역재개로 조충을 비롯한 군기 제조 원료의 교역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여 군수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 4. 軍需交易의 영향

### 가. 군량운반과 私船의 활동

임진왜란기 조명 양국에서 확보된 군량의 운반은 조선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육로로 군량을 운반할 경우 병사 가운데 노약자나 승군·전쟁터에 종군한 자들을 제외한 무과급제자·전쟁에서 도망간 자 등이 운반하였으나,<sup>86)</sup> 노역에 따른 폐해와 운반량 등의 문제로 최대한 선박을 이용하여 수로로 운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박의 확보 및 활용은 군수물자 특히 군량의 운송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 후기 사선 활동의 주요 특징은 선가(船價) 지급, 경강지역 중심의 사선 이용,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미곡의 운반량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임진왜란기 군량의 교역과 운송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먼저 임진왜란기 사선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종 말년에는 파선 사고와 변방 수비 등을 이유로 세곡의 사선조운(私船漕運)이 이루어졌다고 하나<sup>87)</sup> 여전히 조창제가 중심이었다.<sup>88)</sup>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기존 조운체계가 붕괴되고, 많은

86) 『宣祖實錄』 권33 宣祖 25년 12월 癸丑; 권35 宣祖 26년 2월 癸巳; 권35 宣祖 26년 2월 癸丑

87) 최완기, 「朝鮮前期의 穀物貨運考」, 『史叢』 23, 고려대학교역사연구소, 1979, 21쪽.

88) 한정훈, 「15·16세기 漕倉制의 재정립과 그 이해방향」, 『역사와 경계』 49, 경남사학회, 2015 참조.

관선이 파선되었으며, 추가로 관선이 제조되더라도 주로 병선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89)</sup> 이러한 이유로 사선이 관선을 대신하여 군량 운반에 활용된 것이다.

전쟁초기부터 군량운반을 위해 관선과 사선이 동원되었다.<sup>90)</sup> 그러나 관선은 수효가 적어 주로 어업과 상업에 사용되던 사선에 의지하였다.<sup>91)</sup> 사선이 군량운반에 동원되면서 사선의 소유주는 생업에 나서지 못하였기에 이들에게 선가와 상을 주었다.<sup>92)</sup> 이를 위해 두 차례 이상 운반한 자들에게 복호(復戶)를 내리거나 공명첩을 주고, 혹은 선가로 은이나 운반하는 군량의 2/10를 지급하는 것이 논의되었다.<sup>93)</sup> 임진왜란기 군량운반 과정에서 사선의 동원과 선가지급은 사선을 통한 경제활동이 일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사선의 활동 범위는 크게 명과 조선을 잇는 국외활동과 조선 국내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명의 군량은 주로 천진에서 출발하여 등주(登州)에 이르면 바다를 건너 여순(旅順)에 도달한 다음, 여순에서 조선에 이르렀다.<sup>94)</sup> 이 과정에서 금주위(金州衛)에 있는 군량을 운반하고자 조선의 공·사선을 모았으며 해로 습득을 위해 사공 2~3명과 통사 1명을 보내도록 하였다.<sup>95)</sup> 이처럼 명의 군량을 운반하면서 조명 간에 끊겼던 바닷길이 연결되었다.<sup>96)</sup> 조선과 명은 군량 운반과정에서 해로를 공유하였음은 물론 조선의 사선에 선가를 지급하고 군량의 운반에 활용하였다.

89) 세종대부터 병선과 조선을 겸용하였다(『成宗實錄』 권216 成宗 19년 5월 戊子).

90) 『宣祖實錄』 권34 宣祖 26년 1월 丁卯; 권41 宣祖 26년 8월 庚子

91) 『宣祖實錄』 권66 宣祖 28년 8월 丁卯; 권83 宣祖 29년 12월 戊寅

92) 『宣祖實錄』 권44 宣祖 26년 11월 己巳

93)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甲午; 권46 宣祖 26년 12월 庚戌; 권99 宣祖 31년 4월 癸亥

94) 『宣祖實錄』 권97 宣祖 31년 2월 辛未

95) 『宣祖實錄』 권46 宣祖 26년 12월 庚戌

96) 『宣祖修正實錄』 권27 宣祖 26년 4월 乙酉. 명이 후금에게 요동을 빼앗긴 후에는 사행로로 해로가 계속 이용되었다.

국내에서는 군량의 집결지이자 발선지로서 경강지역이 사선활동의 중심지였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한강 연안에서 어선·진선(津船)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소선인(小船人)들을 비롯한 경강선(京江船)은 곡물뿐만 아니라 어염·목재와 같은 생필품까지도 선운(船運)하였으며 16세기 말에는 무곡 활동에까지 진출, 곡물상선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 있었다.<sup>97)</sup> 따라서 전쟁 중에도 이들 경강지역의 사선을 중심으로 군량이 운송되어졌다.

경강에 사는 사람들은 수군의 격군으로 삼을 정도로<sup>98)</sup> 선박의 운용에 뛰어났다. 전쟁 초기 피난을 나온 경강의 배는 수백여 척에 이를 정도였다.<sup>99)</sup> 모든 배가 가용선은 아니었지만, 경강지역에는 소선이라 하더라도 운행 가능한 배들이 많았기에 개성(開城)의 적전(籍田)·금곡창(金谷倉)·아산창(牙山倉)·흥원창(興源倉) 등 각지에서 군량을 운반해 오도록 하였다.<sup>100)</sup> 그리고 효율적인 선박 운용을 위해 주사대장(舟師大將)을 설치하고 어부로 장부에 기재된 선박 외에는 성책(成冊)하였는데, 소재지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화인(火印)을 찍어서 글자로 호(號)를 만들어 대종(隊綜)을 이루도록 하였다.<sup>101)</sup>

다음으로 임진왜란기 대표적 군량 집결지였던 용산창(龍山倉)과 강화해구(江華海口)에서 군량을 확보하고 비슷한 시기 명군에게 방출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경강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선들의 운송량과 이에 따른 활동 모습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97) 최완기, 앞의 논문, 1979, 39쪽. 조선후기의 이른바 경강상인 역시 이들이 발전된 모습이다(강만길,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59-69쪽).

98) 『宣祖實錄』 권72 宣祖 29년 2월 己亥

99) 『宣祖實錄』 권26 宣祖 25년 5월 戊子

100) 『宣祖實錄』 권26 宣祖 25년 5월 壬午

101) 『宣祖實錄』 권98 宣祖 31년 3월 更子; 권100 宣祖 31년 5월 壬辰

〈표 4〉 용산창과 강화해구에서 확보된 양 (1597.5.~1598.9.)

종류	조선	명	공동	합계
도미(稻米)		16,110석		16,110석
대미(大米)	61,520석			61,520석
소미(小米)	20,100석	114,070석	27,020석	161,190석
콩	86,130석	54,840석	19,300석	160,270석
합계	167,750석	185,020석	46,320석	399,090석

출처: 『宣祖實錄』 권104 宣祖 31년 9월 庚戌

〈표 5〉 명군에 방출한 미국 수량 (1597.5.~1598.2)

종류	방출량	명에서 유입된 양	조선의 실제 방출량	비 고
대미	72,613석		72,613석	총 지출: 240,863석 국용: 27,413석 명 유입: 16,522석
소미	22,292석	6,866석	15,426석	
콩	117,447석	9,656석	107,791석	
대맥(大麥)	1,098석		1,098석	
합계	213,450석	16,522석	196,928석	

출처: 『宣祖實錄』 권98 宣祖 31년 3월 戊子

〈표 4〉는 용산창과 강화해구에서 확보한 조선과 명의 군량에 관한 것이고 〈표 5〉는 명군에게 방출한 군량의 양이다. 경강상인과 선운업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이후인 17세기 후반, 대동미는 전체가 428,648석이고 경기지역은 45,316석에 이르렀다.<sup>102)</sup> 1597년 5월에서 1598년 9월 간 용산창과 강화해구에서는 군량 399,090석이 모였으며, 1597년 5월에서 1598년 2월 사이 213,450석이 명군에게 방출되었는데 모인 군량은 대동미 전체 수량에 필적하며 방출한 군량은 경기지역 대동미의 4배가 넘는 양이었다. 당시 사선은 큰 것은 5~6백석, 작은 것은 1~2백석을 운반할 수 있었기에<sup>103)</sup> 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수차례 왕복하며 운반하면서

102) 최완기, 『朝鮮後期船運業史研究』, 일조각, 1989, 98쪽 표 3 참조.

103) 『宣祖實錄』 권89 宣祖 30년 6월 壬申

선가를 지급받았으며, 일부 사선들은 무곡활동에도 참여하였다.

부상대고를 비롯한 서울의 상인들은 전쟁을 피해 안전한 지방에서 상업 활동을 하였고<sup>104)</sup> 임진왜란 초기에 가장 피해를 입었던 경상도에서도 장시가 형성되었다.<sup>105)</sup> 교통·운수의 조건이 좋은 지역, 해안이나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의 장시에서는 선상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sup>106)</sup> 임진왜란기 선박을 이용한 무곡 활동은 이들 장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매한 군량은 경성이나 전쟁지역으로 운반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은 평안도·황해도·충청도·전라도의 재목이 있는 곳에서 선박을 제조하였으며<sup>107)</sup> 명의 조선술을 습득하여 배를 만들기도 하였다.<sup>108)</sup>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사로이 배를 만들어 군량과 기계를 마련하고 경강에서 장사를 하거나 배를 팔기도 하였다.<sup>109)</sup> 군량운반 과정에서 조선의 배를 만드는 기술도 개선되었음은 물론 배를 이용한 매매 활동을 위해 사선의 매매도 이루어졌다.

유형원(柳馨遠)은 연해의 고을이 사선을 이용하여 경성으로 곡물을 납부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10)</sup> 이는 16세기부터 곡물운송에 일정한 역할을 해오던 사선들이 임진왜란기 경강지역의 사선과 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량을 운반하면서 그 역할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선은 임진왜란 이후 무너진 조운체계에서도 관선을 대체해 나가면서 조선후기 경강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선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104) 이항복, 『白沙先生別集』 권1 「啓辭」 陳時務畫一啓

105) 조정, 『黔澗集』 「辰巳日錄」 壬辰 7월 25일

106) 이경식,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한국사 연구』 57, 한국사연구회, 1987, 57쪽.

107) 『宣祖實錄』 권97 宣祖 31년 2월 丁巳; 권97 宣祖 31년 2월 丁丑

108) 『宣祖實錄』 권52 宣祖 27년 6월 戊午

109) 『宣祖實錄』 권152 宣祖 35년 7월 丁丑; 권153 宣祖 35년 8월 庚戌; 권166 宣祖 36년 9월 甲寅; 권171 宣祖 37년 2월 丁亥

110) 유형원, 『磻溪隨錄』 권3 「田制後錄」 漕運



## 나. 銀 유입과 실용성의 증가

조선은 명의 금은세공(金銀歲貢)에서 벗어난 이후 민간에서의 은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금은의 매매를 금지하였다.<sup>111)</sup> 16세기 은 유통량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일본 은이 유입되었음에도 조선은 은 광 개발에 소극적이었고 여전히 유통을 억제하였다. 임진왜란 이전 은은 사치품이나 국용 등 한정된 용도로 사용되어 실용성이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에서 은을 사용하면서 국가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sup>112)</sup> 이는 임진왜란이 조선의 은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하며,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것이 군수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군수교역 과정에서 대량의 은이 유입되면서 그 영향으로 유통의 길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 은 유입과 조선의 은 사용량 증가 그리고 은을 국용으로 보충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군수교역이 은 유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명 양국의 서로 다른 인식 속에서도 은이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자. 조선은 미포(米布)가 화폐 역할을 하였고, 공·사무역의 자금으로도 주로 토산물을 사용하였으며 은을 사치품으로 여겨 생산과 유통을 지속적으로 통제하였다. 이에 반해 명은 국내외적으로 은 유통이 활발했으며, 화폐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상황이었지만 당시 양국에 유통된 은의 형태가 큰 차이가 없었던 점이 원활한 유통의 배경이 되었다. 전쟁 전후 조선에서 유통된 은은 덩어리 형태이거나 얇은 조각 형태였으며,<sup>113)</sup> 명도 덩어리 형태의 백은을 주로 사용하였다.<sup>114)</sup> 양국에서 유통된 은은 따로 규격화된 화폐로 제조하지 않았으며, 품질과 중량에 따라 가치를 지녔고, 보유 은 가운데

111) 『經國大典』 「刑典」 禁制

112) 『萬機要覽』 「財用篇」 金銀銅鉛; 『增補文獻備考』 「財用考」 金銀銅

113) 『中宗實錄』 권82 中宗 31년 7월 戊辰

114) 하오예핑 지음·이화승 옮김, 『중국의 상업혁명』, 소나무, 2011, 51~52쪽.

전쟁 이전 유입된 일본 은이 많았다. 따라서 군수교역 과정에서 은은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이 강조되어 감에 따라 부족한 조선의 미포를 대체하며 서로 유통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군수물자 확보과정에서 많은 양의 명은이 조선에 유입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정부의 은 보유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임진왜란 직전 유입·생산량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은 유통이 증가하던 중종대 일본은을 공식적으로 교역한 적은 있으나 이는 교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대부분의 일본 은은 잠상들을 통해 유입되었다. 조선의 가장 대표적 은광인 단천은광의 경우 매년 약 1,000냥을 기준으로 수세하였으나 그 양은 일정하지 않았다.<sup>115)</sup> 이마저도 임진왜란 직전에는 채취가 금지된 상태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개광하였을 때도 수세량은 1년에 5,000냥 정도에 불과하였다.<sup>116)</sup> 전쟁기간 국내에 있던 은은 백성들이 기준에 보유하고 있던 은이나 전쟁 이전 일본에서 유입된 은이 대부분이었으며, 조선 국내의 은 생산량도 많지 않았다. 임진왜란기에도 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sup>117)</sup>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원활한 군수교역을 위해 명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명은 군량과 군기를 구입하기 위해 군수은량(軍需銀兩)을 사용하였으며<sup>118)</sup> 전쟁기간 약 2,000만 냥을 소비하였다.<sup>119)</sup> 또한 조선과 군수

115) 『中宗實錄』 권64 中宗 23년 윤10월 戊子; 권93 中宗 35년 9월 戊戌

116) 『宣祖實錄』 권97 宣祖 31년 2월 乙丑. 이후의 기록에는 대부분 1천 냥을 수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宣祖實錄』 권109 宣祖 32년 2월 丙辰; 권123 宣祖 33년 3월 甲寅; 『光海君日記』 권82 光海君 6년 9월 甲寅). 은을 채굴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1천 냥만 국가에 바치는 공은제(貢銀制)로 변화했기 때문이다(『萬機要覽』 「財用篇」 金銀銅鉛).

117) 속형(贖刑), 납속제관(納粟除官), 징납(徵納) 할 때 은으로 거두거나(『宣祖實錄』 권49 宣祖 27년 3월 戊申), 은을 바치는 자를 면역·면천시켜주었다(『宣祖實錄』 권51 宣祖 27년 5월 壬寅). 전쟁 이후에도 명과 교역한 값을 치르기 위해 은광을 개발하고(『宣祖實錄』 권166 宣祖 36년 9월 己卯), 중강개시에서 은으로 세를 거두거나(『宣祖實錄』 권160 宣祖 36년 3월 甲戌), 중강시에서 유지(油紙)를 교역하여 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宣祖實錄』 권160 宣祖 36년 3월 癸未).

교역이 가장 많았던 요동진의 경우 1593년의 군마전량 분포를 살펴보면 은이 937,700냥인 13.11%로 13진 중 가장 많이 소요되었음을 볼 때<sup>120)</sup> 막대한 은이 유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 조선에 유입된 은의 유형과 사례

출 처		사 례	전거(『宣祖實錄』)
국가	조정	조선에 은을 주어 군수물자를 교역.	권35 26년 2월 乙未; 권46 26년 12월 甲戌
		장령 및 순직한 원역에게 은을 지급.	권36 26년 3월 甲子
	태복시	군기 교역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권91 30년 8월 甲子
개인	상인	강상(江上)에서 3개월간 세은(稅銀)이 3천 냥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매매 활동.	권69 28년 11월 丙申
	관료	왜적의 머리를 보내자 요동도사가 조선의 장수들에게 은을 지급.	권28 25년 7월 癸亥
	군사	음식·잡물 등의 구입비를 은으로 지급토록 함.	권86 30년 3월 甲辰

〈표 6〉은 전쟁기간 명에서 은이 유입되는 대표적 유형을 사례를 들어 정리한 것이다. 명은은 크게 국가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유입되었다. 〈표 6〉과 군수교역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명 조정에서 유입된 은은 대부분 군수물자 특히 군량을 교역하거나 혹은 군공을 포상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태복시를 통해 유입된 은은 주로 군기의 교역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개인일 경우 명 상인은 중강시에서 교역활동을 하거나 명군을 따라 내지로 들어와서 매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은이 유입되었다. 특히 명나라 상인들의 조선 진출로 국내의 은 유통이 이전보다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sup>121)</sup> 관료는 주로 포상이나 사행과정에서, 명군은 직접 은을 받아 식량 등의 생필품을 구입하면서<sup>122)</sup> 조선으로 은이 유입

118) 『宣祖實錄』 권53 宣祖 27년 7월 癸未

119) 최두환, 앞의 논문, 2011, 160쪽. 『明史』 권235 「列傳」 123 王德完.

120) 賴建誠, 앞의 논문, 2005, 274쪽 표 14-5 참조.

121) 한명기, 앞의 논문, 1992, 3~12쪽.

122) 전쟁초기 병사 한 사람당 월급·월량(月糧)으로 은 1냥 5전, 행량·염체에 필요한

되어 유통을 자극하였다.

세 번째로 조선도 군수교역 과정에서 은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임진왜란 초기만 하더라도 은의 실용성은 한정적이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선도 은으로 군수물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중강개시에서 곡식을 마련하거나, 면화와 말을 무역하는데 은을 사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sup>123)</sup> 명의 군수물자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통제되었던 조명 간의 은 유통이 공식화되고, 대외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은의 실용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장시에서도 은의 사용이 이루어졌다.<sup>124)</sup> 백성들은 주육(酒肉)·두포(豆泡)·염장(鹽醬)·시초(柴草) 등의 물건까지도 은으로 매매하면서<sup>125)</sup> 저자에서 물가를 움직일 정도로<sup>126)</sup> 은의 유통이 활발해졌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우마(牛馬)나 전답(田畝), 공인권(貢人權) 등 고가의 물품을 매매할 때 은을 주로 사용할 정도로 화폐수단으로서 실용성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용을 보충하기 위해 은 유통이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때 다시 허용한 채은(採銀)도<sup>127)</sup> 은을 통용하여 재원으로 삼고자하는 의도였다. 더욱이 조선정부는 은의 통용을 넘어 은화의

---

은 1냥 5전, 옷·신발에 필요한 은 3전, 호상(犒賞)으로 은 3전 등 도합 3냥 6전을 지급하는데 조선에서 2냥 1전을 부담하고 명에서 1냥 5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辛卯), 명에서 3냥 조선에는 6전만을 부담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丁未). 그러나 이때 조선은 은 대신 주포(紬布)로 환산하여 지급하고자 했으며, 시대적 상황이나 이후 군량 보급문제와 은을 이용한 곡식 매매 사례 등으로 보아 정유재란 즈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명군은 밤 한 주발에 은 4푼을 지급하기도 하였다(『宣祖實錄』 권99 31년 4월 戊寅).

123)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丙午; 권82 宣祖 29년 11월 丙申

124) 이정수, 「16세기 중반~18세기 초의 貨幣流通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32, 조선시대사학회, 2005, 107~111쪽 참조.

125) 『宣祖實錄』 권99 宣祖 31년 4월 壬戌; 신흘, 『象村稿』 권53 「山中獨言」

126) 『宣祖實錄』 권139 宣祖 34년 7월 丙午

127)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甲申

사용에 대해 고민하였다.

라-1) 이성중(李誠中)은 아뢰기를, “일이 정해진 후에 마땅히 병제를 개정해야 하고, 또 은화를 통행시켜야 합니다. 하늘이 낸 보장(寶藏)을 통행하지 않고 있으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sup>128)</sup>

라-2) 호조가 아뢰기를, 이덕형(李德馨)이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은을 화폐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채운은 허락하였으나 통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속전으로 거두어 관아에 바칠 때에 은을 사용할 일을 해조로 하여금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습니다. 전란이 일어난 이후에 나라의 재정이 탕갈되었으니 은화를 통용하여 의식의 자료를 삼는 것이 진실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sup>129)</sup>

군량을 비롯한 군기의 확보과정에서 은이 조선의 군수교역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미포 중심의 화폐체제를 부분적으로 대체하였기에, 조선정부는 은을 유통시켜 임진왜란으로 궁핍해진 재정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권희(權禧)가 은광을 열고 돈을 주조할 것을 건의하였으며<sup>130)</sup> 광해군대에도 은을 채굴하여 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sup>131)</sup> 은화 유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록 은 생산량과 대외적인 문제로 국내에서의 통용에는 한계가 있어 반대되었지만 군수교역을 위한 재정 극복방안으로 은화 사용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전 제조 및 유통이 촉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양국에 유통된 은의 성격,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명은의 유입과 유통량의 증가, 조명간의 군수물자 교역을 위한 은 사용량 증가 등의 현상과 맞물리면서 조선 내 은 확보 및 사용을 촉진하였고, 은화 유통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정도로 국내에서 은의 실용성이 증가하였다.

128) 『宣祖實錄』 권33 宣祖 25년 12월 己酉

129) 『宣祖實錄』 권49 宣祖 27년 3월 戊申

130) 『宣祖實錄』 권196 宣祖 39년 2월 辛亥

131) 『光海君日記』 권23 光海君 1년 12월 丁巳

#### 다. 군수교역의 장려와 私貿易 확대

군수물자의 확보는 국내생산의 한계로 주로 대외교역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은 명으로부터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교역을 장려하였다. 상인들은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사무역의 확대로 이어졌다.

명의 상인들은 임진왜란기 미곡·면포·유황·염초 등을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sup>132)</sup> 염초의 경우 중국에서는 공·사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었다.<sup>133)</sup> 따라서 조선 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중앙과 지방민들이 대부분 중강에서 화약을 매매하였다. 더욱이 중국인들은 요양에서 진강 사이에 있는 관아에서 화약을 훔쳐서 조선 사람들과 거래하기에 이르렀다.<sup>134)</sup> 또한 화약의 제조 원료인 염초와 유황까지도 사무역으로 이루어졌다.<sup>135)</sup> 이는 군기의 생산이 의무화되고, 전매가 허락된 상황에서 국내 생산보다 대외교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7>은 조·명·일 삼국에서 교역되는 주요 군수물자의 가격과 구입처를 비교한 표이다.

<표 7> 주요 군수물자의 가격차이

군기	조선	중강시	연경	왜관
피곡 1두(石)	1필 이상	1/20필 20배		
염초 1근(斤)	4전	5푼(分) 8배	1푼 8리(釐) 22배	
조총 1병(柄)	3석 5두			1석 2두 2배 이상
유황 100근(斤)	10냥			5~6냥 약 2배

출처: 피곡은 『만기요람』, 연경의 군수물자 가격은 『石塘公燕行錄』 5월 20일 기사 참조.

132) 寺田隆信, 『山西商人の研究』, 東洋史研究會, 1972, 123~124쪽.

133)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丁亥

134) 『宣祖實錄』 권201 宣祖 39년 7월 癸未

135) 『光海君日記』 권25 光海君 2년 2월 庚戌

염초는 『선조실록』 권134 宣祖 34년 2월 丁丑(중강시); 권614 宣祖 36년 7월 丁丑(조선) 기사 참조. 조충은 『반계수록』 권21 兵制(조선); 이왕무, 앞의 논문 1996, 37쪽(일본) 참조. 유황은 『현종실록』 권8 顯宗 5년 2월 임술 기사 참조.

명과는 염초와 곡물을, 일본과는 조충과 유황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당시 가격의 변동과 환산 등의 문제로 정확한 가격비교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국외에서 구입하여 전매함으로써 적게는 2배, 많게는 20배가 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염초 확보를 위해 각사에 청탁하고 수령이 사육을 채우는 폐단이 발생하거나,<sup>136)</sup> 잡상을 통한 군기의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조선정부는 국가의 용도와 관련이 있기에 묵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sup>137)</sup> 이는 대명사절을 통한 교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명은 정해진 수량 이외에는 염초 교역을 금지하였는데 1617년 동지사 이상길(李尙吉)이 4,300여근을 추가로 교역하였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포상하였다.<sup>138)</sup> 조선정부의 포상 정책과 더불어 군수물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무역을 장려하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표 8>은 사행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던 연경을 제외하고 모문룡(毛文龍)이 주둔하였던 가도(槓島)를 포함하여 군수물자의 교역품과 장소를 『朝鮮王朝實錄』을 참고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8> 군수물자의 교역과 매매 장소

	수출되는 군수물자	수입되는 군수물자	대상	장소
조선	곡물·한도·조충·말·동철	곡물·말·염초·유황·화약	명	중강
	곡물·동철·말	곡물·염초·유황		가도
	곡물	조충·한도·염초·유황·흑각·광물	일본	왜관

<표 8>에서와 같이 중강·가도·왜관이라는 군수교역 통로의 확보

136) 『宣祖實錄』 권134 宣祖 34년 2월 丁丑

137) 『光海君日記』 권49 光海君 4년 1월 丙午

138) 이상길, 『東川集』 권2 「朝天日記」 정월 17일

는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이 의주의 중강 지역이다. 전쟁기간 중강시는 한 달에 9번 개시하면서 다양한 교역의 기회를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잠상들의 활동도 활발해졌으며, 관료들과 연계하여 교역이 이루어졌다.<sup>139)</sup> 군량의 교역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말을 비롯 염초·유황·조충·환도 등 군기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차츰 다양한 물품들이 교역되기에 이르렀다.<sup>140)</sup> 따라서 외방의 물화가 서울에 모이지 않고 의주지역으로 모였으며<sup>141)</sup> 명의 상인들도 경외(京外)에까지 몰려들 정도였다.<sup>142)</sup> 즉 군수물자의 확보를 위한 시장의 설치는 군수교역의 장려책과 맞물리면서 개인들이 다양한 물품을 매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따라서 청이 건국된 이후에는 중강을 중심으로 개시와 후시가 설치되었으며 인삼·포·은·비단·소·해삼·다시마 등의 물화가 공·사적으로 교역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명이 후금과의 전투로 요동지역을 뺏기면서 조선에 거주하게 된 모문룡은 가도에 군진을 세우게 된다. 군진인 만큼 조선에 불공평하기는 했지만 군량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 다만 모문룡은 명으로부터 매년 염초 38,000근과 유황 12,000근을 공급받았는데 인조가 염초와 유황을 팔도록 요청하는 등<sup>143)</sup> 조선의 필요로 인한 군기의 교역도 이루어졌다. 모문룡은 조선정부에게 가도와의 교역에서 세금을 거두지 말고 은화를 유통시켜서 균형에 도움이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철산(鐵山)의 마시(馬市)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치되었으며<sup>144)</sup> 물화

139) 『宣祖實錄』 권91 宣祖 30년 8월 丙寅

140) 『宣祖實錄』 권50 宣祖 27년 4월 庚午; 권53 宣祖 27년 7월 壬辰; 권84 宣祖 30년 1월 丁未; 권160 宣祖 36년 3월 癸未; 『光海君日記』 권25 光海君 2년 2월 庚戌

141) 『宣祖實錄』 권142 宣祖 34년 10월 癸未

142) 『宣祖實錄』 권124 宣祖 33년 4월 丙申

143) 허태구, 앞의 논문, 2002, 227쪽.

144) 『仁祖實錄』 권7 仁祖 2년 11월 辛未



역시 다양해졌다. 특히 조선의 인삼은 상고(商賈)들과 가도의 밀무역으로 인해 고갈되어 가격이 급등할 정도였다.<sup>145)</sup> 이처럼 가도에는 객상이 거주하며 1년 세수가 수만금에 이를 정도로 변화하였으며<sup>146)</sup> 마시장을 통해 역관 및 사상(私商)들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sup>147)</sup> 더욱이 가도를 기반으로 인근 지역인 용천(龍川)·철산 등 조선 내륙 지역에서도 교역이 이루어졌다.

왜관은 조총과 염초교역만이 아니라, 환도 등 다양한 군기의 교역이 이루어졌다.<sup>148)</sup> 잠상들이 잇따라 왕래하며 대마도인을 상대로 활을 비롯한 금물의 매매가 이루어졌다.<sup>149)</sup> 특히 군진·군영에서도 군기 확보를 위해 공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왜관에서의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150)</sup> 조선은 일본이 군기의 수출을 금지한 1621년까지는 왜관의 개시무역을 통해서 일본의 조총과 검 등의 군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었다.<sup>151)</sup> 특히 대외관계가 안정된 17세기 중반 이후 왜관에서도 공·사무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인삼·은·생사·금·은·동·흑각 등으로 물품이 다양해졌으며, 의주의 중강과 연결되어 조선은 일본과 청을 잇는 중개무역이 가능해졌다.

17세기 초반 중강, 왜관, 가도라는 대외교역 시장의 성립은 정치적 영향 아래 있었기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관은 일본의 교역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되었다. 중강시는 조선의 군량 요청으로 시도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폐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sup>152)</sup>

145) 『仁祖實錄』 권7 仁祖 2년 11월 壬辰

146) 『仁祖實錄』 권19 仁祖 6년 12월 丁未

147) 『仁祖實錄』 권23 仁祖 8년 12월 乙卯

148) 『宣祖實錄』 권196 宣祖 39년 2월 辛亥

149) 『光海君日記』 권50 光海君 4년 2월 辛未

150) 양홍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62~63쪽

151) 米谷均, 앞의 논문, 2000, 41쪽.

152) 辻 大和, 「一七世紀初頭朝鮮の對明貿易」, 『東洋學報』 96-1, 東洋文庫, 2014, 참조. 辻 大和는 중강개시의 폐해로 명은 화약 등 조선의 밀무역을, 조선은 조선

가도는 모문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안도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sup>153)</sup>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의 군수물자를 확보를 위한 군수교역의 묵인·장려 방안은 이들 지역이 교역거점지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며 교역물품의 다양화와 사무역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후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서 증강시와 왜관을 매개로 한 조선의 중개무역이 진행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 5. 맺음말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군수물자의 재원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의 습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기술·재원·재정의 부족으로 명은 조선에게 대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하였는데 교역을 동반하여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군수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했다. 따라서 명과의 염초교역에 힘쓰는 한편, 군기 확보에 대한 포상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월과군기법을 시행하면서 군기의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를 교역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고, 국내외 상인 등이 교역에 참여함으로써 군수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일본과 교역이 재개되면서 조총을 비롯한 군기 제조의 원료가 유입되고 조선의 군수물자 확보 정책과 맞물리면서 군수시장이 확대되었다.

대외교역에 기반을 둔 조선의 군수교역은 조선후기 상업발달의

상인의 불리한 조건과 밀무역 및 기밀정보 누설 등을 언급하였다.

153) 권내현, 『朝鮮後期 平安道 財政運營』,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군량의 운반은 해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선들도 동원되어 그들의 활동을 촉진시켰다. 특히 용산창과 강화해구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군량이 운반됨으로써 조선 후기 경강상인을 비롯한 사선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군수교역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은을 사용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은을 이용한 매매가 증가하여 은의 실용성이 강화되었다. 군수물자의 부족으로 인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은화의 유통이 논의되고 이를 계기로 동전 주조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도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군수물자의 확보는 대외교역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선정부는 묵인하거나 장려하면서 사무역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군수물자의 교역처였던 중강·가도·왜관을 통해 다양한 물화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역되기에 이르렀다. 즉 군수교역을 위한 시장의 설치는 대외교역의 창구 역할을 했으며 개인들의 대외교역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원고투고일: 2016.7.30, 심사수정일: 2016.11.13,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임진왜란, 군수물자 확보, 군수교역, 군수시장, 군수교역의 영향, 군기품, 군량, 사선, 은

<ABSTRACT>

## The Research on the Procurement of Military Materials and the Effects of Military logistics trade immediately after the Imjin Waeran

Yun, Yeo-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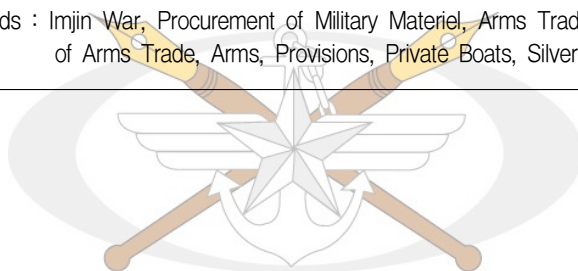
Josun endeavored to procure the military materiel in many ways during the period of Imjin Waeran, but there was a limit to do so for itself, for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techniques, and raw materials. To find the solution, plenty of military supplies were imported to Josun from China, Ming, not simply in a way of support of stuffs, but in a way of funding in order to purchase the military materiel through trade.

The rapidly changing Northeast Asian situation played a role as one of the factors rising necessity of the military materiel procurement after the Imjin Waeran. Josun tried to maintain the reward policy and to enforce the Wolgwagungibeop(月課軍器法) which the government assigned the production of arms to each local authorities in order to procure the military supplies not only from trade, but also through the production domestically. As a result, the arms came to be commodified and then the arms market was formed consequently. Most of all, the resumed trade with Japan made it easier to bring matchlocks and other law materials in Josun so that it led to the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arms along with the growth of military markets.

The procurement of these supplies which conducted by the Chosun dynasty in the Imjin Waeran had been developed in a large scale. Since then it had influenced the activities of private boats, the strengthened currency function of silver, and the expansion of private trades. Here were the very vigorous activities of private boats in the process of the transportation for provisions in the markets and shipping business which had been formed from the early

Josun Dynasty. Especially, a great quantity of provisions were transported around the Han river, it influenced the activities of private boats that largely were owned by the merchants in Gyeong-gang(京江) area. Also, the currency of Silver as a payment method for the military trade was increased in value considerably as well, Silver was to be circulated, though so limited, among the common people. Finally the established market for military trade was the channel of foreign trade. What the Josun government had been promoting the military trade became a foundation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erchants in the foreign trade.

Key words : Imjin War, Procurement of Military Materiel, Arms Trade, Effects of Arms Trade, Arms, Provisions, Private Boats, Silver



##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고찰

- 국내의 ‘세계 4대 해전’ 담론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석영달 \*

1. 들어가며
2. ‘세계 4대 해전’의 공식적인 발자취
3. 인터넷 공간 속 ‘세계 4대 해전’ 담론
4. ‘세계 4대 해전’의 허상과 진실
5. 나가며

### 1. 들어가며

대한민국에서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은 한반도의 수천 년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함께 이순신의 동상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역사 속에서 갖는 무게감을 잘 드러내준다. 또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조교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그리고 2014년 개봉된 영화 〈명량〉의 흥행이 보여줬듯이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드라마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민 드라마’, ‘국민 영화’로 인정받으며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 또한 해군의 정신적 모태가 ‘충무공 이순신 정신’으로부터 출발함을 항상 언급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이순신의 영향력 속에서 국내 많은 언론과 홍보단체들은 그의 훌륭한 행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세계 속의 이순신’이라는 기치 아래 이순신의 존재와 그가 승리한 해전들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2)</sup>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세계 속에서 이순신이 갖는 위상에 대해 언급하는 여러 자료 중 일부는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사실관계 전달에 있어서 오류를 안은 채 그 ‘위상’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사실인양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4대 해전’이라는 논의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연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는 학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세계 4대 해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그 속에는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도 포함되는 것일까?

1) 이는 손원일 제독이 해군창설 시 만들었던 6가지 실천지침 중 5번째에 해당하는 “군인은 충무공 정신에 살고 충무공 정신에 죽자.”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모든 해군 장병들이 교육 과정에서 암기하는 ‘해군의 다짐’ 중 첫 번째 문구인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진근·임성채, 『손원일 제독』,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202쪽.

2) 「사이버 외교단 반크」, “이순신 - 세계 속의 이순신” (접속일: 2016. 6. 4. 13:00, URL : [http://www.prkorea.com/yisunsinkr/reputation1\\_k.htm](http://www.prkorea.com/yisunsinkr/reputation1_k.htm)); 「경남도청 운영충무공이순신 홍보 사이트」, “충무공 이순신 - 이순신의 위상 - 세계 속의 이순신” (접속일: 2016. 6. 4. 13:10, URL: [http://www.yi-sunsin.com/04yisunsin/05\\_01\\_01.jsp](http://www.yi-sunsin.com/04yisunsin/05_01_01.jsp)); 「국방일보」, 이현표 전 주미한국문화원장, “지휘관 깃발 끝까지 사수” 친일 영국인도 충무공 극찬” (작성일: 2014. 9. 21., 접속일: 2016. 6. 4. 13:15, URL: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1041&ntt\\_writ\\_date=20140922](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1041&ntt_writ_date=20140922)); 「동아일보」, 유성열, “광화문광장서 ‘충무공이야기’도 만난다” (작성일: 2009. 12. 11., 접속일: 2016. 6. 4. 13:20, URL: <http://news.donga.com/3/all/20091211/24717534/1>)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세계 속의 이순신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읽고자 하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세계 4대 해전’의 존재에 대한 진위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포털사이트들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블로그 및 웹문서를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누리꾼들이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갖가지 근거를 대면서 치열한 논쟁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자 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뤄진 바가 없다. 때문에 필자는 ‘세계 4대 해전’ 논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세계 4대 해전’의 공식적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세계 4대 해전’이 공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언급되어 왔으며, 그것을 통해 대중들 사이에 ‘세계 4대 해전’이란 것이 어떻게 공론화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언급들을 전후로 하여 인터넷 공간 속에서 어떻게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런 담론들이 오해와 부주의로 만들어진 허상임을 해외, 그리고 국내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밝히면서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2. ‘세계 4대 해전’의 공식적인 발자취

도서 : 『세계 4대 해전』

먼저 국내에 세계 4대 해전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로 접근해 볼 자료는 바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책이다.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구글 학술검색, RISS, KISS, DBPIA 등의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윤지강의 책, 『세계 4대 해전』(2007) 단 하나이다. 이 저서가 출판된 이후로 언론, 인터넷 자료들은 명확한 근거를 얻게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하고 해왔다.<sup>3)</sup> 이 책의 서문에서는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세계 4대 해전은 기원전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 1588년의 칼레 해전, 1592년의 한산도 해전, 1805년의 트라팔가르 해전 등을 말한다. 세계 3대 해전인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에 한산도 해전을 더한 것이다. 3대 해전과 4대 해전의 차이점을 언급한다면, 3대 해전은 해전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축을 마련한 전투이고 4대 해전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중요한 전투를 말한다.<sup>4)</sup>

이는 독자들이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해 납득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설명이다.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3대 해전과 4대 해전의 차이는 단 하나, ‘한산도 해전’ 뿐이다. 그렇다면 한산도 해전을 저자가

3) 『세계 4대 해전』이 출간되기 전까지는 국내의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이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언급할 때 레판토, 미드웨이, 쓰시마 해전 등 다양한 해전들을 거론하였으나, 이 책이 출판된 이후로는 살라미스, 칼레, 한산도, 트라팔가 해전으로 고착화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이 4개의 해전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4) 윤지강, 『세계 4대 해전』, 고양: 느낌이 있는 책, 2007, 16쪽.

말하는 것처럼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중요한 전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분명 임진왜란 시 벌어진 한산도 해전이 우리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다. 더군다나 수천 년의 세계사 속에서 4개의 대(大)해전을 뽑는데 고작 4년 밖에 차이나지 않는 1588년과 1592년의 해전을 동시에 뽑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저자 윤지강은 왜 이런 서술을 하게 되었을까? 서문을 더 읽어보면 저자는 그에 대한 실마리를 남기면서 이 책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필자가 역사학자나 군사 전문가가 아닌 탓에 치밀한 역사적 분석이나 군사적 탐색은 뒤로 미루었다. 다만 일반 독자들에게 4대 해전이 전쟁의 국면에 끼친 영향과 해전의 운용, 세계 역사에 끼친 의의를 정리해 보여주려는 의도로 집필되었다. (...) 마지막으로 4대 해전이라는 좋은 아이টে임을 주신 강창용 사장님, (...)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sup>5)</sup>

여기서 저자 윤지강이 스스로 언급하는 것처럼 그는 역사학자거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윤지강은 역사소설을 주로 쓰는 소설가이며,<sup>6)</sup> 이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 또한 ‘세계 4대 해전’의 근거나 역사적 연원에 대한 분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판사의 권유로 인한 것이었다.<sup>7)</sup> 그리고 이 책에는 서술 내용에 전반적으로 주석이 달려있지 않으며, 글을 쓸 때 참고한 참고문헌 역시 전문 역사서술을 위한 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서적들도 실려 있다. 때문에 이 책을

5) 윤지강, 『세계 4대 해전』, 16~17쪽.

6) 때문에 이 책의 구성이나 서술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역사 내용을 전달하려는 소설가로서의 의도는 충분히 반영되었으나, 전문 역사가의 서술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7)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 윤지강에게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해 직접 문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받은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근거는 여러 포털사이트의 웹문서 및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세계 4대 해전’ 관련 짧은 글이었다.

‘세계 4대 해전’의 공신력 있는 근거로 평가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점이 있다.<sup>8)</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 다음에 실린 추천사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세계 4대 해전’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글을 실으면서 어느새 이 책이 마치 역사적 근거가 있는 학술서적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sup>9)</sup>

### 팩션(faction)으로서의 드라마와 공공 기관의 이순신 관련 언급

『세계 4대 해전』이 학술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는 대체 어느 곳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 출판사 측에서는 분명 『세계 4대 해전』의 초판 발행일인 2007년 5월 15일보다 더 이전의 어느 시기에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자 윤지강에게 아이টেماً로 건네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계기나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흥미롭게도 『세계 4대 해전』의 초판이 발행되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2년 전인 2005년 5월 15일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sup>10)</sup>의 74부가 방송되었다. 그 74부는 한산도 해전을 다룬 편으로서, 드라마 내에서 한산도 해전이 승리로 끝나고 난 뒤 기쁨에 찬 병사들의 환호성과 함께 해설자의 내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흘러나온다.

8) 윤지강, 『세계 4대 해전』, 394~399쪽.

9) 이 책에 실린 3개의 추천사들은 모두 저자 윤지강의 역사적 통찰력을 칭찬하며 이 책이 ‘세계 4대 해전’을 일반인에게 상기시킨다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사를 써준 3명의 ‘전문가’는 모두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다. 박환수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교수는 국방전략, 정병웅 이순신연구소장은 관광경영학, 최영호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국문학 전공자이다. 윤지강, 『세계 4대 해전』, 18~22쪽.

10) <불멸의 이순신>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방영된, 시청률 30%가 넘는 인기 드라마였다.

한산해전, 이것은 세계 4대 해전의 하나로 기록될 만큼 역사에 길이 남을 장쾌한 대첩이었다. 이날 분명한 왜선의 수는 모두 59척, 물리친 적의 수는 모두 8,980명에 이른다.<sup>11)</sup>

이처럼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평균 시청률이 30%가 넘는 인기 드라마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했다는 것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그것의 존재를 믿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역사를 소재로 한 픽션(faction)<sup>12)</sup>으로서의 드라마와 영화가 갖는 한계점이다. 이처럼 드라마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공식화된 ‘세계 4대 해전’은 출판사에서 이순신의 열풍을 이용해서 출판을 계획하고자 했을 때 이순신의 위상을 높이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더없이 좋은 소재였을 것이다.<sup>13)</sup>

하지만 여기서 남는 의문은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고증 작업, 사전 조사 및 검증을 거쳤을 것인데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드라마 속 전투 장면도 아닌 해설자의 내레이션 부분에서 ‘세계 4대 해전’을 언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추적하기 위해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가 제작되기 이전의 ‘세계 4대 해전’ 관련 언급을 조사해보면 바로

11) KBS홈페이지, 불멸의 이순신 74부 방송영상(방영시간 : 21분 37초~57초) 및 대본(URL: [http://www.kbs.co.kr/drama/leesoons shin/view/vod/1351760\\_11955.html](http://www.kbs.co.kr/drama/leesoons shin/view/vod/1351760_11955.html))을 참조.

12) 픽션(faction)이란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서 역사를 소재로 상상력을 가미한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픽션과 역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기봉, 「픽션(faction)으로서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제63집, 부산경남사학회, 2007, 1~21쪽을 참조.

13) 실제로 이 방송 이후 윤지강의 『세계 4대 해전』이 출판되기 이전에도 여러 언론 자료나 잡지에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특히 전쟁기념관의 학예연구관 박재광의 「세계 해전술의 흐름 바꾼 최무선의 함포」라는 글에서는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언급된다. 박재광, 「세계 해전술의 흐름 바꾼 최무선의 함포」, 『과학과 기술』, Vol. 39, No.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6, 49쪽.

충남 아산시에서 주최하여 매년 열리는 <성웅 이순신 축제>라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아산시에서 주최하는 <성웅 이순신 축제>는 1961년부터 개최된 ‘온양문화제’를 근간으로 하는 오랜 전통의 지역 축제이다. 온양문화제는 2002년 이전까지는 지역축제로 치러졌으나 2002년과 2003년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사업>에서 ‘예비축제’로 선정되면서<sup>14)</sup>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만약 아산시에서 이 축제를 더욱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 정부로부터 정식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는다면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한 이유였는지 모르겠으나 아산의 온양문화제는 2004년부터 ‘성웅 이순신 축제’로 그 이름을 바꾸었고, 전사행사를 더욱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세계 해전사 전시관’을 신설하여 배치하게 되었다.<sup>15)</sup> 그리고 그 세계 해전사 전시관에는 ‘세계의 3대 해전 명장’과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대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출간한 『지방행정』 53권 606호(2004)에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2004년의 제43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에 대한 후기가 아래와 같이 실려 있다.

안내소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축제장에 들어서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맹활약을 하였던 주요 해전을 중심으로 한 해전탐구관과 세계의 3대 해전 명장으로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을 포함한 영국의 벨슨 제독과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를 서로 비교하면서 전시하는 명장비교를 볼 수 있다. 또한 세계 4대 해전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산대첩, 살라미스해전, 칼레해전,

14) 1996년부터 정부는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1,000여개에 달하는 지역 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2004년 당시 문화관광부)는 축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정병용,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의 행사평가: 문화관광축제 지정 이전과 이후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Vol. 4, No. 1, 순천향대학교이순신연구소, 2005, 406쪽.

15) 정병용,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의 행사평가」, 416~417쪽.

트라팔가 해전을 비교 전시하여 한산대첩의 우월성을 부각시킨 세계해전사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받게 된다.<sup>16)</sup>

이와 같이 아산시에서 야심차게 신설했던 세계 해전사 전시관에서는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세계 3대 해전 명장, 그리고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 지역의 이름을 걸고 치러지는 공식적인 축제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버젓이 언급되면서,<sup>17)</sup>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sup>18)</sup> 또는 그 축제를 다루는 주요 언론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sup>19)</sup> 국내의 모든 언론자료에서 ‘세계 4대 해전’을 검색했을 때 그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 모두 ‘2004년의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로 수렴된다는 점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식적인 발자취를 남긴 ‘세계 4대 해전’은 이후 많은 학술 세미나, 지역 행사자료, 공공기관의 언론 보도 자료의 힘을 입어 2016년 현재에는 국내 전반에 퍼져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 4대 해전’이라는 것은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16)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운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느끼고 체험하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지방행정』 53권 606호, 2004, 92~93쪽.

17) 이는 아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남 통영시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영시는 2004년부터 한산대첩을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한다는 제목으로 세계 4대 해전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산대첩,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개발」, 2004. 5. 3

18) 경남도청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이순신 홍보 사이트인 「임진왜란 불패신화 충무공 이순신」에 [해전체험관-해전사박물관] 메뉴에 들어가면 세계 4대 해전을 당당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명량해전’을 세계 4대 해전으로 포함시키면서 ‘명량대첩 현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경남도청, 「임진왜란 불패신화 충무공 이순신」(접속일: 2016. 4. 30. 14:00, URL: [http://www.yi-sunsin.com/02battle/06\\_01\\_01.jsp](http://www.yi-sunsin.com/02battle/06_01_01.jsp)); 연합뉴스, 「명량대첩 현장사업의 본질을 더 이상 왜곡말기를-전라남도청 보도자료」, 2006. 9. 6.

19) 문화일보, 「4개 테마로 나눠 전시·체험기회 등 풍성 -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24일부터」, 2004. 4. 8; 경향신문, 「볼거리 많은 역사여행... ‘아산 이순신축제’와 ‘여수 진남제」, 2004. 4. 13; 세계일보, 「“한산해전”은 민족사의 긍지」, 2004. 8. 11.

발자취를 남기기 이전 ‘세계 4대 해전’은 대체 어디서부터 등장하게 된 것일까?

### 3. 인터넷 공간 속 ‘세계 4대 해전’ 담론

사실 국내에는 윤지강의 『세계 4대 해전』이 출판되었던 2007년 이전에, 심지어는 <불멸의 이순신>이 방영되고 아산시에서 <성웅 이순신 축제>에 세계 해전사 전시관을 신설했던 2004년보다 더 이전부터 이미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된 논의가 비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또 하나의 담론처럼 형성되었던 상황들을 살펴 보기 위해 <네이버 지식in>의 질문과 답변 사례, 그리고 인터넷상의 여러 게시글을 일종의 사료로 보고 그것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네이버 지식in>의 질문 및 답변을 사료로 택하고자 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의 인지도와 규모이다. <네이버 지식in>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2002년 10월 7일부터 시작한 지식 교류 서비스로서, 2012년 9월 네이버에서 1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자료에는 이미 여기서 1억 개 이상의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음을 밝히고 있다.<sup>20)</sup> 또한 2016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여론영향력 점유율 뉴스이용창구 기준’ 1위이자, 국내의 포털사이트들 중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자체의 인지도를 고려하였을 때 그 영향력 및 파급력은 막강할 것으로 판단

20) 2016년 현재에는 2억 개 이상의 답변이 이뤄질 정도로 수많은 답변이 오고가는 공간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in 메인페이지」, (접속일: 2016. 4. 17. 12:45, URL: <http://kin.naver.com/index.nhn>); 네이버, 「10주년 기념 공지글」, (접속일: 2016. 4. 17. 13:00, URL: <http://kin.naver.com/event/kin10th.nhn>).

된다. 또한 그 지식 교류의 방식이 네이버를 사용하는 익명의 사용자가 질문을 올리면 여러 명의 익명의 사용자가 답변을 올린 후 질문자가 가장 적합한 답변을 채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토론 및 논쟁이 이뤄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왔다는 점도 흥미롭다.<sup>21)</sup> 결론적으로 <네이버 지식in>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익명의 사용자가 어떠한 주제의 질문이나 답변도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토론이 오가는 ‘인터넷 토론장’이 되어왔던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된 주제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던 <네이버 지식in>의 공간을 하나의 공론장<sup>22)</sup>으로 보고 그 속에서 ‘세계 4대 해전’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 1월 14일에 게시된 익명의 사용자의 ‘질문’이다. 이 게시글은 필자가 <네이버 지식in>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세계 4대 해전’이 언급된 게시글을 검색했을 때 가장 초창기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질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아직 인터넷상에서 ‘세계 4대 해전’ 관련 논쟁이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질문자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목: 세계 4대 해전이란 게 무엇, 무엇인가요?

질문 내용: 세계에 유명한 4대 해전이 있다던데 무엇,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sup>23)</sup>

21) 네이버, 「10주년 기념 공지글」

22) 여기서 말하는 ‘공론장’이라는 것은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영역으로서 공중이 스스로를 여론의 담지자로 조직해 나가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오늘날의 중요한 공론장으로 적시하고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대한 연구』, 서울: 나남, 2001; 박홍원,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언론과 사회』 제20권 4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12, 179-229쪽 참조.



〈네이버 지식in〉에서 이 질문이 이뤄지고 나서 곧 여러 개의 답변이 댓글로 달렸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자가 답변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질문자가 두 종류의 답변을 채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sup>24)</sup> 최종적으로 채택했던 답변이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해전’으로 알고 있는 4개의 해전(살라미스, 칼레, 한산, 트라팔가 해전)이 아닌 다른 4개의 해전(악티움, 레판토, 트라팔가, 유틀란트 해전)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3년 1월까지의 아직 ‘세계 4대 해전’ 담론이 지금처럼 고착화되지는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2003년 1월 27일에 다시 한 번 유사한 질문이 등장한다.

제 목: 세계 3대 해전은 무엇이 있죠?

질문 내용: 전에 누가 트라팔가 해전이 세계 3대 해전이라는데, 그 외에 무엇이 있죠? 그리고 벨슨 제독이나 일본의 해군 제독이 이순신 장군 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제일의 해군 제독이라고 했다던데 이것 역시 사실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sup>25)</sup>

이 질문에서는 ‘4대 해전’이 아닌 ‘3대 해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채택된 답변은 많은 양의 정보와 함께

23) 질문자(xcan\*\*\*\*), 「세계 4대 해전이란 게 무엇, 무엇인가요?」, 『네이버 지식in』, (작성일: 2003. 1. 14. 20:47, 접속일 : 2016. 6. 11. 14:00, URL: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54820286&sp=109&sort=3&rank=2&search\\_sort=0&qb=7IS46rOEIDTrjIAg7ZW07KCE&section=kin&spq=0&enc=utf8](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54820286&sp=109&sort=3&rank=2&search_sort=0&qb=7IS46rOEIDTrjIAg7ZW07KCE&section=kin&spq=0&enc=utf8))

24) 그 중 첫 번째 답변자(spor\*\*\*\*\*)는 ‘악티움, 레판토, 트라팔가, 유틀란트 해전’을 답변했고, 두 번째 답변자(san\*\*\*\*\*)는 우리가 앞서 윤지강의 『세계 4대 해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살라미스, 칼레, 한산, 트라팔가 해전’과 관련된 답변을 제공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질문자가 첫 번째 답변(악티움, 레판토, 트라팔가, 유틀란트 해전)을 최종 답변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25) 질문자(xcan\*\*\*\*), 「세계 3대 해전은 무엇이 있죠?」, 『네이버 지식in』, (작성일: 2003. 1. 27. 15:29, 접속일 : 2016. 6. 11. 14:30, URL: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62200297&sp=109&sort=3&rank=2&search\\_sort=0&qb=7IS46rOEIDTrjIAg7ZW07KCE&spq=0&section=kin&enc=utf8](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62200297&sp=109&sort=3&rank=2&search_sort=0&qb=7IS46rOEIDTrjIAg7ZW07KCE&spq=0&section=kin&enc=utf8))

다음과 같은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다.

답변 : 세계 4대 해전이라는 것이 있구요.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에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계 4대 해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물론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장군의 승리가 넷 중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sup>26)</sup>

이 답변에서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이라는 문구는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질문에서 채택되지 못한 답변에도 이미 한 번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 답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해전들이 바로 우리가 ‘세계 4대 해전’의 공식적 발자취를 짚어볼 때 살펴볼 수 있었던 ‘살라미스, 칼레, 한산, 트라팔가 해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과 답변을 기점으로 인터넷상의 익명의 비전문가들은 마치 소위 말하는 ‘편승효과(Bandwagon effect)’처럼 서로의 글을 인용하며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이 4개의 해전을 ‘세계 4대 해전’으로 선정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이 답변이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네이버 지식in>에서는 100여개에 달하는 ‘세계 4대 해전’ 관련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는데, 그 답변의 거의 대부분은 위에서 이뤄진 답변을 답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몇몇 게시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해군사관학교와 해외의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과연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세계 4대 해전’을 선정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의 진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밝히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주장이 처음 등장하고 전파되는 시점과 그 과정에 대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26) 답변자(pan\*\*\*\*), 「답변: 세계 3대 해전은 무엇이 있죠?」, 『네이버 지식in』, 작성일: 2003. 2. 11. 20:31.

답론 형성과 관련지어 좀 더 이야기해볼 수 있다. 앞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이라는 문구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더 검색하면 ‘지식거래 플랫폼’이라고 칭하는 인터넷 사이트 <해피캠퍼스(Happycampus)>에 2002년 10월 19일 등록된 자료, ‘역사[거북선]’이라는 자료와 연결된다. 그리고 그 자료의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문 내용 요약 문구는 다음과 같다.

1998년 11월 19일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제독(李舜臣提督; 1545.3.8. - 1598.11.19)이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 전투 중에 54세를 일기로 순국하신지 4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에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세계 4대 해전(世界四大海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 B.C. 480년 그리스의 데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 제독의 살라미스(Salamis)해전
- 1588년 영국 하워드(Howard) 제독의 칼레(Calais) 해전
- 1592년 거북선을 앞세워 승리를 거둔 이순신(李舜臣) 제독의 한산대첩(閑山大捷)
- 1805년 영국 넬슨(Nelson) 제독의 트라팔가(Trapalgar) 해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순신 제독의 승리는 가장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07년 막강한 러시아 극동함대(露西亞 極東艦隊)와 싸워 이김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의 아마토 제독(大和提督)은 주위에서 그를 이순신 제독과 같은 위인이라고 칭송하자 이에 “나의 공로를 영국의 넬슨 제독에 비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순신 제독의 업적에는 따라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sup>27)</sup>

위의 글은 처음 <해피캠퍼스>에 등록된 2002년 이후 <네이버 지식in>을 비롯하여 각종 웹사이트들에 그대로 인용되며 ‘세계 4대 해전’의 존재와 그것을 세계의 해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

27) 등록자 미상, 「[역사]거북선」, 『해피캠퍼스』 (접속일: 2016. 4. 18. 15:00, URL: <http://www.happycampus.com/doc/1135503>)

하는 여러 게시글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 자료의 신빙성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먼저 여기서 1588년의 영국의 하워드(Howard) 제독이 참전한 영국과 스페인 간의 해전을 ‘칼레 해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의 해전 전반을 호칭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 선택이다.<sup>28)</sup> 또한 “1907년 막강한 러시아 극동함대와 싸워 이긴 일본의 야마토 제독”이라는 표현도 오류이다. 이는 1905년 쓰시마 해전(Battle of Tsushima)에서 승리한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을 설명하고자 한 듯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료에는 ‘트라팔가(Trafalgar)’의 영문 철자 오류나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의 외래어 표기 오류와 같은 전문적인 글로 보기에는 힘든 오류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인용문은 신빙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 자료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글의 내용과 철자 오류까지 그대로 인용되어 ‘세계 4대 해전’의 근거로서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점점 더 살을 덧붙여가면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책을 근거로 들며 ‘세계 4대 해전’을 주장하는 허구적인 답변까지 양산하게 된다.<sup>29)</sup> 이런 글들은 <네이버

28) 여기서 언급된 1588년의 영국과 스페인 간의 해전은 영국 해협, 칼레(Calais) 앞 바다, 그라블린(Gravelines) 앞바다 이렇게 3개의 전장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칼레 해전이라고 통칭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해외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 해전을 ‘아르마다 전역’ 혹은 ‘아르마다 해전’이라고 부르거나 ‘영국과 스페인 간의 전투’ 등으로 언급한다. 아르마다 해전의 권위자인 개릿 매팅리(Garrett Mattingly)는 스페인 함대의 패배(the defeat of the Spanish Armada) 혹은 아르마다 전역(the Armada Campaig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Garrett Mattingly, *The Armada* (New York: Houghton Mifflin, 2005, First printed in 1959) [개릿 매팅리 지음, 콜린 박·지소철 옮김, 『아르마다』, 서울: 너머북스, 2012]를 참조.

29) 실제로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질문에 많은 수의 답변을 남긴 ‘heli\*\*\*\*\*’이라는 답변자는 *History of War and Strategy*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책을 언급하면서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 답변자는 이 책이 1982년 랜덤하우스(Randomhouse)에서 발행되었다고 하지만 이 책은 구글 북스(Google Books), 아마존(Amazon), 애비북스(Abebooks), 그리고 랜덤하우스 홈페이지까지 모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책이다. 그리고 이 답변자는 답변 속에서 이 책이

지식in)에서 부여하는 지식의 등급체계에 가려져 마치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지속적으로 인용되어 인터넷 공간 속에서 하나의 담론을 형성해갔던 것이다.<sup>30)</sup>

한편 이런 담론의 형성은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그러한 내용을 배웠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에 의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 누리꾼의 글이 처음 실린 곳은 <영화진흥공화국>이라는 영화 정보 커뮤니티로서, 이곳은 『PC사랑』이라는 컴퓨터 잡지에 영화 관련 우수 블로그로도 여러 차례 선정된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실린 ‘세계 4대 해전’ 관련 글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과 함께 ‘세계 4대 해전’이 “해전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의 주장 중 하나일 뿐이며,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나름의 균형 잡힌 서술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이 글은 많은 누리꾼들에게 더욱 신빙성 있게 다가갔으며 현재 수많은 웹사이트 및 블로그들에 인용되어 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982년’에 발행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1963년’부터 영국과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교재로 쓰였다고 하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답변자는 <네이버 지식in>의 등급체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수호신’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차례 오류가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많은 누리꾼들에게 비판도 받고 있다. 이는 답변의 질과 관계없이 개수만 많이 채택되면 높은 계급을 부여하는 <네이버 지식in> 등급 체계의 아쉬움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답변자(heli\*\*\*\*\*), 「답변」, 『네이버 지식in』, 2011. 12. 28. (접속일: 2016. 4. 16. 15:00, URL: [http://kin.naver.com/qna/detail.nhn?dclid=11&dirId=111002&docId=142397933&qb=71S46rOEIDTrjIAg7ZW07KCE7J20652864qUIOqyg+ydgCA7ZW07KCE7IKsJ+ulvCDsl7DqtaztlZjripQg6rWQ7TiY65Ok7J2YIOyvjvOyepSDspJHsl5Ag7ZWY64KY7J6F64ul64ukLg==&enc=utf8&section=kin&rank=5&search\\_sort=0&spq=0](http://kin.naver.com/qna/detail.nhn?dclid=11&dirId=111002&docId=142397933&qb=71S46rOEIDTrjIAg7ZW07KCE7J20652864qUIOqyg+ydgCA7ZW07KCE7IKsJ+ulvCDsl7DqtaztlZjripQg6rWQ7TiY65Ok7J2YIOyvjvOyepSDspJHsl5Ag7ZWY64KY7J6F64ul64ukLg==&enc=utf8&section=kin&rank=5&search_sort=0&spq=0))

- 30) <네이버 지식in>은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답변 채택 시 ‘내공’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일정 내공 충족 시 다음 계급으로 승급을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영웅’ 단계부터 ‘절대신’과 같은 높은 계급을 얻은 답변자들의 답변은 실제 답변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질문자에게 신뢰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네이버 지식in>의 질문-답변 체계가 갖는 맹점이다. 네이퍼, 「등급업 가이드」 (접속일: 2016. 4. 16. 16:00, URL: <http://kin.naver.com/people/levelup/index.nhn>)

‘이순신 제독의 한산대첩’이 4대 해전에 들어가느냐? 라는 의문이 많나 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건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에서 과연 저런 것을 배우는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이 한국이라는 곳이라서, 한국의 전신인 ‘조선’의 장수에 대한 승전이야기라서, 부풀려지고 곡해된 것은 아니냐? 라는 의문인 것이죠. (...)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키 위해서는 ‘사관학교’의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관학교는 ‘교육’에 관해서는 ‘대학’과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저는 ‘군사전략학과’였습지요. 찾아보니 전기, 정보통신공학, 기계조선, 경영과학, 해양학, 전산과학, 국제관계학, 군사전략학, 외국어학이 전공으로 존재합니다. 허나 전공이 다르더라도 ‘해전사’는 공통필수 과목입니다. (...)

마찬가지로 ‘세계 4대 해전’이라는 것은 ‘해전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세계 3대 해전’을 배우는 국가도 있고, 영국과 독일,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세계 4대 해전’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엔 제가 알기로 가르치는 교수마다 ‘다르게 가르칩니다.’<sup>31)</sup>

이 글은 ‘세계 4대 해전’에 한산해전이 포함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해전사 속에 의미 있는 해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맺으며 사람들이 더 이상 그에 대해 논쟁을 펼치지 않기를 바라는 어조로 쓰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글을 다시 인용한 다른 수많은 블로그 및 웹사이트들에서는 “세계의 해군사관학교와 우리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 4대 해전을 가르친다”라는 주장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의 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글을 쓴 누리꾼이 정말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의 해전사 수업에서 ‘세계 4대 해전’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지가

31) 「세계 4대 해전? 한국이라서 꼬인 이순신 이야기」, 2008. 1. 6. (접속일: 2016. 4. 16. 16:30, URL: <http://0jin0.com/1186>)

의문이다. 이 글을 쓴 누리꾼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1999년에 제57기 해군사관생도로 입교하였다가 도중에 중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누리꾼은 해군사관학교의 전체 수업과정을 다 이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누리꾼이 재학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해군사관학교 수업과정을 확인했을 때, 당시 공통필수 과목이었던 해전사 수업은 오직 4학년에만 편성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누리꾼은 해군사관학교의 정식 해전사 수업은 받지 않은 채로 중퇴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가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수업은 2학년 수업에 편성되어 있던 ‘충무공/장보고 연구’ 과목으로서, 그 수업은 해군사관학교 해전사 교수가 아닌 이순신에 대해 연구하던 한 강사가 진행한 수업이었다. 이 수업에서 그 강사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군사관학교의 정식 해전사 수업에서는 ‘세계 4대 해전’을 별도로 선정하여 가르친 바가 없다. 이는 20년 전에도 그랬고,<sup>32)</sup>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해외의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세계 4대 해전’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도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필자는 미국 해사, 프랑스 해사, 독일 해사, 일본 방위대에 파견되어<sup>33)</sup> 2~4년 동안 위탁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각각의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전사 시간에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지를 문의했다.<sup>34)</sup> 그러나 그 4개의 사관

32) 해군사관학교에서 20년간 해전사를 가르치시던 교수님께 ‘세계 4대 해전’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지금껏 강의와 연구를 해오면서 그런 용어를 얘기하는 해전사 연구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33)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는 1966년부터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2001), 프랑스(2007), 독일(2007)까지 추가하여 총 4개의 학교에 사관생도를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 이 위탁 교육은 매년 대상자를 선발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미 해사의 경우에는 1966년에 1명, 1986년 이후부터 4년에 2~3명씩, 다른 사관학교의 경우 2년에 1명씩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70년사』, 대전: 국군인쇄창, 2016, 332쪽.

34) 인터뷰에 응해준 유진홍 해군 대위(진), 이성복 생도(미 해사), 허은석 해군 대위

학교 졸업생들은 모두 해전사 수업 시간에 별도로 ‘세계 4대 해전’을 배운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임진왜란 시 한반도에서 벌어진 해전에 대해 배운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영국의 해군사관학교 격인 다트머스(Dartmouth)의 왕립 해군 대학(Britannia Royal Naval College)에 방문한 한국 해사 생도들을 통해 영국의 생도들 및 장교, 교수들에게 4대 해전에 관련해서 문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왕립 해군 대학 관계자들은 주요 해전 4개를 뽑아서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런 용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sup>35)</sup>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및 세계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세계 4대 해전’을 뽑아서 가르친다는 주장 역시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sup>36)</sup>



#### 4. ‘세계 4대 해전’의 허상과 진실

##### 해외의 ‘세계 4대 해전’?

해외의 사관학교에서 ‘세계 4대 해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과연 해외의 학술자료들은 어떨까? 먼저 여기서 명확히 하고 가야할 부분은 1900년대 초부터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 조지 밸러드(George A. Ballard), 호러스 언더

(프랑스 해사), 배준호 해군 중위(독일 해사), 노준식 해군 대위(진)(일본 방위대)에게 감사를 표한다. (인터뷰 일자: 2016. 4. 14.)

35) 이 인터뷰는 영국 왕립해군대학의 생도들에게 학년별로 3명씩, 장교 및 교수들에게 실시하였다. (인터뷰 실시자: 김준범 해병 중위(진)(인터뷰 당시 3학년 생도), 인터뷰 일자 : 2014. 11. 22~23.)

36) 물론 이 4개의 외국 사관학교에는 해전사를 가르치는 다양한 교수진이 있을 것이므로 수업 내용에 대해 완벽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업 내용이 아니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우드(Horace. H. Underwood) 등의 인물들이 논문이나 책을 저술하여 해외에 ‘이순신’과 ‘한산도 해전’을 알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sup>37)</sup>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해외의 많은 학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또 세계 해전사의 흐름을 정리할 때 이순신과 한산도 해전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sup>38)</sup> 하지만 이 사실이 한산도 해전이 ‘세계 4대 해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해 해외 전반의 자료를 검토하면 좋겠지만,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된 인터넷상의 ‘세계 4대 해전’ 담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국과 미국, 이 두 나라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서 해외에서 언급하는 ‘주요 해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영국의 대표적인 전쟁사학자이자 영국 샌트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Royal Military College, Sandhurst)에서 26년간 전쟁사 교수로 재직한 존 키건(John Keegan)은 『제해권의 가치: 해전의 진화』(*The Price of Admiralty: The Evolution of Naval Warfare*)라는 책에서 4개의 해전을 선정하여 역사 속 해전 흐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4개의 해전에는 한산도 해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살라미스 해전과 아르마다 해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그는 트라팔가 해전(the Battle of Trafalgar), 유틀란트 해전(the Battle of Jutland), 미드웨이 해전

37) 호머 힐버트(Homer B. Hulbert),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 조지 벨러드(George A. Ballard) 등의 학자들이 남긴 이순신 관련 기록들과 초창기 이순신의 해외 전과 과정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차후 연구에서 더욱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38) R. G. Grant, *Battle at Sea: 3000 Years of Naval Warfare* (New York: DK, 2008)이나 Iain Dickie, Martin J. Dougherty, Phyllis J. Jestice, Christer Jörgensen, Rob S. Rice, *Fighting Techniques of Naval Warfare*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9)와 같은 해외의 도서들은 저자가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산도 해전을 세계 해전사 속 주요 해전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순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책들도 ‘세계 4대 해전’과 같은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the Battle of Midway), 그리고 독일의 잠수함이 활약했던 대서양 전투(the Battle of the Atlantic)를 해전사 흐름의 분기점으로 삼아 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sup>39)</sup> 물론 여기에서도 키건은 이 4개의 해전을 역사 흐름의 분기점(landmark)라고만 언급할 뿐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언급은 꺼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에도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전사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포터(E. B. Porter)의 『해양력: 해전사』(*Sea Power: A Naval History*)는 갤리(Galley) 함선이 활약하던 시대부터 냉전 시대까지 이뤄진 다양한 해전 및 해양사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초기 해전사 부분에 살라미스 해전, 악티움 해전, 레판토 해전, 아르마다 해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한산도 해전은 다루고 있지 않다.<sup>40)</sup>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 외에도 영·미의 학자들이 소수의 주요 해전을 나열할 때 한산도 해전을 포함하는 경우는 아쉽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해외의 웹사이트나 블로그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해외의 많은 블로그 및 웹사이트들에는 우리나라의 누리꾼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세계의 유명한 해전들을 자신들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해전사의 흐름을 짚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4대 해전’이라고 언급하며 해전을 4개만 선정하여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그들은 5개, 10개, 11개, 12개, 심지어는 35개에 이르는 유명한 해전을 선정하여 다루고 있을 뿐이다.<sup>41)</sup>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39) John Keegan, *The Price of Admiralty: The Evolution of Naval Warfare* (New York: Penguin, 1990)을 참조.

40) E. B. Porter, *Sea Power: A Naval Histor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1)를 참조.

41) 「Top 5 Naval Battles of All Tim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4:00, <http://nationalinterest.org/commentary/top-five-naval-battles-all-time-9187?page=2>); 「The 10 Most Decisive Naval Battl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4:15, URL: <http://sl.zetaboards.com/chumsofthedark/topic/4585846/1/>); 「10 Battles That Turned the Tide of War」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4:30, URL:

역시 한산도 해전은 대부분 빠져있다. 즉, 한산도 해전은 해외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포괄적인 해양의 역사 또는 해전사의 흐름을 다루고자 할 때 포함되기는 하지만, 전체 역사에서 주요 해전들을 선정하여 다룰 때 반드시 포함되는 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 중심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적인 기준이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 다만, 해외에서 ‘세계 4대 해전’을 언급하는 경우는 없으며, 주요 해전을 선정할 때 한산도 해전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 오역과 오해, 그리고 부주의가 만든 해프닝

그렇다면 해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4대 해전’이 국내에서 근거 없는 논쟁과 함께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4대 해전’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언급된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해피캠퍼스>의 「[역사]거북선」이라는 자료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의 본문 요약 문구 중 첫 번째 문장의 ‘1998년 11월 19일이 충무공 순국 400주년’이라는 부분에 주목해보자. 이 문장은 「[역사]거북선」 자료의 본문 요약뿐만 아니라 실제 자료의 본문에도 첫 문장으로 그대로 삼입되어 있는 문구이다. 이는 이 자료가 1998년 충무공 순국 400주년을 기념한 어떤 학술행사에서 활용되었거나, 혹은 그 행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 작성되

---

<http://listverse.com/2010/03/12/10-battles-that-turned-the-tide-of-war/>; 「11 Top Naval Battl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4:45, <https://usnaorbust.wordpress.com/2009/12/10/eleven-top-naval-battles/>); 「35 Most Important Naval Battl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5:00, URL: <https://www.preceden.com/timelines/174154-35-most-important-naval-battles/>); 「Greatest Naval Battles」 (접속일: 2016년 4월 23일 15:15, URL: <http://historum.com/war-military-history/14478-greatest-naval-battles.html>) 등을 참조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1998년에는 정부 주관의 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이충무공의 삶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sup>42)</sup>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앞서 본고의 <각주 1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 『과학과 기술』이라는 저널에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했던<sup>43)</sup> 전쟁기념관의 박재광 학예연구관이 1998년 당시에도 전쟁기념관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sup>44)</sup> 박재광 학예연구관은 임진왜란과 조선 수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인물로서 1998년의 이충무공 관련 학술세미나에도 당연히 참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그 학술세미나에서 ‘세계 4대 해전’을 직접 언급했던 것일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학술세미나는 1998년 12월 3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장장 9시간 넘게 진행되는데, 이때 발표된 자료들은 모두 『임진왜란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 이순신장군 순국 400주년 기념 학술회의 : 1598~1998』라는 학회논문집에 실려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 논문집에는 분명 박재광의 논문은 없다. 그렇다면 이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누군가의 논문으로부터 박재광이 영향을 받는 않았을까? 이 지점에서 다시 시간을 2010년으로 옮겨 박재광이 아산시 온양에서 열린 제12회 <충무공 이순신 학술세미나>에 발표 중에 했던 언급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재광은 여기서 「거북선 구조의 제(諸)학설」이라는 발표를 하며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박재광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은 “근대 이후로 이순신과 거북선에 대하여 가장 먼저 논문을 발표한 이는 외국학자인 언더우드(Underwood)라고 말하고 『한국의 배와 함정들』(Korean Boats and Ships)의 제6장에서 임진왜란

42) 연합뉴스, 「李충무공 순국 4백주년 맞아 행사 다채」, 1998. 4. 22.

43) 박재광, 「세계 해전술의 흐름 바꾼 최무선의 함포」, 49쪽.

44) 한겨레, 「애국심에 일그러진 한-일사 진실」, 1998. 3. 3.

에서 이순신장군의 활약부터 거북선에 대한 고증, 이순신 장군과 영국 드레이크 제독과의 비교, 이순신장군의 인격까지 서술했다.”면서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부터이며 최영희, 조성도, 김재근, 최석남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했다.<sup>45)</sup>

여기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박재광은 조선 말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던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라는 인물의 저술과 최영희, 조성도, 김재근, 최석남이라는 4명의 학자의 초창기 연구에 깊은 감명 혹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46)</sup> 여기서 먼저 ‘최영희’라는 인물에 대해 주목해보자. 그는 앞서 언급된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의 논문은 학회논문집인 『임진왜란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에도 실려 있다. 그 내용에서 ‘세계 4대 해전’과 관련될 만한 내용을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

① 한산대첩은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포위하고 집중 포격하여 섬멸한 작전이었다. (...) 이에 대해 Ballard는 ‘적을 유인하여 포위하는 해군 함선의 기동은 오늘의 경험이 많은 해군 장교만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도 400년 전 이순신의 전략전술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또 ‘이 한산해전은 한국에 있어서의 살라미스해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침략군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라고도 평가된다.<sup>47)</sup>

② 또 영국의 해군준장 G.A. Ballard는 다음과 같이 이충무공을 찬양하고 있다. “이순신 제독은 서양 사학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그로 하여금 넉넉히 위대한 해군사령관 중에서도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게

45) 덕수이씨 정정공·풍암공 종회, 충무공파 종회, 「충무공 이순신 홈페이지」(집속일: 2016. 4. 24. 13:00, URL: [http://choongmoogongleesoonsin.co.kr/sub\\_10/noticev.asp?strpage=&boardidx=1095&boardtype=00](http://choongmoogongleesoonsin.co.kr/sub_10/noticev.asp?strpage=&boardidx=1095&boardtype=00))

46) 특히 박재광은 ‘세계 속의 이순신’과 관련된 서술에 있어서 최영희의 글과 유사한 서술을 보인다. 이상훈·노성호·박재광·최두환, 『충무공 이순신』,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256쪽.

47) 문화관광부·전쟁기념관, 『임진왜란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 이순신장군 순국 400주년 기념 학술회의 : 1598~1998』, 서울: 전쟁기념관, 1998, 10쪽.

하였다. (...) 그는 전투가 벌어지면 강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는 점에 있어서는 넬슨(Nelson)과 공통된 점이 있었다. 영국인으로서 넬슨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해군제독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란 항상 힘든 일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인정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이 위대한 동양의 해군사령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sup>48)</sup>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박재광이 초기 이순신 연구가로 인정한 최영희는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George Alexander Ballard)의 글을 인용하면서 ‘세계 속의 이순신’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었다. 최영희는 1998년 이전에도 유사한 서술을 남긴 적이 있는데 1993년 『한국인』에 기고한 「세계 해전사에 신화 낳은 명장 이순신」이라는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했다.

영국의 해군 준장이며 역사가인 벨러드는,<sup>49)</sup> 이순신은 전략적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고 전술의 비상한 기술과 통솔력을 겸비했으며, 어떤 전투에서도 그가 참가하기만 하면 승리는 항상 결정된 것과 같았다고 평가하며 장군의 위대한 전략 전술을 넬슨과 비교하고 있다.<sup>50)</sup>

만약 누군가가 이 서술들을 참고했다면 이순신의 해전을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영국의 넬슨(Nelson) 제독이 승리한 트라팔가 해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칼레 해전은 왜 등장하게 된 것일까?

48) 문화관광부·전쟁기념관, 『임진왜란과 이순신장군의 전략전술』, 21쪽.

49) 최영희는 벨러드를 해군 준장이라고 서술했는데, 사실은 최영희가 참고한 책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을 저술할 당시 벨러드의 계급은 중장(Vice-admiral)이었다. 또한 벨러드는 역사가보다는 전략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전역을 앞둔 시점부터 역사 저술을 시작했다. 석영달, 「1920년대 영국 해군 중장 조지 벨러드의 일본사 저서가 갖는 의미 -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1921)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34호, 영국사학회, 2015 참조.

50) 최영희, 「세계 해전사에 신화 낳은 명장 이순신」, 『한국인』, Vol. 12, No. 5, 사회발전연구소, 1993, 60쪽.

이는 앞서 언급된 조선 말 선교사 출신의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의 저술과 관계시켜 살펴볼 수 있다.

언더우드는 박재광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배와 함정들』(*Korean Boats and Ships*)이라는 책을 1933년 출판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 언더우드는 앞서 언급된 험버트나 밸러드와는 달리 이순신과 그의 해전을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와 ‘아르마다 해전(칼레 해전)’과 비교했다. 이는 지금껏 ‘세계 4대 해전’ 담론에서 왜 이순신의 해전과 함께 ‘살라미스, 칼레, 트라팔가 해전’이 언급되어 왔는지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 ‘세계 4대 해전’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근거는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최재수가 언더우드의 책의 6장을 번역한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재수의 글에서 〈세계사상 매우 중요한 해전〉이라는 소제목으로 향하면 다음과 같은 글을 만나게 된다.

**4대(大) 해전**은 사상 유래가 없는 큰 해전인 바, 부산 해전에서는 양측의 선박을 합쳐서 700여척이 동원되었으며, 기타 해전에서는 100~200척 또는 300척이 참전하였다. 이러한 대 해전 외에도 기록 안 된 많은 작은 해전들이 있었다. (주: 세계 최대의 해전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영국 간의 해전에 참가한 선박이 양측을 합해 400척이 못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1)</sup>

이 글 전체를 읽으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 언급되는 ‘4대(大) 해전’이 임진왜란 중 있었던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해전, 부산해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52)</sup> 이는 임진왜란 중 치러진 전투 중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을

51) 여기서 진한 글씨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며, 인용문 마지막에 표시된 ‘주’는 언더우드의 글을 번역한 최재수가 본문에 달아놓은 것이다. 참고로 영국-스페인 간의 해전을 ‘세계 최대의 해전’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Horace H. Underwood 지음, 최재수 옮김,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 『월간 해양한국』, Vol. 227,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2, 73쪽.

52) Horace H. Underwood, 최재수 옮김,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 73쪽.

‘3대 대첩’이라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4대 해전을 보고 <세계사상 매우 중요한 해전>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주’에 달린 세계 최대의 해전이라는 말과 엮어 ‘세계 4대 해전’이라는 문구를 떠올린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바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세계 4대 해전 담론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언더우드의 글을 최재수가 번역하여 출판한 이 1992년의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 이전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4대 해전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 더욱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이 글의 원저자 언더우드는 ‘4대 해전’이라는 용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53)</sup> 결국 ‘세계 4대 해전’ 논쟁은 해외자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과장과 그 글에 대한 오해, 혹은 전문가들의 부주의가 만들어낸 우리만의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던 것이다.

## 5. 나가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 3대 미항’ 등 ‘세계의 ~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들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며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데에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동의할만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의문과 함께 ‘세계 속의 이순신’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로서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해 고찰해보면서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의미 없는 논란들을 종식시키고자 했다.

53) 언더우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se four engagements were naval battles on no mean scale,” 이를 제대로 번역하면 “이 4개의 전투는 엄청난 규모의 해전이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 4대 해전’은 십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국내에서 하나의 담론처럼 점차 강화되어 왔지만 그 기반은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이자 영웅인 이순신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노력들과 사실 확인에 대한 부주의가 ‘세계 4대 해전’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우물 안’ 담론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편승효과(Bandwagon Effect)’와 같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익명의 비전문가들의 주장에 편승하여 어느새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국내 전반에 형성되어왔다.

우리가 해전사를 공부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해전을 짚어볼 수는 있다. 세계 해전사의 흐름을 논하다 보면 앞서 언급된 살라미스 해전, 아르마다 해전, 트라팔가 해전뿐만 아니라 악티움 해전, 레판토 해전, 쓰시마 해전, 유탄란트 해전, 미드웨이 해전 등의 수많은 주요 해전들을 관심 있게 다루게 된다. 게다가 여기에 언급한 해전들 외에도 여러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해전들은 분명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에 띄며,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 역시 역사적 가치나 해전사적 의의를 고려했을 때 이런 세계의 주요 해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들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역사를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sup>5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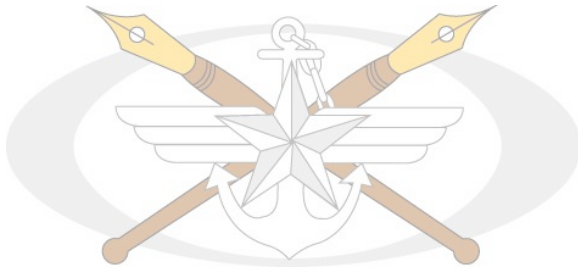
그리고 이 ‘세계 4대 해전’ 논쟁은 일반 대중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쉽게 말해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학문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남긴다. 그들이 대중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혹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훗날에는 어떤 공신력 있는 근거로 남을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인해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

54) 그리고 굳이 주요 해전들을 통칭하여 부르려고 했을 때에는 ‘~대 해전’보다는 ‘결정적 전투(decisive battle)’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지만 그만큼 더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글 한 줄, 말 한마디는 반드시 깊은 고민과 책임감과 함께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6.8.4, 심사수정일: 2016.11.17,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세계 4대 해전,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한산도 해전, 트라팔가 해전,  
이순신, 드레이크, 넬슨,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 호러스 언더우드



<ABSTRACT>

The Study on the basis of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 Focused on the process of forming of disputable discourse -

Seok, Yeong-Dal

This study aims to look at ‘Admiral Yi Sun-Shin’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and tries to figure out how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were formed and began to be used in Korea. For this purpose, I reviewed historical records as well as information on ‘Admiral Yi Sun-Shin’ introduced in the media and posted on the Internet. This paper is the first academic approach to the discussion of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in Korea.

The discussion of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had strengthened as a ‘discourse’ for more than ten years in Korea. However, the academic basis of the discussion was nothing but an illusion.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that this popular concept among Koreans was just derived from some non-professionals’ wish to raise the status of Admiral Yi and the negligence in verifying this argument. This myth had rapidly and widely spreaded on the Internet by ‘Bandwagon Effect’ for a long tim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troversies have been maintained on the Internet in Korea. For example, the main subjects of the controversies are ‘the academic grounds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The reality of the alleged contents of History of Naval Battles at other Naval Academies in the world,’ and ‘the fact whether foreign scholars have mentioned it or not.’ I expect this study would give the answer more close to the truth and put an end to the long-lasting controversy.

Key words : the ‘*Four Naval Battles of the World*’, the Battle of Salamis, the Battle of Calais, the Battle of Hansando, the Battle of Trafalgar, Yi Sun-Shin, Francis Drake, Horatio Nelson, George A. Ballard, Horace H. Underwood

# 조선후기 訓練都監 軍法の 특징과 梟示刑의 집행 양상

심재우\*



1. 머리말
2. 조선후기 군법 집행의 특징
3. 훈련도감의 도망군 처벌과 곤장 집행 지침
4. 훈련도감의 효시형 집행 사례와 특징
5. 맺음말

## 1. 머리말

임진왜란을 계기로 창설된 訓練都監은 五軍營의 하나이다. 주지하듯이 오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을 가리키는데,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중앙군이었던 훈련도감은 가장 이른 시기인 1593년에 창설되었으며 규모도 가장 컸다. 특히 편제,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

훈련도감은 조선전기와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소속 군인의 경우 이전과 달리 서울에 상주하면서 軍役을 수행하던 상비병이었으며, 아울러 국가로부터 군수품의 지원을 받던 급료병이었다. 훈련도감이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중앙군이면서 국가재정 지출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군영이었다는 점, 도감군과 그 가족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서울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 등에서 군제사의 측면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정치·재정·도시사의 영역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훈련도감이 조선후기 대표적인 중앙 군영으로서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물론 훈련도감의 설립과정, 도감군의 구성과 운영, 도감군의 활동 양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연구서가 간행되어<sup>1)</sup>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구조와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훈련도감의 운영 실상에 대해 밝혀내야 할 것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훈련도감의 업무를 상세히 기록한 방대한 양의 장서각 소장 『訓局臚錄』 자료가 아직까지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필자가 최근에 『훈국등록』에 수록된 도감 군사들이 올린 上言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여 상언에 나타난 군인들의 처우상의 불만, 도감 운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 적이 있지만,<sup>2)</sup> 향후 『훈국등록』 내용 전반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는 『훈국등록』을 활용하여 훈련도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필자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훈련도감의 軍法, 그리고 실제 군법 집행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軍法은 넓은 의미에서 군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과 지침을 포괄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군인의 범죄 행위와 처벌 규정을 담은 軍刑法, 軍律의 의미로

1)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訓鍊都監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2) 심재우, 「『訓局臚錄』 인조~영조 대 上言에 대한 연구」 『장서각』 33, 2015.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훈련도감 군사들의 각종 일탈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軍紀 사고 등에서 군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훈련도감, 나아가 조선후기 軍營 운영의 성격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군법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는 『대명률』을 비롯한 법전 등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현재로서는 필자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sup>3)</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군대에서의 처벌의 핵심인 棍杖刑과 梟示刑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다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조선후기 군율의 핵심인 곤장형과 효시형의 연원과 의미를 검토한다. 흔히 곤장은 조선초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조대 무렵 군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군영에서 곤장을 사용하면서 그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마련되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 훈련도감에서 시행된 군법 규정을 살펴본다. 훈련도감 고유의 군법 규정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훈련도감의 곤장 집행 지침에 주목하였고, 실제 곤장형 집행의 사례와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훈련도감에서 집행한 효시형 집행 장소와 집행 사례를 분석한다. 효시형은 군대내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훈련도감에서 언제 누구에게 이와 같은 형벌을 집행했는지를 유형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문의 분석을 위해 주로 활용한 자료는 장서각 소장 『訓局謄錄』과 훈련도감의 각종 사례와 규정을 모아 놓은 『訓局事例最要』·『訓局總要』,

3) 조선시대 군법, 군율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필자가 과묵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경국대전』과 『대명률』에서 군사 관계 법률을 발췌, 번역한 『朝鮮時代 軍事關係法』(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편, 1986년)과 이를 활용한 조양수의 학위논문(조양수, 「조선초기 軍律의 정립과 운용」,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11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연구사의 상황에서 필자가 조선시대 군법, 군율 전반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연대기 자료 등이다. 특히 연대기나 다른 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훈련도감 소속 병사 처벌에 관한 세세한 사례들을 『훈국등록』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 2. 조선후기 군법 집행의 특징

조선시대 군대에서 軍令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군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軍令, 軍刑법은 오늘날처럼 별도의 법령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엄격히 구분하여 이들에 대해 형률을 달리 적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근대적 軍刑법인 『陸軍法律』이 대한제국기인 1900년(광무 4)에 반포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군인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대명률』과 『경국대전』 등 國典에 근거하여 처벌되었다.<sup>4)</sup>

주지하듯이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대명률』을 조선시대 형사 일반법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대명률』의 「名例律」, 「兵律」, 「刑律」 항목 등에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각 범죄 유형별로 형량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조선전기 군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명률』의 처벌 기준을 근거로 군법을 집행했다.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受教가 만들어져 『經國大典』, 『續大典』 등에 수록할 수 있었으나 실제 수록된 수교가 많지는 않았다.

본고에서 이들 법전에 실려 있는 모든 軍令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 군법 운영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 하는데 『增補文獻備考』의 기사가 시사해주는 바가 작지 않다. 『증보

4) 대한제국기 『陸軍法律』의 내용과 제정 의의에 대해서는 김혜영, 「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의 개혁-「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을 중심으로-」(『軍史』 89집, 2013) 참조.

문헌비고』 刑考에는 앞서 언급한 『육군법률』이 실려 있는데, 그 앞 부분에 『육군법률』 제정 이전 조선왕조 군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國朝의 刑法은 明律을 襲用하고 『大典』, 『續典』을 이따금 늘리거나 폐기한 것이 있으나, 軍法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梟示하는 울과 棍杖을 쓰는 제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今上 갑오년에 更張한 이래로 비로소 軍人·民人의 分別이 있어 陸軍法律이 광무 경자년에 이루어졌습니다.<sup>5)</sup>

위 기사는 『증보문헌비고』 편찬자가 갑오개혁 이후 군인, 민인의 구별이 확실해지면서 1900년에 『육군법률』이 생겨났음을 강조하고, 새롭게 제정된 『육군법률』 이전 시기에는 곤장형, 효시형 외에 별다른 군법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기사에서는 『육군법률』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그 이전 조선왕조의 군법을 단순화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기사가 조선후기 군법 운영의 실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군대 내에서 발생한 범죄좌나 군령을 위반한 군인에 대한 처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진 자의 경우 斬首하여 목을 몇 일간 매달아두는 梟示刑을 시행하였고, 다른 하나는 棍杖을 쳐서 신체에 고통을 가한 후 다시 군대에 복귀시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군대 내의 형벌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했던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군법 집행시의 형벌인 곤장형과 효시형의 내용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곤장이 만들어져서 사용된 것은 후술 하듯이 대략 선조대 무렵이므로, 먼저 효시형부터 언급한다. 梟示란 사형 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목을 베어 죄인을 처형한 후 그 목을 장대에

5) 『增補文獻備考』 권140, 刑考14 陸軍法律



꽃아 몇 일간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원래 사형수를 처형하여 梟示하는 일은 중국 고대 秦漢 시대부터 시행되었을 만큼 유래가 깊다.<sup>6)</sup> 하지만 『唐律疏議』, 『大明律直解』 어디에도 효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데서 알 수 있듯이 唐律, 明律에 효시는 공식적 사형 집행 방법은 아니었고, 『경국대전』에서도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sup>7)</sup>

이처럼 법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역 죄인이나 중죄수를 참수한 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참수된 목을 공개적으로 걸어두는 일이 조선전기에는 흔한 경우가 아니었다. 즉, 군대에서 효시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조선후기에 와서의 일이다. 19세기 다산 정약용이 그의 저서 『흙흙신서』에서 대명률의 사형 등급을 凌遲處死, 斬決[不待時斬], 參候[待時斬], 絞決[不待時絞], 絞候[待時絞]로 구분하면서, 梟示는 斬決, 즉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참수하는 不待時斬보다도 무겁다고 註를 단 것에서 보듯이<sup>8)</sup> 효시형은 참수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간주되었다.

그럼 군대에서 어떤 죄를 저지른 자들이 사형에 처해졌을까? 1492년(성종 23)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병서 『五衛陣法』에는 군대의 편제와 인원, 전술과 전투 훈련에 관한 사항과 함께 軍令 항목을 두어 陣中의 행동 요령, 진중에서 군법을 어긴 군사에 대한 처벌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진중에서의 군법 집행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군사 기밀 누설 등 중대 행위에서부터 군기 분실과 같은 사소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수형으로 처단하도록 하고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도미야 이타루, 「공국의 肉刑에서 生命刑으로-漢-唐死刑考-」(도미야 이타루 엮음, 손승희 옮김, 『동아시아의 사형』,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4년) 참조.

7) 조선시대 형량에 따른 범죄 행위 유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 『增補文獻備考』에서 볼 수 있듯이 梟示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 『대명률』에는 전혀 없고 『속대전』에 등장한다(『增補文獻備考』 권139, 刑考十三 「諸律類記」四 참조).

8) 『欽欽新書』 권3, 擬律差例 一. “殺人者死, 法如是足矣。然大明律例, 死有五等, 一曰凌遲, 二曰斬決(立決者, 不待時也), 三曰斬候(監候者, 待時也), 四曰絞決, 五曰絞候(又梟云重於斬決).”

예컨대, 進退와 左右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 徽章과 標識를 잃어버린 자, 군사 기밀을 누설한 자, 적과 비밀리에 내통한 자, 징과 북, 기와 나팔을 잃은 자, 까닭없이 군을 놀라게 한 자, 군중의 문·무관으로서 공평치 못하게 사정을 봐준 자, 멋대로 초소를 바꾸거나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야간 통금을 어기거나, 진중 암호를 잊거나 남의 막사에서 잠잔 자, 主將이 전군에 공통적으로 내리는 명령을 어긴 자, 禁飮을 범한 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자 등이 모두 참수 대상 죄목이었다.<sup>9)</sup>

『오위진법』을 통해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군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 효시까지는 하지 않고 대개 참수형으로 집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소한 군기 위반에 대해서도 극형에 처하는 등 규정이 매우 엄한 것으로 봐서 戰時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軍飮으로 봐야 할 것이다.<sup>10)</sup> 여하튼 군대 조직 자체가 무기를 사용하며, 유사시 국방 및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전시의 군법은 기본적으로 엄했던 것이다.

방금 『오위진법』의 내용에서 본 것처럼 전시에 군령을 위반한 군인들에게는 斬首라는 극형에 처했다. 하지만 평상시에 모든 군인들을 이렇게 엄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따라서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가 아닌 한 형장을 가한 후 군대에 복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처벌이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국대전』 병전에 “行在時 외에 평상시에 軍飮을 위반하여 사형죄를 지은 경우 諸將은 杖刑 60대에 처하고, 軍士는 杖刑 90대에 처한다”<sup>11)</sup>는 조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교든 군사든 중대 군령을 위반했다라도 평상시에는 杖刑으로

9) 『五衛陣法』 「軍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兵將說·陣法』, 1983년, 211-215쪽)

10) 1433년(세종 15)에 간행된 『癸丑陣說』 「軍令」에는 적과 교전 중 군령 위반자에 대한 참수 규정이 앞의 『오위진법』보다 좀 더 자세하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44-247쪽 참조).

11) 『經國大典』 권5, 兵典 「用刑」 “行在時外, 常時犯軍令死罪者, 諸將杖六十, 軍士杖九十”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 규정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 실제로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군령 위반자를 사형 대신 杖刑으로 대신했는지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여 평시에는 가급적 사형 집행 대신 형장으로 징계를 대신하는 방향으로 군법 집행에 차이를 두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제 斬首, 梟示刑에 이어서 군대에서 집행한 곤장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명률』의 笞刑·杖刑을 집행할 때 사용하던 회초리 모양의 笞·杖과 달리 棍杖은 배를 짓는 노와 같이 넓적하게 생긴 형상이었다.<sup>12)</sup> 법전에 등장하는 곤장에 관한 규정으로는 ‘軍兵衙門이 아닌 곳에서 곤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新補受教輯錄』에 실려 있는 順治 연간(1644~1662)의 수교가 최초이다.<sup>13)</sup>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법전 규정보다 앞선 선조대에 이미 군대에서 곤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몇몇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596년(선조 29)에 都元帥 權慄 장군이 조정에서 왜병의 동태와 자신의 휘하 의병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권율은 선조 임금에게 의병장 金德齡이 軍律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병졸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귀를 자르거나 혹은 곤장을 치기도 하므로 휘하 사람들이 점차 도망간다고 비판하였다. 권율에 따르면 임진왜란 중에 김덕령 부대에서 휘하 군사들에게 곤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4)</sup> 한편 1598년(선조 31) 7월 훈련도감의 哨軍 元鎰이 조정에 올린 글에서 당시 군사들이 작은 죄를 범하면 棍杖, 큰 죄를 지면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고생이 막심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무렵 훈련도감에서도 이미 곤장을 사용하고 있었다.<sup>15)</sup> 이로써

12) 태·장과 곤장의 규격 차이, 조선후기에 와서 곤장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심재우, 「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규장각』 22, 서울대 규장각, 1999년)에 상세하다.

13) 『新補受教輯錄』 권5, 刑典 「用刑」, “非軍兵衙門 而用棍者 禁斷 [順治□□承傳]”

14) 『宣祖實錄』 권72, 선조 29년 2월 19일(병진).

15) 『宣祖實錄』 권102, 선조 31년 7월 12일(을미).

볼 때 대략 선조대인 임진왜란부터 서울의 훈련도감이나 지방의 군대에서 軍務와 관련해서 곤장이 사용되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선조대 훈련도감 등 군대에서 군법을 집행하기 위해 새롭게 곤장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곤장의 규격을 정비하고, 곤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후 마련되었다. 예컨대 1663년(현종 4) 5월 執義 金萬基 등은 군사를 거느리는 자에게 棍杖을 쓰도록 허용한 것은 軍務를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당시 지방의 兵使 등이 간혹 곤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군사들의 목숨을 해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곤장 남용을 막기 위해 곤장의 길이와 두께를 병조에서 정하도록 할 뿐 아니라 軍務 이외에는 군인들이 곤장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하였다.<sup>16)</sup>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6월에 지방의 兵使와 營將이 사용하는 곤장의 크기는 3寸에서 2寸으로 줄이고, 모양도 삼각 형태로 된 것을 兩面 형태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재료 또한 참나무에서 버드나무로 대체하였다.<sup>17)</sup>

곤장이 이전의 태·장에 비해 훨씬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아예 곤장 집행 대수를 제한하기도 하였는데, 1685년(숙종 11)에는 군대의 일과 관련해서 곤장을 칠 경우 상한선을 30대로 정하고, 부득이 그 이상 처야 한다면 반드시 국왕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sup>18)</sup> 또한 軍律을 어긴 자에게 군법으로 다스릴 때만 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고을 수령들이 곤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sup>19)</sup>

이후 곤장의 규격, 곤장의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는 18세기

16) 『顯宗實錄』 권6, 현종 4년 5월 28일(을미).

17) 『顯宗實錄』 권6, 현종 4년 6월 3일(기해).

18) 『新補受教輯錄』 권5, 刑典 「用刑」, “棍杖 若事係軍務者 則限三十度 隨其罪之輕重或多或少 而多不過定式之內 若其罪犯極重 必加棍數 則具由啓聞後治罪 而或有用棍過濫者 勿論被杖者殞傷與否 論以濫刑之律 [康熙乙丑承傳 ○ 依大典 杖一百 徒三年]”

19) 『仁祖實錄』 권49, 인조 26년 11월 6일(병인).

후반 정조 즉위 직후에 다시 이루어진다. 정조는 1778년(정조 2) 각종 刑具의 규격을 통일시켜 관리들의 형장 남용을 막기 위해 『欽恤典則』을 편찬, 반포하였는데, 곤장의 규격과 사용 범위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흙흙전칙』에는 병조 관리, 군영 지휘관 등의 등급에 따라 모두 重棍, 大棍, 中棍, 小棍, 治盜棍 등 다섯 종류의 곤장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들 곤장은 크기와 두께가 각각 달랐으며 곤장을 집행할 때 죄인의 볼기와 넓적다리를 번갈아 치도록 하였다.<sup>20)</sup> 『흙흙전칙』에는 포도청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 쓰는 치도곤도 명시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곤장은 군영대장 등 군대의 장수들이 군법을 집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이 이때 다시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조선시대 군법의 골격을 이루는 곤장형과 효시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논의를 정리해보면 조선시대 군법의 특징이 첫째, 군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참수에 처하는 등 기본적으로 戰時에는 매우 엄했으나 평상시에는 전시와 달리 가급적 사형 대신 신체형을 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둘째, 군법 집행 양상은 조선후기로 가면서 일부 변화가 생겼는데 태·장 대신 곤장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사형 집행도 참수형에서 더 나아가 목을 매다는 효시형으로 바뀌었다. 왜 이같은 변화가 생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다만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전란을 거치게 되고 훈련도감 등 새로운 군영이 생겨나게 되면서 군 기강을 더 엄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20) 이에 대해서는 심재우, 앞 논문(1999) 참조.

### 3. 훈련도감의 도망군 처벌과 곤장 집행 지침

앞 장에서 조선시대 군 형벌의 특징을 곤장형과 효시형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 장에서는 조선후기 중앙군의 핵심이었던 훈련도감에 집중하여 도감에서 시행된 군율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미리 언급할 것은 훈련도감 군사를 규율하는 별도의 군율로 확인되는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선에서 새롭게 제정한 군율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훈련도감 군사들만을 규율하는 군율을 특별히 제정할 필요성 또한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일부 조문이나마 분석해본다면 훈련도감 운영의 일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연대기 자료, 『훈국사례촬요』·『훈국총요』 등 훈련도감 사례집, 법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훈련도감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규정, 곤장 집행 지침과 곤장형 집행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군대에서 군인의 무단 탈영 즉 도망병 문제 처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는 서울을 지키는 정예군대로 육성하고자 한 훈련도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훈련도감에서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한번만 탈영한 병사를 처형, 즉 효시형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한, 두 번까지는 곤장형 집행만으로 처벌을 마무리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곤장을 몇 대까지 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다.

훈련도감 창설 이후 17세기까지만 해도 평상시 군대를 이탈한 도망 군사는 처음에는 곤장형을 가하고, 두 번째 도망갈 경우에 비로소 효시형에 처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훈국사례촬요』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1675년(숙종 1) 훈련도감의 계문에 따르면 도감 군사가 도망갈 경우 곤장 100대를 가하고, 2차로 도망갈 경우에는

習陣日에 효시하는 것이 오래된 군율이라는 언급이 그것이다.<sup>21)</sup> 그러다가 이후 도망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간 완화되었는데 1702년(숙종 28) 어영대장 尹就商이 어영청에서도 훈련도감에서 쓰는 도망 군사 처벌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훈련도감 처벌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훈련도감 군사가 도망가면 初犯은 곤장 50대, 再犯은 80대, 三犯의 경우 梟示하되, 軍物을 훔쳐서 도망간 경우는 초범, 재범 모두 효시를 한다는 것이다.<sup>22)</sup> 이 무렵 도망병에 대한 곤장 대수도 줄였을 뿐 아니라 세 번 도망간 삼범의 경우만 효시하도록 제한한 것인데, 이 규정은 모든 군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군율로서 영조대 『續大典』에 실리게 된다.<sup>23)</sup>

그런데 정조대에 오면 훈련도감의 도망 군사 처벌 규정이 다시 약간 바뀐다. 『萬機要覽』에는 1779년(정조 3)에 다시 조정된 규정이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망 군사들의 초범은 곤장 50대, 그리고 재범 시에는 효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官馬나 군대 물건을 가지고 도망한 경우에는 초범일지라도 효시형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도망갈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一律로 다스리도록 하였다.<sup>24)</sup> 이상 보았듯이 훈련도감 소속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그만큼 도망병 문제는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그 처벌의 수위를 놓고 계속해서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의 골격은 평상시에는 대개 초범은 곤장형, 재범 때 효시하였으며, 전쟁 중에는 초범, 재범할 것 없이 바로 효시로 처단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 규정에 이어서 살펴볼 것이 훈련도감의

21)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22) 『肅宗實錄』 권37, 숙종 28년 11월 20일(정묘).

23) 『續大典』 권5, 兵典 「用刑」 “軍兵逃亡 初犯決棍五十 再犯八十 三犯梟示”

24) 『萬機要覽』 軍政篇 2, 訓練都監 「逃律」

곤장 사용 지침이다. 앞서본 도망 군사 문제는 처벌 규정이 受教로 마련되었을 정도로 중대 사안이지만, 조선후기에 이보다 작은 사안들은 군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장교들이 소속 병사들의 잘못을 징계할 수 있었고 이 때 棍杖을 형장으로 사용하였다. 훈련도감에서도 군내 기강을 확립하고 군내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군기 위반자를 곤장으로 다스렸다. 훈련도감 장교들이 사용하던 곤장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정조대 『흙흙전칙』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의거하면 모두 다섯 종류의 곤장 가운데 重棍은 訓練大將, 大棍은 훈련도감의 都提調·訓練大將·中軍, 中棍은 훈련도감의 從事官·別將·千摠, 小棍은 훈련도감의 把摠·哨官이 군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각각 사용할 수 있었다.<sup>25)</sup>

고종 연간에 편찬된 『훈국총요』에는 훈련도감 장교들의 소속 군사들에 대한 곤장 사용 매뉴얼을 12개 조문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적어놓았는데, 이 조문을 통해 곤장 사용과 관련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첫째, 앞서 『흙흙전칙』에서 제시한 것처럼 훈련도감 소속 장교들의 계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곤장을 지정하였다. 즉 소속 병력이 적은 훈련도감 步軍의 把摠·哨官·旗隊摠은 小棍을 쓰며, 이보다 상급 지휘관인 步軍의 千摠, 馬兵의 別將은 中棍을 쓰도록 하였다.

둘째, 지휘관이 소속 군사들에게 15대 이상 곤장을 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예하 부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곤장 대수를 이보다 더 제한하였다. 예컨대 別將과 千摠은 소속군사에게는 곤장 15대를 상한으로 하고, 다른 부대 소속 군인에게는 이보다 적은 곤장 10대로 제한하였다. 把摠의 경우 소속 군사에 집행할 수 있는 곤장 상한은 15대로 동일하나, 다른 부대 소속 군사에게는 상한이 곤장 7대이다. 이런 식으로 哨官, 旗隊摠·隊摠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25) 『欽恤典則』 「棍」

26) 12개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訓局摠要』 「用棍式」 참조.



셋째, 훈련도감의 堂上將官의 경우는 근무 중일 때 牢子棍을 쓰도록 하였다. 뇌자곤은 『흠휼전칙』에 언급되지 않은 곤장이라 19세기에 새롭게 쓰기 시작한 곤장으로 보이는데, ‘牢子’가 군영에서 지금의 헌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군사인 軍牢를 말하므로 뇌자곤이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훈국총요』에는 비록 어떤 범죄나 군기 문란에 대해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지만, 훈련도감 장수들의 곤장 사용 권한 등에 대해 촘촘하게 제시하였다. 군영 내에서 군법을 집행할 일이 있더라도 곤장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수, 그리고 처벌 대수 등을 정해놓아 곤장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했던 것이 본 규정의 골자인 것이다. 특히 장교들이 소속 군인들에게 가할 수 있는 곤장 대수를 15대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곤장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조대 훈련도감 陞戶軍 가운데 도망간 이들이 규정대로 곤장 50대를 맞다가 죽는 일이 간혹 발생하였고, 위력이 강력한 곤장임을 감안하여 도망 군사에게 가하는 곤장 대수를 현행 법 규정보다 줄이자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sup>27)</sup> 이로 비추어 볼 때 탈영이라는 중죄가 아닌데도 지휘관이 소속 군사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곤장을 남용하여 군인을 죽이는 불상사를 막자는 취지가 위의 『훈국총요』의 곤장 사용 지침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軍令을 위반하거나 軍陣의 군사훈련이나 열병 도중 문제를 일으킨 경우 앞서 살펴본 소속 군사뿐만 아니라 군영의 장교, 심지어 양반 관리들도 곤장으로 다스렸다. 이는 훈련도감이 조선후기 궁궐 숙위 및 서울을 수비하는 대표적인 주력군이라는 점에서 훈련도감 軍陣의 위엄을 유지시키고 군법의 엄중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662년(현종 3)에는 국왕이 鷲梁 백사장에서 閱武하다가

27) 『訓局騰錄』 38책, 乙巳(1785) 7월 1일.

훈련도감 陣이 느리고 진퇴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中軍 鄭傳賢과 마병의 別將 鄭漢驥에게 각각 곤장 20대, 곤장 7대를 집행하였다.<sup>28)</sup> 이보다 2년 뒤인 1664년에는 春塘臺에서 觀武才를 실시하면서 말 달리는 솜씨가 떨어지고 기예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정원 兵房承旨에게 지시하여 훈련도감 초관 吳愷에게 곤장을 치도록 하였다.<sup>29)</sup> 또한 다른 군영 소속 장교를 훈련도감에서 처벌하기도 하였는데, 1767년(영조 43) 영조는 수원의 馬兵이 매우 허술하고 말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선전관의 조사 결과를 전해 듣고 지휘 책임을 물어 담당 別將을 훈련도감 훈련장인 沙場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조리돌린 후 곤장 10대를 집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sup>30)</sup> 軍營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휘를 맡은 장교도 경우에 따라선 곤장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軍수를 위반한 경우 문반 관리도 때론 곤장형을 받기도 하였다. 숙종 때 왕의 행차 떠나 훈련 때 훈련도감 軍陣의 대오를 범한 관리를 곤장으로 엄중 문책한 사례가 있었는데, 1697년(숙종 23) 병조정랑 李坦의 경우가 그 한 예이다. 이 해 숙종은 중국 칙사를 맞이하는 거동을 하고 환궁하였는데, 국왕을 호위하던 훈련도감 陣이 파하기 전에 병조낭청 이탄이 陣中을 충돌하여 지나가려고 한 일이 있었다. 이 때 砲手 范善奉이 그를 제지하였는데, 이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범선봉의 正妻를 잡아 옥에 수감한 일이 훈련도감에 의해 조정에 보고되었다. 숙종은 軍수를 위반한 이탄이 비록 군인이 아닌 조정 관리이지만 軍律로 처벌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그를 훈련도감에서 곤장으로 다스리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에 승정원에서 병조 관리를 훈련도감에서 곤장을 집행하게 하는 것은 심하다고 건의하여 결국 이탄은 병조에서 곤장 30대를 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sup>31)</sup> 그만큼

28) 『顯宗實錄』 권6, 현종 3년 9월 12일(임오).

29) 『顯宗實錄』 권8, 현종 5년 4월 11일(계묘).

30) 『英祖實錄』 권108, 영조 43년 5월 14일(정축).

31) 『訓局事例撮要』 上卷, 「論罪」 肅廟朝二十三年(康熙十六年) 丁丑 十月初四日 기사

궁궐 및 도성 숙위의 주력 군영인 훈련도감을 국왕이 특별히 여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39년(영조 15)에도 훈련도감 군사들이 행진할 때 武藝別監 鄭秀才가 말을 몰아 훈련도감 마병진을 가로질러 가려다 군병이 막아서면서 소란이 발생했다. 영조는 군이 행진할 때 陣內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자는 軍律로 처단하는 것이 節目임을 강조하고, 정수재를 훈련도감에서 從重決棍하도록 지시하였다.<sup>32)</sup> 이는 앞서 소개한 병조 정랑 이탄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훈련도감에서는 군 내부의 규율과 군기의 확립을 저해하는 군사들의 경우 소속 장교들이 곤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아울러 국왕을 호위하는 주력 군영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훈련도감 군대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휘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은 소속 장교, 훈련이나 행군 때 軍陣을 침해하는 관리들도 군율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곤장형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 4. 훈련도감의 효시형 집행 사례와 특징

### 가. 효시형의 집행 장소와 방법

지금까지 곤장형과 효시형 집행이 중심이 된 조선후기 군법의 특징, 훈련도감에서 운용된 도망병 처벌 규정과 곤장 사용 지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규정과 실제 운용 양상을 함께 살펴보아야 군법 운영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 『肅宗實錄』 권31, 숙종 23년 10월 4일(신해).

32) 『訓局事例撮要』 上卷, 「論罪」 當宁十五年(乾隆四年) 己未 八月 二十日 기사.

장에서 군율에 규정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훈련도감에서의 군법 집행 사례를 관련 기록에서 추적하여 제시한다. 특히 군령을 위반한 군사들에게 가한 극형인 梟示刑에 주목하여 효시형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가능한 선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효시형은 죄인을 처형한 후 참수된 목을 몇 일간 장대에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죄인을 참수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처형된 목을 공개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에서 『대명률』의 참수형보다도 무거운 사형 집행 방법인 셈이다.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사형집행 방법의 하나로 법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효시형은 대규모 반란의 首魁와 國賊에게 간혹 시행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도망병 등 군사들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효시형 처벌이 늘어났다.<sup>33)</sup> 원래 효시형은 군율이었지만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효시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17, 18세기에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조선후기의 법전 『受教輯錄』, 『新補受教輯錄』, 『續大典』에 효시형을 규정한 조문이 모두 85조에 달하게 된다.<sup>34)</sup> 효시형이 조선후기에 군법을 집행하는 군영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종종 시행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군영에서 군법으로 집행한 효시형에 집중하여 살펴보는 데, 먼저 집행 장소 문제이다. 당시 효시형 집행 장소가 늘 일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훈련도감에서 형을 집행할 때 주로 이용한 곳이 鷺梁沙場이었다.<sup>35)</sup> 노량 사장은 지금의 노량진 건너편 노들강변의 넓은

33) 안더스 칼슨(Anders Karlsson), 「千金의子是 저자에서 처형되지 않는다-17-18세기 조선시대의 사형과 효수-」(도미야 이타루 엮음, 손승희 옮김, 앞의 책, 2014년), 155-161쪽 참조.

34) 이들 법전을 분석한 안더스 칼슨에 따르면 효시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는 병사들에 관한 사항 외에도 정인 및 일본인과의 접촉, 북병 변경에 관한 범죄 등이 대상이었다(위의 책, 162쪽).

35) 이하 軍門梟示의 장소와 집행 방식에 대한 서술은 주로 샤를 달레, 『한국천주교

모래밭인 새남터를 말하는데, 당시 이곳에 軍營 군사들의 훈련 敎場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형 집행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다. 그런데 고종 때인 1867년에 노량 교장이 여러 차례 홍수를 겪어 훼손되면서 군사 훈련 장소로 적합하지 않게 되자 교장을 蔓川坪으로 이전하였고, 이때부터는 노량 사장이 아닌 만천평에서 주로 형을 집행했다고 전한다.<sup>36)</sup>

형의 집행은 군사들이 翳陣을 하기 위해 집결하는 날에 거행되는데, 軍營의 대장, 즉 훈련도감의 경우 훈련대장이 형 집행을 주관하였다. 효시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대개 檻車라 부르는 수레에 실려 노량 사장에 도착하게 된다. 형장에 도착하면 얼굴에 석회를 칠하고 등 뒤에는 나무를 끼우고 뒷짐 결박을 했으며, 양쪽 귀에는 貫耳箭<sup>37)</sup>이라는 짧은 화살을 썬 상태로 조리돌림[回示]을 하였다. 조리돌림은 훈련을 위해 모인 병사들에게 죄수에 대한 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이다. 처형장에는 조용히 하라는 뜻에서 나무에 ‘肅靜’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肅靜牌<sup>38)</sup>를 높이 세워놓았으며, 사형수의 옷을 허리까지 벗기고 양쪽 귀에 貫耳箭을 썬 상태로 얹어놓고 목을 베었다. 이후 죄인의 머리는 장대 등에 꽂아 몇 일간 매달아 두었다.

참고로 군영에서 사형 집행을 맡은 병사는 특별히 ‘劊子手’라 불렀는데, 이들이 형을 집행할 때 쓰던 칼을 月刀 또는 偃月刀라 했다. 『만기요람』에는 당시 운영되던 군영의 병력 규모와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훈련도감에 회자수가 6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9)</sup> 한편, 회자수는 鬼巾이라는 두건을 쓰고 鬼衣를 입었

회사』 상(분도출판사, 1979년), 114-115쪽 및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1』(청년사, 2001년), 202-207쪽에 의거하였다.

36) 차기진, 「조선시대 서울의 형장과 서소문 밖」 『서울문화』 14, 2011, 80쪽.

37) 貫耳箭은 몸이 짧고 축은 뾰족한 모양이었다. 죄를 진 군사의 귀를 꿰어서 조리돌림할 때, 혹은 비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했다(『萬機要覽』 軍政篇 1, 形名制度).

38) 肅靜牌는 바탕은 흑색이며, 글씨는 희게 썼다(『萬機要覽』 軍政篇 1, 形名制度).

39) 『萬機要覽』 軍政篇 2, 훈련도감 「軍摠」

으며, 평상시에 挾刀을 들고 대장이 타는 말 머리에 마주서게 되어 있었다. 鬼巾은 홍색 문양의 명주를 녹색 명주에 붙인 것으로 두건 뒤쪽은 발꿈치에까지 이를 정도로 길게 늘어뜨렸으며, 鬼衣는 홍색 무명으로 만들었다고 한다.<sup>40)</sup> 이상의 내용이 훈련도감 등 군영에서 행한 효시형 집행의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매우 엄숙한 분위기에서 엄중하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효시형 집행의 사례

훈련도감에서 집행하는 효시형은 많은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범죄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형 집행을 통해 남은 군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의식으로도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에 효시형을 시행했는지 보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훈련도감에서의 효시형 집행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 ① 동료 살인 및 군기문란 행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조총 위력을 실감한 조선에서는 훈련도감에 주력군으로 砲手를 배치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감군이 총기를 휴대하면서 조총을 이용한 범죄나 오발 사고가 간혹 발생하였는데, 그 한 예가 1643년(인조 21)에 훈련도감 군사가 동료 군사를 조총으로 살해한 사건이다.<sup>41)</sup> 사건은 이 해 10월 14일에 발생하였는데, 右哨軍 申海龍, 朴成吉 등이 廳會, 즉 모임이 있다고 속여 동료 군사 金振聲을 삼청동 北門으로 유인한 후 날이 저물자 신해룡이 김진성을 조총으로 쏜 사건이었다. 총에 맞은 김진성은 마침 지나가던 哨軍 咸應元, 捕盜軍官 南弘纘에게 평소 자신과 사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40) 『萬機要覽』 軍政篇 2, 훈련도감 「服着」

41) 『訓局謄錄』 2책, 癸未(1643) 10월 15일, 10월 21일, 11월 3일자 기사 참조.

동료 신해룡이 자신에게 총을 쏘었다고 진술하고는 결국 죽고 말았다.

훈련도감에서는 궁궐이 가까운 곳에서 동료 군사를 총을 쏘서 살인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여겨 즉시 조사에 나섰다. 도주한 박성길은 추적하도록 하였고 신해룡은 그의 집에서 체포하여 진술을 받아냈다. 신해룡은 처음에 오발 사고일 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도감에서는 추운 계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유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범행 장소로 갔다는 점, 신해룡이 평소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었다는 점 등을 기초로 자백을 받아내었다. 결국 훈련도감에서는 이 사건이 살인과 관계되지만, 초군이 서로 죽인 것은 軍法에 斬首에 해당한다며 국왕에게 軍中에서 처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달인 11월 4일 훈련도감에서 습진하는 날에 신해룡을 효시형으로 처형하였다.

방금 본 동료 초군에 대한 총기 살해 사건만큼은 비할 바가 아니지만 숙종 때 훈련도감의 고위 지휘관인 千總 閔任重의 군기문란 사건도 있었다. 1710년(숙종 36) 훈련대장 李基夏의 보고에 의하면 천총 민임중이 자신의 처를 서울에서 하룻길 떨어진 근교에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의 소속 군병 백 여명을 함부로 동원하여 役事를 돕게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친위병인 훈련도감 군병들을 대거 자신의 개인 일에 동원하여 숙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조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 군율에 의거하여 처형할 것인지 참작하여 형을 감경해 줄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초 숙종은 군영의 기강을 엄히 하고 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군법으로 효시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전시에 군사를 일으킨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사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임중을 훈련도감에서 곤장 30대를 친 후 의금부로 보내 邊遠充軍하도록 지시하였다.<sup>42)</sup>

42) 『訓局臚錄』 15책, 庚寅(1710) 윤7월 12일 : 『肅宗實錄』 권49, 숙종 36년 윤7월 1일(갑오) 및 윤7월 24일(정사).

아울러 이 사건에 연루된 상, 하급 지휘관들도 함께 처벌하였는데 中軍 南五星은 汰去, 哨官 李世進 등은 決棍 20대 후 태거, 別武士 3인은 決棍 30대 후 태거, 牌頭 등은 決棍 50대 후 保人으로 강등, 旗摠은 決棍 30대로 처리하였다.<sup>43)</sup> 훈련도감 병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와 같은 중대한 군기문란 행위에 대해 숙종은 군율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효시하는 대신 변경 지역에 증군시키는 것에 그친 것이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전사와 달리 군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참작하여 減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임진, 병자호란을 거치고 전란의 위협성이 상당히 해소된 숙종, 영조대의 사례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 ② 도망 군사에 대한 처벌

군무 이탈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앞 장에서 본 것처럼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만, 대체로 평상시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도망한 군사는 극형인 효시형으로 다스리는 기초를 유지했을 정도로 탈영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같이 무거운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영 생활의 피로와 고충으로 인한 병사들의 군무지 이탈이 근절되기는 어려웠고, 정예병사로 육성하기 위해 소속 군사들에게 급료를 지원하는 훈련도감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사안이었다. 애초 훈련도감이 창설되면서 소속 군사를 모집할 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별로 숫자를 할당하여 서울로 차출하는 방식의 陞戶制를 운영하면서 일부 군사들의 불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아울러 도감에서 지원하는 급료가 군역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군사들은 도감군에 차출된 불만,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上言을 국왕에게 올려 대책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sup>44)</sup>

43) 『訓局謄錄』 15책, 庚寅(1710) 윤7월 13일.

44) 『訓局謄錄』에 실려 있는 훈련도감 군사들이 군병 차출에 대한 불만, 급료 인상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올린 상언의 내용은 심재우, 앞 논문(2015), 97-102쪽 참조.



이하에서 살펴볼 도감 군사들의 탈영은 위에서 제시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먼저 1629년(인조 7)에 도주했다가 체포된 馬兵 李應善이 효시형으로 처형된 사례이다. 이응선은 단순한 탈영이 아니라 官馬를 데리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하였는데, 그는 도주 후 삭발하고 얼굴을 변장하였다가 결국 체포되었다. 훈련도감에서는 도망이라는 균을 범했고 戰馬까지 도적질하였으므로 陣 앞에서 효시하여 여러 군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상주하였다. 그러면서 전례를 거론하였는데, 그 이전의 哨軍 吳立(정묘년), 朴應吉(갑자년), 黃達文(갑술년)이 모두 赴防하였다가 도주하여 효시되었다는 것이다.<sup>45)</sup>

이처럼 훈련도감 창립 초기부터 현종대까지 도망 병사에 대해서 대개 정해진 균율에 입각하여 엄중 처리하였는데, 다음에 언급할 哨軍 李玉男, 그리고 哨官 宣貴榮의 도망에 대해서 규정대로 효시한 데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1657년(효종 8) 2월 훈련도감의 계문에 따르면 군역에 염증을 느껴 지난 갑오년에 고향으로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곤장 80대에 처해진 바 있던 別中司 後哨軍 이옥남이 작년 겨울에 또 다시 도망하였다가 체포, 압송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도감에서는 도망 재범자를 처벌하는 규정대로 翳陣日에 군중에서 효시하도록 요청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sup>46)</sup> 1668년(현종 9)의 사건은 일반 군사가 아닌 장교급의 초관 선귀영이 탈영한 사안이었다. 그는 형조에서 다른 사람과 소송을 벌이다가 문제가 생겨 두 번 탈영하였다가 將官이라고 해서 참작해주지 않고 규정에 의거하여 앞의 이옥남과 마찬가지로 효시형에 처해졌다.<sup>47)</sup>

그런데 숙종, 영조대에 오면 도망병사에 대한 처벌의 기류가 이전

45)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仁廟朝 七年(崇德四年) 己卯 二月初六日 기사.

46) 『訓局謄錄』 4책, 정유(1657) 2월 8일

47)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顯廟朝 九年(康熙七年) 戊申 二月 十三日 기사.

과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이 포착되는데, 도망자 처벌에 관한 군율에 의거하여 규정대로 처형하기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곤장형으로 감형해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예컨대 1675년(숙종 1)에는 같은 해 발생한 두 사안의 탈영사건에 대한 처벌이 달랐다. 훈련도감군 申植는 갑인년에 한 차례 도주한 바 있었는데 다시 도망갔다가 체포되어 2차 도망의 경우 습진일에 효시한다는 전례에 의거하여 효시하는 것이 결정되었다.<sup>48)</sup> 반면 哨軍 金命善의 경우는 달랐다. 김명선은 이미 전에 두 차례 도주하였던 경력이 있는데, 그때에도 그의 용맹함을 높게 평가하여 규정대로 사형에 처하는 대신 곤장 100대를 때리고 군에 배속시켰었다. 그런데 또 다시 신의와 같은 해에 은을 훔쳐 도망가자 훈련도감에서는 습진 때 효시할 것을 청하였으나 숙종은 그의 무예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군졸들을 撫恤하는 때라는 이유를 들어 곤장 50대를 가하는데 그쳤다.<sup>49)</sup>

영조대 발생한 훈련도감 哨軍 金漢重의 탈영 사건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숙종 때 있었던 김명선의 경우처럼 특별히 가볍게 처리된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1729년(영조 5) 황해도 鳳山 출신의 陞戶軍이었던 초군 김한중의 집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잣더미 속에서 두개골을 비롯한 불에 탄 해골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여러 가지 정황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훈련도감에서 황해병 사에게 김한중의 고향 마을 동태를 파악하게 하여 마침내 살아있는 김한중을 적발, 체포하게 된다. 결국 김한중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해골을 가져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군대에서 벗어나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훈련도감에서는 비록 1차 도망이지만 사안이 중대함으로써 김한중을 효시형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조는 규정상 도망병의 초범과 재범의 처벌이 다르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48)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肅廟朝 元年(康熙十四年) 乙卯 正月 十九日 기사.

49) 『訓局謄錄』 5책, 을묘(1675) 11월 19일 및 11월 20일 ; 『肅宗實錄』 권4, 숙종 1년 11월 19일(계묘)

곤장 100대로 마무리하였다.<sup>50)</sup> 이들 사례는 훈련도감 창립 초기인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원칙에 의거하여 도망병을 처단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전쟁 상황이 종식되고 평화가 지속되면서 군율 적용 또한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sup>51)</sup>

### ③ 무신난에 가담한 반란군

여기서는 앞의 두 가지 사안과는 좀 다른 戊申亂에 가담한 반란군에 대해 훈련도감에서 효시형으로 처형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조선후기 군영에서는 군사들의 탈영, 살인 등 중대 범죄에 대해 극형인 효시형을 시행하였지만, 이 외에도 반란 首魁와 대역 죄인에 대한 군법 집행도 담당하였다. 병력을 동원한 반란 사건은 전시에 준해서 일이 처리되었는데, 특히 이들에 대한 효시형은 중앙군의 핵심인 훈련도감에서 주로 주관하였다. 『훈국등록』의 기록에는 이인좌의 난 관련자들에 대한 효시형 집행 기록이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728년(영조 4) 3월 19일에는 李麟佐와 鄭希亮 등이 청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서울에서 호응하기로 했다는 죄목으로 소론 南泰徵, 閔觀孝, 愼光遠, 李世龍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비록 양반 관리지만 거병한 반란군을 군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훈련도감 陣 앞에서 참수되어 장대에 매달려 효시되었다.<sup>52)</sup> 그런데 이들 반란군들의 경우

50) 『訓局事例撮要』 上卷, 「逃軍」 當寧 五年(雍正七年) 己酉 十月 日 기사; 『英祖實錄』 권24, 영조 5년 10월 9일(경술).

51) 이밖에도 1715년(숙종 41) 궁궐 宿衛軍이 궁궐 내에서 입직하다가 軍裝 등을 버리고 밤에 무단으로 도주한 사건도 참작 처리된 사건의 예이다. 그는 훈련도감 포수 安守雲인데, 숙종은 효시하는 것이 軍律을 엄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적과 대치중이 아니니 참작하는 것에 좋겠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翫陣 日에 군사들 앞에서 곤장 100대를 가하도록 조치하였다(『訓局臚錄』 19책, 乙未(1715) 9월 18일, 10월 3일, 10월 8일; 『肅宗實錄』 권56, 숙종 41년 10월 8일(경오)). 이는 앞의 김명선, 김한중에 대해 효시형 집행을 하지 않고 곤장으로 처리한 사례와 유사하다.

주로 앞서와 같이 훈련교장이 있던 노량 사장에서 거행하는 대신, 효시형을 집행할 때 도성 안 훈련도감군의 陣 앞이나 종로의 鐵物橋 거리가 자주 이용되었다. 예컨대 이인좌 무리가 충청도에 들이닥치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반군에 협조한 회덕현감 金道應, 황간현감 李挺徽 등을 효시할 때,<sup>53)</sup> 문경현에서 체포되어 압송된 죄인 李萬光을 효시할 때<sup>54)</sup> 모두 훈련도감에 의한 형 집행이 철물교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반란을 주도하다가 전투 중 참수된 鄭希亮, 李熊輔, 羅崇坤에 대해서는 머리를 서울에 보내 처단한 역적의 머리를 국왕에게 올리는 의식인 이른바 ‘獻馘禮’를 거친 후 장대에 꿰어 매달아 효시하였다. 『훈국등록』에 실린 기록을 보면 당시 서울로 보내진 정희량 등의 머리는 현곡레가 열리기 전까지 光熙門 안 훈련도감 화약고 안에 소금을 담가 보관하였다.<sup>55)</sup> 그리고 현곡레는 四道都巡問使 吳命恒을 국왕 영조가 崇禮門 門樓에 올라가서 영접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다.<sup>56)</sup> 이외에도 무신난에 연루된 반란군을 훈련도감에서 처형한 많은 사례들을 『훈국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무신난 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역모 죄인을 군율에 의거하여 처형할 때 훈련도감이 주관하여 효시형으로 집행하였다.

52) 『訓局謄錄』 24책, 戊申(1728) 3월 19일.

53) 『訓局謄錄』 24책, 戊申(1728) 4월 6일.

54) 『訓局謄錄』 24책, 戊申(1728) 4월 15일.

55) 『訓局謄錄』 24책, 戊申(1728) 4월 14일.

56) 『英祖實錄』 권17, 영조 4년 4월 19일(기해).

##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대표적인 중앙군이었던 훈련도감 군법의 특징, 실제 군법 집행의 사례와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훈련도감이 조선후기 중앙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 등 연대기 자료에 관련 기록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들 자료만 가지고는 훈련도감 군법 집행의 실상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훈련도감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기록이 담긴 『훈국등록』과 관련 사례집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훈련도감 검토에 앞서 조선후기 군법의 골격을 살펴보았는데, 조선후기 군율에 의거한 처벌의 핵심은 곤장형과 효시형이었다.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 곤장을 쳐서 군대로 복귀시킨 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경우는 참수형보다도 무거운 효시로 처단하였다. 조선전기에는 곤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사형 집행도 참수로 그쳤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후기에 곤장형과 효시형이 정착되는데,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전란을 거치면서 군 기강을 더욱 강화할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의 창설과도 관련이 되는 사안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훈련도감에서 시행된 군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훈련도감에서 소속 군사들을 규율하는 군율은 많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도망 병사에 대한 처벌 규정과 곤장 사용 지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도망병사에 대한 처벌은 초범은 곤장형에 처하되 여러 번 도망간 경우는 효시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군무 이탈 행위에 대해 무겁게 다스리도록 정비하였다. 그리고 곤장 종류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지휘관의 범위, 곤장의 최대 집행 범위 등 곤장 사용 지침을 촘촘히 규정하여 도감 장교들의 소속 군사들에 대한 곤장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훈련도감에서 집행한 효시형의 실제 집행 사례를 추적하였는데, 크게 동료 살인 및 군기문란 행위에 대한 효시, 도망 군사 처벌로서의 효시, 무신난의 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효시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례를 통해서 동료를 살해한 행위나 반란을 일으킨 행위와 같은 경우 군법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처형하였으나, 전란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평화가 지속되는 숙종, 영조대에 오면서 도망 군사에 대해서 극형인 효시형 대신에 곤장으로 참작, 처벌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그만큼 법 적용을 원칙대로 하기보다는 시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군법에 주목하여 훈련도감 운영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군인을 다루는 군법은 원칙적으로 엄정한 것이 생명이다. 다만 이를 현실에서 그대로 따르면 너무 각박하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군 기강의 문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조선후기에 군영을 중심으로 곤장형과 효시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전란을 거치면서 엄정한 군법 적용의 필요성이 공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선후기 숙종대 이후 국왕들은 훈련도감 군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되게 군법을 적용, 집행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훈련도감에 대한 국왕의 높은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글은 곤장형과 효시형이라는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군법 집행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만들어진 다양한 군율과 군법 체계 전반을 다루지 못한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그동안 거의 방치되어 왔던 군법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6.9.30, 심사수정일: 2016.11.18,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訓練都監, 軍法, 棍杖刑, 梟示刑, 『訓局臚錄』, 哨軍, 砲手, 도망 군사  
[逃軍], 『欽恤典則』, 軍令

<ABSTRACT>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Law[軍法]  
observed by the Hun'ryeon Dogam(訓練都監) office and the  
Futures of Executions by Decapitation(梟示刑)  
in the second half of Joseon period

Sim, Jae-Woo

What I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contents and nature of the Military Law observed and implemented by the Hun'ryeon Dogam office, in order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office itself, which was the most characteristic Joseon military installation established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having been operated. And to do that, this article attempted a more detailed look into Hun'guk Deung'rok, which was a compilation of operational documents generated by this office but for some reasons was not previously analyzed that much carefully. Also, certain relevant cases are presented here in this article.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Joseon period Military Law reveals that the most prominent forms of punishment were either by decapitating one's head and hanging it up(梟示刑), or flogging(棍杖刑). It was especially so in the latter half period, as dictated by military regulations. In the dynasty's early half, the flogging stick(棍杖) was yet to be devised, and decapitation was not followed by hanging the person's severed head up. But after the 1590s' war with the Japanese, new practices were employed, hence the practice of 'hanging the decapitated head,' or 'flogging a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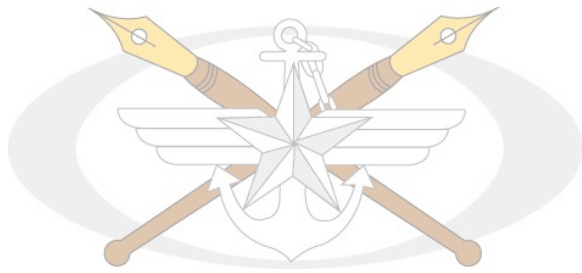
Examined next are military regulations observed inside Hun'ryeon Dogam, through punishments meant for deserters and rules used for capital execution. In case of deserters, first time offender was simply flogged, but multiple offenses were punished by decapitation, followed by the practice

of hanging the head up, so we can see desertion was never tolerated. Instruction that were to be kept in mind, in case of using the flogging stick, was also carefully drafted so that the officers would refrain from using excessive force in implementing the flogging practice.

To be examined lastly were the actual examples of decapitating someone and hanging the severed head up. Case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punishment of a soldier or officer who murdered a colleague or breached military discipline, punishment of a deserter, and punishment of the riot leaders who staged an insurrection in the Mushin/戊申 year. Murdering a colleague or staging an insurrection were met with the most deadliest punishment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reigns of kings Sukjong or Yeongjo, when the war was long past and peace was being maintained, deserters were treated with mild punishments comparatively other than decapitation with their heads to be hung up. In other words, they were flogged instead. We can see that the authorities were trying to implement law, not so strictly to the letter but rather flexibly according to circumstances.

Key words : Hun'ryeon Dogam(訓練都監), Military Law(軍法), Flogging(棍杖刑), Decapitation and hanging one's severed head up(梟示刑), Hun'guk Deung'rok(訓局騰錄), sentry(哨軍), gunner(砲手), deserter[逃軍], Heum'hyul Jeonchik(欽恤典則), Military Regulations(軍令)





# 17세기~18세기 전반 어영청 재정의 운영과 변화

- 『御營廳舊式例』를 중심으로 -

송기중\*

1. 머리말
2. 17세기 중엽 재정 구조의 형성
3. 17세기 후반 재정 운영의 실태
4. 18세기 전반 재정의 증가와 변화 추이
5. 맺음말

## 1. 머리말

17세기 전반 후금과의 관계가 위급해지고 내부에서는 각종 반란에 직면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군사력의 강화가 절실하였다. 특히 왕조라는 특성상 국왕의 생존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왕을 호위하는 군문의 창설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훈련도감을 창설한데 이어 인조 1년(1623) 어영청을 창설하여 중앙군을 강화하고 각종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

\* 충남대학교 강사

어영청은 고종 31년(1894) 폐영될 때까지 270여 년간 중앙 군문으로서 국가 방어체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어영청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정치 변화 속에서 어영청의 변천을 다룬 연구이다. 이태진은 인조반정, 북벌론, 탕평론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어영청이 변화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sup>1)</sup> 이근호는 도성방어체제의 확립 속에서 중앙 군문의 변화 양상을 언급하는 가운데 어영청을 다루었다.<sup>2)</sup> 둘째, 어영청의 운영 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연구이다. 최효식은 어영청의 상반, 편제와 군액, 임무와 활동, 재정 문제에 대한 여러 측면을 다루었다.<sup>3)</sup>

이들 연구는 어영청 운영의 변화를 밝히는데 기여를 하였지만, 어영청의 재정 문제를 해명하는 데는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어영청 연구에서 재정 문제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은 군문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어영청은 금위영과 함께 호수·보인제에 입각해 운영되는 중앙군문이며, 독특한 재정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어영청의 재정 운영에 대한 탐구는 조선의 군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17세기 어영청의 재정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주목되는 자료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御營廳舊式例』(이하 구식례)이다. 이 자료는 숙종 10년(1684)에 어영청 설치 이후 임기응변식으로 제정된 여러 규정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동시기 어영청 관련 자료 중 구식례는 어영청의 재정 운영을 가장 상세하게

1) 이태진, 『조선후기 政治와 군영제의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3) 최효식, 「御營廳研究」, 『韓國史研究』 40, 1983(『朝鮮後期軍制史研究』, 신서원, 1995).

기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면 어영청 재정의 운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구식례를 기반으로 하여 17세기 어영청의 재정 운영을 밝혀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17세기 중엽 호수-보인제가 형성되고 구식례가 발간될 때까지 재정의 형성과정에 대해 다루겠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구식례를 분석하여 17세기 후반 어영청의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특히 구식례의 「一年米布奉上上下數」와 「軍兵總數」 등 두 자료를 집중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구식례의 발간 이후 균역법 실시 이전까지 어영청의 운영상의 변화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 2. 17세기 중엽 재정 구조의 형성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어영군은 국왕의 호위임무를 맡아 충청도 공주까지 이동하였다. 연평부원군 이귀는 공주에서 인근 군현의 산포수를 편성하여 어영군의 전력을 강화하였다. 이괄의 난에서의 활약은 어영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괄의 난이 평정된 이후에도 대외적인 위기가 지속되자 조정에서는 어영군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sup>4)</sup>

이렇게 군문을 강화하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재정 조달 문제였다. 어영청의 재정 조달 문제는 창설 초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한다. 다음은 인조 2년(1624) 8월 어영군의 재정 조달 문제에 대한

4) 이태진, 「17세기 朋黨政治와 中央軍營制」, 앞의 책, 92~98쪽; 최효식, 앞의 책, 23~25쪽.

비변사의 언급이다.

어영군의 일에 이르러서 本司의 뜻은 먼저 該曹의 조치[料理]와 米糧의 지급 사항을 먼저 살펴본 후에 이를 참작하여 (병력을) 번을 나누어 모아 호위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연신의 계사에 대해 이미 윤택하였으니, 한편으로는 병조에게 분부하여 병력을 모집하고, 한편으로는 호조에게 糧料를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sup>5)</sup>

비변사는 어영군의 병력 운영 형태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한 후, 어영군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료 지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변사는 병조에서 병력을 모집하고, 호조에서 어영군의 급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국 비변사의 건의는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서 어영청의 운영비용은 호조의 재원을 통해 충당하게 되었다.

17세기 당시 호조가 어영청에 지급한 비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급료이다. 인조 6년(1628) 조정에서는 어영청 향군의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고, 양인인 경우 보인 1명을 지급하고 천인인 경우 복호 50부를 지급하는 조치가 있었다. 이로 인해 어영군이 입역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급하는 규정이 일부 정비되었지만, 이 조치는 어영군이 상변을 위해 한양을 왕복하는데 필요한 노자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입역기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라고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에 체류하는 비용은 조정에서 별도의 ‘급료’라는 형태로 지급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어영군의 급료가 정해진 것은 창설 직후라 생각되지만 그 규모는 인조 8년(1629)이 되어서야 알 수 있다. 이 시기 어영군 3,600명이 1번 당 450~460명씩 8번으로 편성하여 10월부터 1번이 2개월씩 근무를 서게 하는 규정이

5) 『御營廳都廳錄』 1冊, 仁祖 2年 8月 28日. “至於御營軍事 本司之意 先看該曹料理 應支米糧 然後參酌分番 調集扈衛似當 而筵臣啓辭 既已蒙允 一邊令兵曹 分半調集 一邊令戶曹 辦出糧料 以待何如傳曰允”.

마련되었다. 호조는 입역규정이 정비되자 어영군 한 명에게 매달 미 9두씩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매년 어영청에 지급할 비용을 책정하였다. 당시 호조는 1년에 어영군의 급료로 미 3,240여석을 책정하였으며, 매달 270여석씩 분납하였다.<sup>6)</sup>

아울러 어영군의 군기를 제작하는 장인에게도 급료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어영청에서는 장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 19년(1641) 어영청에 입역하는 장인의 급료가 훈련도감의 장인에게 지급하는 급료보다 지나치게 적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훈련도감의 장인은 미 12두와 포 1필을 지급받고, 장인의 역을 돕는 조역자는 포 없이 미 12두만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어영청의 장인과 조역자는 모두 미 9두만 지급받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sup>7)</sup> 국왕은 호조에게 어영청의 급료를 훈련도감 수준에 일치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둘째, 훈련비용이다. 인조 4년(1626) 상변 기간 동안 어영군이 받는 훈련 횟수가 결정되었다.<sup>8)</sup> 이에 따라 이듬해인 인조 5년(1627) 어영군의 훈련을 담당할 교사 6명이 훈련도감에서 파견되었다.<sup>9)</sup> 이렇게 규정이 정비되면서 훈련에 필요한 호궐과 상궐 비용의 마련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인조 6년(1628) 호조는 어영청 호궐에 들어가는 소가 10마리가 넘는데, 모두 돈을 주고 사오고 있으나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조정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10)</sup> 17세기 초반 어영청의 호궐 비용도 호조에서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재에 따른 상궐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인조 7년(1629) 조정에서는 어영청 시재의 상궐을 본도의 포로 지급하라고 호조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6) 『御營廳謄錄』 1冊, 己巳年(仁祖 8, 1629) 5월 10日.

7) 『御營廳都謄錄』 1冊, 辛巳年(仁祖 19, 1641) 10월 30日.

8) 『承政院日記』 16冊, 仁祖 4年 10월 30日.

9) 『承政院日記』 19冊, 仁祖 5年 11월 27日.

10) 『承政院日記』 20冊, 仁祖 6年 1월 7日.

통해 알 수 있다.<sup>11)</sup>

이렇듯 인조 연간 어영청은 운영비용 중 상당수를 호조에 의지하였다. 하지만 후대로 내려갈수록 이러한 방식은 문제에 봉착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어영청의 군액은 17세기 전반 급격히 증가했다. 어영청은 설립 초기에 1,000명 정도의 군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이 끝나고 북방의 재침이 염려되자 조정에서는 3,000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을 뿐 아니라 각 지역의 業武를 뽑아서 어영청에 이속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어영청의 군액은 인조 17년(1739) 7,000명 정도까지 증가되었고, 인조 21년(1643)에는 10,000명 이상에 육박하였다.<sup>12)</sup>

이러한 어영군의 증강은 17세기 전반 대외정세의 위기에 대응한 국가 방어체제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어영청의 전력 강화는 군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상변하는 군사 수가 늘어나면서 호조에서 지급해야 할 급료의 양도 증가했다. 게다가 어영군에 공급하는 병장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장인의 고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장인에게 지급할 급료의 양도 늘어났다. 또한 훈련을 받는 병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호궐과 상궐 비용도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호조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었다. 인조 23년(1645) 호조판서 민성휘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였다.

호조판서 민성휘가 말하길 “묘당에서 현재 경비를 절감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조 田稅의 歲入은 1만 8,000여 석인데 어영군으로 料米를 먹는 자의 수가 매우 많으니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호조 참판 이시방이 “어영군에게 2개월 마다 요미를 지급하는 것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우상 이경석이 “군비 역시 염려해야겠지만 주상께서 특별히 줄이신다면 이 역시

11) 『承政院日記』 25冊, 仁祖 7年 3月 15日,

12) 최효식, 「御營廳·禁衛營의 比較研究」, 『경주사학』 1, 1982, 8쪽.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주상이 말하길 “先運 어영군은 이미 올라왔으니 요미를 지급하도록 하고 後運軍으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자는 올라오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sup>13)</sup>

호조 참판 이시방은 어영군이 근무서는 기간 동안 1개월에 1번씩 급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2개월에 1번씩으로 줄이자고 제안하였다. 급료의 지급 횟수를 줄여 호조의 지출을 절감하자는 것이었다. 이 방안에 대해 우의정 이경석은 찬성하였다. 하지만 인조는 이 방식 대신에 後運으로 상변하는 군사를 줄이는 방식으로 호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에도 논란이 되었다.

인조 27년(1649) 집의 김홍욱은 ‘변란 때문에 나라의 저축이 고갈 되어 요미를 지급할 수 없어 그 번차를 정지하다보니, 10년 동안 입역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서 그 역이 갈수록 헐해지고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4)</sup> 이 언급을 통해 호조가 어영군의 급료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어영청의 병력운영이 여의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조의 뒤를 이어 등장한 효종은 북벌의 기치 아래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효종의 군사력 강화 방안은 중앙 군문의 강화, 속오군의 강화, 강화도 방어체제의 개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15)</sup> 효종이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은 중앙 군문의 개편이었다. 어영청의 개편도 이 때 진행되었다.

13) 『承政院日記』 92冊, 仁祖 23年 10月 30日. “今日引見時 戶曹判書閔聖徽啓辭 廟堂方爲裁省之舉 而本曹田稅歲入 一萬八千餘石 而御營軍食料之人 厥數甚多 抄減宜當 戶曹參判李時昉曰 御營軍間朔給料 則節用之事 莫過於此 右相李景奭曰 戎備亦不可不慮 自上特爲抄減 則是亦惠民之政也 上曰 御營先運 既已上來 使之給料 後運軍未上來者 勿爲上來 可也”.

14) 『承政院日記』 105冊, 仁祖 27年 3月 18日.

15) 효종연간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차문섭, 「孝宗朝의 軍備擴充」, 『朝鮮時代軍制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송양섭,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韓國人物史研究』 7, 2007을 참조할 수 있다.



원호 2만 1천여 호에 각각 보인 3명을 주고, 매년 1천 명으로 서울에 踐更하게 하고 두 달을 채운 뒤 교대하게 하였는데, 1년 열두 달의 상변하는 숫자가 총 6천 명이었다. 이렇게 한번 돌면 다시 시작하였다. 보인 3명 가운데 1명을 뽑아, 호수로 하여금 그 번포를 징수하여 본군이 상변하기 위해 오고갈 때의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 그 나머지 보인 2명은, 산군에 있는 자는 포 2필을 거두고 해읍에 있는 자는 쌀 12두를 거두었는데, 포는 2백여 동이 되었고 쌀은 1만 3천여 석이 되었다. 경강에 창고를 지어 해마다 수송해 들어서 이것으로 군량에 이어 쓰고 탁지의 경비를 번거롭게 하지 아니했다.<sup>16)</sup>

조정에서 어영청의 규모를 증대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에 상응하는 재정을 확보해야 했다. 효종은 어영청 군제를 개편하면서 재정구조도 함께 정비하였다. 어영청의 군제 개편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군액 증강과 호수-보인제의 개편이 주요 골자이다. 어영군의 향군 호수를 21,000명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각각 보인 3명을 편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호수가 편제된 보인의 역가를 모두 수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보인이 납부하는 역가 중 일부는 어영청의 재정으로 활용되었다.<sup>17)</sup> 어영청이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비는 포 200여 동과 미 13,000여 석이었다. 이후 효종은 別馬隊와 別破陣 등 부대를 창설할 때도 호수-보인제를 활용하여 호수의 입역 비용과 어영청의 운영비용을 같이 마련하였다.

어영청은 호수-보인제의 확립을 통해 비로소 독자적인 재정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어영청은 효종 연간에 만들어진 재정구조를 현종부터 숙종 초반기 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강화유영의 설치이다. 강화유영은 숙종 6년(1680) 강화도에 설치된 어영청의 분소이다.<sup>18)</sup> 강화도는 17세기 전반 堡障處로 설정되면서 방어체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효종 연간에 경기 연해의

16) 『孝宗實錄』卷8, 孝宗 3年 6月 29日 己巳.

17) 이태진, 「17세기 朋黨政治와 中央軍營制」, 앞의 책, 165~168쪽.

18) 『御營廳事例』(國防科學研究所), 「諸屯」, 113쪽.

수군진이 강화도로 이속해온 이후 현종 연간 육군진으로 변화하면서, 방어체제의 성격이 수군 중심에서 육군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숙종 4년(1678) 진무영이 설치되는 한편, 돈대가 설치되었다.<sup>19)</sup> 조정에서는 돈대를 축조하기 위해 어영군을 동원하였다. 돈대 축조 이후 돈대관리를 위해 어영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지가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설치된 것이 유명이다. 아울러 유영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도에 둔전을 설치하는 등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영종진이 어영청의 휘하에 편입하였다. 영종진은 본래 남양에 있다가 효종 4년(1653) 紫燕島로 이전한 수군진이다. 영종진이 자연도로 이전한 이유는 강화도 방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국왕은 유사시가 되면 通津을 거쳐 甲串에서 瓘하를 건너는 방법으로 강화도에 들어갔다. 하지만 瓘하에 유빙이 많이 떠다녀 건너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겨울철에는 강화도로 들어갈 우회로가 필요했다. 여러 우회로 중에 가장 대표적인 통로는 월미도를 거쳐 자연도를 지나 강화도로 진입하는 길이었다. 영종진을 자연도로 이전한 이유는 이 우회로를 방비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대동법의 실시로 한양으로 운송되는 곡식이 늘어나자 자연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숙종 8년(1682) 영종침사는 어영청 파총을 겸임하고 육군 4초를 관할하게 되었다.<sup>20)</sup> 이 조치로 인해 영종진은 점차 경기 수영의 관할에서 벗어나 어영청에 소속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현종 즉위년(1659) 장연에 취철소둔이 설치되었으며, 숙종 4년(1678) 양주둔이 설치되기도 하였다.<sup>21)</sup> 아울러 덕적둔도 17세기 전반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어영청은 설치 초기 호조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19) 이시기 강화도 방비에 대해서는 송양섭, 「17세기 江華島 방어체제의 확립과 鎭撫營의 창설」,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2002; 배성수, 「肅宗初 강화도 돈대 축조와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7, 조선시대사학회, 2003;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3, 2010을 참조할 수 있다.

20) 『御營廳瞻錄』 6冊, 壬戌年(肅宗 8年, 1682) 6月 14日 「紫燕島節目」.

21) 『萬機要覽』 軍政 3, 御營廳 諸屯.

호조는 어영청의 규모가 커지자 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효종 연간 조정에서는 어영군 1명에게 배속된 보인의 숫자를 늘려, 이들에게서 받은 역가의 일부를 어영청의 재정에 전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했다. 이후 어영청의 재정은 효종 때 마련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영종진이나 강화유영 등 분소들이 생기면서 규모가 커졌다.

### 3. 17세기 후반 재정 운영의 실태

#### 가. 수입

구식례는 어영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영청은 주요 수입을 어디서 확보하였는가? 어영청의 수입은 정규 수입과 비정규 수입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비정규 수입은 호조의 물품지원, 鑄錢 등이 있으며, 정규 수입은 역가 수입과 둔전 수입이 있다. 이 가운데 비정규 수입은 임기웅변식으로 결정되고,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은 정규 수입만을 다루고자 한다.

정규 수입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보인의 역가 수입이다. 보인은 납부처에 따라 官納保와 資保의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자보는 호수에게 역가를 납부하는 보인이라면, 관납보는 거주지의 官에 역가를 납부하는 보인이었다. 향군과 별과진의 경우는 호수 1명당 지급된 보인 3명 중에 2명이 관납보, 1명이 자보였다. 이에 비해 별마대는 호수 1명당 지급된 보인 5명 중에 관납보는 3명, 자보는 2명이었다. 보인의 수입은 모두 어영청의 운영비로 산정될 수 있지만, 어영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입은 관납보의 역가라고 할 수 있다.

〈표 1〉 어영청 관납보의 미·포 수입

도	관납보	미		포		합계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절가	비중	
경기	3,034명	1,840석	8.8%	0	0%	9,200냥	8.8%	
강양[강원]	2,114명	588석 12두	2.8%	48동 20필	10.1%	7,784냥	5.1%	
공흥[충청]	10,446명	6,510석 6두	31.2%	24동 16필	5.1%	34,984냥	23.0%	
전라	8,792명	5,442석 6두	26.1%	73동 20필	15.3%	34,552냥	22.7%	
경상	11,856명	2,679석 3두	12.9%	322동 18필	67.1%	45,632냥	30.0%	
황해	황해	3,582명	1,953석 9두	9.4%	11동 41필	2.5%	10,950냥	7.2%
	개성	630명	224석	1.1%	0	0%	1,120냥	0.7%
	소계	4,212명	2177석 9두	10.5%	11동 41필	2.5%	12,070냥	7.9%
영종	0	1,595석 3두	7.7%	0	0%	7,976냥	5.2%	
합계	40,454명	20,833석 9두	100%	480동 15필	100%	152,198냥	100%	

\* 포는 도이상조에 480동 45필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의 총합은 480동 15필이었다. 도이상조의 기록은 오기라 생각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480동 15필을 채용한다. 미 1석=포 2.5필=전 5냥의 교환비율로 환산한다.

\*\* 출처: 『御營廳舊式例』 K2-3346, 「軍兵總數」

관납보는 충청·강원·전라·경상·경기·황해 등 6개 도에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에 가장 많이 있으며, 강원도에 가장 적게 분포했다. 주목되는 것은 황해도조가 개성부와 황해도로 나누어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영청을 개성 유수 이귀가 창설했기 때문에 개성을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자료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종진조는 경기도 하단부에 기록되어 있다.

관납보의 납부 명색은 미와 포 두 가지였다. 미를 납부하는 보인을 米保, 포를 납부하는 보인을 木保라고 한다. 목보의 포는 육로를 경유하여, 미보의 미는 수로를 통해 상납되었다. 어영청의 전체 미 수입은 미 20,833석 9두였다. 각 도별 미 수입 순위를 살펴보면 충청(31.2%), 전라(26.1%), 경상(12.9%), 황해(10.5%), 경기(8.8%) 순이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미 수입이 어영청 미 수입의 절반을 넘는다. 어영청의 포 수취는 경상(67.1%), 전라(15.3%), 강원(10.1%), 충청(5.1%), 황해(2.5%)의 순이었다. 포 수취의 대부분은 경상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역가를 미와 포로 구분해서 걷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sup>22)</sup> 첫째, 재정 구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밑에서 언급하겠지만 어영청의 지출은 크게 미와 포 두 가지 명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수입도 미와 포로 걷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반 문제를 반영한 조치였다. 산군에서 미와 같은 무거운 물품을 납부하기는 곤란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산군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포로 납부하도록 하고, 연군에서는 무게가 나가는 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운반상의 여러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해 준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각 지역별로 미보와 목보를 배분하는 데에는 산군과 연군 등 지리적 문제 뿐 아니라 한양과의 거리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와 가깝거나 운반이 용이한 지역인 경기·황해·충청도는 상대적으로 미 수입의 비중이 높고, 수도와 거리가 멀거나 수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인 전라·경상·강원도는 포 수입의 비중이 높다.

이외에도 구식례에는 영종진의 別後司가 납부한 역가도 기록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숙종 8년(1682) 영종진 첨사는 어영청 파총을 겸임하면서 육군 4초를 거느리게 되었다. 당시 어영청에는 別中司와 別右司 등 5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영종첨사 휘하의 육군 4초를 별후사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이후 숙종 10년(1684)에는 1초가 늘어나서 별후사는 총 5초로 편성되었다. 이들이 납부한 역가는 전체 5.2%를 차지한다. 또한 <표 1>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구식례에 別中哨가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장연에는 별중초군 123명과 보인 35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호수와 보인 상관없이 田米 12두씩 납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4)</sup> 별중초가 납부하는 역가는 도이상조에 합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장연취철소 자체의 수입원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미 1석=포 2.5필=전 5냥의 교환비율로 환산하였다.

23) 『御營廳臚錄』 6冊 壬戌年(肅宗 8, 1682) 6月 14日 「紫燕島節目」.

24) 『御營廳舊式例』 K2-3346, 「軍兵總數」.

이처럼 어영청은 각 도에 거주하는 관납보의 역가를 통해 재원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었다. 어영청은 역가 수입 이외에도 둔전을 통해 얻는 수입이 있었다. 다음 표는 각 지역에 있던 둔전 수입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2〉 어영청의 둔전 현황

		전	답	둔호(모군)	기타수입
강화유영둔		23석 12두	22석 6두(5결 32부)	0	
영종진둔		102결 97부	44결 6부	0	
장연 취철둔	신곳	221일반경	5석 4두	20명	철6,200근, 수철200근, 여교20장
	지석	202일경	5두	19명	
	두신산	4일경	0	0명	
	남산	159일경	11두	5명	
양주둔	양주	71일경	0	100여호	탄 납부
	철원	8일경	0	30여호	
	연천	0	0	20여호	
덕적둔		146일반경	12석3두	160여호	염분5좌, 소목과 시탄 납부

\* 영종둔은 起田과 起糶 수치를 기록하였다.

\*\* 출처: 『어영청구식례』 K2-3346, 「강화유영식례」, 「영종진식례」, 「장연취철소식례」, 「양주둔식례」.

어영청의 둔전은 강화유영둔·영종진둔·장연취철소둔·양주둔·덕적둔 등 5곳이다. 둔전의 크기는 일정치 않았으며, 면적의 표기 방식도 각 둔전 마다 차이가 있다. 강화유영둔은 두락지와 결부법이 혼용되어 있는데 비해 영종둔은 결부법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그 나머지 둔전의 경우도 田은 일경이나 반일경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畓은 석락지와 두락지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면적의 표기 방식이 상이한 이유는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행해진 측량방식이 통일되지 않은 채 구식례에 그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둔호는 160여호에서 없는 곳까지 각 둔전마다 다양하다. 이들 둔전은 주로 둔호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보인다. 둔호가 없는 곳의 경작자는 분소 소속 노복이나 군인 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식례에는 각 둔전에서 어영청의 본영에 납부하는 곡식의 양이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19세기 초반 이들 둔전이 어영청 본영에 상납하는 양이 없거나 아주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7세기 후반에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sup>25)</sup>

그렇다면 어영청에서 곡식 상납이 별로 없는 둔전을 경영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화유영둔과 영종진둔은 어영청 分所인 강화유영과 영종진의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된 둔전이다. 장연의 취철소둔은 「장연취철소식례」에 德主와 匠人 등에게 총 2200근, 수철 200근 등을 수세하며 운반하는 배의 척수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철물을 생산하여 어영청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머지 양주둔이나 덕적도둔은 근처에 어영청의 분소나 광산 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설치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관련 자료를 통해 설치 목적을 짐작해볼 수 있다. 양주둔은 ‘어영청의 군기를 만들 때 소용되는 솥이 많으므로, 철원 보개산 기슭의 수목이 무성한 곳을 떼어 받았다’는 숙종 15년(1689) 우의정 김덕원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탄의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sup>26)</sup> 덕적도에 둔전을 건설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였다. 「덕적둔식례」에는 염분의 솥자와 수세액, 그리고 선척 별 소목의 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들 물품을 수취하기 위해 개설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철, 소목, 염, 탄 등은 어영청에서 무기제작이나 호궤 등을 할 때

25) 이 자료에는 收稅額이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19세기 『御營廳事例』에 기록된 수세액을 통해 17세기 수세액을 짐작해볼 수 있다. 19세기 각 둔전의 수세액을 살펴보면, 장연취철소둔은 30~40냥 정도 되며 양주둔의 수세액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주둔의 수세액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주둔의 규모는 79日耕으로 장연취철소둔 428日耕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강화유영둔과 영종진둔에서 중앙에서 상납하는 금액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 둔전의 생산물은 환곡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진에서 사용하였다(『御營廳事例』(國防軍史研究所) 「諸屯, 105쪽)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둔전에서 중앙에 상납하는 금액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6) 『備邊司謄錄』 43冊, 肅宗 15年 2月 15日.

반드시 필요한 현물이었다. 하지만 어영청의 주요 수입원은 보인에게 얻는 역가였기 때문에, 현물을 별도로 공급 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折受해 현물을 어영청에 공급하는 방안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어영청은 이곳에 둔전을 설치해 백성의 생계를 마련해주는 한편,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지역에서 나는 각종 현물을 바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영청이 모든 물품을 둔전에서 공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둔전에서 조달하지 못한 물품들은 ‘請求’라는 명목으로 지방군문이나 비변사에서 가져다 썼다.<sup>27)</sup> 이렇듯 어영청은 미와 포를 보인의 역가를 통해 충당하고, 현물을 둔전이나 다른 아문에 청구하여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

## 나. 지출

어영청은 각 도에서 역가를 수취하는 한편, 둔전을 경영하여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였다. 어영청의 지출도 역가에서 지출하는 것과 둔세에서 지출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우선 전자를 살펴보자. 다음 표는 어영청의 역가로 지출하는 명목과 그 액수를 도표화 한 것이다.

〈표 3〉 어영청의 연간 역가 지출 현황

분류	명목	미	포	절가 합계
급료	10초군병	10,752석	·	53,760냥
	경안6색군	3,601석 9두	86동	26,608냥
	장교원역	1,956석	75동 42필	17,364냥
	제색장인	500여석	50여동	약 7,500냥
	별초군관	288석	·	1,440냥
상격	10초군병	·	96동	9,600냥
	별마대·별파진	·	36동	3,600냥
초료	별초전마7삭초료	·	10동 4필	1,008냥
	도이상	17,214석	393동 34필	약 125,438냥

\* 給料, 實格, 草料의 실제 합계와 도이상의 수치가 맞지 않는다. 미 1석=포 2.5필=전 5냥의 교환비율로 환산한다.

\*\*출전: 『어영청구식례』 K2-3346, 「一年米布捧上上下數」; 최효식, 「어영청」, 앞의 책, 61쪽 [표 2-15].

27) 『萬機要覽』 軍政 3, 「御營廳」.



이 자료에 기록된 어영청의 지출액의 도이상은 미 17,214석 포 393동 34필이었다.<sup>28)</sup> 각 어영청의 지출은 크게 급료, 상격, 초료의 세 가지 명목으로 나누어졌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급료이다. 급료는 10초군병, 경안6색군, 장교원역, 제색장인, 별초군관의 5개 항목으로 다시 나누어졌다. 10초군병은 상변한 향군에게 주는 급료항목이다. 상변하는 향군의 숫자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구식례가 반포되었을 때에는 10초[2사]가 상변하는 것이 상례였다. 상변하는 어영군 1인당 급료는 1개월 당 미 9두였다. 다만 시재에 입격해 겸사복을 겸직하면 급료 미 3두를 추가로 받았다.<sup>29)</sup> 어영군은 11세 이상의 양정을 충원하도록 하였는데, 연령이 낮거나 높은 사람이 충원된 경우에는 급료를 삭감하기도 하였다. 이 자료에는 상변 인원수가 기술되지 않았다. 다만 향군 10초에게 미 896석씩 지출한다고 가정하고 1년간 급료를 산정하였다. 규모가 작은 별마대와 별파진의 급료도 여기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경안6색군은 의장이나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병력인 경안잡색군의 급료이다. 17세기에는 경안6색군 안에 어떠한 병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9세기 『어영청사례』에 따르면 뇌자, 순령수, 취고수, 대기수, 장막군, 등룡군, 별아병, 당보수, 별장표하군, 천총표하군, 기사별장표하군, 파총표하군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0)</sup> 하지만 이들 병종이 17세기 당시에 모두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중에 일부인 6개 병종만이 경안6색군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영청은 이들을 매달 일정 인원씩 고립하였다. 이들은

28) 각 지출을 실제로 합산해보면 도이상조와 불일치한다. 미의 지출 합계는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데 비해, 포의 합계는 40필 정도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도이상조의 수치를 취신한다.

29) 『御營廳舊式例』 K2-3346, 「應行節目」. “一軍兵給料九斗兼司僕則給十二斗”,

30) 『御營廳事例』(國防軍史研究所) 「京標下軍秩」, 15쪽. 이 병종이 17세기에도 모두 경안잡색군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상변한 향군과 같이 점고하였고, 시재에도 참여하였다. 이들의 급료는 미 9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검사복을 겸임할 때는 미 12두를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1월, 5월, 9월이 되면 포 3필씩을 지급하였다.<sup>31)</sup>

장교원역은 어영청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급료이다. 장교원역의 급료는 호조에서 지급하는 경우와 어영청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응행절목」을 바탕으로 이를 구분해보면, 호조에서 급료를 받는 장교는 중군 1명, 별장 2명, 천총 5명, 파총 5명, 군관 10명, 마병초관 1명, 교련관 2명, 기패관 3명, 본청군관 15명 등 총 44명이었다. 어영청에서 급료를 지급받는 장교는 無軍將校軍官 95명, 기패관 5명, 약방 1명, 침의 1명, 군관 15명 등 총 117명이었다.

제색장인은 어영청에 근무하는 장인의 급료이다. 「공역식례」에 따르면 어영청은 군궁, 평궁, 조총, 조철별환도, 소동포, 단동포, 편곤, 도금피갑, 화약 등 각종 무기류와 화약 등을 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기 제작을 위해서는 궁인, 실인, 칠장, 야장, 연마장, 초련장, 재련장, 정련장 등을 고용해야 했다. 이들 장인의 급료는 근무 기간과 업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었다. 「야장식례」에 따르면 어영청은 장인을 일반장인과 軍匠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급료의 차등을 두었다. 일반장인은 포 3필과 미 9두를 지급받는데 비해 군장은 포 1필과 미 3두를 지급받았다. 군장이 일반장인 보다 급료가 적은 이유는 군인이라는 이들의 신분을 감안한 조치라 생각된다.

별초군관의 급료도 어영청에서 지급되었다.<sup>32)</sup> 별초군관은 駕前別抄나 別抄武士라고 불리며 포수나 降倭의 자손을 편성한 부대이다.<sup>33)</sup> 이들은 총원이 60명이었는데, 이중 호조와 어영청이 급료를 지급하는 인원이 각각 30명이었다. 별초군관의 급료는 일반 어영군보다는 다소

31) 『御營廳事例』(國防軍史研究所) 「京標下軍秩」, 15쪽.

32) 『承政院日記』 70冊, 仁祖 17年 8月 10日.

33) 『萬機要覽』 軍政 3, 「御營廳」.

많은 미 12두였다. 12두씩 30명에게 급료를 주면, 1개월에 지출해야 할 급료가 미 24석이며, 1년이면 미 288석이 된다.

다음으로 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賞格이다. 향군 射夫의 시험과목은 유엽전 및 편전 쏘기였다. 채점 기준은 과녁에 맞추는 화살 수와 명중 여부였다. 과녁에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같은 것은 아니었다. 과녁에 명중하는 경우[貫]와 주변부를 맞추는 경우를[邊] 구분해 성적의 차등을 두었다. 유엽전은 화살 1발을 명중할 때마다[1관] 포 1필 10척씩 포상액이 늘어났으며 1발을 주변부에 맞추게 되면[변] 포 1필이 늘어났다. 편전 1발을 명중할 때마다 1필씩 포상이 늘어났으며, 1발이 주변부를 맞추게 되면 10척씩 포상액이 늘어났다. 별마대와 별파진의 시제는 과목과 측정 방식이 향군과 다르지만, 성적을 포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동일했다. 구식례에는 별파진과 별마대에 대한 상격 비용으로 매달마다 포 3동이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초료이다. 초료는 별초군관 戰馬의 말먹이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7달만 지급한 것은 근무 기간을 고려한 조치 같다. 같은 전마를 운영하는 별마대의 경우는 보인이 있기 때문에 초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둔전의 수입도 대부분 둔전의 책임자나 휘하 근무 인원의 급료로 지출되었을 것이다. 다음 표를 살펴보자.

(표 4) 17세기 어영청 분소의 급료 현황

	수령자	인원	매달 급료
강화유영둔	감관	1	미 27두, 태 9두
	서원	1	조 7두
	고자	1	조 7두
영종진둔	첨사	1	미 37두 태 16두
	승장	1	미 6두 태 1두

	수령자	인원	매달 급료
장연취철소둔	별장	1	미 12두
	노	2	피속 12두
	둔장	3	5일경 급복
	사령	2	신역 감제
양주둔	별장	1	피곡 8두
	둔장 등	6	30복 급복
	사령	1	피곡 1두
덕적둔	별장	1	조 12두
	호방	1	모 6두
	고직	1	모 6두

\*출전: 『어영청구식례』 K2-3346, 「강화유영식례」, 「영종진식례」, 「장연취철소식례」, 「양주둔식례」.

급료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그리고 지급 물품 등은 각 둔전마다 달랐다. 이들에 대한 급료의 지급 방식은 크게 ‘직접지급’, 給復, 身役減除의 세 가지였다. ‘직접지급’은 급료를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급료의 명색은 미·조·피속·피곡·모·태의 여섯 가지였다. 급복은 복호를 주어 일정 면적의 땅에서 징수하는 호역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신역감제는 어영청의 신역에 대한 대가로 다른 신역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급복과 신역감제는 둔전의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료의 형태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둔전의 지휘관이나 근무 인원의 馬價나 船價도 둔전의 수입에서 지급되었다.

요컨대, 어영청의 수입은 크게 역가 수입과 둔전 수입 등 두 가지였다. 보인에게 얻는 수입은 미와 포였으며 어영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영청의 역가 수입은 상변하는 군병, 경안6색군, 장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와 시재에 따른 포상물품 마련에 주로 쓰였다. 둔전은 한양 외에 어영청 분소나 철, 시탄 등 현물을 채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어영청 둔전의 지출도 주로 둔전의 운영비로 쓰였다.

#### 4. 18세기 전반 재정의 증가와 변화 추이

조선의 관청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재원을 징수하여 각 기관에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과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기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호조, 선혜청, 균역청 등이 속한다. 이 기관은 독자적인 재원 수취 권한을 바탕으로 확보한 재원을 각 기관에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재정을 운영했다. 이에 비해 후자는 중앙의 영·아문, 왕실기관, 지방기관 등이 속한다. 이 기관은 수취 권한을 중앙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sup>34)</sup> 어영청은 균역법 실시 이전까지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어영청의 재정 운영을 살펴보면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구식례에 기록된 당시 어영청 미포 수입의 합계는 미 20,833석 9두와 포 480동 15필이다. 이를 전으로 환산하면 총 152,198냥이었다. 이에 비해 어영청의 지출은 약 17,214석과 포 393동 34필인데 전으로 환산하면 125,438냥이었다.<sup>35)</sup> 두 수치를 비교해보면 어영청의 수입이 지출보다 24,176냥 정도 많았다. 이 수치로만 보면 어영청은 재정이 불균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어영청 재정 운영의 특징과 관계가 있다. 어영청의 역가 수입은 다양한 감축 요인으로 인해 매년 일정하지 않았다. 당시 역가 수입의 감소 요인은 세 가지였다. 첫째, 災減이다. 재감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영군에게 역가를 감축하는 조치였다. 숙종 5년(1679) 각 군현을 가뭄의 정도에 따라 우심읍과 지차읍으로 나누고 어영군의 역가를 1/2이나 1/3씩 삭감해주었다.<sup>36)</sup> 숙종 13년

34)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개요」, 『조선왕조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와 비평, 2008, 95~97쪽; 송양섭, 「『부역실총』에 나타난 재원과약 방식과 재정정책」, 『역사와 현실』 70, 2009, 40~41쪽.

35) 1석=5냥=2.5필이라는 절가식에 따라 환산하였다.

36) 『御營廳謄錄』 5冊, 己未年(肅宗 5, 1679) 11月 4日.

(1687) 어영청 관납보의 역가를 삭감해주는 조치가 있었다.<sup>37)</sup> 재감은 어영군에게 지급되는 홀전이었지만, 어영청의 수입 감소 원인 중 하나였다. 둘째,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미의 운반비는 거둔미에서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포의 운반비는 보인에게 후포를 거두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sup>38)</sup> 이렇게 정해진 운반비 이외에도 敗船, 和水 등으로 인한 손실도 상당했다. 물론 증렬미를 거두어 운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지만, 손실액을 완전히 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균역의 도고와 잡탈로 인한 손실이다. 도고와 잡탈은 균역 충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각 도에 분배된 역가 수입이 그 원액을 손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어영청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가뭄이나 운반에 따른 손실은 해마다 달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영조 29년(1753) 영의정 洪鳳漢은 ‘금위영과 어영청은 보인에게 납부 받는 역가 총액이 미 2만 3천석~2만 4천석 정도인데, 그중에서 裁減이 있고 敗船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 船價와 馬價를 제외하면, 實入庫數는 적으면 1만 2~3천 석, 많으면 2만 석 정도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sup>39)</sup> 이 자료를 통해 재감이나 선가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어영청의 수입이 미 8,000석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영청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산정한다면, 수입 감소 요인으로 인해 지출액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지출을 예상 수입보다 적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확정된 구식례의 어영청 재정 구조는 숙종 30년(1704) 이전까지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겪는다.

37) 『御營廳臚錄』 8冊, 乙丑年(肅宗 11, 1685) 10月.

38) 『御營廳舊式例』 K2-3346, 「應行節目」, “每保一名 山郡則納布二疋 沿海則納米十二斗 陸路則收其後木 量其遠近以給蹄踵之費 水路則除其元數中 計給船價 木則二月內上納米則三月後上納”.

39) 『承政院日記』 1091冊, 英祖 29年 2月 22日.

〈표 5〉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어영청의 상변 향군과 보인의 변화

	숙종 10년(1684)	숙종 30년(1704)	변화(▲▽)
관납보 숫자의 변화	40,454명	44,206명	3,752▲
향군의 상변숫자 변화	10초	5초	5초▽

첫째, 관납보 숫자의 증가이다.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의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양역의 충원도 이에 상응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숙종 10년(1684) 구식례에 따르면 관납보의 총액은 40,454명이었다. 그런데 20년 후인 숙종 30년(1704) 『각영이정청등록』에 기록된 관납보의 숫자는 44,206명이었다.<sup>40)</sup> 두 자료가 발간된 사이에 관납보의 숫자가 3,752명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영청에서 얻는 수입을 미로 환산하면 약 미 32,363석에서 미 35,364석으로 약 미 3,001석 정도 증가하였다. 관납보의 증가로 인해 어영청의 수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둘째, 상변하는 향군 숫자의 감소이다. 어영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효종 3년(1652) 이후부터 한동안 1번당 10초씩 상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두 개의 시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섰다.<sup>41)</sup> 하지만 숙종 8년(1682)부터 5초[1사]가 근무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부표 참조). 10초가 상변할 때나 5초로 상변할 때의 초의 수만 다를 뿐 상변 순서는 비슷하다. 10초 상변할 때도 영의 전사가 입역하는 것으로부터

40) 『各營整廳廳錄』奎 15062, 「五軍門改軍制變通節目」.

41) 숙종 10년(1684) 당시 어영청은 5부-25司-125초와 別3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부는 5개 사로 편성되어 있었고, 1개 사는 다시 5개 초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前·左·中·右·後 등 방위명으로 호명되었다. 즉 5개 영은 前營·左營·中營·右營·後營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와 초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別3사는 후대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5영 내부에 편제되지 못하였다. 이들 5영의 입역 방식은 前營의 前司와 左司 등 2개 사[10哨]가 입역하는 것을 시작으로 後營의 右司와 後司 등 2개 司가 입역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5영의 입변이 끝나면 別中司 등 5영 보다 후대에 생긴 司가 입역했다.

후영의 후사가 입역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으로 별3사가 입역하였는데, 5초로 상변할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상변하는 초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자료에 따르면 가뭄의 결과였다.<sup>42)</sup> 하지만 현종 연간까지 10초씩 상변하는 것이 규례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가뭄으로 인해 상변하는 향군의 초수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변하는 초수의 감축은 오히려 이 시기 수도방어체제의 정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숙종 8년(1682) 금위영이 창설되었다. 금위영군이 상변하기 시작하자 조정은 어영군의 상변 방식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다. 숙종 8년(1682) 이후 어영군은 10초와 5초 상변이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지다가 숙종 20년(1694)에 접어들면서 5초 상변이 정착되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다.

상변 초수의 감소는 근무 인원의 감소로 이어졌다. 어영청의 근무 인원은 상변하는 초와 경안6색군 그리고 기타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숙종 14년(1688) 1월 10초가 근무를 설 때 집고를 받는 인원은 경안6색군을 모두 포함하여 2,02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sup>43)</sup> 그런데 같은 해 상소로 인해 5초 군병이 근무서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면서 다음 번차인 숙종 14년(1688) 5월에는 1,400명이 근무를 서게 되었다.<sup>44)</sup> 어영청의 상변 인원이 10초에서 5초로 줄어들면, 근무인원 630명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상변인원의 감소는 재정적으로도 급료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표 3>에서 10초의 어영군이 상변하는 데 필요한 급료는 10,752석으로 책정해놓고 있었다. 만약 입역하는 인원을 5초로 감축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미 5,376석 정도가 지출에서 보전된다.

17세기 후반 이러한 어영청의 변화는 수입의 증가와 지출의 감소로

42) 『御營廳瞻錄』 8冊, 丙寅年(肅宗 12, 1686) 7月 7日.

43) 『御營廳瞻錄』 8冊, 丁卯年(肅宗 13, 1687) 12月 27日.

44) 『御營廳登錄』 8冊, 戊辰年(肅宗 14, 1688) 4月 27日.



이어졌다. 이에 따라 어영청의 재정은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금위·어영 등 양청에서는 10초 군병이 상변하였는데, 연이어 5초 군병이 상변하니 납부받은 미포의 남은 숫자가 필히 많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sup>45)</sup> 하지만 17세기 후반 대외 정세가 안정된 상황에서 군문에서 많은 재원을 보유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어영청 재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변화가 수반되었다. 첫째, 어영청 재정을 다른 아문의 재정으로 轉用하게 되었다. 숙종 9년(1681) 민유중의 장계를 살펴보자.

지금 미가가 올라 도성의 백성이 심히 곤궁합니다. 그러나 진흥청에는 다만 대미가 수 백석, 전미가 3천석 밖에 없어 결단코 府民에게 두루 분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먼저 극히 궁핍한 사람들에게 분급하고자 하더라도 1만석 가까운 곡식이 얻은 다음에야 한 번에 도성 민에게 분급하여 목전의 급함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영청과 금위영 양영의 균형을 덜어 분급하는 것으로써 계를 올립니다.<sup>46)</sup>

미가가 올라 민이 곤궁해 있는데 진흥청 재원이 부족하자, 민유중은 금위영과 어영청의 균형을 가져다 쓰자는 의견을 계진한다. 물론 이에 대해 어영대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금위영의 균형만 분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러한 언급은 어영청 재정 운영의 향방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즉 어영청의 균형이 물가조절이나 가뭄해결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영조 3년(1727)에도 있었다. 국왕은 진흥청의 재원이 부족하자 어영청에서 미 7,000석을 대출하도록

45) 『御營廳謄錄』 10冊, 甲戌年(肅宗 20, 1694) 7月 23日. “禁衛御營兩廳 本以十哨軍兵上番磨鍊 而上來連以五哨上番 所捧米布餘數必多”.

46) 『承政院日記』 297冊, 肅宗 9年 2月 13日. “閔維重所啓 卽今米價騰踊 都民甚窘 而賑廳 只有大米數百石 田米三千石 決難遍及於府民 故先爲抄出 尤甚絕火之類 欲爲斗斗分給 而又必得近萬之穀 然後可以一番分糶於都民 以救目前之急 故初欲稟啓以御營禁衛兩營軍餉 除出分給矣”.

명령하였다.<sup>47)</sup>

17세기 후반부터 어영청 재정의 일부가 都監의 재원으로 이전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도감은 의례·토목·영접 등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주관할 목적으로 설치한 權設衙門이다. 17세기 전반에는 도감의 재원을 호조·병조 등 중앙아문과 감영·병영·수영 등 지방 관청에서 주로 마련하였는데, 17세기 후반에는 어영청에서도 일부 재원을 도감에 획급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현종 15년(1674) 국왕의 국장에는 어영청에서 미 500석과 은 700냥을 판출한데 이어 이어 숙종 28년(1702) 인현왕후 국장에는 어영청에서 미 700석, 은 1,000냥, 포 20동, 영조 원년(1724) 경종의 국장에는 어영청에서 미 1,000석, 은 1,000냥, 포 20동을 지원했다. 영조 2년(1726) 설치된 종묘개수도감에는 미 200석과 포 10동을 지원하였다. 어영청의 재정 지원은 후대로 갈수록 횡수가 늘어나고 규모도 커졌다.<sup>48)</sup> 이렇게 17세기 후반부터 어영청이 도감에 상당량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 후반 대외정세의 변화와 왕조재정 규모의 팽창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17세기 후반 어영청이 양역사정의 주요 대상이 되는 배경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18세기 초반부터 군대의 내실화와 군액 삭감에 목적을 두고 양역사정을 진행하였는데, 어영청이 주요한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이로 인해 숙종 30년(1704) 조정에서는 「五軍門改軍制變通節目」을 반포하고 어영청의 군제를 개편하였다. 당시 어영청의 군액은 호수·자보·관납보 등을 합산하면 총 102,270명이었다. 조정에서는 절목 반포 이후 매 초의 인원을 134명에서 127명으로 7명을 줄이는 한편, 아울러 별3사도 혁파하였다. 이 조치로 어영청의

47) 『英祖實錄』 卷14, 英祖 3年 12月 20日. 辛丑. “命賑廳米五千石 禁御營米七千石 移貸戶曹”.

48) 나영훈, 「17~18세기 도감의 고가마련과 軍門財源의 활용」, 『조선 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 한국역사연구회. 2016년 4월 30일 발표문, 125~149쪽.

군액이 86,953명으로 15,317명이 줄어들게 되었다.<sup>49)</sup>

이러한 양역사정은 영조 연간에도 지속되었다. 숙종 30년(1704) 어영청의 관납보는 42,820명으로 定額되었다. 이후 영조 5년(1729) 조정에서는 별마대 호수 중 일부를 보인으로 강등하여 540명의 보인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영청의 관납보 수를 총 43,360명으로 다시 정하였다. 이후 한동안 사정이 진행되지 않다가 『良役總數』가 발간되면서 정원 외의 인원 61명을 삭감하고 영조 5년(1729)에 정해진 군액을 그대로 준수하는 조치가 있었다.<sup>50)</sup> 이러한 조치는 어영청의 군액을 조정에서 늘리지 않으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요컨대, 어영청은 주로 수입을 보인에게 얻어, 각종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영청은 예상된 수입을 전부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지출이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8세기 전반에 접어들면서 상변하는 인원은 감축되고, 보인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어영청의 재정 형편은 이전 보다 풍부해지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두 가지 재정변화가 나타났다. 하나는 어영청의 재정을 다른 아문에 지원해주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어영청이 양역사정의 대상이 되면서 군액 삭감과 수입 감축이 이루어졌다.

49) 기존 연구에서는 숙종 30년(1704) 개편의 원인을 탕평책 등의 정치적 상황과 군역제의 운영의 난맥상 등으로 거론하고 있다(이태진, 앞의 논문; 백승철, 「17~18세기 군역제의 변동과 운영」, 『이재룡박사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90). 하지만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금위영 창설에 따른 어영청 상변군의 감소 역시 군액 감축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50) 『良役總數』 「京衙門該司所屬良役查正別單」 “御營廳官納保 甲申定額四萬二千八百二十名 己酉別馬隊降保增額五百四十名 合四萬三千三百六十名 今姑仍存 而額外十六名 汰減爲白齊”.

## 5. 맺음말

어영청은 조선후기 오군영의 하나로 국왕의 숙위, 능행, 도성방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문이었다. 어영청을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한 문제는 군문의 재정마련이었다. 설치 초기 어영청은 상변 어영군의 급료, 장인 급료, 상격 및 호궐 비용 등을 호조를 통해 조달하였다. 하지만 어영청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호조의 지출도 늘어났고 그 결과 호조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효종 연간 어영청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재정 마련 방안도 강구되었다. 이후 숙종 때 까지 어영청은 효종 때 마련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강화유영이나 영종진과 같은 어영청의 분소가 설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17세기 어영청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영청구식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어영청의 정규 수입은 역가와 둔전 수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 관납보의 역가가 어영청의 주 수입이었다.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던 관납보는 미 12두나 포 2필을 군현에 납부하면, 군현에서는 이를 어영청에 상납했다. 납부 명색을 미와 포로 나눈 이유는 어영청의 지출과 운반상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었다. 보인의 수입이 있음에도 둔전을 설치한 것은 미·목 이외에 소목, 염, 탄과 같은 물품들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이들 물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 인력의 생활비와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둔전을 설치한 것이었다.

어영청의 지출은 給料, 상격 그리고 초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급료였다. 어영청의 급료 지급 대상은 상변향군, 경안6색군, 장교와 향리, 장인, 별초군관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도 상변향군의 급료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격은 어영청의 시제에 따른 포상비용이었다. 어영청은 어영군의 상변기간 동안

5번 이상의 시재를 실시하였다. 시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포상을 실시하였고,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어영청 운영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어영청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어영청이 보인의 유망 및 도고, 재이, 운반에 따른 손실 등으로 인해 보인 수와 역가를 통해 산출한 수입을 모두 거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재이 등으로 인한 손실은 어영청에서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어영청의 수입은 지출보다 많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세기 접어들면서 어영청의 재정운영 방식에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보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어영청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상변하는 초수가 감축되면서 어영청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어영청의 재정은 이전보다 여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어영청의 재원을 다른 아문에 획급해주거나, 양역사정을 통해 어영군의 내실화와 군액감축을 조정 받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영청은 18세기 전반 재정 운영이 변화하는 추이 속에서도 균역법 실시 전까지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유지하였다.

(부표 1) 『御營廳謄錄』을 통해 본 현종 1년(1660)~숙종 30년(1704) 사이의 입역 방식

년	월	番號	초수	1司		2司		상번지역	전 거
				部	司	部	司		
현종 1	8		10	後	前	後	左	미상	3冊, 庚子 7月 29日
현종 1	10		10	後	中	後	右	충청	3冊, 庚子 9月 30日
현종 4	1		10	前	前	前	左	경상	3冊, 壬寅 11月 12日
현종 4	3		10	前	中	前	右	경상	3冊, 癸卯 1月 初8日
현종 4	7		10	左	左	左	中	경상	3冊, 癸卯 5月 11日
현종 4	9		10	左	右	左	後	미상	3冊, 癸卯 8月 29日
현종 13	10	7	10	中	中	中	右	미상	4冊, 壬子 9月 28日
현종 13	12	8	10	中	後	右	前	미상	4冊, 壬子 11月 30日
현종 14	2	9	10	右	左	右	中	전라	4冊, 壬子 11月 15日
현종 14	4	10	10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4冊, 癸丑 4月 1日
숙종 5	10	4	10	左	左	左	中	미상	5冊, 己未 9月 27日
숙종 5	12	5	10	左	右	左	後	경상, 전라	5冊, 己未 10月 5日
숙종 6	6	6	10	中	前	中	左	충청, 경기	5冊, 己未 12月 2日
숙종 7	5	14	10	別	中	別	右	황해, 강원	5冊, 辛酉 5月 5日
숙종 8	3	2	5	前	中	·	·	미상	6冊, 壬戌 2月 日
숙종 8	5	3	5	前	右	·	·	경상	6冊, 壬戌 4月 26日
숙종 8	7		5	前	後	·	·	경상	6冊, 壬戌 5月 12日
숙종 8	9		5	左	前	·	·	경상	6冊, 壬戌 7月 11日
숙종 9	1		5	左	中	·	·	경상	6冊, 壬戌 11月 7日
숙종 10	2		5	中	後	·	·	황해	7冊, 甲子 1月 30日
숙종 11	10		5	後	前	·	·	충청	8冊, 乙丑 9月 29日
숙종 12	2		5	後	中	·	·	미상	8冊, 丙寅 1月 28日
숙종 12	4		5	後	右	·	·	미상	8冊, 丙寅 3月 27日
숙종 12	5		5	後	後	·	·	미상	8冊, 丙寅 4月 4日
숙종 12	7		5	別	左	·	·	강원, 충청	8冊, 丙寅 5月 5日
숙종 12	11		10	別	中	別	右	미상	8冊, 丙寅 10月 29日
숙종 13	9		5	左	中	·	·	미상	8冊, 丁卯 9月 1日
숙종 13	11		10	左	右	左	後	경상, 전라	8冊, 丁卯 9月 11日
숙종 14	1		10	中	左	中	左	미상	8冊, 丁卯 12月 27日
숙종 14	3		10	中	右	·	·	미상	8冊, 戊辰 1月 日
숙종 14	5		5	中	後	·	·	미상	9冊, 戊辰 4月 27日
숙종 14	9		10	右	左	右	中	전라, 충청	9冊, 戊辰 9月 2日
숙종 19	3		5	右	前	·	·	경상	10冊, 癸酉 2月 27日
숙종 19	7		5	右	中	·	·	전라	10冊, 癸酉 7月 14日
숙종 19	9		5	右	右	·	·	전라	10冊, 癸酉 8月 26日
숙종 19	11		10	右	後	·	·	전라, 충청	10冊, 癸酉 10月 26日

년	월	番號	초수	1司		2司		상번지역	전거
				部	司	部	司		
숙종 20	5		5	後	右	·	·	충청	10冊, 甲戌 4月 24日
숙종 20	6		5	後	後	·	·	충청	10冊, 甲戌 閏 5月 26日
숙종 20	8		10	別	左	別	中	강원, 충청, 전라	10冊, 甲戌 7月 26日
숙종 20	10		10	別	右	前	前	강원, 전라	10冊, 甲戌 7月 26日
숙종 21	1		5	前	右	·	·	전라	10冊, 甲戌 12月 7日
숙종 24	1		5	中	中	·	·	경기	11冊, 戊寅 10月 日
숙종 25	10		5	中	中	·	·	미상	11冊, 己卯 9月 2日
숙종 25	12		5	後	左	·	·	경상	12冊, 己卯 11月 29日
숙종 26	6		5	中	後	·	·	황해	13冊, 庚辰 4月 13日
숙종 26	12		5	右	左	·	·	전라	13冊, 庚辰 9月 25日
숙종 27	2		5	右	中	·	·	전라	13冊, 庚辰 11月 25日
숙종 27	6		5	右	後	·	·	전라	13冊, 辛巳 3月 25日
숙종 27	8		5	後	前	·	·	전라, 충청	14冊, 辛巳 5月 25日
숙종 27	10		5	後	中	·	·	충청	14冊, 辛巳 9月 28日
숙종 28	2		5	後	右	·	·	충청	14冊, 辛巳 1月 22日
숙종 28	4		5	後	後	·	·	충청	15冊, 壬午 3月 26日
숙종 28	6		5	別	左	·	·	강원, 충청	15冊, 壬午 5月 25日
숙종 28	7		5	別	右	·	·	강원	15冊, 壬午 閏 6月 25日
숙종 28	9		5	미상	右	·	·	강원	15冊, 壬午 8月 25日
숙종 28	11		5	前	前	·	·	경상	15冊, 壬午 10月 26日
숙종 30	1		5	左	右	·	·	경상, 전라	16冊, 甲申 2月 25日
숙종 30	5		5	左	後	·	·	전라	16冊, 甲申 4月 25日
숙종 30	9		5	中	左	·	·	충청	16冊, 甲申 8月 28日
숙종 30	11		5	中	中	·	·	경기	16冊, 甲申 8月 28日

\*출전: 『御營廳謄錄』이라는 표현을 지면상의 이유로 모두 생략하였다.

\*\* 번의 번호가 기록된 곳은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략하였다.

\*\*\* 상한 시기를 현종 1년으로 정한 것은 자료에서 이 시기부터 상번 초수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원고투고일: 2016.8.3, 심사수정일: 2016.11.10,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어영청, 향군, 보인, 둔전, 상번

<ABSTRACT>

The Study and analysis on the management and change for 'Eoyeongcheong' from the Financial perspective between the 17<sup>th</sup>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18<sup>th</sup> century

Song, Ki-Jung

Eoyeongcheong was one of the five military components, which carried out special duties such as king's guard, royal guard of king's honored going at a royal tomb, and defense of a castle of the royal town, etc. Up to now,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put their focus on interpretation of Eoyeongcheong management in the midst of political changes, or have a focused look at the management method of Eoyeongcheong.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es have partially commented on the financial problem which was a core of a military camp. Hereupon, this paper is intending to put its focus on the financial matter of Eoyeongcheong. The finance of Eoyeongcheong initially relied on Hojo(as one of the six ministries which was called 'Yukjo', it was in charge of household survey & control, tribute and taxes, food, goods, and economy.). However, with the size of military camps becoming bigger, the burden of Hojo was increasing. Accordingly, during the ruling of King Hyojong, the finance of Eoyeongcheong was secured as it was equipped with annual size level of military cam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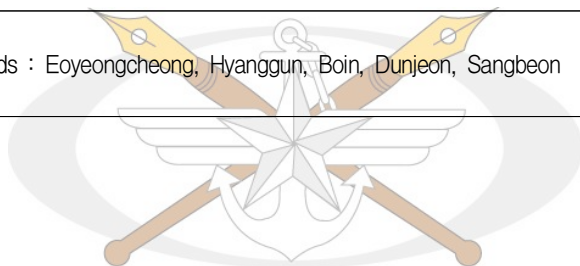
Such a management situation of Eoyeongcheong was arranged by Eoyeongcheong gusikrye(a book about the foundation history of Eoyeongcheong, and Eoyeongcheong-related various regulations and present conditions, etc.). According to these materials, revenues of Eoyeongcheong were divided into the ones from Boin(an economic supporter affiliated with regular military service), and the ones from Dunjeon(land



appropriated for military provisions).

In addition, the expenditures of Eoyeongcheong were executed on the use of wages for Hyanggun(local military soldiers)and officers and upward level, and rewards for meritorious persons. Afterwards, the finance of Eoyeongcheong became sufficient on the strength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Boin, and reduction in local military soldiers who were dispatched to Seoul by the work shift system, etc. Consequently, the government expended the fiance of Eoyeongcheong for another financial use, and reduced th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public labor assessment as well as took measures to seek substantiality of the military forces.

Key words : Eoyeongcheong, Hyanggun, Boin, Dunjeon, Sangbeon



## 高麗中期的 軍職 ‘指諭’와 ‘行首’

김낙진\*

1. 머리말
2. 指諭와 行首의 설치
3. 指諭와 行首의 기능과 임무
4. 指諭와 行首의 임명
5. 맺음말

### 1. 머리말

指諭와 行首는 사료상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지만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지유와 행수는 문반이나 무반의 품관직이 아니었으며 주로 특수한 분야에 두어졌던 보직이었다. 숙종대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진 별무반의 구성부대에 조직되어 있었고, 견룡군, 중금군, 내순검군, 도지군, 백갑군 등 금군과 최우가 만들었다고 하는 야별초에도 지유와 행수가 편제되어 있었다. 반면에 2군 6위의 중앙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指諭와 行首는 중앙군과

\*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다른 특수부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고려묘지명』 등에는 지유와 행수를 역임한 인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指諭와 行首 관련 자료가 숙종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별무반에 지유의 직책이 있는 것이 가장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 이전에 아예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나타나는 자료에는 그렇다는 것이다. 지유와 행수가 사료상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종대부터 의종대, 명종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씨정권기를 비롯하여 무인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야별초 등에 그 직책이 보이고 있으며, 고려 후기 近侍로 보이는 보마배 등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2군 6위의 중앙군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직책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6위 그 가운데서 전투부대로서의 임무를 맡은 좌우위, 신호위, 홍위위의 3위가 약화되자 별무반이 조직되었다.<sup>2)</sup> 별무반은 윤관이 여진과의 싸움에서 패한 뒤 적은 기병이고 아군은 보병이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을 비롯하여 각종 특수병들을 조직하여 만든 것이다. 여기에 도령-지유 등의 직책이 보이고 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시위 임무를 맡은 2군의 약화도 수반되었는데, 이들의 역할을 대체하는 견룡군 등 禁軍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3)</sup> 특히 의종대와 명종대는 2군보다는 금군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이렇게 중앙군이 부실화 되고 이를 대신하여 금군, 별무반, 야별초 등이 조직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에 指諭와 行首가 설치되었다. 금군이나 별무반, 야별초 등은 중앙군과

1) 『고려사』 권81, 지35 병1 병제 五軍條에 보면 五兵都指諭나 左右梗弓指諭, 左右精弩指諭, 神步·石投·大角·鐵水·發火·跳盪·剛弩 등에도 都領과 指諭가 설치되어 있다.

2) 이기백, 『고려 별무반고』,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1969;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1990을 참고하라.

3) 김낙진, 『견룡군과 무신란』, 『고려무인정권연구』, 서강대 출판부, 1995, 13쪽.

별도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 똑 같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유와 행수의 직책은 금군이나 별무반, 야별초 등 그 운영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려 군제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유와 행수는 이기백의 『고려사병지역주(1)』에서 처음 설명이 이루어진 뒤에 별달리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sup>4)</sup> 그 후 견룡군 등 禁軍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指諭와 行首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언급하였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지유와 행수의 성격과 임무, 조직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독립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유와 행수가 어느 조직에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유와 행수의 관계,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단위부대의 지휘관이었는지, 지유와 행수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나 선발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指諭와 行首의 설치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고려묘지명』 등에는 行首나 指諭의 직책이 자주 보인다. 이들은 무반의 품관직은 아니었으며 특수한 조직에

4) 이기백은 『고려사 병지 역주(1)』 1969, 경인문화사, 110쪽에서 행수유사에 대한 설명에서 각사의 행수가 되는 관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419쪽의 주)302에서 행수를 행군 중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행수와 지유에 대한 분석적 설명은 없다.

5) 김당택, 「무인정권시대의 군제」,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1983.  
송인주, 『고려시대 금군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7;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2007.

김낙진, 「고려시대 금군의 조직과 성격」, 『국사관논총』 106, 국사편찬위원회, 2005.

설치되었던 직책이었다. 지유와 행수는 주로 의종대부터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무인집권기에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指諭와 行首의 용어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武班에 대한 연구는<sup>6)</sup> 비교적 자세히 되어 있으나 指諭나 行首의 실체는 자세하지 않다. 직위는 높아보이지는 않으나 금군이나 야별초 등 중요한 군사조직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중요해 보인다.

먼저 指諭와 行首의 직책이 어느 조직에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지유와 행수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禁軍이다. 금군에는 견룡군을 비롯하여 중금군, 순검군, 내순검군, 도지군, 백갑군 등이 있었다.<sup>7)</sup> 이러한 부대들에는 지유와 행수의 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래의 사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A-①왕이 和平齋로 행차했는데 또 측근의 총애하는 문신들과 함께 돌아가기를 잊은 채 계속 술을 마시고 시를 읊으니 호종한 장병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다. 정중부가 소변을 보려고 나가자 牽龍行首인 散員 李義方과 李高가 뒤따랐다.(『고려사』 권128, 열전41 정중부전)

—②東宮의 牽龍指諭에 결원이 생기자 樞密院副使 曹元正이 자기 아들로 보충하고자 하여 대궐로 가서 청하였다.(『고려사절요』 권13, 명종 15년 정월)

6) 무반에 관한 연구는 아래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이외에도 논문 속에서 무반은 언급한 것은 많으나 제목에서 무반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변태섭, 「고려조의 문반과 무반」, 『사학연구』 11, 1961;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90.

----, 「고려 무반연구」, 『아세아연구』 8, 1965;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90.

박용운, 「고려전기 문반과 무반의 신분문제」, 『한국사연구』 21, 1978.

이진한, 「고려시대 무반직의 지위와 구성」, 『군사』 37, 1998.

김보광, 「고려시대 견룡의 운영과 무반관직」, 『역사교육』 117, 2011.

김중수, 「고려시대의 문반과 군반」, 『한국사연구』 164, 2014.

에드워드 슐츠, 김범 역, 『무신과 문신』, 글항아리, 2014.

이정훈, 「고려 후기 개반-문·무반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5, 2016.

7) 송인주, 「고려시대의 금군」, 『한국중세사연구』 3, 1996, 107~115쪽;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2007, 57~80쪽.

김낙진, 「고려시대 금군의 조직과 성격」, 『국사관논총』 106, 2005, 167~170쪽.

-③명종 초에 다시 散員으로 옮겼는데 李義方이 그의 이름을 듣고 불러다가 內巡檢軍指諭로 삼았다. (『고려사』 권100, 두경승전)

-④元宗이 기뻐하며 발탁해 御牽龍行首로 삼았다. 中禁指諭까지 되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천하였기 때문에 관직은 3품으로 한정되었다. (『고려사』 권 124, 열전37 윤수 부 송화전)

-⑤都陳班은 영지유가 2명<의복과 차고 있는 것은 中禁指諭와 같다>, 행수가 2명<의복은 中禁行首와 같다>, 반사가 10명이다<방각을 쓰고 자의를 입고 띠를 두르며 黑簪紅羅號의 斫子를 잡는다>. (『고려사』 권72, 지26 여복1 의위 법가의 의장)

-⑥右白甲指諭 孫公呂를 섬으로 유배 보냈다. 손공려가 일찍이 逆賊에게 투항해서는 왕에게 매우 불손하게 말을 하였는데, 외람되게 이 직책을 받자 재추들이 아뢰어 유배 보낸 것이다. (『고려사』 권30, 충렬왕 11년 2월 을묘)

위의 A 사료들을 통하여 보면 “견룡행수”, “견룡지유”, “내순검군지유”, “중금행수”, “중금지유”, “우백갑지유” 등의 용어가 보이고 있다. A-①은 무신란의 주역으로 알려진 이이방과 이고가 당시 견룡행수직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사료이다. 그들은 무반의 정8품관인 散員으로 견룡군의 행수직에 보임되어 있었다. A-②의 사료는 조원정이 동궁의 견룡지유 자리가 비자 자신의 아들을 임명하려고 왕에게 청탁하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동궁 즉 태자부에 견룡군이 배치되어 있었고, 여기에 ‘지유’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③은 杜景升이 이이방에 의해 內巡檢軍指諭에 임명된 사례이다. 내순검군은 의종 21년에 발생한 유시사건을 계기로 의종이 부병 가운데 효율한 자들을 선발하여 만든 부대였다. 이들은 양변으로 나누었고 항상 자색 옷을 입고 궁검을 가지고 의장 밖에 나누어 서서 비와 눈도 피하지 않고 밤이면 순경하여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한다.<sup>8)</sup>

內巡檢軍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순검군도 존재하고 있었다.<sup>9)</sup>

8) 屯府兵于闕庭 以備不測 自是 選取驍勇者 號內巡檢 分爲兩番 常着紫衣·持弓劍 分立仗外 不避雨雪 夜則巡警達曙(『高麗史』 권82, 지35 병2 숙위 의종 21년 정월)

9) 순검군에 관한 가장 앞선 기록은 인종 4년 4월 이자겸의 난이 벌어졌을 때 巡檢

이 巡檢軍에도 순검지유가 설치되어 있었다. 의종 21년에 있었던 유시사건에서 호위를 근면이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견룡 및 순검지유 14인이 유배되었던 적이 있었다.<sup>10)</sup> 여기서 견룡군과 순검군에 각각 指諭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④는 중금지유의 사례로 원종 때 宋和가 임금에 의해 어견룡행수로 발탁되었다가 중금지유로 승진하였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가 중금지유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중금군에 지유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실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⑤의 사료는 의종조에 상정된 의위조의 법가의 의장에 대한 규정인데, 도지반의 영지유와 행수에 대한 규정을 中禁指諭·中禁行首와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중금군에 지유와 행수의 직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재차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의종 때 박순필이 중금군으로 호위를 맡았었고, 명종이 즉위하자 좌중금지유로 승진하였다고 한다.<sup>11)</sup> 중금군이 左中禁과 右中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sup>12)</sup> 좌·우에 각각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都知軍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었음도 앞서 언급했던 A-⑤의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도지군의 지유와 행수를 中禁軍의 규정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록 이외에도 『고려사』 권80, 식화 3 녹봉 잡별사조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별사 규정을 보면 米 10석은 左番中禁行首, 右番中禁行首, 左番都知行首, 右番都知行首가

都領 鄭惟晃이 이자겸의 당인 少卿 柳元湜을 죽이는 내용에서 순검군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려사절요』 권9, 인종 4년 4월조)

- 10) 왕이 봉은사에 갔다가 돌아오다 관풍루 쪽 이르렀을 때 좌승선이었던 김돈중이 탄 말이 놀라면서 옆의 한 騎士가 탄 말에 달린 화살통에 부딪쳐 그 안에 담겼던 화살이 튀어나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종은 이것이 외부에서 날아 온 것인 줄 알고 호위의 책임을 물어 견룡군과 순검군 지유 14인을 유배 보낸 사건이다.
- 11) 『고려사』 권100, 열전13 박순필.
- 12) 金元義가 의종 24년 무신란이 일어나고 명종이 候邸에서 왕위에 오를 때 그가 右中禁으로써 왕을 수행하여 그 공로로 발탁되어 隊校가 되었다고 한다(『김용선 편, 「김원의묘지명」, 『(제5판)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출판부, 2012, 316쪽). 김원의가 右中禁이었다는 데서 左中禁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중금군 뿐만 아니라 도지군이 좌·우 번으로 나뉘었으며 각각 左·右行首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금군의 구성부대였던 白甲軍에도 지유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사료 A-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손공려가 일찍이 역적에게 투항하였을 때 왕에게 매우 불손하게 하였는데도 우백갑지유의 직책을 받게 되자 재추들이 건의하여 유배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다. 손공려가 받은 직책이 右白甲指諭라고 한데서 백갑군이 좌백갑군과 우백갑군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각각 좌백갑지유와 우백갑지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과 다른 금군의 경우 지유와 행수가 있었던 점에서 볼 때 백갑군도 行首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고려후기의 기록이지만 공민왕이 보우를 왕사로 봉하고 원용부를 설치하여 관속을 배치했을 때 左右寶馬陪 指諭와 行首를 두었다고 한다.<sup>13)</sup> 즉 左寶馬陪 指諭와 行首, 右寶馬陪 指諭와 行首를 두었다는 의미이다. 寶馬陪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近侍의 임무를 수행하는 관속이라고 생각된다. 조준이 공민왕에 의해 보마배지유에 임명된 예도 있다.<sup>14)</sup> 그리고 권렴이 별장으로 보마배행수에 임명된 사례도 있다.<sup>15)</sup>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건릉군, 중금군, 내순검군, 순검군, 도지군, 백갑군, 보마배 등에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좌우 편제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禁軍 내에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자부나 왕비, 그리고 제왕자의 府에도 그것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참고해 보자.

B-①諸妃主府. 무릇 妃와 主를 책봉하면 반드시 殿을 세우고 府를 두면서 僚屬을 갖추었다. 文宗 때에 관제를 정하였는데……忠烈王 때에 부에 승 1인,

13) 본문의 사료 B-4를 참고하라.

14) 『고려사』 권118, 열전31 조준.

15) 김용선편저, 『權廉墓誌銘』, 『고려묘지명집성(제5판)』, 한림대 출판부, 2012, 511쪽.



指諭와 行首 각각 2인씩, 牽龍 4인, 侍衛軍 50인, 守護員 2인을 두었으며, 전에는 書題 2인을 두었다.(『고려사』 권77, 지31 백관 2 제비주부)

-②(송)유인은 인종 때 그의 아버지가 사직을 지키다가 죽은 공으로 散員에 임명되었고, 조금 뒤에 太子府指諭가 되었다가 衛將軍으로 임명되었다.(『고려사』 권128, 열전41 정중부 부 송유인)

-③東宮의 牽龍指諭에 결원이 생기자 樞密院副使 曹元正이 자기 아들로 보충하고자 하여 대궐로 가서 청하였다.(『고려사절요』 권13, 명종 15년 정월)

-④병오년에 대오의 장에 충원되었고, 다시 들어와 태자부견룡이 되었다. 대□로부터 계급이 오장으로 올랐으며, 몇 년 안 되어 다시 들어와 견룡행수에 보임되었으며 御牽龍行首로 옮겼고 지유에 이르렀다.(『고려묘지명집성』, 김취려 묘지명)

-⑤普愚를 王師로 봉하고 府를 설치하여 이르기를 圓融이라고 하였고, 左右司·尹·丞·舍人·注簿·左右寶馬陪 指諭·行首의 官屬을 두었다.(『고려사』 권39, 공민왕 5년 4월)

-⑥충렬왕이 일찍이 帝女齊國公主를 위해 특별히 膺善府를 세웠고 옮겨 응선부 牽龍行首가 되었으며, 左右衛郎將에 배수되었다가 右指諭로 전임되었으며 이어 차흥위위장군이 되었다.(『고려묘지명집성』, 민중유묘지명)

위의 사료 B-①을 보면 太子府나 王妃, 그리고 諸王子가 府를 세울 경우 반드시 요속을 갖추는데, 그 규정을 보면 충렬왕 때 지유와 행수가 각각 2인씩, 견룡 4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지유와 행수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견룡지유와 견룡행수인지, 아니면 각 부에 소속되어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그냥 指諭와 行首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기록의 지유와 행수 각 2인은 아마도 좌지유와 우지유, 좌행수와 우행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 72 여복지 의례 규정을 보면 국왕의 행차 시에 견룡, 중금, 도지, 백갑군 등이 호종하는데 각각 지유와 행수가 좌우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 볼 때 府에는 지유와 행수가 각각 좌·우 2명씩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B-②의 宋有仁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인종 때 이자겸의 난에서 공을 세운 까닭으로 散員에 임명되었다가 태자부지유가 되었다고 한다. 그가 태자부의 견룡지유였는지 아니면 그냥 태자부의 지유였는지 정확하지 않다. B-①의 규정을 미루어 본다면 태자부의 그냥 지유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런데 B-③의 사료에서 추밀원부사 조원정이 동궁견룡지유의 자리가 비자 자신의 아들을 보임시키기 위하여 왕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 여기서는 태자부지유라고 하지 않고 동궁견룡지유라고 하여 견룡군의 지유임을 정확히 밝혀 부르고 있다. B-④에서는 김취려가 태자부견룡이 되었다가 오장(별장)이 된 후 몇 년 뒤에 다시 견룡행수가 되었다고 한다. 이 경우도 ‘행수’라고만 하지 않고 ‘견룡행수’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府에는 그냥 행수직도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료 B-⑤에서 공민왕이 보우를 위해 圓融府를 설치했을 때도 지유와 행수의 관속을 두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꼭 견룡군이나 다른 금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지유와 행수를 두었다고만 하였다. 따라서 府에는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府의 指諭와 行首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B-⑥의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렬왕이 제국공주를 위해 膺善府를 세웠을 때 민종유가 견룡행수에 임명되었다가 좌우위별장이 된 이후 右指諭로 전임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견룡군의 行首일 경우 명확히 牽龍行首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지유에 임명되었을 때는 어느 지유인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견룡행수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그가 견룡군으로서 우지유에 임명되었다면 右牽龍指諭라고 표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右指諭’라고만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응선부의 그냥 지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右指諭라고 한데서 미루어 보아 左指諭도 있었을 것이며, 이에 2명의 지유가 膺善府에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指諭와 行首는 禁軍과 왕자부와 왕비부 등 이외에 다른 조직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고려사』 권81 병지1 병제에서는 고려 병제를 2군·6위, 제부, 별호제반, 5군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호제반과 전시편제인 5군에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별호제반 즉 별무반을 구성하던 부대로서 기병이었던 神騎班에는 都領과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다. 실례로 신종 2년 최충헌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이적중이 김준거를 몰래 끌어 들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의 직책이 神騎指諭였다.<sup>17)</sup> 신보반에도 도령과 지유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궁, 정노, 석투, 대각, 철수, 발화, 도탕, 강노반에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별무반과 5군 편제에서 지유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행수는 보이지 않는다. 행수의 직이 없었던 이유는 갑자기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아마도 단위부대의 규모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참고로 2군 6위의 중앙군에는 指諭와 行首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지유와 행수가 설치된 조직은 대체로 특수단위부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禁軍이 健龍, 中軍, 道軍, 百戰 등은 『고려사』 권76 지26 여복 의위조에 보면 健龍班, 中軍班, 道軍班, 百戰班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班’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都領과 指諭가 설치된 별무반의 구성부대들도 신기반, 신보반, 경궁반, 정노반, 석투반, 대각반, 철수반, 강노반, 도탕반, 사궁반, 발화반 등 ‘班’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는 금군인 健龍班, 中軍班, 道軍班, 百戰班 등과 같은 편제단위이다. 그런데 2군 6위의 중앙군은 ‘班’으로 편제되지 않았으며 규모에 따라 ‘衛’-‘領’-(?)-‘伍’-‘隊’ 등으로 위계적으로 짜여졌다.<sup>18)</sup> 그리고 지휘체계도 2군 6위의 중앙군은 上將軍-大將軍-將軍-中郎將-郎將-別將-散員-校尉-隊正으로 이어지는 누층적인 지휘

16) 일람표는 이기백·김용선, 2011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71쪽 참고.

17) 『고려사』 권129, 열전42 최충헌.

18) 부대조직 단위는 이기백의 「고려 경군고」,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74쪽을 참고.

계통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금군은 지유-행수로 이어지는 지휘계통, 그리고 別武班의 구성부대들은 도령-지유로 이어지는 체계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중앙군과 달리 규모면에서 훨씬 적었으며, 특별히 독립적인 단위부대로 운용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行首와 指諭는 衛國抄猛班에도 설치되어 있었다. 위국초맹반은 명종 5년 11월에 조위총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가 많이 동원되어 호위 군졸이 부족해지자 400명을 추가 선발하여 별도로 조직한 부대였다.<sup>19)</sup> 실제로 위국초맹반의 行首 이돈작과 김입성은 조위총의 잔적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한 적이 있었다.<sup>20)</sup> 이 실례를 통해서 위국초맹반에 행수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行首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상위직인 指諭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別武班의 신기군에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서 보아 신기군에서 가려 뽑았다고 생각되는 신기초맹반에도 역시 지유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위국초맹반이나 신기초맹반처럼 정규조직이외에 특별히 별도로 만든 부대에는 行首와 指諭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위국초맹반도 견룡반, 중금반, 도지반, 별무반처럼 ‘班’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의종이 유시사건을 계기로 府兵을 모아놓고 별도로 가려 뽑아 內巡檢軍을 조직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內巡檢軍 指諭의 사례가 보이고 있어 참고된다.<sup>21)</sup>

최우가 만들었던 야별초에도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다. 夜別抄는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걱정하여 용사를 모아 매일 밤 순행케 하여 폭력을 금하게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야별초라고

19) 明宗五年十一月 時因西征 衛卒乏少 加發四百人 號衛國抄猛班 皆持劒戟 環衛毬庭 (『고려사』 권82, 병2 속위)

20) 戊午 遣抄猛班行首 李頓綽·金立成 討西賊(『고려사』 권19, 명종 7년 7월).

21) 『고려사』 권100, 열전13 두경승.

하였다고 한다.<sup>22)</sup> 야별초지유의 실례로서 강화천도를 반대하였던 김세충을 들 수 있다. 그는 별초지유로서 개경이 태조 이래 200여 년간 지켜 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버리고 천도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 밖에 야별초지유의 사례로 몽고군과의 전투에서 군사를 이끌고 싸우려 나갔던 야별초지유 이임수와 박인걸을 찾을 수 있으며,<sup>23)</sup> 지유 박천부가 별초병을 거느리고 고성과 간성 등지에서 동진군과 싸웠던 경우도 있었다.<sup>24)</sup> 또한 몽고군의 척후기병과 전주성 남쪽의 반석역에서 전투를 벌였던 별초지유 李柱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된다.<sup>25)</sup> 이 밖에 별초지유의 사례는 많이 찾아진다. 그러나 야별초행수의 사례를 찾을 수 없어 行首가 야별초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아마 지유 밑에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논의들을 잠시 종합해 보면, 지유와 행수는 2군 6위의 중앙군 이외에 별도로 조직된 금군, 별무반, 초맹반, 야별초 등에서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군 6위의 중앙군의 허설화로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sup>26)</sup> 주요 기능에 따른 별도의 군사조직을 만들면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紫門의 수비를 책임지는 직책으로 생각되는 紫門指諭가 있었다. 紫門은 국왕이 주로 활동하는 궁전의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27)</sup> 궁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으며 그 안에 들어가서는 궁궐로

22) 『고려사』 권81, 병지1 병제 원종 11년 5월초.

23) 『고려사』 권23, 고종 23년 8월.

24) 辛卯 指諭朴天府率別抄兵 與東眞戰于高城·杆城 皆破之(『고려사』 권23, 고종 36년 9월).

25) 是月 蒙兵候騎三百餘 至全州城南班石驛 別抄指諭李柱 擊殺過半 獲馬二十四(『고려사』 권24, 고종 40년 8월).

26) 김당택, 앞의 논문, 1983, 260~262쪽.

27) 『고려도경』 권6, 궁전 2 長齡殿조에 의하면 건덕전 동쪽에 자문이 있다고 하였다. 乾德殿은 정전이 會慶殿 서북 방향에 있다고 하므로 紫門이 궁전으로 통하는 성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387쪽 주123 참고).

통하여 문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왕이 주로 위치하는 궁전으로 통하는 문이 紫門이었다고 생각된다. 공민왕이 기철과 노책, 권겸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 밀직 강중경, 대호군 목인길 등으로 하여금 장사를 매복 시켰다가 불의에 공격하였는데 권겸이 도망가자 추격하여 紫門에 이르러 죽이니 궁문에 피가 낭자하였다고 한다.<sup>28)</sup> 여기서 紫門이 궁문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사』 83, 병지 37, 위숙군조에 의하면 선인전에 東紫門과 南紫門이 있는데 동자문에는 문을 지키는 장수가 대장군 1명, 장군 1명, 시위는 중랑장 2명이라고 하고, 남자문은 중랑장 1명, 가차장상 1명, 南紫門의 末門은 장상 1명이 지킨다고 되어있다. 그 밖에 광화문 등 나머지 城門에는 장교나 산직장상, 감문위군 등이 배치되어 있다. 동자문과 남자문에 배치된 고위무관이 그 밖의 문에 배치된 군관과 큰 차이가 있었던 데에서 紫門의 중요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紫門은 동자문 남자문 이외에 內紫門도 있었다. 『고려사』 권83 병지 37, 위숙군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려사』 권64, 예지6 흥례 태묘에 부제하는 의식에 보면 “승선·중방·비신장군·지유·내시·다방이 內紫門의 계단 아래에 서열대로 서면, 집례는 상찬과 합문지후를 시켜 일산과 부채를 가져다 외정에 늘어놓게 한다”고 하였다.<sup>29)</sup> 여기서 내자문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동·서자문을 통과하여 궁전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있던 紫門을 內紫門이라고 한 것 같다.

자문의 중요성 때문인지 다른 문과 달리 자문에는 각별히 자문지유를 설치하였다. 이는 국왕의 近侍와 관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료상에 “대궐의 中禁은 옷을 입고 좌우로 나누어 서고, 지유·견룡은 紫門의 계단 위에 서도록 한다”고 하였다. 지유가 내자문의 계단 아래 선다든가 指諭와 牽龍이 자문의 계단 위에 선다는 기록을 통해서

28) 『고려사』 권131, 열전44 기철.

29) 『고려사』 권64, 예6 흥례 태묘에 부제하는 의식.

볼 때 여기서 지유는 紫門指諭였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자문지유에 임명된 사례도 있다. 고종 16년 1월에 김희제의 사위였던 鄭相이 壽德宮里에 이르러 里門이 닫혀있자 열쇠 관리하는 자가 늦게 온다고 문틈으로 활을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이때 법관들이 김희제의 청탁을 받고 죄를 묻지 않자 낭중 李廷翮만이 처벌을 고집하였다. 최우가 李廷翮이 법을 잘 준수한 것을 가상히 여겨 자문지유로 임명하였다.<sup>30)</sup> 또한 고종 14년 11월에 낭장 金利生이 일찍이 북계에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화주성을 잘 방어한 공훈으로 자문지유에 임명되기도 하였다.<sup>31)</sup>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자문지유는 특별한 공훈이 있는 경우에 임명하는 자리로서 그 만큼 중요하거나 명예로운 직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무기를 제조하는 軍器監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고려사』 80, 식화3 녹봉조의 여러 衙門의 工匠에 대한 별사 규정 가운데 군기감을 보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유와 행수가 나와 있다.<sup>32)</sup>

구분	직책	수량	구분	직책	수량
①	皮甲匠	指諭 1명	③	漆匠	左右行首校尉 2명
	牟匠	指諭 1명		鍊匠	左右行首 2명
	和匠	指諭 1명		米 6석	
②	皮甲匠	行首·指諭·副承旨 1명	④	白甲行首大匠	1명
	牟匠	行首·宣節校尉 1명		長刀行首副匠	1명
	和匠	行首 校尉 1명		弩筒副匠	1명
	白甲匠	行首 副尉 1명	旗畫業	行首校尉 1명	
	長刀匠	行首 陪戎副尉 1명	⑤	箭匠	左右行首校尉 2명
	角弓匠	陪戎校尉 2명		箭頭匠	行首副尉 1명
		米 7석	⑥	皮匠	指諭校尉 1명
				行首大匠	1명
				稻 15석	
				稻 12석	
				稻 10석	

30)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16년 1월.

31)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11월.

32) 『고려사』 권80, 지 34 食貨3 祿俸 諸衙門 工匠別賜條.

위의 표를 보면 피갑장, 모장, 화장의 지유에게는 米 10석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피갑장, 모장, 화장, 백갑장, 장도장, 각궁장 등에게는 米 7석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밖의 공장 등에게 미와 도를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먼저 ①의 피갑장, 모장, 화장의 지유는 10석이고, ②의 피갑장, 모장, 화장, 백갑장, 장도장 등의 행수는 미 7석을 받고 있다. 여기서 피갑장, 모장, 화장에 지유와 행수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유가 행수보다 상위 직책으로 더 많은 별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中尙署, 掌冶署, 都校署, 尙衣局, 雜織署, 掖庭局, 尙乘局 등의 아문 소속된 공장들도 지유와 행수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공장들에게도 지유와 행수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장들이 단독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위조직을 이루어 움직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나름 조직적인 지휘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 3. 指諭와 行首의 기능과 임무

指諭와 行首 가운데 지유가 상위 직책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취려가 태자부견룡이 되었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견룡행수에 임명되었고 이후 지유에 이르렀다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sup>33)</sup> 문장필의 경우도 그가 인종 때 견룡반으로 동궁을 시위하였으며, 散員을 거쳐 郎將으로 승진한 뒤, 명종이 즉위하자 중랑장으로 발탁되었다가 御牽龍 行首가 되었다고 한다.<sup>34)</sup> 그리고 얼마 안돼 왕태자부지유로 옮겨졌다고

33) 본문의 사료 B-④ 참고.



하는데, 여기서 견룡 → 어견룡행수 → 왕태자부지유로 승진하는 과정을 통해 지유가 행수의 상위직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분희가 원종의 총애를 얻어 행수와 지유를 거쳐 장군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sup>35)</sup> 이 사례를 통해서도 지유가 행수의 상위 직책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사료에

C-5월 정유 왕이 指諭 于光胤·白任至, 行首 李冠夫·宋群秀·慶大升, 牽龍車若松 등에게 명하여 打毬를 하도록 하고, 능견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고려사』 권19, 명종 4년 5월)

라고 하여 지유가 행수보다 높은 관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서술 순서를 보면 指諭 우광윤·백임지, 行首 이관부·송군수·경대승, 牽龍 차약송으로 기록하고 있다. 차약송이 그냥 견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 견룡군이었을 것이다. 우광윤과 백임지가 그냥 지유라고만 하고, 이관부와 송군수는 행수라고만 하였다. 문맥상으로 볼 때 견룡지유와 견룡행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지유와 행수의 임무에 대하여 『고려사』 병지나 백관지 등에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 딱히 한정하여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지유와 행수의 직책을 역임한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 그 직무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지유와 행수의 기본적인 임무의 성격은 국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채인규는 16세 때 儀仗府 산원에 임명되었다가 몇 년이 안 되어 行首와 指諭로써 御殿에서 가까이 모신 것이 두 번에 이른다고 한다.<sup>36)</sup> 그가 어떤 조직의 행수와 지유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임금과 가까운 위치에서 국왕의 신변을 시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의장부

34) 김용선 역주, 「문장필 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상)』, 한림대 출판부, 2012, 416쪽.

35) 『고려사』 권123, 열전 37 이분희.

36) 年補十六 試除儀仗府散員 不數年 而或以行首·指諭昵侍於御殿者 至再(김용선 편, 『고려묘지명집성』, 채인규묘지명, 416쪽)

산원에 임명되었다가 행수와 지유를 역임하였다는 점에서 의장부의 그것을 지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의장부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채인규 이외에도 평장사를 지낸 채송년은 御殿行首로서 낭장에 임명되었던 적이 있다.<sup>37)</sup> 별도로 어전행수라고 한 점에서 볼 때 견룡이나 기타 금군 소속의 행수 이외에 어전에서 활동하던 별도의 어전행수나 지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인규나 채송년이 어전에서 행수와 지유로써 모셨다는 것은 어전행수와 어전지유로 그렇게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指諭와 行首가 임금과 가까운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임은 조준의 경우에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민왕이 수덕궁에 있다가 조준이 책을 끼고 궁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기특하게 여겨 집안 내력을 물은 뒤 보마배지유에 소속시켰다고 하였다.<sup>38)</sup> 공민왕이 조준을 특별하게 여겨 가까이 두고자 보마배지유에 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사』 권72 지26 여복 관복조에 대한 규정 속에 지유와 행수를 內侍와 茶房과 함께 나란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볼 때 국왕의 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sup>39)</sup>

指諭와 行首는 숙위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원종 때 趙忭이 行首로서 숙위한 일이 있었다. 그가 하루는 초저녁에 입직을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문이 이미 닫힌 상태였다. 그러자 원종이 문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신하된 자가 문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는 입직을 하지 않은 이유로 有司의 탄핵을 받았다.<sup>40)</sup> 이 사례를 미루어 볼 때 行首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궁궐에서 입직 서는 일이

37) 蔡松年 東州平康縣人 以御殿行首 拜郎將 久不改銜(『高麗史』 권102, 열전 15 채송년).

38) 『고려사』 권118, 열전 31 조준.

39) 『고려사』 권72, 지26 여복 관복.

40) 『고려사』 권103, 열전 16 조충 부 조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임금이 문틈으로 그를 불렀다는 점에서 御殿에서 숙위를 섰음도 알 수 있다. 앞서 채인규가 어전행수로 임명되었다고 했는데, 조변 역시 어전행수로서 어전에서 숙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이해된다. 지유 역시 숙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왕궁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대장군 李景伯과 指諭 文公을 죽이자 궁궐 안이 떠들썩하고 왕이 몹시 놀랐다고 한다.<sup>41)</sup> 여기서 지유 문공려가 왕이 있던 궁궐 안의 내전에서 숙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문공려는 御殿指諭였다고 생각된다.

行首의 임무를 이해하는데 있어 주목되는 것은 견룡행수였던 이의방과 이고의 역할이었다. 그들이 보현원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지를 속여 순검군을 불러 모아 지휘하였다.<sup>42)</sup> 이 점을 주목해 보면 王旨가 있을 경우는 견룡행수가 순검군을 지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견룡지유가 있었을 것이나 직접적인 병력 지휘는 견룡행수가 담당할 것이 아닌가 한다.<sup>43)</sup> 西南京을 순행하고 돌아오는 衛仗의 규정을 보면 견룡군의 경우 指諭는 수행하지 않고 行首 2명이 견룡반 20명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sup>44)</sup> 이러한 점을 참고해 볼 때 의종이 보현원에 행차했을 때도 李義方과 李高 2명의 牽龍行首가 현장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견룡행수인 이의방과 이고가 휘하의 견룡군들을 통해서 각각 순검군들을 지휘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行首는 현장에서 실 병력의 작전을 지휘하는 군사행동을

41) 『고려사』 권100, 열전 13 경대승.

42) 『고려사』 권19, 의종 24년 8월.

43) 보현원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당시 한뢰가 왕의 옷을 잡고 어상에 숨어 나오지 않자 이고가 칼을 빼어 들고 위협하여 끌어내 죽였는데, 이때 지유 김석재가 이의방에게 이고가 감히 어전에서 칼을 빼어드느냐고 힐난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지유 김석재가 견룡지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지유가 현장에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4) 『고려사』 권72, 지 26 여복 儀衛 衛仗.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다른 예로 고종 19년 7월 어사대의 卑隸였던 李通이 경기의 초적과 성안의 노예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이때 강도정부는 3군을 편성하여 강 건너 반군을 공격하여 대패시키는 한편, 견룡행수 별장 李甫와 龔師緜에게 야별초를 거느리고 먼저 개성을 공격하게 하였다.<sup>45)</sup> 기동부대로 파견된 이보가 성의 문지기를 속여 문을 열고 들어가서 李通 등을 제거한 뒤 출입로를 확보하자 그 후 3군이 계속해서 개성에 이르렀다고 한다. 견룡행수였던 이보와 정복수가 야별초를 거느렸다는 점에서 일선 작전에서 군사를 지휘하여 싸우는 역할을 행수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보와 정복수가 견룡이었기 때문에 야별초를 거느렸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行首였기 때문에 야별초를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견룡행수인 이고와 이의방이 순검군을 지휘했던 것처럼 이보와 정복수가 야별초를 이끌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3군이 개성에 이르기 전에 먼저 이르러 궁문의 개방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특수부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부대는 대규모 병력이기보다는 소규모 편제단위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行首는 이러한 소규모 단위부대의 작전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직책으로 여겨진다. 비슷한 사례로 명종 7년 7월에 초맹반의 행수인 李頓綽과 金立成을 보내 서경의 잔적을 토벌케 한 적이 있다.<sup>46)</sup> 초맹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 하에서 별도로 가려 뽑아 만든 부대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도 夜別抄처럼 중앙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특수부대를 行首가 지휘하고 있었다.

指諭도 역시 行首와 마찬가지로 군사들을 지휘하였다. 야별초 지휘들이 군사들을 지휘하여 군사작전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앞서

45)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9년 7월.

46) 戊午 遣抄猛班行首李頓綽·金立成 討西賊(『고려사』 권19, 명종 7년 7월).

이야기 했듯이 야별초는 2군 6위의 중앙군과 달리 최우가 별도로 조직했던 군사조직이었다. 야별초에는 지휘조직으로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夜別抄都領과 夜別抄指諭이다. 즉 都領-指諭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고종 22년 8월에 崔瑀의 도방원이며 야별초 도령이었던 李裕貞이 적과 싸우겠다고 하자 병사 160인을 주어 파견한 경우가 있다.<sup>47)</sup> 전시편제였던 5軍에는 都領과 함께 指諭가 설치되어 있었다.<sup>48)</sup> 5군은 중군, 전군, 후군, 좌군, 우군을 말하는 것으로 각 군에 편제되어 있던 특수부대에 도령과 지유가 배치되어 있었다. 都領이 指諭의 상급 지휘관으로서 전투편제를 지휘하고 있었다.<sup>49)</sup> 야별초도 都領 밑에 指諭가 편제되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도령과 지유가 편제되었던 5군이 전투부대 편제였다는 점에서 볼 때 야별초를 이끄는 指諭도 전투 등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정규전보다는 소규모 단위작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투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都領은 지유의 상위직책으로 별무반을 구성하던 각 특수부대의 최고 책임자였다.<sup>51)</sup> 정도반, 강노반, 석투반, 발화반 등은 도령이 최고

47) 『고려사』 권23, 고종 22년 8월.

48) 김갑동은 都領이 시기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면서 국초에는 여진인들에게 부여되었다가 고려가 여진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편성하면서 양계 지방의 주현군의 군사지휘관으로서 도령이 역할을 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고종대 이후로 오면서 2군 6위의 정규군 외에 따로 설치한 부대의 지휘관에게도 도령이 부여되었다고 설명하였다(김갑동, 「고려시대의 도령」, 『한국중세사연구』 3, 1996, 72~77쪽).

49) 김갑동, 앞의 논문, 1996, 85쪽.

50) 도령-지유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는 여기에 임명되는 무반직이 같다고 하더라도, 즉 도령낭장, 지유낭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직책의 역할 면에서 도령이 상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신의군도령낭장 박희실과 신의군지유낭장 이연소가 김인준, 류경 등과 최의를 제거하려고 모의하였는데, 여기서 계급은 같지만 도령이 지유보다 상급직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51) 박옥걸은 도령을 관직이 아니라 하나의 신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로 도령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그것이 고려 후기로 오면서 북방의 양계는 물론 중앙의 야별초, 신의군 등 특수부대, 남의 노군이 방어군과 같이 비정규군 체제에도 적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도령의 개념을 관직이

책임자로 부대를 이끌었다고 생각되며, 지유는 그 밑에서 임무를 맡아보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별무반을 구성하던 각 부대에는 行首가 없었는데, 이는 작전하는 단위부대의 규모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별무반의 구성부대들은 임무수행 단위규모가 都領-指諭까지만 편성되었고, 견룡군·중금군·내순검군·도지군 등 금군의 그것은 지유-행수의 편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指諭와 行首의 임무를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유와 행수의 직책이 설치되어 있던 조직의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즉, 工匠들에게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군사지휘권과는 관련이 없다. 아마도 공장의 지유와 행수들은 공장의 단위조직, 예를 들자면 백갑장 지유라면 일정한 숫자로 이루어진 백갑장들의 단위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 4. 指諭와 行首의 임명

指諭와 行首는 단위조직을 책임지는 직책이었다. 또한 대부분이 工匠을 제외하고는 금군이나, 별무반, 야별초, 초맹반 등 중앙군과 구별되는 군사분야에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아문에 소속된 공장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왕과 관련이 깊거나 정권담당자의 핵심 군사력이거나 특수한 군사조직에 주로 설치되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용력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참고해 보자.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옥걸, 「고려 도령에 관한 재검토」, 『사학연구』58·59합, 1999).

D-나주목사 이진수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궁궐에서의 시위는 신체에서의 사지와 같으니 인의와 이치를 아는 자가 최고이며 용감한 자가 다음이다.(『고려사』 권82, 병지 2 속위)

위의 기록을 보면 궁궐에서의 시위는 신체에서의 사지와 같다고 하였다. 사지 즉 손과 발은 머리와 몸통을 보호하는데 쓰이며, 사지가 제 기능을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궁궐에서의 시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국왕의 신변을 지키고 왕권을 보위하는 일이 바로 시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지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자리에 인원을 선발할 때 인의와 이치를 아는 자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의와 이치를 단순히 유교의 도덕론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시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과 신뢰일 것이다. 국왕의 치근거리에서 근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담보된 뒤에야 용감함과 용력 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금군이나 야별초 등의 지유와 행수직에는 국왕이나 무인집정이 신뢰하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sup>52)</sup> 물론 모든 지유와 행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指諭와 行首가 정치권력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이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① 宋義의 아들은 宋和이다. 송의가 고려를 배반하고 도망가려고 하니, 송화가 울면서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송화가> 가는 도중에 도망하여 되돌아오니, 송의가 頭輦哥에게 보고하고 쫓아가 다시 되돌리게 하였다. 송화는 어려서부터 騎馬擊毬를 익혔는데, 격구 막대기를 다루는 솜씨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절묘하였다. 황제가 매우 감탄하며 상을 주고,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 를, “귀신이 돕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幻術이다.”라고 하였다.……송의가 가난하고 곤궁에 처해 의지할 바를 잃게 되자 송화가 더욱 자기 아버지를

52) 김수미는 강화천도 당시 상황을 분석하면서 최씨정권이 야별초를 장악하기 위해 지유에 자신의 심복들을 배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참고된다(김수미, 「고려무인정권기의 야별초」, 『고려무인정권연구』, 서강대 출판부, 1995, 151~152쪽).

원망하였으며, 황제에게 요청하여 아내를 데리고 고려로 귀국하였다. 元宗이 기뻐하며 발탁해 御牽龍行首로 삼았다. 中禁指諭까지 되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천하였기 때문에 관직은 3품으로 한정되었다. (『고려사』 권124, 열전37 윤수 부 송화)

② 李汾禧는 塩州 사람이다. 아버지는 大將軍 李松으로, 崔怡의 門客이 되었다. 이분희와 동생 李櫛은 함께 金俊을 섬겨 金俊의 심복이 되었다. 이분희는 行首와 指諭를 거쳐 將軍에 임명되었으며, 元宗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고려사』 권123, 열전37 이분희)

③ 명종 초에 다시 散員으로 옮겼는데 李義方이 그의 이름을 듣고 불러다가 內巡檢軍指諭로 삼았다. (『고려사』 권100, 열전13 두경승)

④ 宋吉儒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잔혹하였으며, 말을 잘 하였으나 아침을 잘 했다. 卒伍 출신으로 高宗 때 최항을 아침으로 섬겨 夜別抄指諭가 되었다. (『고려사』 권122, 열전35 송길유)

⑤ 李宜風은 본래 원나라 사람으로,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 했다. 忠肅王의 嬖臣이 되어 아침저녁으로 궁궐 내에 출입하였고, 15세에 散員에 임명되었다. 일찍이 사냥을 나간 왕을 따라갔다 사슴이 왕의 행차 앞으로 달려가자 화살 하나로 쏘아 넘어뜨리니, 왕이 기뻐하며 別將行首에 임명하였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摠部典書에 임명하였으며, 여러 번 승진시켜 密直副使로 삼았다. (『고려사』 권124, 열전 37 최안도 부 이의풍)

⑥ 郎將 金利生을 紫門指諭로 삼았다. 김이생은 일찍이 北界의 병사들을 이끌고 밤에 和州城에 들어가 성 안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성을 굳게 지켰으며, 또 기습적으로 출병하여 적을 무려 1,100명이나 베었으므로 그 공으로 이 직책을 받았다. (『고려사』 권22, 高宗 14년 11월)

위의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임명권자가 지유와 행수의 직책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임명한 것은 조직의 중요성 때문인지 지유와 행수의 직책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지유와 행수의 직책이 금군이 나 야별초 등 국왕이나 무인집정이 매우 중요시 여기는 조직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경우라도 신뢰하는 인물을 임명하였다고 보아도 좋다. 금군은 국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시위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왕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조직의 지유와 행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종 21년에 벌어졌던 유시사건 당시 그 경호의 책임을 물어 견룡군과 순검군의 지유 14인이 유배를 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sup>53)</sup> 또한 고종 17년 9월에 왕이 묘통사에 행차하였는데 이 때 御駕가 절의 문밖에 이르렀을 때 말이 놀라 왕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어사대사 왕유가 견룡행수로서 호가를 근면이 하지 않아서 하옥하려고 하자 어사대부 차척은 단지 견룡 2명만을 하옥하였다.<sup>54)</sup> 이와 같이 국왕의 목숨을 담보하는 시위의 책임을 지유나 행수에게 물었다는 점에서 그 직책의 임명에 충성심과 신뢰성 등이 우선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E-①은 송의의 아들인 송화가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몽고로 도망하자 탈출하여 고려로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결국 아버지가 두렵기에 보고하여 몽고로 가게 되었다. 송화는 어려서부터 기마격구를 익혀 격구 막대를 다루는 솜씨가 원의 황제가 幻術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났다. 그가 황제를 설득하여 고려로 돌아오자 원종이 기뻐서 어견룡행수로 삼았고 이후 중금지유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송화의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원종의 마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며, 여러 관직 중에 어견룡행수와 중금지유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충성심뿐만 아니라 그의 뛰어난 격구실력, 즉 무예실력 때문이기도 하였다고 생각된다. 국왕의 시변을 호위하는 금군의 행수와 지유에는 이와 같은 인물들이 임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53) 王如奉恩寺 夜還 至觀風樓 敦中馬素不調 聞鉦鼓聲益驚 突觸一騎士 矢房矢躍出 落輦傍 敦中不遑自首 王驚愕 以爲流矢 以儀衛徹扇擁輦 疾馳還宮 宮城戒嚴 命有司榜街市購捕 逮者甚衆 王疑大寧侯暉家僮羅彥等所爲 酷加鞫問 誣服 遂斬之 又以禁衛不謹 流牽龍·巡檢指諭等十四人(『고려사』 권98, 열전11 김부식 부 김돈중)

54) 『고려사』 권22, 고종 17년 9월.

E-②에 보이는 이분희는 염주사람으로 그의 아버지가 죄이의 문객이었다. 이분희와 그의 동생은 죄이를 제거하고 무인집정이 된 김준의 심복이었다. 이분희는 행수와 지유를 거쳐 장군의 지위에 올랐으며, 원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행수와 지유를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인집정인 김준의 신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원종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지유와 행수 직에 있으면서 임금을 시위하는 일을 충실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E-③이의방이 두경승의 명성을 듣고 불러다가 內巡檢軍指諭에 임명한 것은 내순검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긴 것이다. 내순검군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앞서 설명한 의종 21년에 발생했던 유시사건을 계기로 순검군을 대신하여 부병 가운데 정예한 군사들을 선발하여 새로 만든 시위부대였다. 그들은 항상 자색 옷을 입고 칼을 지닌 채 눈비도 피하지 않고 밤이면 순찰하여 새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서 그 부대의 충성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의 지유에 그가 신뢰하던 두경승을 선발한 것이다. 이처럼 무신란으로 권력이 무인에게 돌아가자 금군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위부대나 핵심 군사력의 행수나 지유에 무인집정이 직접 선발하기도 하였다.

E-④는 송길유가 당시 최씨정권의 집정자인 최항을 아첨으로 섬겨서 야별초지유가 되었다고 한다. 그가 야별초의 지휘관인 지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최항의 신뢰 때문이었다. 여기서 아첨이라고 하지만 최항에게는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을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최씨정권의 핵심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야별초의 지휘를 책임지는 指諭에 그를 임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E-⑤는 이의풍이 원래는 원나라 사람인데, 활쏘기와 말타기는 무예에 뛰어났다. 그는 충숙왕이 총애하는 신하였으며, 왕을 따라 사냥을 나갔다가 왕을 향해 뛰어오는 사슴을 활로 쏘아 맞춘 일로 왕이 기뻐하며 행수로 임명하였다고 한다. 그가 별장으로서 행수직에 임명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총애 때문이며, 또한 활쏘기와 말타기 등 뛰어난 무사적 재질도 그 이유였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E-⑥은 낭장 金利生이 紫門指諭로 임명된 사실인데, 그는 북계의 병사를 이끌고 화주성에 들어가 성민들과 함께 성을 지키던 중 기습적으로 출격하여 적을 1,100명이나 베었으며, 그 공으로 자문지유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가 자문지유가 된 것은 1,100의 적을 죽일 정도로 무예와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이 국왕이 활동하는 궁전으로 직결되는 자문을 경비하는 자문의 책임자인 지유에 임명될 수 있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국왕과 지근거리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지유나 행수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임명되고 싶어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사료는 이와 관련하여 참고될 것이다.

F- 낭장 崔宗彦은 공주의 유모에게 의뢰하여 견룡행수가 되었다. 周鼎이 낭장 金禧로써 그를 대신하였다. (김)희의 형인 儀와 曹淳도 또한 낭장으로써 행수가 되었으며 모두 주정의 姻婭였다. 이 때 一門에 三行首라고 불리었다. (『고려사』 권104, 열전 7 김주정)

F 사료의 낭장 최종언이 공주의 유모에게 부탁하여 견룡행수가 되었으나 (김)주정이 자신의 姻婭였던 金禧로서 대신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인척인 金儀와 曹淳까지 行首가 되게 하였는데, 당시 부르기를 한 가문에 3行首라고 하였다고 한다. 한 가문에 3명의 행수가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만큼 행수 직은 당시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指諭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수의 상위 직책이었기 때문에 行首 못지않은 선망의 직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유와 행수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앞서 든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유와 행수에는 주로 낭장 이하의 중하급 무관들이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군 이상이 지유와 행수의 직을 역임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려사』 권72, 여복지 의위조의 서·남경을 순행할 때의 衛仗에 관한 설명이 참고된다.

G- 巡檢左右府에는 영도장이 2명(방각을 쓰고 자의를 입으며 칼을 들고 기를 들며 말을 탄다), 指諭가 6명(郎將과 別將, 散員이 交差하며 의복과 차고 있는 것은 위와 같다), 군사는 150명이다(靑紫衣를 입고 兵仗器를 든다). (『고려사』 권72, 지26 여복1 의위조)

위의 G기록을 보면 순검좌우부가 서·남경을 순행할 때의 衛仗에 수행하는데, 그 지휘관을 설명하는 내용에 영도장이 2명이며, 지유가 6명이고, 군사가 150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유 6명을 설명하는 細註에 낭장과 별장, 산원이 교차한다고 하고 있다. 즉 지유에 낭장, 별장, 산원이 교대로 차정된다는 것으로 지유 직에는 낭장이나 별장, 산원이 임명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검군의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금군인 견룡군, 내순검군, 중금군, 도지금, 백갑군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들었던 사례들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무신란을 주도했던 이의방과 이고가 散員으로서 견룡행수였으며, 杜景升이 이의방에 의해 내순검군 지유에 보임되었을 때 그는 정8품 散員의 무관직에 있었다. 정중부의 사위였던 宋有仁도 散員으로 있다가 태자부의 지유가 되었다. 김취려도 오(별)장이 되었다가 몇 년 안 되어 견룡행수와 어견룡행수를 거쳐 태자부지유에 임명되었다고 한데서도 별장의 무반 품계를 가지고 행수와 지유의 직을 역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들었던 사료 E그룹에 나오는 이의풍과 김이생도 마찬가지였다. 이의풍도 충숙왕에 의해 별장으로서 행수에 임명되었으며, 김이생이

자문지유에 임명되었을 때도 낭장이었다. F 사료의 낭장 최종유와 낭장 김희를 비롯하여 김의, 조순이 모두 낭장으로서 행수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여러 실제 사례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지유와 행수에는 낭장, 별장, 산원 등의 무관직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위나 대정은 지유와 행수에 임명된 사례가 없다.

지유와 행수는 2군 6위의 중앙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직책으로 주로 별무반, 금군, 야별초, 초맹반 등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중앙군이 약화되는 시기에 나타난 부대들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었다. 이들의 지휘체계는 도령-지유 또는 지유-행수로 이루어졌다. 지유와 행수가 금군을 지휘하는 직위였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가까웠으며, 무반품계는 비교적 높지 않았으나 특수임무를 띤 단위부대의 지휘관으로써 국왕이나 무인집정과 밀접하였다. 이들의 출현이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고려 군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지유와 행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지유와 행수는 주로 건룡군, 중금군, 도지군, 백갑군, 내순검군 등 금군에 설치된 직책이었다. 그리고 별무반을 구성하던 신기반, 신보반, 도탕반, 강노반, 사궁반, 석투반, 발화반 등의 부대에는 도령과 지유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금군에는 지유와 행수가 편제된 반면 별무반에는 도령과 지유가 설치되어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위부대의 편성규모에서 오는 차이라고 이해하였다. 지유와 행수는 무반 품직과는 구별되는

보직의 개념이었다. 이들 금군은 그 규모가 중앙군의 편제에 비해 많지 않았다. 금군 이외에도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인 자문에도 경비를 관장하는 자문지유가 설치되었다.

금군은 전룡군, 중금군, 도지군, 백갑군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견룡반, 중금반, 도지반, 백갑반으로도 표현되었다. 별무반의 구성부대가 ‘반’으로 편제된 점과 금군의 견룡반, 중금반, 도지반 등이 ‘반’으로 그렇게 된 것은 공통점이었다. 이는 2군 6위의 중앙군 편제와는 달랐던 점이다. 따라서 ‘반’으로 편제된 특수한 임무를 맡은 부대에는 편제 규모에 따라 도령-지유 체계와 지유-행수 체계로 나누었다고 이해하였다. 최우가 만들었던 야별초에도 도령과 지유가 설치되어 있었다. 야별초행수의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어 존재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야별초 역시 2군 6위의 정규군과 구별되어 별도로 만들어진 부대였다. 별초도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도령-지유체계였을 것이다. 별무반이 5군의 전투편제에 편성되어 있었고 도령-지유 편제로 짜여 있었던 점에서 볼 때 야별초도 전투를 위해 조직된 부대였다는 점에서 도령-지유체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위국초맹반도 조위총의 난에 군사들이 많이 동원되어 시위군졸이 부족하자 400명을 더 선발하여 만들었다. 400명 정도로 만들어진 위국초맹반도 편성이 ‘반’으로 되어 있었으며 위국초맹반 행수가 실제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아 여기에도 지유와 행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임금을 시위하는 역할을 한 보마배에도 지유와 행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밖에 군사 조직과 관계없는 공장 조직에도 지유와 행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소속 공장 조직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유와 행수가 대부분 금군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서 임금의 시위나 경호책임, 紫門 같은 궁궐문의 경비, 궁왕의 주변에서 직속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한편 비상시나 외침시에 병력을 직접 거느리고 출동하여 군사작전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무신란 당시 이의방, 이고가

견룡행수로서 임금의 교지라고 속여 순검군을 지휘한 사실 등에서 군사를 직접 이끌고 작전을 실행하는 임무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인정권시기 최우가 만든 야별초는 도령이나 지유 등이 집정의 명령을 받고 주요 전투에 나가 군사를 이끌고 직접 작전을 펴는 임무를 맡았다.

지유와 행수가 주로 금군과 별무반, 야별초 등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무의 중요성에서 볼 때 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과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금군의 경우는 국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변호위를 맡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한편 별무반이나 야별초 등은 전투에서 특수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부대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사적 재질도 뛰어나야 했다. 이러한 용력은 당연히 전제되는 조건이었다.

지유와 행수에 임명되는 무반품계를 보면 대부분 장군을 비롯하여 그 이상의 고위 무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개 낭장, 별장, 산원 등 중하위 무관직자들이 여기에 임명되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대부분의 사례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일한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도령-지유-행수의 직책에 따라 그 지휘 관계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지유와 행수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살필 수 있었던데 일부나마 만족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

[원고투고일: 2016.7.30, 심사수정일: 2016.11.18,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지유(指諭), 행수(行首), 도령(都領), 금군(禁軍), 별무반(別武班), 야별초(夜別抄), 위국초맹반(衛國抄猛班), 반(班), 자문(紫門)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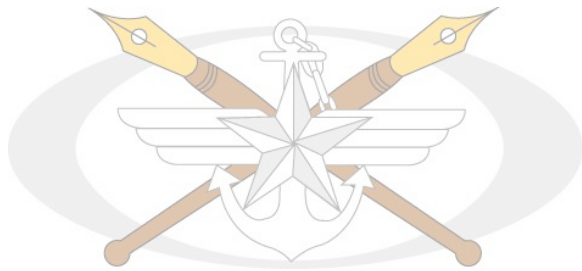
## The research on the military positions, “Jiyu” and “Haengsu” in the Goryeo Dynasty

Kim, Nak-Jin

The terminologies ‘Jiyu’ and ‘Haengsu’ were the officer titles specially created for Geum-gun, the royal forces. They were positions rather than military ranks. The position Jiyu was also found in the special forces such as the guard to keep the main gate to the palace security. In addition, there were Jiyu in Byeolmuban and Yabeolcho. Byeolmuban was the special forces established in order to pacify the Yeojin tribes in the northern region. Yabeolcho was originally formed by Choi Woo, the leader of the military regime in the Goryeo Dynasty, to prevent theft cases. It also conducted many things such as the arrest of criminals, violence prevention, jail control, criminal interrogations and VIP protection and so on. None of them were part of the Goryeo's regular forces, I-gun and Yukwi. As most Jiyu and Haengsu belonged to Geum-gun, their main mission was providing security services to the king. Therefore, those who swore their loyalty to the king only were allowed to hold the positions, Jiyu and Haengsu. Most of them were recruited from the middle or low-ranking military officers such as Nangjang, Byeoljang and Sanwon.

Key words : Jiyu, Haengsu, Byeolmuban, Geum-gun, Yabeolcho





# 고려 태조 왕건의 기병 운영에 대한 검토

김명진\*

1. 머리글
2. 군마(軍馬)의 수급형태
3. 기병(騎兵)의 실상
4. 기병(騎兵)의 실전상황
5. 맺음글

## 1. 머리글

통일고려(統一高麗)를 완성한 태조(太祖) 왕건(王建)은 전쟁수행 능력이 탁월하였는데, 그 주요 수단 중 하나가 우수한 기병(騎兵)의 운영이었다. 그는 877년(신라 헌강왕 3)에 태어나 스무 살 때(896, 신라진성여왕 10)부터 본격적으로 전쟁터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리고 898년(신라 효공왕 2)에 궁예(弓裔)가 왕건을 정기대감(精騎大監)으로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0183).

임명하였다.<sup>1)</sup> 왕건은 원래 기병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왕건이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 주요 상대는 견훤(甄萱)의 후백제(後百濟, 당시 명칭은 백제)였다. 따라서 전쟁사(戰爭史) 측면에서 이 시기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sup>2)</sup> 선행연구 성과에 힘입어 고려 통일전쟁에 대한 윤곽은 그려져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왕건이 수행한 고려 통일전쟁의 주요 수단에 대해서는 풀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다. 최근 왕건의 질자운영(其人其人)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지만,<sup>3)</sup> 기병 운영과 수군 운영 같은 전쟁의 직접적인 수단에 대한 천착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전쟁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그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왕건의 통일전쟁에서 큰 파괴력을 지녔던 기병 운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보려 한다. 먼저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군마(軍馬)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기병의 실상, 즉 기병이 어떤 종류로 존재했는지 분류작업을 하려한다. 끝으로 기병의 실전상황을 그려보면서 통일전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해하고자한다. 이 글의 시간적 공간은 주로 신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든 진성여왕대부터 왕건의 재위기간까지이다. 소략한 사료로 인한 연구의 제약은 관련 사료를 비교 검토하고 선행연구 성과를 참고하면 다소 극복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기병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당시 기병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을 답사

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2) 이 시기 전쟁을 왕건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 - 류영철, 『高麗와 後百濟의 爭覇過程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김명진, 『高麗 太祖 王建의 統一戰爭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궁예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 - 신성재,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견훤의 입장에서 서술한 연구 -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2008.

3)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質子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2013.

하여 실상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 글이 고려 통일전쟁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2. 군마(軍馬)의 수급형태

고려 태조 왕건은 일찍부터 말(馬)과 인연을 맺어 왔다. 먼저 『고려사』 고려세계(高麗世系)에 의하면, 풍수지리사상을 집대성한 도선(道詵)이 왕건의 부친인 세조(용건, 왕륜)에게 마두명당(馬頭明堂)자리를 점지해 주었다고 한다. 이에 세조는 말머리(馬頭)에 해당하는 명당자리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태어난(877년) 이가 왕건이라고 한다. 세조는 풍수도참설을 신봉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고려세계에서는 도선이 17세가 된 왕건에게 전쟁에 나가 진을 칠 때 유리한 지형과 적합한 시기를 선택하는 법 등등을 알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소 과장되어 있지만 왕건이 어릴 적부터 전쟁수행에 필요한 여러 전법을 공부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수행한 통일전쟁의 전장(戰場)은 크게 육지와 바다로 구분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육지와 바다가 모두 전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육지가 전장인 육전(陸戰)에서 큰 살상력을 가진 병력은 기병이었다. 당시 기병은 현대전의 탱크와 같은 육전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이었다. 기병은 말과 군인의 결합, 즉 군마(軍馬)<sup>4)</sup>와 전투 장비를 갖춘 병사로 결합되었다. 그리고 기병은 잘 훈련된 군마의 수급이 기본 필수 조건이었다.

4) 전쟁에 쓰이는 말은 전마(戰馬, 전투마)가 있고, 말의 범주에 나귀(驢)와 노새(騾)가 있었다(『고려사』 권82, 병지2, 마정). 전마뿐만 아니라 나귀와 노새도 전쟁 수행 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수송용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미로서 전마보다 군마(軍馬)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먼저 왕건이 수행한 통일전쟁기 고려군의 군마 수급형태는 어떠한  
 을까 궁금하다. 물론 초기 고려군 군마는 궁예 정권의 군마 상당부분  
 을 그대로 취하였을 것이다.<sup>5)</sup> 그 이후 어떠한 과정 속에서 고려군은  
 군마를 취했을 것이지 살펴보자. 당시 군마의 수급은 크게 3가지 형  
 태가 있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자체조달·전쟁노획물·외부로부터 평  
 화적으로 들여오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자체조달에 대해서 몇 가지  
 추적이 가능하다. 고려가 들어서기 이전에 신라에서는 진골부터 일부  
 일반 백성까지 심지어 여성까지도 말을 타는 경우가 있었다.

가) 4두품 여성부터 백성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안장은 자단·침향·황양목·해  
 나무의 사용을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한다. 안장 언치  
 와 안장 깔개는 수놓은 비단(계수금라縵繡錦羅)·기늘고 성긴 비단(세리總羅)  
 ·무늬 비단(릉綾)·호피의 사용을 금한다. 말재갈(합銜)과 등자(등鐙)는 금·  
 은·놋쇠의 사용을 금하고, 또한 금·은으로 장식하는 것도 금한다. 말다래(장  
 니障泥)는 가죽만을 사용하며, 가슴걸이와 밀치는 수놓은 줄과 자색 분으로  
 아롱무늬를 넣은 끈의 사용을 금한다.<sup>6)</sup>

위의 사료에 의하면, 신라인들은 일반 백성의 여성까지도 말에 대  
 한 규제가 있었다. 특히 말재갈(합銜)·등자(등鐙)·말다래(장니障泥)  
 에 대한 기술은 이 규제가 말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물론 모  
 든 백성들이 말을 타지는 않았겠지만, 일정 수의 여성까지도 일상  
 에서 말을 타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인 금성(경주)의 일부  
 여성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를 통해 고려의 개국  
 초에도 말은 어느 정도 일상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민가의 말들이 유사시에는 군마로 전용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5) 원래 궁예의 기병 모태는 복원(강원도 원주)의 지역세력인 양길의 기병이었다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5년 동10월).

6) 『삼국사기』 권33, 잡지2, 거기, “四頭品女至百姓女 鞍橋禁紫檀沈香黃楊槐 又禁飾金  
 銀玉 鞍鞞鞍坐子禁縵繡錦羅總羅綾虎皮 銜鐙禁金銀鍍石 又禁飾金銀 障泥但用皮 鞞  
 鞞禁組及紫粉量條”.

군마라 해서 모두 빠른 기동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수송용 군마는 일상에서 길들여진 민가의 말들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유사시에 민가의 말 중에서 우량마(優良馬)는 전마(戰馬)로, 보통마(普通馬)는 수송용으로 징발한다면 군마 조달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 사육 경험이 있는 민가에 군마를 위탁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태조대에 궁궐에서 쓰는 말을 키우던 궁궐 마구간으로서 내구(內廄)와 외구(外廄)가 있었다.<sup>7)</sup> 그런가하면 교통·통신 조직인 역(驛)에서도 어느 정도의 말을 사육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역이 공무를 위해 말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통일전쟁시기에 군령(軍令) 전달과 군수(軍需) 보급에 역이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야 했다.<sup>8)</sup> 각각의 역이 제 역할을 수행함에 일정 수의 말을 보유하고 있었다. 936년(태조 19) 2월에 견훤의 사위 박영규가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 의사를 밝혔다. 같은 해 9월에 박영규가 귀부해오는데 왕건은 그에게 역마(驛馬) 35필을 이용하여 집안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였다고 한다.<sup>9)</sup> 이처럼 역에서는 일정 수의 말 관리 및 사육을 했던 것이다.

패강진(溟江鎭, 황해도 평산)은 신라 선덕왕 3년(782)에 설치된 군진인데,<sup>10)</sup> 후에 궁예에 의해서 접수되었다.<sup>11)</sup> 그러다가 왕건이 궁예를

7) 『고려사』 권93, 열전6, 최승로 시무계28조; 『고려사절요』 권2, 성종문의대왕, 임오 원년 6월, 최승로 시무28조.

8) 태조대는 통일 달성과 북방경계 강화를 위해 신속한 군령 전달과 군수 보급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교통 분야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높아졌다(한정훈, 『高麗時代 交通과 租稅運送體系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2쪽). 여기에 당시 역의 역할이 있었다.

9) 『고려사』 권92, 열전5, 박영규.

10)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외관, 패강진전. 패강진은 황해도 평산으로 유추된다(전덕재, 「新羅 下代 溟江鎭의 設置와 그 性格」, 『大丘史學』 113, 대구사학회, 2013, 37쪽 참고).

11) 궁예가 패강진 일대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건녕(乾寧) 원년(894) 이후의 일이라고 추정된다(『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건녕 원년).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함에 이 지역은 왕건의 영역이 되었다. 패강진의 군관들은 그 명칭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 두상대감 1명·대감 7명·두상제감 1명·제감 1명·보감(步監) 1명·소감 6명 등이 있었다.<sup>12)</sup> 이 중에서 보감은 1명뿐인데, 보감은 자의(字意)로 보아 보병 군관이라 하겠다. 그런데 신라의 병종(兵種)이 보병과 기병으로 분류되었음을 생각할 때, 패강진 군관들 명칭 중에서 보감이 특기되어 있으니 나머지 군관들은 대부분 기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sup>13)</sup> 하지만 이들 중에는 보급 같은 업무와 관련된 군관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하더라도 기병과 관련된 군관이 많았을 가능성은 있다 하겠다. 따라서 패강진에는 많은 수의 군마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군마들이 궁예에게 접수되고, 그 뒤에 왕건의 고려 군마가 되었던 것이다.

고려군 군마의 자체조달 중에서 많은 수는 목장에서 사육하여 조달하였다. 이는 『고려사』 병지 마정(馬政)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나) 여러 목장은 용양(龍驤)[황주(黃州)]·농서(隴西)[동주(洞州)]·은천(銀川)[백주(白州)]·양란(羊欄)[개성(開城)]·좌목(左牧)[정주(貞州)]·회인(懷仁)[청주(淸州)]·상자원(常慈院)[견주(見州)]·엽호현(葉戶峴)[광주(廣州)]·강음(江陰)·동주(東州)에 있다.<sup>14)</sup>

위와 같이 마정에 등장하는 말 목장은 수도 개경(개성)의 주변 또는 내륙지대였다. 그런데 여기에 섬 목장이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섬 목장이 태조대에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sup>15)</sup>

12)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외관, 패강진전.

13) 이기동, 「新羅 下代の 湏江鎮 -高麗王朝의 成立과 關聯하여-, 『韓國學報』 4, 일지사, 1976, 9~13쪽.

14) 『고려사』 권82, 병지2, 마정, “諸牧場 龍驤(黃州) 隴西(洞州) 銀川(白州) 羊欄(開城) 左牧(貞州) 懷仁(淸州) 常慈院(見州) 葉戶峴(廣州) 江陰 東州”.

15) 신라가 섬 목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건국 초에도 섬 목장이 다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신라의 섬 목장에 대해서는, 서영교, 「張保皐의 騎兵과 西南海岸

다) (932년 9월에) 견훤이 일길찬 상귀(相貴)를 시켜 수군을 거느리고 예성강으로 쳐들어와서 염주(鹽州)·백주(白州)·정주(貞州) 등 세 고을의 배 1백 척을 불사르고 제산도(猪山島, 저산도) 목장에 있는 말 3백 필을 가져갔다.<sup>16)</sup>

위의 내용에 의하면, 제산도(저산도, 황해남도 은천군 대항면 제도리猪島里)<sup>17)</sup>에 고려의 말 목장이 있었다한다. 후백제가 약탈해간 말의 수가 3백 필이라고 했으니 섬 목장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개경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밖의 섬에도 목장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sup>18)</sup> 이처럼 고려는 육지와 섬에서 말 목장을 운영하여 필요한 군마를 수급하였다. 다만 나주 서남해의 섬들에서는 후백제에게 약탈당할 수 있는 약점이 있었으므로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섬에서는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섬 목장을 운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섬은 그 자체가 마치 바다올타리로 둘러싸인 듯한 곳이고, 백사장이 있다면 말을 훈련시킬 수도 있었기

의 牧場, 『震檀學報』 94, 진단학회, 2002 참고. 고려 태조대 섬 목장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도영, 「高麗時代의 馬政」,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 효성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65, 15쪽;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293쪽 주1196 참고.

- 1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9월, “甄萱遣一吉粲相貴 以舟師入侵禮成江 焚塩白貞三州船一百艘 取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 17) 저산도는 황해도 지도이고, 간척되어 육지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황해도, 안악군, 산천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 1, 세가1』, 경인문화사, 2008, 150쪽 주4 ; 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 편보유』 1, 경인문화사, 2014, 290쪽 참고.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는 대동강하류에 있는 이곳을 돼지처럼 생긴 섬에 위치했다하여 제도리(猪島里, 원래는 제도동)로 표기하고 있다(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9황해남도②, 평화문제연구소, 2006, 326~327쪽·360쪽). 그런가하면 남한에서 돼지고기 요리인 진육(猪肉)볶음을 재육볶음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저산도와 지도는 원래 제산도와 제도로 불리어졌다고 추정된다.
- 18) 후백제 견훤이 왕건에게 절영도(絶影島, 부산 영도)의 좋은 말 한 필을 선물로 보낸 적이 있는데(『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7년 8월), 이를 통해서 후백제도 섬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섬에서 말을 기르는 것은 보편적인 사육방법이었다.



때문에 말 목장 경영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전쟁노획물로서의 군마수급이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자의 군사물자는 승자의 것이었는데 사람과 군마는 최고의 노획물이었다. 사람은 회유해서 군사로 쓰거나 노비로 부릴 수 있었다. 군마는 그대로 승자의 군마로 전용할 수 있었다. 사료 다)에서 견훤의 행동은 군마를 노획물로 가져간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대로부터 군마를 가져오면 아군의 기병 전력은 보강되지만 그만큼 상대의 기병 군사력은 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1필의 군마 노획물은 그 효과가 2필이 되는 셈이다. 왕건도 견훤처럼 군마를 노획물로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 (921년 2월에) 달고적 171명이 신라를 침공하려고, 가는 도중에 등주(登州, 강원도 안변)를 통과하였다. 장군 견권(堅權)이 이를 가로막아 크게 격파하여 말 한 필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태조가) 명령하여 공로 있는 자들에게 곡식 50석씩 주게 하였다. 신라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사절을 보내 사의를 표하였다.<sup>19)</sup>

위의 전투 내용은 921년 2월에 발발한 등주전투(강원도 안변)에 관한 것이다. 장군 견권이 말갈계통인 달고적을 섬멸하였다. 달고적 171명은 모두 기병으로 추정되는데 고려군에 의해 전멸되었다. 이 전투가 끝난 후에 북쪽으로 말이 단 한 필도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 말을 고려군이 다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말은 전투과정에서 죽기도 했겠지만 일부는 고려가 전쟁노획물로 취했으리라 여겨진다.

고려의 군마 수급 방법의 그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 평화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입·선물·수입·차용(借用) 등의 형태가 있었다. 고려의 북쪽에 있었던 발해는 잘 알려져 있듯이 926년에 멸망했는데, 그 전후로 고려에 많은 발해인들이 유입되었다. 대표적인

1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4년 춘2월, “達姑狄百七十一人侵新羅 道由登州 將軍堅權邀擊大敗之 匹馬無還者 命賜有功者 穀人五十石 新羅王聞之 喜遣使來謝”.

예를 들면, 934년(태조 17) 7월에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에 내투(來投)하였다.<sup>20)</sup> 또한 말갈 계통인 제번(諸蕃)도 고려로 내투하였다.<sup>21)</sup> 이때 사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유입인구와 더불어 그들의 말들이 고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의 북방에서 온 이들은 말과 친연성이 높은 부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은 당시 최고의 선물이었다. 다음은 그 명확한 사례들이다.

마)-① (918년 가을 7월) 청주(靑州)의 영군장군(領軍將軍) 견금(堅金)과 부장(副將) 연익(連翬)·흥현(興鉉)이 와서 뵈자, (고려 태조 왕건이) 각기 말한 필씩을 내려 주고 능백을 차등 있게 주었다.<sup>22)</sup>

마)-② (924년 가을 8월) 견훤이 사절을 보내와 절영도(絶影島, 부산 영도)의 총마 한필을 (왕건에게) 바쳤다.<sup>23)</sup>

마)-③ (926년 여름 4월) 견훤이 절영도의 명마(名馬)가 (고려에) 이르면 (후)백제가 망하리라는 도참설을 듣고서 이때서야 후회하며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 달라고 청하니 왕(왕건)이 웃으며 허락했다.<sup>24)</sup>

마)-④ (931년 가을 8월, 왕건이) 보윤(甫尹) 선규(善規) 등을 보내어 신라 왕에게 안장을 갖춘 말과 능라와 채색 비단을 선사하고, ……<sup>25)</sup>

마)-⑤ (932년, 공직에게) …… 태조(왕건)가 기뻐하여 대상에 임명했으며, 백성군을 녹읍으로 주고 (궁중) 마구간 말 3필과 채색 비단을 주었다.<sup>26)</sup>

20)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7년 추7월.

21) 제번의 고려 내투에 대한 몇 사례를 간단히 찾아보면, 921년 2월의 흑수(黑水) 추장 고자라(高子羅)가 데리고 내투한 170명, 같은 해 4월의 흑수 아어한(阿於間)이 데리고 내투한 200명 등이 있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4년 2월과 4월). 당시 제번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156~171쪽 참고.

22)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인 원년 추7월, “靑州領軍將軍 堅金 副將 連翬 興鉉 來見 各賜馬一匹 綾帛有差”.

2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7년 8월, “甄萱遣使 來獻絶影島驄馬一匹”.

2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9년 하4월, “萱聞讖云 絶影名馬至 百濟亡 至是悔之 使人請還其馬 王笑而許之”.

2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4년 추8월 계축, “遣甫尹善規等 遺羅王鞍馬綾羅綵錦 ……”.

26) 『고려사』 권92, 열전5, 공직, “太祖十五年 …… 太祖喜 拜大相 賜白城郡祿 廐馬三

마)-⑥ (935년 여름 6월, 왕건은) 견훤이 도착하자 다시 칭호를 상보(尙父)라 하고 …… 아울러 …… (궁중) 마구간 말 10필을 주었으며, ……<sup>27)</sup>  
 마)-⑦ (939년, 왕건이 최승로에게) …… 안장을 갖춘 말과 예식(例食) 20석을 주었다.<sup>28)</sup>

이상에서처럼 당시 말이 선물로 사용되는 예가 많았다. 주로 국왕이 타국 왕이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역세력 및 총애하는 신하에게 말 선물을 하였다. 견훤도 마)-②처럼 924년에 왕건에게 말 선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서 918년에 오월국(吳越國)에 말을 진상한 적이 있었다.<sup>29)</sup> 심지어 마)-③에 의하면, 명마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도참설까지 있었으니 당대에 말의 가치는 대단하였다. 따라서 말은 당대 최고의 선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922년(태조 5) 봄 2월에 거란에서 고려로 낙타 선물을 보내왔다.<sup>30)</sup> 942년(태조 25) 겨울 10월에도 거란이 낙타 50필을 고려에 선물로 보내왔다.<sup>31)</sup> 낙타는 말의 대용내지는 그 이상의 효용가치가 있는 동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건대 고려에 말이 여러 경로에서 선물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높다하겠다.

다음은 고려의 말 수입 여부이다. 태조 왕건대에 말을 수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그의 아들인 정종대에는 말을 수입했던 장면이 포착된다.

匹 彩帛”.

2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8년 하6월, “及至復稱萱爲尙父 …… 兼賜 …… 廐馬十四 ……”.

28) 『고려사절요』 권2, 성종문의대왕, 기축 8년 5월, “…… 賜鞍馬例食二十碩”.

29)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정명 4년.

3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5년 춘2월.

3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25년 동10월.

바) (948년 가을 9월에) 동여진(東女眞)의 대광 소무개(蘇無蓋) 등이 와서 말 7백 필과 토산물을 바쳤다. 왕(정종)이 천덕전(天德殿)에 나와서 말을 검열하고 3등으로 구분하여 그 값을 평정하였는데 1등 말은 은주전자 1개·무늬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1필이요, 2등은 은바리때 1개·무늬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1필이요, 3등은 무늬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1필이었다.<sup>32)</sup>

위의 내용은 정종 3년인 948년 9월의 일이었다. 언뜻 보면 말갈의 후예인 동여진에서 말과 토산물을 고려 조정에 선물로 바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종이 말의 값을 헤아리는 모습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말 수입의 실무를 고려왕이 직접 챙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말값은 은과 비단으로 계산하였다. 이때가 불과 태조 왕건 사후 5년 뒤에 있었던 일이므로 왕건대에도 외부로부터 말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기병이 강세인 말갈·여진의 말이기에 동여진으로부터 수입한 말은 대부분 군마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종이 말을 3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고려군 군마는 3등급 분류가 일반적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다음은 말 차용, 즉 말을 빌린 경우가 있었는가이다.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936년(태조 19) 9월의 일리천전투에 참전한 흑수(黑水)·달고(達姑)·철륵(鐵勒)의 제번경기(諸蕃勁騎) 9,500명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sup>33)</sup> 제번경기란, 말갈계통의 군세고 강한 기병들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태조 왕건이 여진의 말 1만 필을 빌려서(후)백제를 평정하였다는 기사가 참고된다.<sup>34)</sup> 이 기사에서 빌린 말

32)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3년 추9월, “東女眞大匡蘇無蓋等來 獻馬七百匹及方物 王御天德殿 閱馬爲三等 評定其價 馬一等 銀注子一事 錦絹各一匹 二等 銀鉢一事 錦絹各一匹 三等 錦絹各一匹”.

33)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34) 程大昌, 『演繁露』續集1, 「高麗境望」, “(章)僚之使也 會女眞獻馬於麗 其人僅百餘輩 在市商物 價不相中 輒引弓擬人 人莫敢向則 其强悍有素 麗不能誰何矣 麗主王建 嘗資其馬萬疋 以平百濟”. 이 자료는 959년(南唐 李璟 때, 高麗 光宗 10) 고

1만 필이라는 것은 제번정기 9,500명을 말하는 것이다. 왕건은 나름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로 제번정기 9,500명을 빌려서 일리천전투 승리의 한 동인(動因)으로 삼았었다.<sup>35)</sup> 이는 명확한 말 차용의 사례였다.

그리고 말을 이동시킬 때는 육로와 해로가 이용되었다. 육로의 이동은 당연한 것이고, 해로의 이동은 말을 배에 싣고 다녔다. 상황에 따라 많은 말 또는 기병을 이동시킬 수 있는 대형 선박도 있었다. 왕건이 궁예의 장수로 있던 시기에 나주를 갈 때, 배 1백여 척을 건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배 10여 척은 말이 달릴 만하였다(치마馳馬)는 내용이 있다<sup>36)</sup>

당시 고려군 군마의 전체적인 관리는 비룡성(飛龍省) 또는 태복시(太僕寺)와 군사기구인 순군부·병부, 그리고 각 군(軍) 등에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7)</sup> 태봉 때에 말 관리 관청으로 비룡성이 있었는데 『삼국사기』 궁예전에 의하면, 이 비룡성이 지금의 천복시(天僕寺)라 하였다.<sup>38)</sup> 천복시는 태복시(太僕寺/太僕寺)의 오기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비룡성이 그대로 왕건의 고려 정부로 이어졌을 것인데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다른 명칭을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려에 사신으로 파견된 南唐의 如京使 章僚(?-?)가 지은 고려 건문기인 『海外使程廣記』의 일부분을 程大昌(1123~1195)이 인용한 것이다(장동익,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2000, 80~82쪽). 한편 이를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간단히 여진에서 말 1만 필을 수입했다고 언급한 견해들도 있었다(今西龍 遺著, 『朝鮮史の槩』, 京城 近澤書店, 1935, 139쪽; 이용범, 「麗丹貿易考」, 『東國史學』 3, 동국사학회, 1955, 27쪽; 김광수, 「高麗建國期の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 『史叢』 21·22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7, 146쪽). 그러나 정대창(程大昌)이 인용한 내용에 의하면, 여진의 말 1만 필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164~165쪽).

35) 일리천전투에 대해서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一利川戰鬪와 諸蕃勁騎」, 『한국중세사연구』 25, 한국중세사학회, 2008 참고.

3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37) 고려의 말 관리 중앙조직에 대해서는, 남도영, 앞의 「高麗時代의 馬政」, 1965, 382~391쪽 참고.

38)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현종대인 1028년(현종 19)에 태복경(太僕卿)이라는 관직이 보이고,<sup>39)</sup> 『고려사』백관지에는 문종대에 태복시(태복시)가 보인다.<sup>40)</sup> 이는 태조에서 현종 사이의 어느 때에 비룡성이 태복시로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비룡성(태복시)과 각 목장에는 감시임무를 맡던 군사인 간수군(看守軍)이 배치되었으며 그 책임자는 장교(將校)였다.<sup>41)</sup> 비룡성(태복시)의 태조대 책임자 직책은 알 수 없지만, 문종대에는 정3품 판사(判事)가 있었다.<sup>42)</sup> 각 목장의 책임자로는 목감(牧監)이 있었을 것이다.<sup>43)</sup>

요컨대 통일전쟁기에 고려군의 군마 수급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 자체조달(민가에서 조달, 내구(內廩)와 외구(外廩)에서 사육, 역(驛)·진(鎭)에서 조달, 말 목장 경영), 전쟁노획물, 외부로부터 평화적으로 들여오는 방법(발해인과 제번 등의 귀부로 인한 유입, 선물, 수입, 차용) 등이 그것이다.<sup>44)</sup> 특히 지리적으로 말 유입에 편리한 북방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려는 기병을 키우기에 유리한

39) 『고려사절요』 권3, 현종원문대왕, 무진 19년 11월.

40)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사복시.

41) 『고려사』 권83, 지37, 병3, 간수군 ; 남도영, 앞의 「高麗時代の馬政」, 1965, 391쪽.

42)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사복시.

43) 『고려사』 권83, 지37, 병3, 간수군 ; 남도영, 앞의 「高麗時代の馬政」, 1965, 391쪽.

44) 한편, 고려 군마와 관련해서 승려들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찾아진다. 다음 내용을 보자. “마점사(馬占寺), 모두 왕자산(王字山)에 있다. 고려 태조(왕건)가 말을 머물게 했으므로 이름을 마점이라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천안군, 불우 - 馬占寺 俱在王字山 高麗太祖駐馬因名馬占)”. 왕건이 새로운 충청지역의 거점으로 천안부(天安府, 천안도독부, 충남 천안)를 설치했던 때가 930년 8월이었다. 이때 왕건은 천안의 진산(鎭山)인 왕자산(태조산)에 올라 주변을 살피고 동·서도솔(東·西兜率)을 합하여 천안부를 설치하였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3년 8월 ;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천안부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천안군, 건치연혁·형승·산천). 마점사는 그 왕자산에 있었으므로, 왕건이 마점사에서 머물렀을 때는 아마도 930년 8월 이후의 어느 때라고 여겨진다. 이는 왕건이 수행한 통일전쟁에서 불교계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특히 말과 관련된 것이기에 주목된다. 고려 군마(軍馬)의 보살핌에 승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천안부 설치 배경 검토」, 『천안향토연구』 2, 천안시서북구문화원, 2015, 140~141쪽). 하지만 사찰에서 군마 조달에 일조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후백제는 말의 외부 유입이 어려웠으므로 기병 육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후백제가 929년 무렵부터 보병 정예부대인 갑사부대(甲士部隊)를 중시한 것도 바로 말 수급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한다.<sup>45)</sup> 갑사부대에 대해서는 4장에서 기술하려한다. 통일전쟁의 막바지에 양국의 주력부대가 말 수급 상황 때문에 그 성격이 달랐던 것이다.

고려 통일전쟁기에 고려군 군마의 총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3장에서 제시하겠지만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 전투이면서 총력전이었던 936년(태조 19) 9월의 일리천전투<sup>46)</sup> 자료를 통해서 가늠할 수는 있다. 이때 동원된 고려군의 말을 탄 군사수는 외래 병사인 제번경기(諸蕃勁騎)를 제외하고, 마군(馬軍) 4만 명과 기병(騎兵) 3백 명이었다. 여기에 개경(개성)과 서경(평양)·천안부(천안도독부, 충남 천안)<sup>47)</sup> 등 주요 거점에 군마를 가지고 있는 예비 병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경우까지도 상정할 수 있다. 이상은 전마(戰馬, 전투마)였다. 또한 여러 곳의 말 목장에 있는 번식용 종마(種馬)와 잡다한 군사 업무에 동원할 수 있는 나귀·노새까지도 생각한다면 당시 고려군 군마의 총수는 대략 5만 필 이내가 아닐까한다.

### 3. 기병(騎兵)의 실상

고려 통일전쟁기 고려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육군

45) 견훤이 천성 4년(929)의 의성부전투와 청태 원년(934)의 운주전투에서 보병인 갑사부대(갑병甲兵, 갑사甲士)를 동원한 내용이 확인된다(『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견훤의 갑사부대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軍史』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200~201쪽 참고.

46)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47) 일리천전투의 준비작업을 했던 곳이 천안부였다.

은 다시 보병과 기병으로 나뉘어 있었다. 기병은 보병과 짝을 이루는 육군의 가장 기본적인 병종(兵種)이었다. 태조대 기병은 그 시기가 전쟁이었던 만큼 다양하게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왕건이 개국할 적에 기병은 그의 군사기반이었다. 898년(신라 효공왕 2)에 궁예(弓裔)가 왕건을 정기대감(精騎大監)으로 임명하였다.<sup>48)</sup> 왕건의 군 출발은 기병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궁예정권 하에서 기병 지휘관인 왕건의 활약상이 명확히 드러났던 전투는 상주사화진전투(경북 상주)였다. 906년에 궁예는 왕건으로 하여금 정기장군(精騎將軍) 금식(黔式) 등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게 하여 상주 사화진으로 출정시켰다. 이 전투에서 왕건은 견훤과 여러 번 싸워 이겼다.<sup>49)</sup>

이후 시간이 흘러 궁예가 실정(失政)을 하자, 왕건은 그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왕건이 거사할 적에 그를 추대한 개국 일등공신 4인방도 모두 기병장군(騎兵將軍)들이었다. 이들은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을 말한다. 918년 6월 을묘일 밤에 이들 기병장군들이 주동이 되어 궁예를 몰아냈다. 그 다음날인 병진일에 왕건은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sup>50)</sup> 왕건은 그 자신이 기병 지휘관이었으며 그를 추대한 것도 기병 지휘관이었으니 고려 건국과정에 기병의 위상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고려 통일전쟁기의 기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는데 제일 상위에 마군(馬軍)이 있었다. 그런데 마군은 어떠한 기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병력이었다. 그 실태를 알려주는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마군은 가장 질(質)이 우수하고 전투장비(戰鬪裝備)를 많이 필요로 했던 기병이 아닐까한다. 그 이유는 제일 상위에 있었기 때문이다.<sup>51)</sup> 개국 4인방과 견줘지는 인물이 유금필인데 그는 왕건을 섬겨

4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4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5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원년 하6월.

51) 이기백, 「高麗 軍人考」,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1968, 90쪽 참고.



마군장군(馬軍將軍)이 되었다.<sup>52)</sup> 유금필의 사례를 보아도 마군은 기병 중에서 상위에 속한다 하겠다. 아마도 개국 4인방도 마군장군이었다고 생각된다.

마군의 실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른 기병들의 실상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936년(태조 19) 9월에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격돌한 통일전쟁의 마지막 전투인 일리천전투(경북 구미)에 대한 사료이다.

사) 왕(왕건)이 삼군을 거느리고 천안부(충남 천안)에 이르러서 병력을 합쳐 일선군(경북 구미)으로 나아가니 신검이 병력으로써 이에 대항하였다. 갑오일에 일리천을 사이에 두고 (양군이) 진을 쳤다. 왕은 견훤(甄萱)과 함께 군사를 사열하였다.

(왕이) 견훤을 비롯하여 대상 건권·술희·황보급산, 원운 강유영 등은 마군(馬軍) 1만을 거느리게 하고 지천군 대장군 원운 능달·기연·한순명·흔악, 정조 영직·광세 등은 보군(步軍) 1만을 거느리게 하여 좌강(左綱)을 삼았으며, 대상 김철·홍유·박수경, 원보 연주, 원운 횡량 등은 마군 1만을 거느리게 하고 보천군 대장군 원운 삼순·준량, 정조 영유·길강충·흔계 등은 보군 1만을 거느리게 하여 우강(右綱)을 삼았으며, 명주 대광 왕순희, 대상 궁준·왕렴·왕예, 원보 인일 등은 마군 2만을 거느리게 하고 대상 유금필, 원운 관무·관현 등은 흑수(黑水)·달고(達姑)·철록(鐵勒) 등 제번경기(諸蕃勁騎) 9천 5백을 거느리게 하고 우천군 대장군 원운 정순·정조 애진 등은 보군 1천을 거느리게 하고 천무군 대장군 원운 종희·정조 견훤(見萱) 등은 보군 1천을 거느리게 하고 간천군 대장군 김극중·원보 조간 등은 보군 1천을 거느리게 하여 중군(中軍)으로 삼았다. 대장군 대상 공훤·원운 능필, 장군 왕함운 등은 기병(騎兵) 3백과 여러 성들에서 온 군사 1만 4천 7백을 따로 떼어서(예父) 거느리게 하여 삼군의 원병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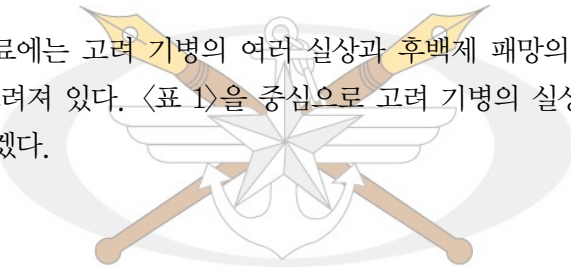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하여) 북을 울리면서 전진하였다. (이때에) 갑자기 창검 형상으로 된 흰 구름이 우리 군사가 있는 상공에서 일어나 적진 쪽으로 떠갔다. (후) 백제 좌장군 효봉·덕술·애술·명길 등 4명이 (고려의) 병세가 굉장한 것을 보더니 투구를 벗고 창을 던져 버린 다음 견훤이 타고 있는 말 앞에 와서

52)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향복하였다. 이에 적병의 사기가 상실되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왕이 효봉 등을 위로하고 신검의 있는 곳을 물었다. 효봉 등이 말하기를, “(신검이) 중군에 있으니 좌우로 들이치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대장군 공훤에게 명령하여 (후백제) 중군을 곧추 (찌르듯이) 치게 하고는 삼군이 일제히 나가면서 맹렬하게 공격하니 적병이 크게 패하였다. (그리하여 후백제) 장군 혼강·견달·은술·금식·우봉 등을 비롯하여 3천 2백 명을 사로잡고 5천 7백 명의 목을 베었다. 적들은 창끝을 돌려 저희들끼리 서로 공격하였다. 우리 군사가 (적을) 추격하여 황산군(黃山郡)까지 이르렀다가 탄령(炭嶺)을 넘어 마성(馬城)에 주둔하였다. 신검이 자기 아우들인 청주(靑州, 경남 진주) 성주 양검, 광주 성주 용검과 문무관료(文武官僚)들을 데리고 와서 향복하였다. …… 이에 견훤은 근심과 번민으로 악창이 나서 수일 만에 황산(黃山) 절간에서 죽었다.<sup>53)</sup>

위의 사료에는 고려 기병의 여러 실상과 후백제 패망의 마지막 순간이 잘 그려져 있다. <표 1>을 중심으로 고려 기병의 실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53)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王率三軍 至天安府合兵 進次一善郡 神劍以兵逆之 甲午 隔一利川而陣 王與甄萱觀兵 以萱及大相堅權 述希 皇甫金山 元尹康柔英等 領馬軍一萬 支天軍大將軍元尹能達 奇言 韓順明 昕岳 正朝英直 廣世等 領步軍一萬 爲左綱 大相金鐵 洪儒 朴守卿 元甫連珠 元尹萱良等 領馬軍一萬 補天軍大將軍元尹三順 俊良 正朝英儒 吉康忠 昕繼等 領步軍一萬 爲右綱 溟州大匡王順式 大相兢俊 王廉 王父 元甫仁一等 領馬軍二萬 大相庾黔弼 元尹官茂 官憲等 領黑水 達姑 鐵勒 諸蕃勁騎九千五百 祐天軍大將軍元尹貞順 正朝哀珍等 領步軍一千 天武軍大將軍元尹宗熙 正朝見萱等 領步軍一千 杆天軍大將軍金克宗 元甫助杆等 領步軍一千 爲中軍 又以大將軍大相公萱 元尹能弼 將軍王含允等 領騎兵三百 諸城軍一萬四千七百 爲三軍援兵 鼓行而前 忽有白雲狀如劍戟 起我師上 向賊陣行 百濟左將軍孝奉 德述 哀述 明吉等四人 見兵勢大盛 免胄投戈 降于甄萱馬前 於是賊兵喪氣 不敢動 王勞孝奉等 問神劍所在 孝奉等曰 在中軍 左右夾擊破之必矣 王命大將軍公萱 直擣中軍 三軍齊進奮擊 賊兵大潰 虜將軍听康 見達 殷述 今式 又奉等三千二百人 斬五千七百餘級 賊倒戈相攻 我師追至黃山郡 踰炭嶺 駐營馬城 神劍與其弟靑州城主良劍 光州城主龍劍 及文武官僚 來降 …… 於是甄萱憂懣發疽 數日卒于黃山佛舍”.

〈표 1〉 일리천전투에 참가한 고려군의 편제<sup>54)</sup>

부대분류		지휘관		구성병력	비고		
		이름	관계				
3군	좌강	상급지휘	견훤(甄萱)		마군 1만		
			견권	대상(4품)			
			술희	대상			
			황보금산	대상			
	하급지휘	하급지휘	강유영	원윤(6품)	보군 1만	지천군 대장군 支天軍 大將軍	
			능달	원윤			
			기언	원윤			
			한순명	원윤			
	우강	상급지휘	흔악	원윤	마군 1만		
			영직	정조(7품)			
			광세	정조			
			김철	대상			
		하급지휘	하급지휘	홍유	대상	보군 1만	보천군 대장군 補天軍 大將軍
				박수경	대상		
				연주	원보(4품)		
				현량	원윤		
				상순	원윤		
				조량	원윤		
중군	상급지휘	유금필	대상	마군 2만			
		관무	원윤				
		관현	원윤				
		정순	원윤				
	하급지휘	하급지휘	애진	정조	보군 1천	우천군 대장군 祐天軍 大將軍	
			중희	원윤			
			견훤(眞萱)	정조	보군 1천	천무군 대장군 天武軍 大將軍	
			김극중				
			조간	원보	보군 1천	간천군 대장군 杆天軍 大將軍	
			공훤	대상			
원병	원병	능필	원윤	기병 3백, 여러 성들에서 온 군사 1만 4천 7백	공훤·능필(대장군), 왕함윤(장군)		
		왕함윤					

총수 : 87,500명

54) 사료 사)를 기본으로 하고, 류영철, 「一利川戰鬪와 高麗의 통일」,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211~212쪽의 <표 13>과 김갑동,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0, 178쪽 <표 1>참고.

〈표 1〉을 보면, 고려군은 크게 3개의 부대와 원병으로 나뉘어져 있다. 좌강·우강·중군의 3군(三軍)과 원병(援兵)이 그것이다. 대체로 이들 부대에는 마군과 보군이 적절히 섞여 있었다. 왕건을 제외한 지휘관으로는 견훤을 포함하여 38명의 이름이 보인다. 4개 부대의 병력 수는 마군(馬軍) 4만 명, 보군(步軍) 2만 3천 명, 군세고 날랜 기병인 경기(勁騎) 9천 5백, 그리고 기병(騎兵) 3백을 포함한 원병(援兵) 1만 5천 명이었다. 총수는 8만 7천 5백에 이르고 있다. 왕건의 통일전쟁기에 가장 많은 수의 군사가 동원되었던 것이다.<sup>55)</sup>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숫자는 마군 4만 명이었다. 고려군의 총력전에서 마군의 비중이 제일 높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원병에는 기병 3백 명이 있었는데, 그 지휘관은 대장군 공훤이었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선봉이었다고 한다.<sup>56)</sup> 마군이 있는데 선봉은 원병인 공훤의 부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료 사)에서 “대장군 대상 공훤·원운 능필, 장군 왕함운 등은 기병 3백과 여러 성들에서 온 군사 1만 4천 7백을 따로 떼어서 거느리게 하여 삼군의 원병으로 삼았다”<sup>57)</sup>는 내용이 특별하다. 왕건은 이들을 따로 떼어서(예父) 원병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기병 3백은 선제 타격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기병 3백은 최고 날래고 용감한 기병인 정기(精騎)였을 것이다.

그리고 흑수(黑水)·달고(達姑)·철륵(鐵勒) 등 말갈계통의 지원군은 제번경기(諸蕃勁騎)로 표현되고 있었다. 북방에서 온 외래 병사 제번 경기의 숫자가 9천 5백 명이었으니 당시 실정에 비추어 매우 많은 인원이 참전하였다. 경기(勁騎)는 그 자의(字意)가 알려주듯이 군세고 날랜 공격력을 가진 최정예 기병이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기술할

55)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201~205쪽.

56)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천복 원년 추9월.

57) “父以大將軍大相公萱 元尹能弼 將軍王舍允等 領騎兵三百諸城軍一萬四千七百 爲三軍援兵”

제2차 운주전투에서도 고려군의 경기를 찾아 볼 수 있다.

대체로 당시 기병의 종류는 마군(馬軍)·정기(精騎)·경기(勁騎), 그리고 이 외에 일반기병<sup>58)</sup> 등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료(史)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이들 간의 엄격한 구별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각 전투에 따라서 마군 또는 일반기병 등으로 그 역할을 맡겼을 것이다.

#### 4. 기병(騎兵)의 실전상황

고려군의 기병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몇 있다. 먼저 2장의 사료(史)와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sup>59)</sup>을 합하여 살펴보면, 고려 태조 4년(921) 봄 2월에 말갈의 달고적 17명이 신라를 침범하였다. 이들이 등주(강원도 안변)를 지나는데 삭주(강원도 춘천)를 지키고 있던 고려 장수 견권이 기병을 거느리고 쳐서 크게 깨뜨렸다. 기병인 달고적은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고 전멸하였다한다. 고려군 기병의 위력을 잘 보여준 사례 중의 하나가 등주전투의 기병전이었다. 고려 기병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적 기병에 대해서는 즉시 타격하여 섬멸하였던 것이다.

태조 8년(925) 10월에 왕건은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금필(庾黔弼)을 보내어 후백제의 연산진(燕山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을 쳐서 장군(將軍) 길환(吉奩)을 죽였다.<sup>60)</sup> 연산진·연산군·일모산성은

58) 이 글에서는 마군·정기·경기처럼 주요 역할 내지는 임무를 부여 받지 않은 기병을 일반기병으로 이름하였다. 예를 들면, 수레를 끄는 기병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59)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5년 2월.

60)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유 8년 10월.

같은 곳이었다. 이 연산진에서 유금필이 장군 길환을 죽였다고 했는데, 태조 11년(928) 정월에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편지글에 “연산군 경계에서 길환을 군전(軍前)에서 참(斬)하였다”라는 내용<sup>61)</sup>이 보인다. 이는 연산진, 즉 일모산성의 성주로 생각되는 장군 길환을 진영 앞에서 목 베었다고 읽혀진다. 따라서 유금필은 일모산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하고 성 밖에서 길환을 죽이는 성과만 올렸던 것이다. 이것이 제1차 일모산성전투(연산진전투)였다.<sup>62)</sup>

이때 유금필은 많은 수의 기병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는 이 전투가 끝나고 바로 같은 달에 임존군(충남 예산)을 공격하여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또한 그는 역시 같은 달에 조물군(경북)에서도 활약을 하였다.<sup>63)</sup> 10월 한 달 동안에 세 군데서 전투를 치른 그 빠른 기동력과 임존군에서의 전과로 보아 유금필은 많은 수의 기병을 인솔했다고 판단된다.<sup>64)</sup> 같은 달에 충북과 충남 그리고 경북지역까지 3군데의 전장을 오가며 큰 활약을 한 유금필의 휘하 군사는 기병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전과를 올리는 것이 가능했으리라 여겨진다. 만약 보병이었다면 이러한 속전속결은 불가능하였다. 유금필이 원래 마군장군이었던 것도<sup>65)</sup> 이러한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고려군은 기병을 통한 빠른 기동력으로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고려군 기병에게 장애요인은 없었을까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공산동수전투(대구)와 제2차 운주전투(충남 홍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sup>66)</sup> 927년(태조 10) 9월에 후백제왕 견훤은 신라 도성인

61)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자 11년 정월.

62) 일모산성전투는 1차부터 3차까지 총 3차례 발발하였다. 일모산성전투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참고.

63)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을유 8년 10월.

64)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2012, 77~78쪽.

65)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금성(경북 경주)을 기습 공격하였다. 신라 경애왕은 사망하고 금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왕건은 직접 정기(精騎) 5천 명을 거느리고 공산 동수(대구 팔공산)에서 견훤과 크게 전투를 벌였으나 결과는 고려군의 참패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명장 신승겸과 김락까지 전사하였으니 처참한 패배였던 것이다. 이것이 공산동수전투였다.<sup>67)</sup>

공산동수전투는 신라 구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급히 달려온 왕건의 대표적인 실패 전투였다. 아무리 정예 기병인 정기 5천 명이라 할지라도 급하게 달려온 상태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후백제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또한 팔공산은 여러 산자락을 가지고 있는 큰 범위의 산지이다. 따라서 이곳은 기병만 가지고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산자락에서의 기병은 그 본연의 위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점을 왕건은 깊이 유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술 실패라 하겠다.

다음은 제2차 운주전투에서 기병의 장애요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아) (934년 가을 9월)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를 정벌하려 하니, 견훤이 이 소식을 듣고 갑사(甲士) 5천 명을 선발하여 (운주에) 이르러 말하기를, “양편의 군사가 서로 싸우면 형세를 보전하지 못하겠소. 무지한 병졸이 살상을 많이 당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기 국경을 보전합시다” 하였다. 왕이 여러 장수를 모아 의논하니 우장군(右將軍) 유금필(庾黔弼)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형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임금께서는 신들이 적을 쳐부수는 것만 보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저 편에서 진(陣)을 치기 전에 군세고 날랜 기병(경기勁騎) 수천 명으로 돌격하여 3천여 명을 목베거나 사로잡고, 술사(術士) 종훈(宗訓)과 의사(醫師) 훈겸(訓謙)과 용명한 장수 상달(尙達)·최필(崔弼)을 사로잡으니, 웅진(熊津) 이북의 30여 성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sup>68)</sup>

66) 운주전투는 1차와 2차 총 2차례 발발하였다. 운주전투에 대해서는,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2015 참고.

6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이상의 내용은 제2차 운주전투의 실전상황이었다. 왕건은 934년(태조 17) 9월 제2차 운주전투에 직접 참여하였다. 고려군은 왕이 참여하는 정벌이면서 충남지역의 중요 접경지역인 운주(충남 홍성)를 취하기 위한 작전이었기에 최정예부대였다. 굳세고 날랜 기병인 경기(勁騎) 수천 명이 포함된 병력이었다. 운주전투 시 고려군은 유금필을 우장군(右將軍)이라고 했으니 좌강·우강·중군의 3군 체제였다고 이해된다. 경기가 수천 명이었으므로 운주에 온 고려군 총 숫자는 최소 5천 명 이상이 아닐까한다.

그러나 견훤이 직접 이끌고 있는 후백제군도 막강하였다. 비록 견훤이 먼저 화친을 제의했지만 왕건도 여러 장수들과 회의를 하면서 근심하는 모양새였다. 사료 아)에 나타나는 후백제의 갑사(甲士) 5천 명은 갑졸(甲卒)·갑병(甲兵) 5천 명과 같은 의미였다. 갑졸(갑사)은 갑옷을 입은 사졸(士卒), 곧 보병을 지칭하였다.<sup>69)</sup> 이와 관련하여 5년 전에 의성부에서 중요한 전투가 있었다. 견훤이 929년(태조 12) 7월에 의성부를 공격하여 그 성주·장군 홍술(洪術)을 전사시켰는데 이때 동원된 후백제군이 갑졸 5천 명이였다.<sup>70)</sup> 이는 후백제군 갑졸 5천 명이 정예부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홍술은 923년 11월에 갑옷(개鎧) 30벌을 왕건에게 헌상하였다.<sup>71)</sup> 따라서 홍술도 나름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런데도 후백제 갑졸부대에 목숨을 빼앗겼던 것이다. 그만큼 후백제군 갑졸의 전력이 뛰어났었다.

68)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7년 추9월, “王自將征運州 甄萱聞之 簡甲士五千至曰 兩軍相鬪 勢不俱全 恐無知之卒 多被殺傷 宜結和親 各保封境 王會諸將議之 右將軍庾黔弼曰 今日之勢 不容不戰 願王 觀臣等破敵 勿憂也 及彼未陣 以勁騎數千 突擊之 斬獲三千餘級 擒術士宗訓 醫師訓謙 勇將尙達 崔弼 熊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69) 갑졸에 대해서는, 『淮南子』의 내용을 인용 소개한 장동익, 『고려사세가초기편보유』 1, 경인문화사, 2014, 253쪽 참고.

7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2년 7월.

7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6년 11월.



의성부전투 당시의 갑졸이나 운주전투 시 갑사나 단어의 뜻이 같고 병사의 숫자도 같으므로 이들은 동일한 전투부대였다. 그리고 운주전투의 후백제군은 심리전에 관여했을 술사와 군의관인 의사를 대동했으며, 그 주요 지휘관 중에는 용장(勇將)이라 일컫는 상달과 최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대가 견훤의 최정예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갑사(갑졸, 갑병)는 보병인데 고려군의 경기와 맞먹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병은 기병 그것도 정예기병인 경기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왕건은 후백제의 ‘갑사부대(甲士部隊)’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 갑사부대는 경기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찍이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기 전에 신라군으로 종군하며 자면서도 창을 베고(침과枕戈) 적을 대비했다고 한다.<sup>72)</sup> 또한 신라는 긴 창을 다루는 부대인 비금서당(緋衿誓幢, 장창당長槍幢)을 보유하고 있었다.<sup>73)</sup> 아마도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후에 신라의 장창부대를 자기화했다고 여겨진다. 그는 갑옷으로 무장한 보병 중에서 장창(長槍)을 소지한 인원을 일정 정도 포함시켜 적 기병을 무력화하는 전술에 능하지 않았나싶다.

긴 창을 질러대는 후백제 갑사부대를 향해 고려군 경기의 말들이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다. 따라서 경기 수천 명을 대동한 왕건이 머뭇거리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해된다. 후백제도 비록 갑옷으로 무장하고 장창을 소지했지만 고려군의 경기가 너무 많고 강해보여서 머뭇거렸던 것이다. 양측이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군은 유급필의 주도아래 후백제의 갑사부대가 진(陣)을 치기 전에 먼저 타격을 가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보병인 후백제 갑사부대는 진을 치기 전에 고려군의 타격을 받으면 그 진용이 흐트러졌을 것이고, 그런 후에 연이은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이었다. 만약 후백

72)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73)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구서당. 신라의 장창당에 대해서는, 서영교,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慶州史學』 17, 경주사학회, 1998 참고.

제군이 진을 먼저 갖추었다면 결과는 예측불허였을 것이다. 후백제군이 진을 갖추고 장창으로 막아섰다면 유금필의 경기도 함부로 나설 수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런 전투가 가능하려면 유금필과 그 경기(勁騎)는 엄청난 속도로 내달려야 했으며, 지형조건은 평지여야 했다. 따라서 운주성 일대의 평지에서 양측이 격돌했는데<sup>74)</sup> 선제공격을 감행한 고려군의 경기가 승리했다고 전투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sup>75)</sup> 고려군 기병의 장애요인은 후백제 장창부대였지만, 고려군 기병은 선제 타격으로 이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 제2차 운주전투에서 패배한 견훤은 재기불능에 빠지고 말았다. 후백제는 이 전투의 실패 이후로 2년 만에 국가의 문을 닫고 말았기 때문이다.<sup>76)</sup>

한편, 기병은 아니지만 기병의 작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었다. 바로 역리(驛吏)가 그러한 존재였다. 운주전투 현장 인근에 있었던 몽웅역(夢熊驛)<sup>77)</sup>의 역리 한씨(韓氏)가 이에 해당된다. 충남 서산과 태안 쪽에서 고려 통일전쟁기에 가장 주목받은 곳은 정해현(貞海縣, 충남 서산시 해미면)이었다. (정해현은) “세간에 전하기를 태조 때에 몽웅역의 역리였던 한씨 성을 가진 자가 큰 공로가 있어 대광(大匡)의 호를 내리고, 고구현(高丘縣)의 땅을 나누어 이 현을 설치하여 그의 관향으로 삼게 하였다”<sup>78)</sup>고 한다. 한씨에게 수여된 대광이라는 관계는 당시 지역민에게 주어진 것으로서는 최고의 대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몽웅역 인근에서 벌어진 운주전투에

74) 운주성은 현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주읍성의 모태인데(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2015, 183~184쪽), 그 일대에 기병진을 펼칠 수 있는 평지가 있다(2015년 6월 29일 답사).

75) 제2차 운주전투의 고려군 기병 활약상에 대해서는, 김명진, 위의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2015, 199~201쪽 인용.

76)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29쪽.

77) 현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 -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85쪽.

78)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홍주 정해현.

서 한씨가 고려군에 큰 도움을 주었기에 대광 관계를 수여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sup>79)</sup> 역리인 한씨가 역마(驛馬)를 이용하여 운주전투에서 고려군에게 무언가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군령(軍令) 전달과 군수(軍需) 보급은 물론이고, 적에 대한 정탐·진군로에 대한 안내·기병들의 말먹이 보충 등이 한씨가 했을 공로가 아닐까한다.

무엇보다도 고려 기병의 실전상황이 잘 나타난 전투는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인 936년 9월에 발발한 일리천전투(경북 구미)였다. 이 전투는 고려 통일전쟁기에 가장 많은 수의 군사와 군마가 동원된 총력전이었다. 그 시기는 군량미 조달을 위해서 음력 9월이었다. 이때가 군량미 확보와 군사 동원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80)</sup> 뿐만 아니라 말먹이를 위해서도 그러하였다. 왕건은 이 전투의 준비 작업을 위해서 선발대를 3개월 전에 보냈다. 936년 6월에 천안부로 보기(步騎) 1만을 먼저 보낸 것은 바로 그 사전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준비작업의 책임자는 다음 왕위 계승자인 정윤(正胤) 무(武, 혜종)와 박술희였다.<sup>81)</sup>

일리천전투의 실전상황이 잘 기술되어 있는 앞장에서 제시한 사료(사)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표 1>에 의하면, 3군에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이 적절히 섞여있었다. 특히 좌강과 우강은 각각 마군 1만과 보군 1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말 탄 병사 1명과 보병 1명의 1대1 구성이었다. 여기에 어떠한 전술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함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927년에 산지로 구성되어 있었던 공산동수의 전투에서 기병만 가지고 전투에 임한 왕건이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934년 운주전투에서 고려 기병은 후백제 갑사부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뻔하였다. 따라서 왕건은 고려군 기병에 대한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을

79)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2012, 26~27쪽.

80) 김명진, 앞의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2014, 192쪽.

8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6월.

찾고자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마군과 보군이 같이 움직이는 전술을 생각해낸 것이다.<sup>82)</sup>

고려 마군이 빠르게 전진할 때에 보군 병사는 마군 병사의 말위에 얹혀 타고 갈 수 있다. 한 필의 말에 두 명이 이동하는 것이다. 반대로 마군이 후백제군 또는 지형적 요건으로 인하여 장애를 받아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말에서 내린 보군 병사가 장애 요인을 해결해 준다. 적이 장창(長槍)을 소지한 갑사부대라면 보군이 같이 응대해 줄 수 있다. 그런가하면 지형적으로 군마가 전진함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이 역시 보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마군이 서행할 적에는 보군이 뛰면서 칼과 창을 이용하여 마군이 할 수 없는 상황의 적을 타격할 수도 있다. 왕건은 이러한 전술을 위해 알리천전투의 좌강과 우강은 1(마군)대1(보군) 구성을 했다고 추정된다. 이 같은 1(마군)대1(보군) 전술은 선발대 보기(步騎) 1만을 보낸 천안부에서 이미 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군은 1대1 구성에 못 미치는데 이는 제변경기라는 특이한 군사 때문이었다. 여기에 원병의 존재가 어우러진 이유가 있었다.

마군과 함께한 보군 지휘관의 명칭이 이러한 추정의 사실성에 힘을 실어준다. 이들 지휘관인 대장군에게는 마군 못지않다는 의미에서 하늘의 군대인 천군(天軍)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sup>83)</sup> 천군은 신성성과 자부심, 그리고 하늘의 명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sup>84)</sup> 천군이라는 자부심은 보군 병사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각 천군 대장군과 그 휘하 보군에게는 특정 임무가 주어졌다. 좌강 지천군 대장군(支天軍 大將軍)의 지천군과 우강 보천군 대장군(補天軍

82) 기병과 보병이 섞인 효과적인 전술에 대한 이해는, 서영교, 「新羅 騎兵隊 五州摺 附屬 步兵」, 『경주문화연구』 6, 2003 참고.

83) 한정수, 「高麗 太祖代 八關會 設行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8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218쪽 참고.

84) 정경현, 「경군」,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2003, 278~279쪽 참고.

大將軍)의 보천군은 각각 마군을 지원(支援)하고 보좌(補佐)한다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역할이 같은 것이다. 중군의 우천군 대장군(祐天軍 大將軍)의 우천군도 돕는다(祐)는 의미이니 지천군·보천군과 같은 역할이었다.

그런데 중군의 천무군 대장군(天武軍 大將軍)의 천무군과 간천군 대장군(杆天軍 大將軍)의 간천군은 임무가 달랐다. 천무군은 용맹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무(武)라는 자의(字意)로 보아 보병 돌격부대였을 것이다. 간천군은 방패(간杆)를 가지고 있는 방어에 능한 부대였다고 여겨진다. 대체로 마군의 지휘관보다 보군의 지휘관 관계가 낮았기에 이처럼 보군의 역할이 주로 마군을 보좌했다고 이해된다. 이는 무리한 추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휘관의 관계는 앞장의 <표 1>에 나열하였다.

사료 사)와 『삼국사기』 견훤전에 의하면,<sup>85)</sup> 대장군 공훤이 원병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후백제군을 찌르듯이 강타했다(직도直擣)고 한다. 물론 공훤이 맨 앞에 이끌고 간 것은 원병의 기병 3백이었을 것이다. 이는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적을 초기에 무력화 시키는 기병전술의 모범이라 하겠다. 그런 다음 바로 이어서 제번경기가 포함된 중군이 연타하고 좌우강이 협공하는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때 좌우강의 보군은 마군을 적극 보좌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기병 전술로서 고려군이 승리를 쟁취했다고 전체 전투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왕건이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제번경기 9,500명을 선봉에 세우지 않고 원병 기병 3백 명을 선봉으로 세운 이유가 궁금하다. 아마도 전투가 끝난 뒤에 발생할 이 전투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생각했을 것이다. 외부세력인 제번경기가 일등 공적을 갖는다는 것은 왕건에게 부담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고려군의 자주성 문제가

85)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천복 원년 추9월.

있었다. 고려의 통일전쟁에 고려군이 솔선수범해야 이 전쟁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기병 전술에서 장애요인은 공산동수전투에서 경험했던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장애와 운주전투에서 경험했던 후백제의 장창을 소지한 감사부대였다. 하지만 고려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리천전투에서 1(마군)대1(보군) 협조체제와 기병 300명의 선공술(先攻術)을 이용하여 성공하였다. 요컨대 통일전쟁기의 마지막전투인 936년 일리천전투에서의 고려군 승인의 중요한 동력은 효과적인 기병운영이었다. 결과는 왕건이 이끈 고려군의 대승이었다.

## 5. 맺음글

통일고려(統一高麗)를 완성한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에게 효과적인 기병 운영은 통일전쟁 승인의 큰 자산이 되었다. 이에 대한 본 연구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고려군의 군마(軍馬) 수급 방법은 세 유형이 있었다. 자체조달〔민가에서 조달, 내구(內廩)와 외구(外廩)에서 사육, 역(驛)·진(鎭)에서 조달, 말 목장 경영〕, 전쟁노획물, 외부로부터 평화적으로 들어오는 방법〔발해인과 제번(諸蕃) 등의 귀부로 인한 유입, 선물, 수입, 차용〕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고려군 군마의 총수는 외래 병사인 제번경기(諸蕃勁騎)의 말을 제외하고, 5만 필 이내로 추정하였다. 태조대에 고려군 군마의 전체적인 관리는 비룡성(飛龍省) 또는 태복시(太僕寺)와 군사기구인 순군부·병부, 그리고 각 군(軍) 등에서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리적으로 말 유입에 편리한 북방지역을 접경지역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려는 기병을 키우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후백제는 말의 외부 유입이 어려웠으므로 기병 육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후백제가 929년 무렵부터 보병 정예부대인 갑사부대(甲士部隊)를 중시 한 것도 바로 말 수급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한다. 통일전쟁의 막바지에 양국의 주력부대가 말 수급 상황 때문에 그 성격이 달랐던 것이다.

둘째, 고려군 기병의 종류는 마군(馬軍)·정기(精騎)·경기(勁騎)·일반기병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간의 엄격한 구별은 없었다. 각 전투에 따라서 마군 또는 일반기병 등으로 그 역할을 맡겼던 것이다.

셋째, 고려군 기병의 실전 대처 능력은 이렇다. 먼저 고려군 기병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적 기병에 대해서는 즉시 타격 섬멸하였다(예, 921년 등주전투). 그리고 막강한 전력을 가진 적에게는 선제 타격을 가해 승리하였다(예, 934년 제2차 운주전투). 고려군 기병의 장애요인은 두 가지가 있었다. 지형적으로는 산악지대였고, 실전에서는 후백제의 장창(長槍)을 소지한 갑사부대(甲士部隊)였다. 따라서 왕건은 936년 9월에 후백제를 상대로 한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에서 이를 극복한 전술을 사용하였다. 왕건은 고려군의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을 1대1로 구성한 후에, 말을 탄 마군과 보병인 보군이 협력하여 기병의 장애요인을 극복하였다. 당시 원병 3백 명의 기병은 선제 타격용이었다. 결과는 왕건이 이끈 고려군의 대승이었다.

[원고투고일: 2016.5.30, 심사수정일: 2016.11.15,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왕건, 견훤, 통일전쟁, 군마(軍馬)의 수급, 기병(騎兵)의 실상, 기병(騎兵)의 실전상황, 장창(長槍), 갑사부대(甲士部隊)

<ABSTRACT>

## The study of cavalry troop operating by Wang Geon, the Founder of Goryeo Dynasty

Kim, Myeong-Jin

Through the effective employment of the cavalry units, Taejo(the founder of the country) Wanggeon was able to complete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became the ultimate winner. The Research explored herein boils down to three key areas:

First, the Goryeo dynasty secured horses with three procurement methods: purveying horses for themselves, looting horses in a battle, and bringing in horses from outside in a peaceful m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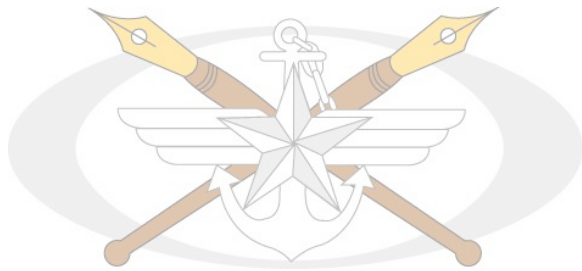
Second, the Goryeo cavalry forces included mechanized horsemen, ordinary horsemen, strong and swift horsemen, horsemen only carrying simple individual weapons, and crack horsemen.

Third, when it came to the readiness of the Goryeo cavalry units to engage in combat, they promptly dealt with the killing blow to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enemy cavalry, thus annihilating them. In addition, the Goryeo cavalry launched preemptive attacks against any enemies with formidable military capability, thereby defeating them.

The Goryeo cavalry forces, though, faced two major obstacles. One was the mountainous terrain; the other was the battle against with the Hubaekje's units armed with lance, long spear Accordingly, Wang Geon employed a tactic that allowed his army to overcome those obstacles in the Battle of Illicheon in September 936, the final battle that Goryeo engaged in on the road toward unification and that led to Wang Geon's great victory over Hubaekje.

Key words : Wang Geon, Gyeon Hwon, Unification War, Military Horse Procurement, Reality of the Cavalry, Cavalry Involved with Actual Combat Situations, Lances, Armored Units.





## 연구소 동정

###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2016년 한일 연례 군사학술 워크숍
  - 일시/장소 : '16. 10. 19(수)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일본 3명, 연구소 22명, 대외 25명)
  - 진행

13:40~13:50	개회식 (국민의례, 연구소장 인사말)
13:50~15:50	<p style="text-align: center;"><b>제1부</b> ※ 사회 : 정재정(서울시립대학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발표 : 동북아 정세의 변동과 조선군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 신주백 연세대학교(HK연구교수)</li> <li>- 토론 : 이승희(중앙대학교 교수)</li> </ul> </li> <li>○ 제2발표 : 西安事變과 主恩來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li> <li>- 토론 : 차웅환(순천대학교 교수)</li> </ul> </li> <li>○ 제3발표 : 前間期 일본육군의 미국 육군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 新福祐一(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원)</li> <li>- 토론 : 조명철(고려대학교 교수)</li> </ul> </li> </ul>
15:50~16:10	휴식 및 다과
16:10~17:30	<p style="text-align: center;"><b>제2부</b> ※ 사회 : 정재정(서울시립대학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발표 : 소련 시각에서 본 1945년 소련의 대일전 참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 이재훈(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li> <li>- 토론 :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li> </ul> </li> <li>○ 제5발표 : 시베리아 억류에 대한 일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 花田智之(일본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li> <li>- 토론 : 서상국(단국대학교 교수)</li> </ul> </li> </ul>
17:30~18:00	종합토론
18:00~20:00	만찬

○ 군사편찬연구소 발전 자문회의

- 일시/장소 : '16. 10. 20(목)/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5명 (5대 구분중, 7대 엄성일, 10대 하재평, 11대 안병한, 12대 김홍영)
- 내용 : 환담, 국민의례, 일반현황 소개, 연구소 발전 자문 등

○ 6·25전쟁 전적지 답사

일정	11. 16~18	11. 30	12. 5~6
지역	음성, 문경, 군위	춘천	다부동, 화령장
인원	전쟁사부	연구소 전직원	연구소장 등 6명

○ '16년 국방전비태세 검열 수검

- 기간/인원 : '16. 11. 24(목) ~ 11. 25(금) / 국방부 검열단 3명
- 내용 : 전·평시 연구소 임무수행 및 발전

구 분	11. 24(목)	11. 25(금)
내 용	계획분야 검열	임무(작전) 수행능력 검열

## 2. 인사이동

○ 전입

- 중령(진) 김기주 : 11. 28, 군사자료연구분석장교

○ 전직지원교육

- 중령 김진섭(국방부사담당장교) : 11. 1
- 대령 박동순(국제분쟁사부장) : 12. 1

##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자료기증안내>

#### ◇ 수집대상자료

- 전자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자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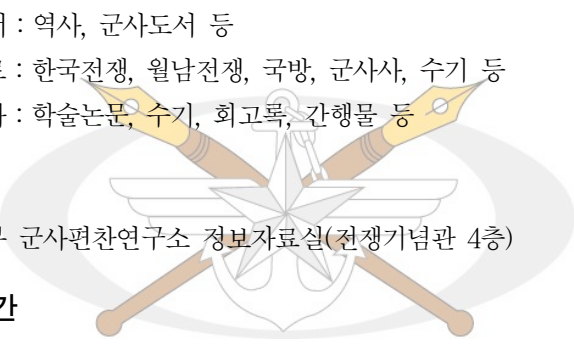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http://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軍史』誌 投稿案内

###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제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 3. 투고 요령

-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한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군사편찬연구소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 6. 문의/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정정모)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http://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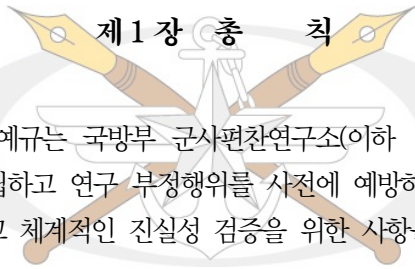
#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 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 제 3 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증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 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용달(독립기념관)	김종수(군산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이근욱(서강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이재범(경기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정용욱(서울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편집간사

정정모(군사편찬연구소)

---

**軍 史** 2016/12(第101號)

2016년 12월 9일 印刷  
2016년 12월 15일 發行

發行處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  M16110983

---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